

海南半島 馬韓 古代社會 再照明

# 해남반도 마한 고대사회 재조명

## 해남반도 마한 고대사회 재조명

초판 1쇄 발행 | 2018년 12월 20일

위 음 | 해남군·대한문화재연구원

발행처 | 해남군

발간등록번호 | 74-4930000-000040-01

본문편집 | 배원일

주 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4

전 화 | 061-530-5114

팩 스 | 061-530-5598

홈페이지 | <http://www.haenam.go.kr>

제 작 | 진인진

© 해남군 2018

ISBN 978-89-6347-396-3 93900



## 발간사

우리 해남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해남반도에 있었던 고대 마한의 역사를 새롭게 밝히는 ‘해남반도 마한 고대사회 재조명’ 책자 발간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책자 발간에 도움을 주신 권오영 백제학회 회장님과 이영철 (재)대한문화재연구원 원장님, 기조강연과 연구 발표를 해주신 교수님들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학술대회와 유적 발굴 과정에서 밝혀졌듯이 해남은 중국 대륙과 한반도, 일본 열도를 잇는 동북아시아 국제교류 무역망에서 매우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던 곳으로 마한의 역사와 문화를 마지막까지 품고 있었던 중요한 역사의 현장입니다.

또한, 최근에 우리군 화산면 안호리와 석호리에서 마한의 대표적인 묘제인 대규모 옹관묘군과 토기류, 철기류, 구슬류 등 400여 점의 부장 유물들이 발굴되면서 해남반도와 마한사회 역사적 연관성이 한층 부각되었으며, 송지면 군곡리 패총에서도 청동기시대에서 철기, 마한, 백제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다양한 유물들이 출토되어 해남반도의 역사적 위상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발굴 자원들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마한시대의 또 다른 사회상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서·남해 고대 해상세력의 국제적 역할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큼니다.

책자에서 소개된 내용대로 마한 사회의 역사적 성격, 마한 소국의 기항지(寄港地), 마한의 고분과 마을, 한반도 서남부를 비롯한 가야, 일본과의 교류 등 다양한 사료들을 통해 해남만이 가진 역사적 특수성과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마한 사회의 다양한 이야기와 흥미로운 역사자료가 발굴

되어 마한의 옛터에서 살아가고 있는 해남 군민의 자긍심은 물론, 고대 마한 역사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책자 발간을 위해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해남반도 마한 고대 사회 재조명’ 책자가 많은 분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는 자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12월  
해남군수 명현관

## 목차

발간사	_3
토론 녹취문	_9
I . 해남반도 마한사회의 역사적 성격	_28
II . 국가사적 제449호 해남 군곡리유적의 위상	_56
III . 해남반도 마한산성의 재인식	_78
IV . 해남 백포만 고대 포구세력의 존재양태	_94
V . 해남지역 마한 취락의 특징과 변화	_124
VI . 古墳時代の朝鮮半島西南部と倭の交渉における海南地域	_152
VI . 고분시대의 한반도 서남부와 왜의 교섭에서 해남지역	_178
VII . 海南半島와 加耶·新羅의 交流, 그리고 港市國家 止迷	_192





2018 국제학술대회 '해남반도 마한 고대사회 재조명' 단체사진



명현관 해남군수(해남군)



권오영 교수(백제학회장)



이영철 연구원장(대한문화재연구원)



2018 국제학술대회 '해남반도 마한 고대사회 재조명'

## 토론 녹취문

**권오영:** 예상보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기 때문에 토론자들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오늘 주제가 이틀짜리입니다. 한 가지씩만 해주십시오. 일단 정재윤 선생님에 대한 토론으로 문안식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안식:** 오늘 주제가 해남반도 마한고대사회의 재조명이라는 학술적 주제이지만 정재윤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파트는 해남반도 고대사회의 역사적 특징을 바탕으로 어떻게 문화유적, 문화유산의 활용, 보존계획을 짤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교수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 거의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이건 학술적인 문제가 아니니까 토론보다는 제가 질문자이니까 간략하게 말씀만 올리고자 합니다.

아까 이 행사를 준비한 이영철위원장님께서 군수님 앞에서 가능하면 해남 고대문화연구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 군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가능하다면 영산강 고대문화권에 해남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7년 단위로 국토종합계획을 짭니다. 2002년부터 2020년까지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단계이고, 아울러서 그에 대한 수정계획을 짜는데, 2006년부터 2020년까지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1차 수정계획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간의 핵심이 고대문화권을 특징으로 잡습니다. 가야문화권, 신라문화권, 안동유교문화권, 중원문화권, 강화고려문화권, 이렇게 짜는데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영산강고대문화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전라남도도 2006년에 영산강유역 고대문화권 특

정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한 바 있고, 거기에 따라서 약 2천억 정도의 국비와 지방비가 들어가 있는데, 올해가 전주와 나주,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전라도라는 지명이 만들어진 지 천년이 되는 '전라도 정명 천년'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대선 공약 때 전라도 정명 천년 기념 영산강 고대 문화자원 개발, 그리고 글로벌한 마한문화촌 조성



이 대통령 공약에 다행스럽게도 들어갔는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축하할 일이고, 경사스런 일이지만 가야지역에 대한 조사 및 활용에 대해서는 아직은 미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산명동서일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계획 속에서 그 공약을 영산강유역권 행정협의회가 중심이 되어서 짰고, 그것이 대통령 공약에 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전라남도에서는 7천억 정도의 종합계획을 짰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주에서 해남이 잘 포함이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영철 원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라서 우리 해남지역에 마한문화권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국정계획에 따라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는 2020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을 다시 짜니까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그 역사의 시원은 1996년인가요? 1997년인가요? 여기 계시는 임영진 교수님께서 영산강 유역의 마한문화에 대한 새로운 논문을 발표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25년쯤 됐으니까 이제 그것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법정 계획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여러 선생님께서 발표해주셨지만 해남은 마한문화의 시원, 그리고 발전과정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군곡리 패총과 여러가지 성곽, 고분유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영암 시종과 반남으로 넘어가면서 영산강 유역의 마한사회가 종식, 종말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남, 그러한 마한역사의 시원으로써의 유적, 활용계획을 짠다면 좋겠고요. 아울러서 해남은 “L”자형의 꼭지점에 해당하는 동아시아의 해로, 바닷길을 통한 동아시아의 문화교류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의 문화 관점과 영산강에 속하면서도 마한의 시원이 되는 두 가지 성격을 잘 복합하면 국정계획을 짤 때 그러한 발전계획을 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계획을 세밀하고, 정확하게 좀 짰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한 문화재 활용사업이 아니라 국토의 재배치나, 도시 복원이나, 농촌공동체 복원이나, 관광발전개발이나, SOC 구축이나, 여기에 따라서 문화재 수준을 넘어서 국토계획에 따라서 한번 해남의 역사적 성격을 잘 활용한 개발계획을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별한 질문은 없고, 간략히 코멘트를 하는 것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권오영:** 시원한 질문보다 보완적인 말씀이구요. 거기에 대해서 정재윤 선생님 간단하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재윤:** 네. 감사합니다. 영산강 유역 전체 문화권을 연계하고 종합정비계획을 마련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 백제왕도추진단이 있는데 예산은 몇 천억을 잡아놨는데 기재부로 올라가면 다 떨어집니다. 왜 이 돈이 필요한가를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할 게 무엇이나? 바로 예를 들어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오늘날 한·중·일 세 나라의 공유문화랄까? 그리고 동북아 나라의 어떤 동반자적 관계의 모델이 바로 백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듯이, 해남이 한반도와 중국, 일본을 잇는 교류에 굉장히 핵심적인 기항지 내지는 요충지라고 이렇게 나름대로 논리를 계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려면 아까 해남문화전당을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는 해남문화재단이랄까, 사람이 있어야지 움직입니다. 행정력도 필요하지만 전문가 집단이 있어야지 일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일할 수 있는 재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권오영:** 예. 정리하겠습니다. 아까 문안식 선생님이 말씀하신대로 영산강유역과 국토개발계획에 포함되면 좋겠다는 한 가지 전제, 그리고 그런 움직임과 함께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설득력이 있는, 흔히 세계문화유산등재를 이야기할 때 OUV라고 이야기하죠? 탁월한 세계 보편적 가치. 이것처럼 해남의 보편성도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끄집어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 부분을 행정력으로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을 빨리 구성해야 된다. 대략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문안식·정재윤:** 네.

**권오영:** 그리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양시는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정경성 선생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정경성:** 이번 선생님의 발표는 해남지역 산성에 대해서 현황정리가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쉬운 점은 자료부족의 한계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행정기관의 책임이



많이 있겠죠?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유적의 성격 규명과 고증자료 확보를 위한 발굴조사의 필요성이 해남군과 저희 전남도에 각인이 되어서 더 많은 예산이 편성되기를 앞으로 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발표문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옥녀봉토성 등 마한 관련 성곽에 대한 발굴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질문보다는 문화재 업무 담당자로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성곽의 보존관리 또는 활용과 관련해서 권장할만한 사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번 학술대회를 주최한 해남군에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해남지역에 있는 전체 성곽에 대한 종합학술조사, 정밀지표조사 성격의 종합학술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요 예산은 군비와 도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웃 군에서도 작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전체 성곽 조사를 했고요. 지금 도지정문화재 지정 신청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남군 역시 문화재의 보존관리보다는 고대산성에 대한 활용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순서는 먼저 종합학술조사를 하고, 거기에서 확보된 자료로 문화재 지정을 받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이후 매년 문화재보존관리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발굴조사를 하고, 성격 규명과 고증자료를 확보하고 종합정비 기본 및 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필요한 사업들을, 구상한 사업들을 추진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양시은:** 네.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마한의 산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발굴조사를 해보고 성격 규명을 하는 데까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남한지역에서 사실 여러 산성들이 발굴되고 복원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고대 성곽들은 대부분 원형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보기 좋게 만드는 새로운 성곽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복원해야 할 것인가 하



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구요.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일단 무조건 성격 규명이 라고 하는 것들은 그 자체를 바꾸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해남군에 있는 여러 산성유적들에 대해서 시굴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성격을 밝히고, 그리고 나서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예를 들면 답사로 를 만든다든가, 그러니까 등산로가 아니라 성곽과 고분들을 연계할 수 있는 탐방, 관광과 연계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 최소한의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런 오히려 활용 방안을 생각한다면 굳이 성벽을 복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영:**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해남지역 같이 성곽조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지자체가 과연 몇 개나 될까? 할 정도로 그동안 주로 패총이나 고분은 됐지만 전혀 성곽조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다들 느끼실 겁니다. 두 분 말씀을 정리하자면 조사에서 보존과 복원, 활용으로 가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보존하고 복원 하고 활용할 것인지를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조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무조건 단계 단계를 걷는 게 아니라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어떤 부분은 복원을 생략하고, 등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으니 전략적으로 접근하자는 두 분의 말씀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강봉룡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박현숙 교수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박현숙:** 강봉룡 교수님의 말씀하신 백제사와 해남지역에 대한 폭 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3세기에서 6세기라는 긴 시간 속에서 해남지역의 변화상을 충분히 밝히고 있다고 생각 됩니다. 그런데 문헌사료가 부족한 고대사 연구, 특히 지역사와 관련된 문헌 사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그 여백을 꼭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문헌이 말해주지 못하는 여백을 채운다면, 어떻게 채워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신미제국에 대해서 여러 비정이 있는데요. 백제라는 설도 있고, 해남이라는 설도 있고, 강진, 영암, 나주라는 설도 있는데 각 지역의 지역사를 복원하는 데는 유효하지



만 나중에 백제사, 한국 고대사를 구분할 때 각 지역들이 신미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복원해야 할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지역사의 복원이 전체사의 복원 작업과 함께 발맞추어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토론문은 발표집에 있기 때문에 시간상 한 가지, 신미제국 문제만 여쭙보겠습니다.

동이마한신미제국의 해석을 병렬로 할 수는 없는지, 이렇게 선생님처럼 하신다면 신미의 범위를 어떻게 볼지가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신미연맹체라고 한다면 신미제국을 마한연맹체에서 벗어난 것인지, 마한이라고 부를 수 없는 것인지 그리고 이 기록이 진서의 장화열전에 나오고 다른 데는 보이지 않습니다. 진서에는 다 동이로만 나오고 있고 그 뒤의 기록에서도 아무데서도 신미가 나오고 있지 않으며, 삼국지 위서동이전 54개국 중에도 신미국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것인지, 과연 신미의 실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 그 음상사와 관련해서 해남을 침미다례로 보거나 그 뒤에 탐라로 보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해남을 신미국이나 침미다례로 비정을 해야 되는지, 그러지 않아도 고대사에 있어서 해남의 국제적인 해상교류의 중심지로서의 중요성은 충분히 강조되기 때문에 아직은 직접적으로 문헌과 지명 비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권오영:** 사실은 신미제국 문제만 가지고도 하루 토론할 내용이구요. 두 분 다 하실 말씀이 많으실텐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만 질문을 하였고, 답변도 거기에 대해서만 좀 부탁드립니다.

**강봉룡:** 예.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이마한신미제국 할 때 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체를 말하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하구요. 마한이라고 하는 것도 마한 지역에 4개 정도의 연맹체가 있었거든요. 백제를 중심으로 하는 연맹체, 목지국을 중심으로 하는 원래보다는 축소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신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대외적으로 신미국을 중심으로 한 연맹체 4개 정도를 노중국 선생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한 지역의 4개의 연맹체 중에서 하나, 이게 신미제국. 신미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신미를 대표해서 쓰는 여러





나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영산강 유역 고대사회하고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종면으로 비정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때 그 시기 3세기 단계에 가장 인상적인 웅관고분의 유적지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이번에 안호리에서 나온 것을 보면, 제가 직접 보지는 못 했습니다마는, 안호리가 오히려 상당히 유력한 신미국이면서 실질적인 3세기 후반의 맹주일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미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연맹체의 대표, 대외적으로 대표하면서 쓴 그런 이름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하겠습니다.

**권오영:** 두 분 다 많이 자제하신 겁니다. 뭐를 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마한사를 연구할 때 빅3, 빅4, 빅5 정도의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백제국은 서울 강남, 여기에 대해서는 이설이 없습니다. 목지국은 90년대 이후에 천안 아산 일대로 보구요. 그 다음에 건마국은 익산 일대. 이설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미신공, 혹은 침미다례, 혹은 신미제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 어디인 것 같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해남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해남 지역에 대한 지역사 연구에서 신미제국 혹은 침미다례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순식간에 풀 수는 없겠지만 계속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 지역사와 정치사의 조화, 등등 포함해서 큰 문제가 있다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일 선생님의 발표에 대해서 이범기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이범기:** 시간 관계상 토론문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로 제가 궁금한 점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 2번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다들 아시겠지만 해남반도 같은 경우에는 80년대 중반 군곡리패총이 발굴됨으로써 부각이 된 것도 사실이구요. 이와 더불어서 조산고분이라든지 고분들이 발굴됨으로써 어떻게 보면 서남해, 남해안 중심으로 본 것 같습니다. 또한 분토리라든지 신금유적에서 발굴된 것을 보면 특



히 주거지는 다른 것에 비해서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번에 대한문화재연구원에서 발굴 조사한 안호리, 석호리 유적에서 아주 좋은 유구들이 많이 조사되었기 때문에 차후에 발굴조사보고서를 쓰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고고학적인 성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또한 취락연구에 대한 큰 진일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발표자께서는 동북아시아 정세변화까지 연결을 해서 꼼꼼하게 유적 대비를 해가지고 역사적 배경, 마한 취락의 변화를 검토해서 해남반도를 중심으로 최근까지 발굴조사 된 자료를 분석하여 마한 취락을 여섯 단계로 구분하고 편년을 제시했습니다. 저 또한 이런 변화를 살펴보고 있는데, 토론자인 저도 발표자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하고, 단지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보충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1번과 3번은 나중에 시간이 된다면 물어보구요. 두 번째가 개인적으로 많이 궁금합니다. 발표지 128페이지에 내용이 나오는데요. 해남 신금 4·40·43호 주거지의 부뚜막에 매납된 철기를 통해 철기생산과 유통에 관여한 집단의 의례행위로 보았고, 주변 신금, 원진리 농암 유적에서 출토된 철정을 통해 철생산을 기반으로 한 거점취락으로 성장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는 현재까지 확실하게 넓은 의미에서 제철유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철유구로 명명할 수 있는 경우는 광양 도월리유적과 나주 북암리유적을 제외하면 전남지역에서 철기생산유적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한 관련유물들은 무안 사창리, 나주 북암리·랑동·방축, 광주 산정동, 함평 중량, 무안 양장리유적 등에서 유물들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유물들이 확인이 됐다고 해서 철기생산과 연관 지을 수 있는 명확한 단서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제련과 관련된 자료는 화순 삼천리, 광주 신창동, 나주 북암리 등에서 확인이 되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해남 신금에서는 철기생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유구나 유물이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단순의례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보다는 오히려 해남반도에서 출토된 지정학적인 요소로 봤을 때 출토율이 철정들이 높습니다. 출토율이 높은 철정 등으로 살펴보면 백제-전남 서부지역-전남 동부지역-가야로 이어지는 연안항로 상에서 해남반도 집단이 철기 유통을 기반으로 성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현재까지 자료로 봐서는 좀 더 타당할 것 같은 데 이에 대해 발표자의 견해, 추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권오영:** 제가 정리 좀 하겠습니다. 정일 선생님 발표에서 취락 이야기를 주로 하셨는데, 철기, 철의 유통문제를 가지고 문제가 됐습니다. 일단 해남지역에서는 제련, 혹은 철기 제작 관련된 시설이 없다. 그리고 이동희 교수님의 발표에서도 나오지만 영산강유역, 전남지역의 철이 가야지역의 철과 연관된 것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남지역에서 발

건되는 철기들이 가야지역의 철이 유통되는 과정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최근에 광주나 나주나 화순 일대에서 제철, 혹은 철기 제작 관련 유구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작은 유통망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냐? 아니면 해남지역에서도 철기를 생산할 수 있었다는 단서로 볼 것이냐? 대략 이런 내용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발굴이 안 되긴 했지만 대략적인 모습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정 일:**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해남 쪽, 신금이라든지 분토에서 제련 관련된 유물이나 유구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보통 도월리 같은 경우에는 수혈주거지 내에서 석재 철 편들이 많이 드러나서 결국은 철 제작과 관련된 그런 주거지로, 그런 작업을 했던 집단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분토라든지 신금이라든지 현재까지 그런 자료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더 넓혀서 해남지역까지 다 제련 관련된 유적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철정 같은 경우 신금 앞에 유적에 있는 신금고분이라든지 원진리 농암에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공반된 유물이 철부입니다. 그리고 신금 안에서도 주거지 안에서, 집을 축조하는 과정에서 의례용으로 들어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철부가 과연 유통을 해서 들어왔을 것인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 철정을 이용해서 해남지역에서도 2차 가공을 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런 추측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군곡리에서도 따비형 철기가 확인이 되고 있는데 그것도 만약 그쪽에서 제작이 안 되었으면 결국 유통해서 들어왔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실생활에서 사용된 해산물을 채취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제련 가능성도 있다. 물론 군곡리에서도 옥범도 있습니다. 그런 정황을 살펴보면 해남지역에서도 제철 관련된 유구가 앞으로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권오영:** 지금 그 말씀은 철광석에서 철을 얻는 제련까지 포함한 겁니까? 아니면 중간 소재를 가지고 철기를 만드는 걸 얘기합니까?

**정 일:** 중간소재입니다.

**권오영:** 그러니까 철 자체의 제련은 아니다? 이 문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마한권역에서 최근에 충주, 청주, 진천 일대에서 엄청나게 많은 철기 제작, 혹은 제련 시설들이 나오고 있는데 정작 같은 마한권이지만 전남 해안 지역, 영산강 유역에서는 그 지역의 철이 아니라 가야지역의 철이 유통되었다고 하면 그 당시 광역의 유통망, 그리고 유통망을 밝히는 것도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답을 못 내리지만 앞으로 이러한 주제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제기 정도로 하고, 대략 어떤 모습을 그리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다카타 칸타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정인성 교수님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정인성:** 주최측에서 해남에서 학술대회가 있다고 토론을 좀 하라고 그래서 해남에서 학술대회를 한다면 국제학술대회니까 군곡리가 다뤄지겠다, 주최 측에서 반드시 저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마 군곡리에 대한 누군가의 발표가 있을 것이고 나는 토론일 것이라고 믿고 안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발표지를 봤는데 다카타 칸타 선생님의 발표문이에요. 고분시대예요. 내가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유적의 성격을 생각해보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니 다카타 선생의 고분시대 1단계, 시기를 조금 올려가지고 제가 전공하고 있는 시기하고 조금 겹쳐서 그나마 조금 역할이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북부구주의 니시진마찌(西新町)유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야기를 함으로써 더 역할을 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1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박천수 선생님이나 이동희 선생님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북부구주의 니시진마찌(西新町)유적을 보면 사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방형주거지에 부뚜막이 있고, 서남부지역에서 익숙한 취락 분위기가 보인단 말이죠. 게다가 토기도 서남부지역의 토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서남부지역의 사람들이 북부구주로 이주해갔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케스에 선생님이 이야기한 해



촌 이야기를 했는데, 교류란 말이죠?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 중심을 다카타 선생님은 니시진마찌를 이야기했는데 서남부지역의 토기와 철부, 유리옥의 거푸집 등이 있는데 북부구주에 이 시기에 아주 특징적인 유물들이 반대급부로 해남을 포함한 서남부지역에 너무 없단 말이죠. 이런 쏠림 현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기를 3세기 후반으로 올리면서 걸리는 문제가 군현과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낙랑, 대방군이 존속하면서 교역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시기입니다. 최근에 김병준 선생님이 그런 논문을 썼지요. 그 시기의 사례를 들어서 군현, 여러 가지 작은 국가들의 교역관계를 이끄는 과정에서 주도하는 것은 군현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니시진마찌유적에서 군현 관련 유물들이 왜 출토되지 않는지 일본열도 전체에서 없으면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끼(壺岐), 긴끼(近畿), 나가사끼(長崎) 등 북해(北海)지역에서부터 시기가 고분 출토품과 섞여서 애매한 것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시진마찌에는 이 시기의 군현을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왜 이렇게 부족한지, 이런 기본적인 의문에 대해서 대답을 청해드리겠습니다.

**권오영:**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교류와 군현인데 3세기 후반 4세기 초에 후쿠오카(福岡)시에 있는 니시진마찌유적에서는 호서, 호남, 서부 영남의 유물이 나오는데 반대로 왜 그 지역에서는 북부구주의 유물이 안 나오느냐? 하는 질문 하나, 또 하나는 바로 이 시기보다 앞선 시기, 그러니까 이끼(壺岐)섬의 하루노쓰지(原の辻)나 아니면 늑도, 이런 경우에는 소위 말하는 낙랑대방의 유물이 안 나오는데, 왜 니시진마찌에는 아직까지 낙랑대방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랑대방의 유물이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 질문입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카타 칸타:**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호남지역에서 3, 4세기 대의 북부구주계통의 하지기계(土師器系) 토기뿐만 아니라 하지기계토기 자체가 아직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북부구주의 니시진마찌에서는 많이



나오는데 왜 서남부지역에서는 안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진짜 안 나오는 것인지,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를 따졌을 때 저는 후자입니다.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남부지역과 구주지역의 일대일의 관계가 아니라 김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남부지역의 역할이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아까 슬라이드로 보여드렸듯이 동남부지역에서 요즘은 니시진마찌 지역하고 비슷비슷한 시기의 서남부지역의 토기가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부지역에서 올 때는 직접 교류나 그런 걸로 왔을 가능성도 있지만 돌아갈 때는 니시진마찌 지역에서 직접 서남부지역으로 건너기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니시진마찌유적에 서남부계통의 도래인들은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지금 고고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동남부를 거쳐서 쓰시마, 이끼에 와서 북부 구주로 온 그런 관계는 고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진짜 서남부 지역에서 하지기계토기가 없는지 있는지, 3세기 후반~4세기 초반에 관해서는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낙랑이나 대방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런 유물이 3세기 후반쯤에 니시진마찌유적에서 안 나오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3세기대의 중국계 유물에 대해 제대로 대답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낙랑계통의 토기라든가 그런 유물이 많이 나오는 시기는 야요이시대 중기 후반에서 3세기 전반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분시대에 들어간 3세기 이후가 되면 소위 일본 쪽에서도 확실하게 낙랑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몇 점 있습니다만 그것도 3세기 후반 때 들어왔던 게 아니라 2세기에 들어왔다가 전세되었다가 하는 대도-나라현 도우다이지야마(東大寺山)고분 출토 중평기년대도(中平紀年大刀)-같은 것입니다. 3세기 후반 때의 낙랑계 유물은 일본열도 전체적으로 봐도 별로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역시 3세기 후반 이후에 역사자료에서는 낙랑이나 대방에 대한 전사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반영되어 있을지 모르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대답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 정도입니다.

**정인성:** 첫 번째 대답은 이영철 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이 발굴을 제대로 못 했나? 이런 이야기, 하지도 구분을 못 하면 곤란하다. 공부 좀 하시오. 이런 이야기입니다. 뭐, 농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결국은 문헌 고고학의 과제, 이런 것들은 혹, 소위 말하는 고분시대 초기 연대를 3세기 후반으로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실은 절대연대

의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는지요?

**다카타 칸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고분시대 중기를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고분시대 중기의 편년을 기준으로 고분시대 전기의 토기 편년을 생각하고자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역시 요즘은 고분시대 중기의 시작을 4세기 후엽쯤으로 올리려고 하는 것을 일본학계의 동향입니다. 그래서 고분시대의 시작을 4세기로, 아니면 3세기 말 정도로 해버리면 고분시대 전기가 너무나 짧아집니다. 야요이 시대 중기 후반 이후의 고고학적인 한일 자료의 병행관계와 함께 고분시대 중기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방사성탄소연대나 연륜연대에 너무 의거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고분시대의 시작이 3세기 후엽이라는 부분은 성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오영:** 야요이시대, 고분시대 연대에 대해서 우리가 선입견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일본 연구자는 마음 속에 담고 이야기 안 하시니까 제가 끄집어낸 겁니다. 3세기 후반에 가면 낙랑대방의 역할보다는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적 성격 이것이 더 커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앞 시기에 대해서?

**다카타 칸타:** 앞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낙랑계 유물과 관련해서 김해 대성동고분에서 나온 삼연계 마구라든가 대금구,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금관가야를 중계로 해서 들어왔다고 하는 박천수 선생님 이야기하셨던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구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는 한반도를 경유해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낙랑, 대방과 왜라는 직접적인 관계보다 그것을 포함하면서 마한, 변진한 그리고 왜 사이의 다원적인 관계가 더욱더 중요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권오영:** 정리하자면 낙랑대방을 경유해서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교역에서 낙랑, 대방 관련된 성립단계, 그리고 지역을 재지사의 성장으로 인해서 이전 모습이 보이지 않는 단계라고 보는 것 같구요. 이 문제도 또 다른 큰 주제입니다. 해남에서 늑도를, 혹은 김해, 혹은 대마도 후쿠오카에 기대되는 해상루트에 관한 것은 또 하나의 주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미 해남 관련된 주제는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미제국의 문제가 나왔었죠 또 하나는 해남에서부터 일본 후쿠오카까지의 교역, 그리고 그 역할, 그리고 그 주제, 이렇게 또 하나의 앞



으로 학술대회를 할 큰 주제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점만 추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맛만 다시면서 이런 주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지 어느 것 하나 해결을 바라지 마십시오. 어차피 오늘은 문제점들을 드러내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커플이 되겠습니다. 이동희 선생님의 발표에 대한 박천수 선생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박천수:** 사실 해남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2~3년 만에 왔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해남에는 서너번 정도 왔을 겁니다. 요즘은 관심이 다른 데로 가 있어서 해남에는 자주 못 왔는데, 너무 오랜만에 오니까 좋았습니다. 실은 제가 그렇게 온 것은 영산강 전방후원분의 실체가 뭔지를 알아보려고 10년 전에 주로 많이 왔습니다. 여기 앞에 앉아계신 이영철 원장님도 상당히 못 살게 굴었는데요. 역시 오늘도



보니까 여기 계신 일반 시민분들 상당히 헛갈릴 것으로 생각 됩니다. 영산강 유역, 특히 해남반도에 있는 장고봉고분이라든지, 전방후원형 고분이 도대체 뭔가에 대해서 아까 전에 기초강연하신 임영진 선생님께서 왜계망명자설이라고, 근래에 새롭게 낸 설입니다. 원래는 토착수장설 이었는데 아무래도 힘들다 싶어서 왜계망명자설로 하신 것 같구요. 그다음에 오늘 다카타 선생님께서는 토착수장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역시 역사고고학이란 뭐냐 하면 일본서기(日本書紀)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계수장이란 것. 역사적 실체를 무시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특히 체계기에 기록되었듯이 왜계백제관료가 이미 6세기 전엽에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사에 분명히 보이는 실체를 무시하고 전방후원형 고분, 왜계고분의 피장자를 해석한다는 게 무리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사는 상식적으로 해석을 해야지 않나 생각이 되구요.

이동희 선생님 발표에서는 교역을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저도 역시 교역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나면 제가 학생 때 관심이 높았습니다. 구주지방에 가면 항상 여러분이 답사하는 에다후나야마(江田船山)라는 고분이 구마모토(熊本)에 있습니다. 이 고분

은 길이가 65~70m 정도 됩니다. 작은 전방후원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에다후나야마고분의 부장품은 김해지역의 왕릉급의 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가야산 수식부이식 중에서 가장 화려한 이식, 그 다음 백제산 관모라든지 백제산 식리를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러면 구주의 수장이 김해에 왕릉급 부장품을 가지고 있는가 해석이 되어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직접 간섭하면서 백제와 가야, 또는 대가야와 교역했기 때문에 그런 부장품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역시 그들이 직접 여기에 왔기 때문에, 활동했기 때문에 그런 부장품을 획득할 수 있었다 생각되구요.

그 다음에 왜계백제관련설을 저는 부정하는데 거기에는 상당히 거부반응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임나일본부가 아니냐? 그런 것들이 왜인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대 세계에서 이주 일본이라는 것은 지금의 민족국가적인 개념에서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 국경이라는 것이 지금 봐도 국경이 아니고 민족의식이라는 것은 없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북부구주지역 왜인이라는 것은 백제 왕권에도 속해 있고, 왜 왕권에도 속해 있는 양립의 존재가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저도 교역의 역할을 강조합니다마는 교역이 너무 강조되다 보면 제가 토론문에 써놓은 바와 같이 마치 백제의 배후에서 왜인들이 자유교역지대 같은 걸 만들어서 할거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결국 영산강유역을 포함한 호남지역이 마치 왜인들이 할거하는 이러한 인상을 주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토착수장설도 그들이 백제, 고구려가 있는데도 마음대로 왜와, 가야와 교역하는 그런 자유교역지대 같은 게 형성되어 있다는 건 사실 그 당시 백제를 포함한 동아시아 정세로 있을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대체 백제라는 것이 뭐냐 그런 것에 도달하기 때문에 교역이 이루어진 것은 저도 에다후나야마 사회를 본다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교역을 너무 강조하다보면 오히려 양날의 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동희 선생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오영:** 정리하겠습니다. 전방후원분, 전방후원형고분, 장고분의 피장자에 대해서는 사실 백인백색이기 때문에. 박천수 교수님께서서는 그러한 견해를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교역의 성격에 대한 질문부터, 실제로 교역, 교류, 교섭 이야기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 배후는 뭐냐? 그 분위기는 어떨냐? 여기에 대한 답변도 좀 덧붙여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남해안의 5세기 후반~6세기대의 문제, 소가야, 대가야, 신라, 왜의 교류관계 속에 이루어진 것을 보면 뜻하지 않게 왜계 무덤이 많습니다. 그만큼 왜인들은 5세기 말, 6세기대가 되면 백제, 영산강유역을 포함한 백제와의 교역을 통해서 선진 문물을 얻고자 하는 게 가장 크구요. 반대급부로 그 당시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후원, 그러한 의견이 기존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저도 중부 남부에서 왜의 속에서 백제의 역할 그런 점에 지금까지 오랫동안 검토하였는데, 박천수



선생님이 교역만을 강조하면 안 된다 그러셨는데, 저도 왜의 입장에서는 교역, 선진문물이 강조될 거고, 백제 입장을 강조를 하자면 백제의 입장에서는 남해안의 직접지배가 6세기 초까지, 530년 경에 완전한 직접지배, 이전 단계, 과도기 단계의 친백제 왜인들, 임영진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친백제 왜인이라는 게 아까 화면에도 나오지만 구주의 니시진마찌유적, 서남부지역의 호남지역 계통의 사람들이 한때 보였거든요. 그런 사람의 후예가 5세기 후반~6세기 대의 구주의 유력한 사람일 수 있구요. 서남부지역 후예들, 여기 온 사람들이 전혀 백제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고 백제와, 혹은 한반도 남쪽과 끈이 있는 조상이 연결되어 있던 결과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전혀 딴 사람이 아니고, 그러한 혼혈, 혼혈문제도 아까 나왔죠? 친백제 왜인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고 더불어 사는 사람은 왔다. 일본 입장에서는 선진문물, 경제적인 요인이구요. 백제가 직접 관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의 역할을 주문하는 그 당시의 균형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권오영:** 말씀을 듣다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쉽게 교역, 교섭, 교류를 이야기했지만 두 분 말씀을 들어보면 교섭의 주체가 백제와 왜왕권이 돼 버려요. 그럼 해남과 남해안 지역의 여러 세력들은 거쳐 간, 아니면 배가 잠시 머무르는 기항지, 혹은 중개무역이 돼 버리죠. 다시 말하면 해남에서 생산된 제작한 물품도 당시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교섭에서 중요한 물산이라든지 아니면 해남지역, 배가 기항하고 선원들을 제공하고 물을 바꿔주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이런 역할이였는지에 대해서 정답은 없지만 간단하게 이동희 선생님하고 박천수 선생님 본인의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시죠. 박천수 선생님부터.

**박천수:** 사실은 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는 고고학 자료로 풀 수 있는 문제, 자료적 기반이 되는 문제를 주로 이야기해왔습니다. 자료적 기반이 없는 문제는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취락에서의 동태가 명확하게 밝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왔던 거칠마토성의 경우에도 제가 사실 상당히 놀랐던 것은 방형플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방형플랜이라면 이것은 결국 동일본 쪽의 방형의 호족거관. 상당히 전방후원분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런 재지세력들과 왜인들 간의 접촉과 그들 간의 역할 분담,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취락의 조사가 되어야 하고, 또한 재지수장들, 재지세력들의 무덤이 조사가 되어야 되고, 현재로는 그것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오늘 이동희 선생님께서도 강조하셨지만 확실하게 생각되는 거칠마토성 같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깥에 토루가 있고 안쪽에 환호가 있는 아주 특이한 구조인데 이런 토성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만 그 안에 있는, 예를 들어 주거지가 왜인들의 거주지일 가능성이 크지만 그 안에서 어떻게 현지인들과 같이 생활을 영위했는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한 뒤 뭔가 이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권오영:** 한번 탁 찢어봤는데 교묘하게 피하십니다. 이동희 선생님.

**이동희:** 제가 아까 발표했듯이 6세기 전엽에 북일 쪽에 많은 왜계고분이라든지 왜계 활동모습들이 보이는데 그걸 제가 백제가 배후에서 조종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산천 쪽에서 북일로 5세기 말~6세기 초에 국제교역항의 중심이 고구려 같다고 그랬는데 국제교역항은 또 현산천과 북일로 큰 맥락은 통한다고 봅니다. 단지 토착세력의 국내의 역할을 약화시키는 백제의 의도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제교역적인 한일관계는 종래의 강봉룡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제주의 유통이라든지, 남문 지역사회, 그러니까 영산강 하구나 그 외 남해안 울산의 교역의 중간 거래의 도매 장소, 그런 역할과 더불어 아까 말씀드린 거칠마토성, 바로 바닷가에 있는 그러한 성이 있는 경우가 드물죠. 왜인의 대리인이라는 왜계대리인의 연락 장소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항해와 관련된 편의시설, 물품의 보관 장소, 창고, 바로 밑에 항구가 있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항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목포항이 전남에서 가장 큰 항구이듯이. 그런 여러 역할들을 같이 겸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권오영:** 2타수 무안타, 두 분 다 제가 말씀드린 답을 피했고, 즉 교역의 정체를 알아야지 그들이 어떤 정체인지 알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부산이나 김해 같은 경우는 마을을 조사했는데 그 마을에서 나온 토기가 거의 90% 이상이 일본계, 야요이계가 나온단 말이죠. 집단적인 거주를 보여주기 때문에, 해남지역도 목적의식을 가지고 고분 몇 개에서 나온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활유적, 특히 지금 계속 얘기가 되는 거칠마토성과 같은 성을 목적의식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거기 살던 사람들의 정체를 쉽지는 않겠지만 규명해야지만 지금 말씀드린 전방후원형고분의 피장자를, 그리고 그 당시의 동아시아 교섭에서 해남반도의 역할, 그리고 교역의 실제 내용, 어떤 물건이 교류가 됐는지, 가야지역의 철이 오는 게 있으면 가는 게 있을텐데, 예를 들어 속일본기에 보면 탐라지역의 전복이 일본에 수출이 되고 일본에서는 제주에서 나지 않은 철제농기구가 들어온 기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교역의 구체적인 내용 까지도 풀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3분을 남겨놓고 미진하긴 하지만 다섯 분과 토론자의 발표와 질의가 끝나가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점심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 안산에 오이도패총이라고 있습니다. 정말 작은 패총이고 조사도 그렇게 안 되었어요. 그런데 안산시에서 의욕을 갖고 오이도패총 전시관을 크게 지었어요. 유물이 없어요. 어린이들 생활체험 이런 것을 해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반면에 군곡리패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유물들이 있고, 좋은 스토리나 콘텐츠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움직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남지역에서 활동하시는, 특히 지역에 계신 주민들도 요구를 하셔야 하고, 동의를 하셔야 해남지역의 역사를 밝히기 위해서 고분, 패총, 생활유적, 취락, 그리고 토성에 대한 조사, 연구, 활용 이런 것들이 함께 패키지로 가지 않으면 이 좋은 천혜의 자료 조건을 가지고서 많은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는 오랫동안 앉아계신 선생님들께 한 말씀만 부탁을 드리겠구요. 지금 딱 2분 남았지만 1분 정도만 좋은 말씀해주실 이 지역에 계신 해남군민 계십니까?

**민부삼(해남군민):** 아까 신미제국이나 신미국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해남 이 자리는 고려 말에 마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6~700년 밖에 안 되었는데 여기서 2km 동쪽으로 가면 신안이라는 마을이 있어요. 옛날에는 안국동이라고 했습니다. 그 전에는 빈방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가면 지석묘가 110번지에 있고, 산55번지에는 석탑과 미륵불이 있습



니다. 그래서 지금 우슬재를 통과하다보면  
 공설운동이 있는데 그 일대에 옛날에는 지  
 석묘가 많았습니다. 그 지석묘가 다 없어  
 지고 신안리 110번지 일대가 둥글고 큰 고  
 분, 지석묘 밑에 보이는 부분은 넓은 지석  
 이 약 10여기가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해남 향토문화로 세 가지가 지정이 돼 있  
 는데 제가 지석묘와 석불과 석탑과 금강산  
 성의 소유권과 관련 있는 산주입니다. 그  
 래서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오늘 이런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활용방향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것보다도 첫째  
 목적이 무엇이나면 진실을 파악해야한다. 해남을 가짜로 하면 안 돼요. 여기 앞에 있는 수성  
 송도 달랑진 4년 때 심은 수성송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 만들고 있고. 또 우수  
 영 같은 데는 양도를 중심으로 해서 좋은 문화재가 있는데도 전혀 개발을 안 하고 있어요. 영  
 뚝한 곳에다가 영뚝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제 나름대로의 착각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무  
 었을 하든지 대한민국 전체가 진실되게 문화재건 무엇이건 해나가야지 가짜를 쓰지 말자.

**권오영:** 1분이 지나서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역시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의 말씀도 상당히  
 중요하구요. 우리가 참고할 부분들이 많구요. 여러 가지 정보도 고맙구요. 그 다음에 역시 매  
 장문화재 역사적 진실성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그 부분에 정말로  
 조심해가면서 연구를 하고 보존하고 활용해가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동안 제가 충분한 기  
 회를 못 드려 죄송하지만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 해남반도 마한사회의 역사적 성격

임영진(전남대학교 문화인류고고학과)

## I. 머리말

## II. 해남반도의 유적·유물

## III. 마한의 지역권과 해남반도

## IV. 해남반도 마한 사회의 역사적 성격

1. 新彌國 문제
2. 枕彌多禮 문제
3. 倭系古墳 문제

## V. 맺음말

## I. 머리말

해남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서해와 남해를 모두 끼고 있는 지역으로서 산이반도, 화원반도, 해남반도로 구성되어 있다. 산이반도와 화원반도는 서해를 끼고 있으면서 넓은 농경지를 가지고 있지만 선사·고대 유적이 드물고 해남반도에 비해 규모가 작다.

해남반도는 남북 길이 약 90km, 동서 너비 약 55km에 이르는데(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호남정맥에서 갈라진 땅끝기맥이 영암 월출산(811m)을 거쳐 서기산(511m), 두륜산(703m), 대둔산(672m), 사자봉(156m)으로 이어지면서 서북부와 동남부를 나뉘으로써 서북부는 서해에 면해 진도를 마주보고 있고, 동남부는 남해에 면해 완도를 마주보고 있다.

해남반도는 이와 같은 지정학적 특징으로 말미암아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고대 중-한-일 연안항로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구체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문헌사 분야뿐만 아니라 고고학 분야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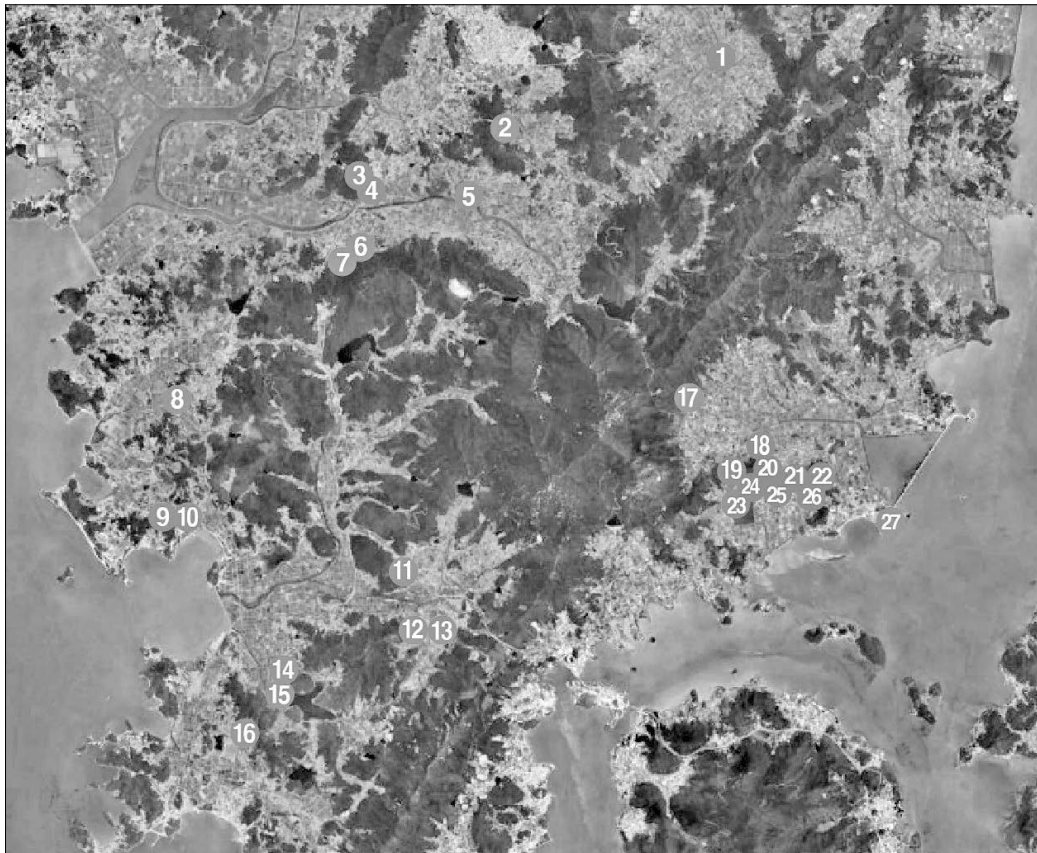
그 가운데 가장 논란이 많은 것은 백제의 해남반도 진출에 관한 문제이다. 이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백제가 왜와 교류하는 과정에서 안전한 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전남지역 마한 제국 가운데 가장 먼저 점령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백제가 369년에 전남의 마지막 마한 제국을 모두 영역적으로 병합하였다고 보는 기존 통설과는 약간 다른 견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백제의 전남지역 마한제국 병합 문제에 대해서는 문헌사학과 고고학과 모두 그 시기와 과정에 대해 적지 않은 이견들이 제기되어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 문제를 포함하여 고대 해남반도에 대한 몇 가지 논쟁점을 고고학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 II. 해남반도의 유적·유물

해남반도는 『삼국지』에 나오는 고대 중-한-일 연안항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일찍부터 관련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특히 1973년 4월 현산면 월송리 증산마을 주

민들이 방송용 스피커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조산고분은 해남반도에 대한 고고학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하였다(서성훈·성낙준 1984). 1985년 12월에는 북일면 방산리 장고산 고분이 측량되고 공개되어(강인구 1987)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특히 언론의 지대한 관심을 끌었다. 1986년 10월 10일에는 군곡리 패총이 발굴되기 시작하여 화천과 복골 등이 출토 됨으로써(최성락 1987) 이 지역이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언급된 해양항로상의 중요 거점이었음이 입증되었다. 이후 해남반도에서는 간헐적으로 새로운 자료들이 발굴되었으며 최근에는 화산면 안호리와 석호리에서 주목되는 유적이 조사되었다(대한문화재연구원 2017).



도 1 해남반도 고대 유적 분포도(유적 일련번호는 유적일람표 연번과 동일함)

표 1 해남반도 고대 유적 일람표

연번	유적 명칭	유적 소재지	조사 내용	비고
1	성산 만의총 고분군	옥천면 성산리	석곽, 석실	해남군 향토유적 6호
2	연동리 남송 고분	해남읍 연동리	1기	
3	신금 유적	삼산면 봉학리	주거지	
4	봉학리 신금 고분	삼산면 봉학리	옹관	
5	용두리 고분	삼산면 창리	장고분	전남 기념물 121호
6	원진리 농암 고분군	삼산면 원진리	옹관	
7	원진리 시등 고분군	삼산면 원진리	원형분 1기	멸실
8	부길리 고분	화산면 부길리	옹관	
9	석호리 유적	화산면 석호리	옹관, 주거지	
10	안호리 고분군	화산면 안호리	목관, 옹관	
11	황산리 분토 유적	현산면 황산리	주거지, 고분	
12	월송리 향교 고분	현산면 월송리	1기	
13	월송리 조산 고분	현산면 월송리	석실	전남 기념물 86호
14	군곡리 패총	송지면 군곡리	패총, 주거지	사적 449호
15	군곡리 군안 고분	송지면 군곡리	옹관	
16	미야리 영평 고분군	송지면 미야리	옹관	멸실 추정
17	홍춘리 석정 고분군	북일면 홍춘리	석실	백제식 추정
18	신월리 거칠마 고분군	북일면 신월리	미상	
19	신월리 방대형 고분	북일면 신월리	석곽	
20	용일리 용운 고분군 (가)	북일면 용일리	석곽, 석실	전남 문화재자료 232호
21	용일리 용운 고분 (나)	북일면 용일리	석곽	멸실
22	방산리 연골 고분군	북일면 방산리	7기	
23	방산리 신방 고분 (나)	북일면 방산리	석곽	멸실
24	방산리 장고봉 고분	북일면 방산리	장고분	전남 기념물 85호
25	방산리 신방 고분군 (가)	북일면 방산리	3~4기	
26	방산리 독수리봉 고분	북일면 방산리	2기	전남 문화재자료 233호
27	내동리 발섬 고분군	북일면 내동리	석곽, 판갑편	전남 문화재자료 234호

### III. 마한의 지역권과 해남반도

마한은 『삼국지』 등의 고대 사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54개 소국들로 구성된 사회로서 경기·충청·전라지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각 소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알기 어

려울 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고고학 자료들이 적지 않은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몇 개의 권역으로 구분되는 경향이 있다. 한강유역권, 아산만권, 금강유역권, 영산강유역권으로 구분되거나(박찬규 1995), 금강 이북의 목지국 중심의 마한세력, 금강 이남과 노령 이북의 건마국 중심의 마한세력, 영산강유역의 마한 잔여세력으로 구분되기도 하고(유원재 1997), 나해국 중심의 임진강·예성강유역권, 예계 중심의 한강중상류권, 백제국 중심의 서울권, 목지국 중심의 직산권, 건마국 중심의 익산권, 신미국 중심의 영산강유역권으로 구분되기도 하며(노중국 2003), 한강유역권(경기 북부 포함), 금강유역권(아산만권 포함), 영산강유역권으로 구분되기도 한다(이현혜 2007).

필자는 묘제를 중심으로 한강유역권, 아산만권, 금강유역권, 영산강유역권, 남해안권으로 나눈 바 있다(임영진 2010a). 임진강·예성강유역권은 고구려 계통의 적석총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마한에 해당하는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하기 어렵지만 전남 남해안지역은 고흥반도를 중심으로 지역적 특징이 뚜렷한 묘제가 조사되고 있으므로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하였다.

해남반도는 영산강유역권과 남해안권의 중간지점에 위치하면서 해남천, 삼산천, 옥천천, 현산천 등 주요 하천들이 서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리적으로는 영산강유역권에 속한다고 하기 어렵다. 하지만 곳곳에서 조사되고 있는 대형 옹관묘나 영산강식 석실 등 많은 고고학 자료들은 영산강유역권과 큰 차이가 없다. 전북 서남부에 해당하는 고창에서부터 영광, 함평, 무안에 이르는 전남 서부 해안지역 역시 고고학적으로는 영산강유역권과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의의 영산강유역권에 포괄된다(임영진 1997).

영산강유역권의 마한 사회는 아산만권이나 금강유역권과 마찬가지로 세형동검문화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초기철기시대에는 성인용 목관이나 소아용 옹관이 사용된 토광묘가 시작되었으며 이어 분구묘가 시작되었다. 분구묘는 매장주체시설이 지상에 위치하고 분구 주변에 주구가 굴착된 것으로서 분구의 평면형태는 방형-(장)제형-(장)방대형-원(대)형으로 발전하고, 매장주체시설은 목관-목곽-옹관-석실로 변천해 나갔다. 분구의 평면형태와 매장주체시설은 그 변화에 있어서 정확히 1:1로 대응하는 것은 아니지만 크게 보아 방형목관분구묘-(장)제형목곽분구묘-(장)방대형옹관분구묘-원(대)형석실분구묘의 4가지 유형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임영진 2002).

방형목관분구묘는 흔히 주구묘라고 불리던 것으로서 중심시기는 기원전후경부터 2세기 말까지 해당하는데 저분구에 목관이 들어가며 단장이 주류를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구

표 2 영산강유역권 분구묘 변천표(임영진 2002)

구분	기원전후~2C말	2C말~4C중엽	4C중엽~5C말	5C말~6C초
방형목관분구묘	=====-----			
제형목곽분구묘	--=====--			
(장)방대형옹관분구묘	--=====---			
원형, 장고형석실분구묘	--=====			
분구규모	저분구	중분구	고분구	고분구
분구형태	방형	제형	(장)방대형	원(대)형
중심매장주체	목관	목곽	전용옹관	석실
매장방식	단장-다장	다장(수평적)	다장(수직적)	합장
제사(주구내)	미상	소규모	성행	약화
분포 특징	다지역 산재	다핵 중심권	다핵 계층화	다핵 계층화 이완
사회 통합도	(소국)분립	권역별 통합 (권역별 중심지)	유역권 통합 (대중심지 등장)	통합 이완 (권역별 부중심)
변천배경	분구묘 파급	백제건국과 아산 만권 병합에 따 른 권역별 결집	백제의 금강하류 권 병합에 따른 통합 대응	백제의 공주 천도에 대응한 일본 규슈와 의 연계

체적인 자료의 부족으로 상론하기는 어려우나 흑도장경호를 반출하는 기원전 1세기대의 토광묘에 주구가 부가된 영광 군동 유적은 이미 주변지역에 주구를 가진 분구묘가 시작되어 있었음을 말해줄 것이다. (장)제형목곽분구묘의 중심시기는 2세기 말에서 4세기대에 해당하는데 기존의 목관 뿐만 아니라 새로이 목곽이 사용되고 대형옹관도 부가되는 등 동일 분구 내에 다장이 이루어지면서 상당한 규모의 분구가 조성되며 분포 범위가 몇 개의 소권역으로 압축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장)방대형옹관분구묘는 중심시기가 5세기에 해당하는데 대형 전용옹관이 추가되어 나감으로써 점차 거대한 분구를 가지게 되었으며 분포 범위는 한정되어 있다. 원(대)형석실분구묘는 영산강식 석실을 가진 것으로서 중심시기는 5세기 말에서 6세기 초에 해당하는데 기존의 (장)방대형옹관분구묘보다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분포 범위는 영산강유역 외곽지대를 포함한다.

6세기 초까지 분구묘가 발전하였던 영산강유역권은 지식묘 밀집권과 겹치는데 전북 고창지역을 포함한 지식묘 밀집지역에서는 분구묘 이외에 기존의 수많은 지식묘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묘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마한권 중에서는 가장 늦은 6세기 초까지 분구묘가 성행하였다는 점에서 동질성이 강한 공동체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남해안권은 탐진강유역에서부터 고흥반도를 거쳐 여수반도에 이르는 전남 남해안 지역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서는 청동기시대에 지식묘가 성행하였고 비파형동검과 비파형동



모 등 초기 청동기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다. 탐진강유역에서는 40여 개소에서 고분군이 확인되었는데 분구묘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6세기 중엽부터는 석실묘가 나타난다. 분구묘는 방형 평면이 우세한 가운데 제형, 타원형이 혼재하며 목관과 옹관이 주체를 이루고 있지만 고대한 분구를 가진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이 지역 토착세력이 영산강유역과 고흥반도 사이에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본다(조근우 2009). 6세기 중엽경에 나타난 석실묘는 영산강식 석실인데 이는 영산강유역권의 정세 변화 속에서 이주한 세력이 남겼고 6세기 후엽부터 백제식 석실묘가 보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신홍남 2016).

고흥반도에서는 20여기의 고분이 확인되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길두리 안동고분과 같이 금동관과 금동신발이 출토된 예도 있다. 안동고분은 매장주체시설이 석곽이지만 그 위치는 분구중에 해당하며 분구 축조 방식에 있어 고분 외곽에서부터 성토하면서 중앙부에 석곽 축조를 위한 뚝부를 두었는데 이는 영산강유역권의 대형 고분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축조 방식이다(오동선 2009). 여수반도를 중심으로한 섬진강 서부지역은 5세기 전반대까지 마한의 전통이 유지되었던 것으로 본다(이동희 2006).

영산강유역권을 중심으로한 마지막 마한 사회의 변화는 백제 사회의 변화와 연동되는 바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교섭이나 교류를 통한 자체 발전에 기인한 바 컸다. 백제 사회와 연동되는 것은 전체 마한 사회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늦은 시기까지 남아있었던 영산강유역권과 남해안권은 백제와는 적대적인 관계보다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서울 풍납토성 우물에서 출토되었던 영산강유역권의 토기는 이 지역의 마한 세력이 백제의 국가 의례에 참여하였던 증거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권오영 2008) 나주 신촌리 9호분이나 고흥 안동고분 출토 금동관은 일본 큐슈 江田船山古墳 출토 금동관과 마찬가지로 백제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보냈던 일종의 선물이었다(임영진 2006).

영산강유역권이나 남해안권의 마지막 마한 사회는 백제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독자적인 발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리적으로 가까운 큐슈지역과의 관계 유지가 큰 비중을 차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두 지역에서 확인된 왜계고분과 스에키, 갑주 등 일본열도 관련 자료와 일본열도에서 출토된 마한·백제 토기의 지역별, 시기별 분포상을 통해 알 수 있다(白井克也 2001).

그러나 마지막 마한 사회 역시 남진하고자 하는 백제에 더이상 맞설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으며 남해안지역, 서부해안지역, 영산강내륙지역 순서로 통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3 일본열도 출토 마한A토기, 마한B토기, 백제토기 분포(白井克也 2001)

	對馬	唐津	糸島	早良	福岡	新宮・宗像	築後・佐賀	肥後	豊前	摂津	和泉	河内	大和
4世紀	A												
5世紀前・中葉	B		B	B						A	B	B	
5世紀後葉						B	百濟					百濟	
6世紀						B							
6世紀末~7世紀										百濟 百濟			

통합이 완료된 시기는 중국 양나라에 파견되었던 백제 사신이 주변 소국들에 대해 언급하였던 521년 이후부터 사비로 천도하였던 538년 사이로 추정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열도에서 529년에 종료되었던 磐井 전쟁 직후에 해당하는 530년경일 것이라고 판단된다(임영진 2014a).

#### IV. 해남반도 마한 사회의 역사적 성격

해남반도는 영산강유역권 마한 사회 속에서 발전하였던 지역으로서 그 역사적 실체가 문헌 기록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현재 알려진 자료로는 3세기 후엽의 『삼국지』 마한 54개국 기사, 282년에 해당하는 『진서』 장화열전 동이마한신미제국 기사, 369년으로 추산되는 『일본서기』 신공기 49년조 침미다례 관련 기사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해남반도 마한 사회의 역사적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문헌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적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므로 상기 기사에 대한 학계의 제 견해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삼국지』 마한 54개국 가운데 해남반도에 해당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에 대한 문제는 『진서』 장화열전 신미국 문제와도 연관되므로 함께 살펴보고, 『일본서기』 침미다례 문제에 대해 살펴본 다음 최근 주목되고 있는 왜계고분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 1. 新彌國 문제

신미국은 『삼국지』 동이전에 나오는 마한 제국과 비슷한 시기에 해당하는 역사적 실체로서 『진서』 장화전에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sup>1</sup>.

동이 마한 신미의 여러 나라는 산에 의지하고 바다를 띠처럼 두르고 있는 지역으로 幽州에서 4천여 리가 떨어져 있다. 역대 來附해 오지 않던 20여 국이 함께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쳐왔다.

이 자료는 영산강유역권에 해당하는 마한 사회가 본격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였던 시기에 이루어졌던 서진과의 교섭에 관한 것으로서 서진 견사에 참여하였던 20여 ‘新彌諸國’을 대표하는 ‘新彌國’의 위치를 해남반도로 추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삼국지』 위서 동이전에 언급된 해로상에서 해남반도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위치를 감안해 볼 때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이 시기의 고고학 자료로 입증되기는 쉽지 않다.

그 이후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옹관이나 석실을 가진 고분들이 많고 신금유적에서는 수 십기의 주거지가 확인된 바 있기 때문에 해남반도에 마한 소국이 위치하였을 가능성은 충분할 것이다. 필자는 중국 『양직공도』 관련 기사를 바탕으로 전남지역에 14개의 소국이 있었다고 보고 지금까지 확인된 고고학 자료를 토대로 백포만권을 중심으로 1개 소국이 자리잡고 있었을 것으로 본 바 있다(임영진 2013a). 문헌사 분야에서는 기록에 나오는 狗奚國이 마산면 일대에 위치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는데(천관우 1989) 고고학 자료로는 뒷받침되기 어렵다. 마한 54개국 가운데 하나인 狗奚國이 해남반도에 해당한다면 고고학적으로는 백포만권과 해남권이 유력할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미국으로 대표되는 영산강유역권의 마한 사회 전체를 주도해 나갔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세력을 형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고고학 자료는 찾아보기 어렵다.

한편 위 기사의 신미국과 『일본서기』 신공기에 나오는 침미다례를 동일한 것으로 보고 그 위치로 해남반도를 지목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신미국은 서남해안 바닷길을 통제할 수 있는 해남반도에서 옥녀봉토성을 중심으로 성장하다가 4세기 초 중국 군현이 소멸

1 『晉書』 권36 열전6; 東夷馬韓新彌諸國依山帶海去州四千餘里歷世未附者二十餘國並遣使朝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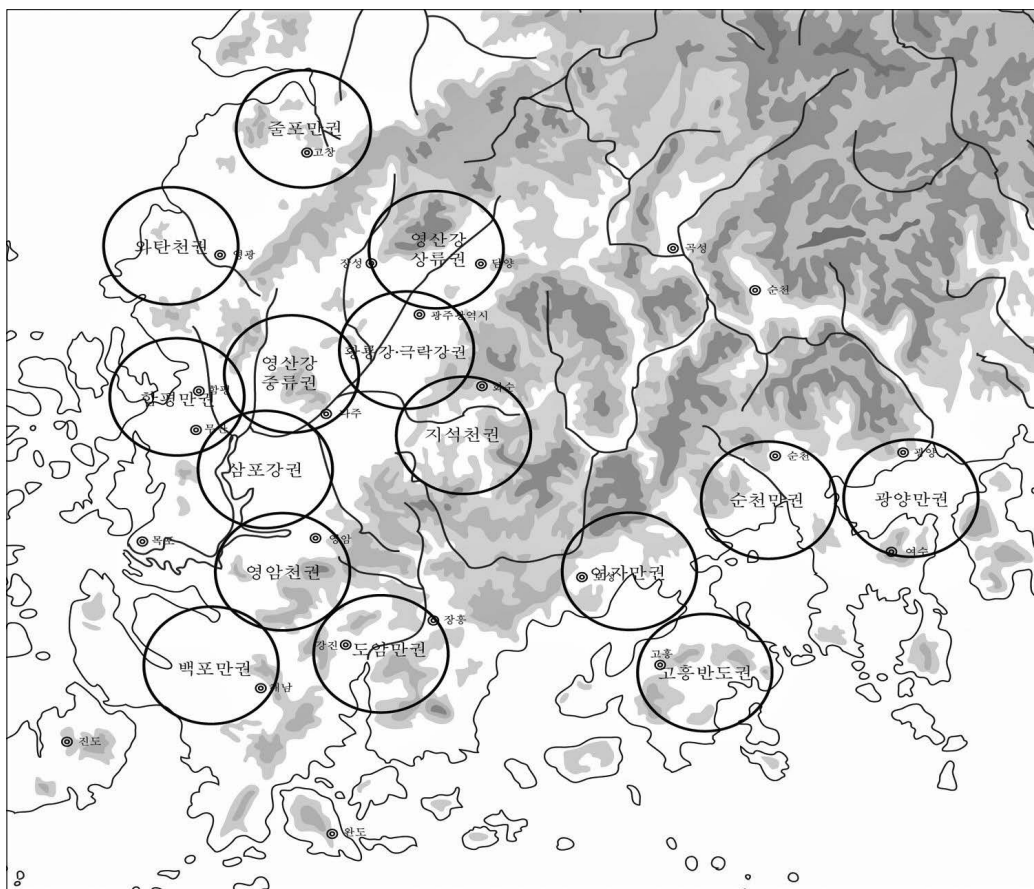
되면서 군곡리 패총으로 대표되는 교역 중계지 역할에 큰 타격을 받는 한편 369년 백제의 경락으로 말미암아 영산강유역 마한 제국의 주도권은 나주 반남면 지역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며 4~5세기 해남반도 주도권은 죽금성 세력으로 넘어갔고 삼산초등학교 소장 유물 가운데 가야계 토기는 죽금성 세력과 서부 경남지역의 교류의 산물이라고 본 견해이다(이도학 1995).

해남반도가 영산강유역권의 핵심 세력이 되어 20여 나라의 중국 견사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고고학 자료가 존재해야 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확인된 자료를 보면 그렇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군곡리 패총에서 화천과 같은 중국 관련 자료가 출토된 바 있지만 이 자료는 당시 이 지역 마한 사회를 대표하여 중국에 견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아니다. 중국 화폐는 광주 신창동이나 복룡동, 나주 북암리 등 영산강 중상류지역에서도 출토되었으며 광주 신창동에서는 철기, 바퀴살 등 다양한 신문물들이 출토된 바 있으므로 보다 광범위한 시각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삼산초등학교 소장 토기류는 소가야를 비롯한 가야토기로서 5세기대가 중심을 이룰 뿐 369년으로 보고 있는 백제의 공략과 지배를 반영하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진서』 장화전 기사와 신미제국을 영산강유역 웅관고분사회로 보되 ‘新彌’가 『일본서기』 기사의 ‘枕彌多禮’와 상통하면서 통일신라시대에 해남 현산면 일대를 칭했던 ‘浸溟縣’과도 통하는 점에서 당시의 거점포구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군곡리 일대가 ‘新彌’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도 한다. 다만 이 ‘新彌’는 영산강유역 세력 집단을 외부세계와 소통시키는 관문지 역사사회로 기능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강봉룡 2010).

이 견해는 현산면 일대 고대 지명의 유사성과 송지면 군곡리 패총의 중요성을 함께 감안한 것이지만 나주를 중심으로한 고고학 자료의 비중을 염두에 둔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지명학 전문가에 따르면 고대 기록 속의 한자 지명을 당시에 어떻게 읽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지금의 읽기방식으로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며(손희하 2014) 당시 영산강유역의 중심을 이루었던 영암 시종 지역이 해로상 접근이 어려운 지역이 아니었으므로 해남 백포만 지역에 별도의 관문을 둘 필요가 있었을지 의문이다.

해남군 마산면 일대를 狗奚國으로 보거나 현산면 일대를 新彌와 枕彌多禮로 보는 견해는 이 지역이 송지면 백포만 일대보다 내륙에 해당하고 상당수의 유적들이 분포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인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 지역의 고고학 자료는 시기적으로 백포만 일대보다 후행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해남반도에서 중심지가 변화된 결과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도 2 6세기 초까지 발전하였던 마지막 마한 15개국 분포도(임영진 2014a)

영산강유역에서도 5세기에는 중심지가 영암 시종 일대에서 나주 반남 일대로 바뀌고 6세기부터는 나주 북암리 일대로 옮겨지고 있다. 그와 같은 변화의 배경은 간단하지 않겠지만 일차적으로는 자연환경의 변화와 관련될 것이다(임영진 2011a). 5세기는 해수면 상승이 두드러지는 시기이며 이에 따라 상류나 내륙으로의 이주가 이루어지거나 다른 대책이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 비류왕대로 추정되는 김제 벽골제 축조나 개로왕의 대대적인 한성지역 제방공사는 그와 관련된 것이며(임영진 2012a) 해남 화산면 안호리와 석호리 유적이 그 즈음에 폐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최근에는 『진서』 新彌와 『양직공도』 止迷를 같은 것으로 보고 신미국이 3세기 후반 국제무대에 등장한 이후 6세기 전반에 백제의 부흥으로 나타나는 것은 백제의 마한 복속과 전남 지역의 영역화 추세에 부합한다는 견해도 나왔다(전진국 2017). 『양직공도』에 나오는 止迷의 위치는 나주 반남 고분군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이용현 2013).

## 2. 忱彌多禮 문제

침미다례는 『진서』 장화전에 나오는 신미국과 동일한 나라이면서 『일본서기』 신공기 49년 3월조에 다르게 표기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이견도 적지 않다. 침미다례에 관한 『일본서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2</sup>.

49년 봄 3월 荒田別과 鹿我別을 장군으로 삼아 久氏 등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건너가 탁순국에 이르러 신라를 치려고 하였다. 이 때 어떤 사람이 “군대가 적어서 신라를 깨뜨릴 수 없으니, 다시 沙白·蓋盧를 보내어 군사를 늘려 주도록 요청하십시오”라고 하였다. 곧 木羅斤資와 沙沙奴跪[이 두 사람은 그姓을 모르는데 다만 木羅斤資는 백제 장군이다]에게 정병을 이끌고 沙白·蓋盧와 함께 가도록 명하였다. 함께 탁순국에 모여 신라를 격파하고, 비자발·남가라·녹국·안라·다라·탁순·가라 7국을 평정하였다. 또 군대를 옮겨 서쪽으로 돌아 古奚津에 이르러 남쪽의 오랑개 忱彌多禮를 무찔러 백제에게 주었다. 이에 백제왕 肖古와 왕자 貴須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만났다. 이 때 比利辟 中布彌支半古四邑이 스스로 항복하였다. 그래서 백제왕 부자와 荒田別·木羅斤資 등이 意流村[지금은 州流須祗라 한다]에서 함께 서로 만나 기뻐하고 후하게 대접하여 보냈다. 오직 千熊長彦과 백제왕은 백제국에 이르러 辟支山에 올라가 맹세하였다. 다시 古沙山에 올라가 함께 반석 위에 앉아서 백제왕이 “만약 풀을 갈아 자리를 만들면 불에 탈까 두렵고 또 나무로 자리를 만들면 물에 떠내려갈까 걱정된다. 그러므로 반석에 앉아 맹세하는 것은 오래도록 썩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니, 지금 이후로는 천년 만

2 『일본서기』 권9 신공 49년 춘3월조: 卅九年春三月, 以荒田別·鹿我別爲將軍. 則與久氏等, 共勒兵而度之, 至卓淳國, 將襲新羅. 時或曰, 兵衆少之, 不可破新羅. 更復奉上沙白·蓋盧, 請增軍士. 卽命木羅斤資·沙沙奴跪[是二人, 不知其姓人也. 但木羅斤資者, 百濟將也.] 領精兵, 與沙白·蓋盧共遣之. 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平定比自休·南加羅·喙國·安羅·多羅·卓淳·加羅七國. 仍移兵, 西廻至古奚津, 屠南蠻忱彌多禮, 以賜百濟. 於是, 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會. 時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 自然降服. 是以, 百濟王父子及荒田別·木羅斤資等, 共會意流村.[今云州流須祗.] 相見欣感. 厚禮送遣之. 唯千熊長彦與百濟王, 至于百濟國, 登辟支山盟之. 復登古沙山, 共居磐石上. 時百濟王盟之曰, 若數草爲坐, 恐見火燒. 且取木爲坐, 恐爲水流. 故居磐石而盟者, 示長遠之不朽者也. 是以, 自今以後, 千秋萬歲, 無絕無窮. 常稱西蕃, 春秋朝貢. 則將千熊長彦, 至都下厚加禮遇. 亦副久底等而送之.

년 영원토록 늘 서쪽 번국이라 칭하며 봄, 가을로 조공하겠다”라고 맹세하였다. 그리고 千熊長彦을 데리고 도읍에 이르러 후하게 예우를 더하고 久氐 등을 딸려서 보냈다.

이 기사는 369년 백제 근초고왕이 전남지역 마한 세력을 병합하였던 것으로 본 견해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 자료로 이용되었지만(이병도 1976) 백제의 정복활동에 동참하였던 왜의 실체를 비롯하여 정복시기, 지배방식 등 중요한 문제에 대해 문헌사학과 고고학계에서 다양한 이견들이 제기된 바 있다.

백제의 정복활동에 동참한 왜의 실체에 대해서는, 아마토 정권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북방계 기마민족의 일파(江上波夫 1968), 近畿에 중심을 둔 각 지역 세력의 연합체(鈴木靖民 1988), 북큐슈 지역의 백제계 왜구(김석형 1966), 한반도 남부의 왜인(井上秀雄 1973), 친백제적 북큐슈 세력(천관우 1979), 큐슈 일대의 해적 집단(王健群 1985), 북큐슈 지역의 狗奴國(水野祐 1967), 북큐슈 지역의 伊都國(이기동 1990) 등 다양하다.

백제의 정복시기와 지배방식에 대해서는, 금강 이남지역은 근초고왕대 백제에 복속되었으나 영산강유역은 5세기 말 이전까지 극히 제한된 범위에서 거점 중심으로 백제의 지배를 받았다는 견해(이도학 1991), 그 시기를 담로의 설치와 관련시켜 5세기 중엽경으로 보는 견해(김기섭 1995), 충남과 전북 일대의 마한 세력과 전북 지역의 가야 세력에 대한 일시적인 군사행동이 반영된 것일 뿐이며 백제가 전남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시작한 것은 475년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일 것으로 보는 견해(이영식 1995), 마한 연맹장이었던 백제 근초고왕이 남아있는 마한 세력을 병합하였지만 영산강유역은 신라나 가야 7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회성 강습에 불과하여 통일된 지배망을 구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견해(이기동 1996), 4세기 후반에 백제가 왜와의 안정적인 교역체계를 모색하기 위해 임나가야와 침미다례에 교역 거점을 설치한 사건이었다고 보는 견해(김태석 1996), 문제의 기사는 픽션이거나 후대 백제층의 현실과 기대감이 표출된 것이라고 보는 견해(연민수 1996), 백제가 4세기 후반 왜와 함께 가야 지역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여 백제-가야-왜로 연결되는 국제 교역망을 결성하였던 사건이며 영산강유역은 6세기 초까지 연맹체를 유지해 나갔다고 보는 견해(강봉룡 1997), 영산강유역의 웅관묘 사회는 백제 근초고왕대에 일시적으로 군사적 점령을 당하였을 뿐이며 행정적인 완전한 정복은 아니었다고 보는 견해(김주성 1997), 근초고왕대부터 백제는 해안을 통한 교두보적 거점 확보 방식으로 영역을 확대해 나갔는데 영산강유역은 직접적인 지배영역에 포함시키지 못하다가 동성왕대에 이르러 지배영역화한 것으로 보는 견해(김영심 1997), 『남제



서』와 『양직공도』 등에 보이는 백제의 영토 관련 기사를 검토하여 근초고왕대에는 충남·전북 일대까지 병합하였던 것으로 보는 견해(이근우 1997), 근초고왕대에 점령하였지만 영산강유역의 토착세력은 해체되지 않고 남아 있다가 동성왕과 무령왕의 공략 과정을 거쳐 성왕대에 이르러 백제 중앙에 편입되었다고 보는 견해(박현숙 1997), 백제가 영산강유역 토착 지배층의 지위를 보장해 주는 대신 수리관개시설의 축조와 정비에 필요한 역부를 제공받다가 6세기 중반경에 영역화한 것으로 보는 견해(전덕재 2000), 개로왕대에 안성천 이남에서 노령 이북까지 시행되었던 왕·후제가 동성왕대에 전남지역으로 확대되었다는 견해(문안식 2007), 근초고왕대에 전북 일원은 영역화하였지만 다른 지역은 백제-가야-왜로 이어지는 교역 거점을 확보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보는 견해(정재윤 2008), 신공기 기사는 흠명기 기사보다 나중에 쓰여졌기 때문에 흠명기 성왕의 언급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견해(백승옥 2012), 근초고왕대 정복하였지만 고구려와의 전쟁에 대비한 배후기지로서의 성격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역 지배 대신 조공 관계의 간접지배를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견해(양기석 2013), 근초고왕에 의해 공략되었다고 보되 해남과 강진 등지의 대외교섭 거점 포구는 직접 관할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공납지배를 실시함으로써 마한의 실체가 6세기 초반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보는 견해(문안식 2013), 백제의 금동관모와 금동신발 등은 은화관식과 달리 전혀 기록되지 않았는데 이는 귀족 및 지방유력자의 관료화 내지 관제정비의 과도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간접지배와 직접지배, 세력화와 영토화의 중간지점을 시사하며 늦어도 5세기 말, 6세기 초에는 전남지역에 대한 행정편제가 이루어졌다고 보는 견해(김기섭 2014) 등이 제기되어 있다.

고고학계에서는 1990년대 초까지 문헌사학계의 통설을 수용하면서 고고학 자료에 대해 부수적인 해석을 가하는 정도였다. 4세기 중엽 근초고왕의 병합 이후에는 백제의 규제에 의해 토착 문화가 발전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정 아래 영산강유역 옹관묘의 소멸 시점을 4세기 중엽경으로 본 견해(안춘배 1985)나 4세기 중엽 백제에 병합되었지만 간접지배 아래 옹관묘가 제한적으로 발전하다가 5세기 중엽경 직접지배로 바뀐에 따라 중앙에서 파견된 관리들에 의해 석실묘가 보급되었다고 본 견해(최몽룡 1986; 최성락 1990)가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1990년대부터는 통설과 다른 새로운 견해들이 제기되기 시작하였는데 영산강유역 초기 석실묘의 피장자를 백제에서 내려온 관리가 아니라 옹관묘를 썼던 토착세력자일 것이라고 본 견해(임영진 1990), 영산강유역의 석실묘는 백제와의 교류 속에서 외곽지역부터 수용되었다고 본 견해(조근우 1996), 백제가 전남지역을 병합한 시기는 백제식 석실묘가 파급되는 6세

기 중엽경이라는 견해(임영진 1997a), 5세기대 영산강유역의 정치적 상황은 고고자료로 보나 문헌자료로 보나 백제 중앙의 통제하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견해(권오영 1999) 등이 그것이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보다 다양한 견해들이 발표되었다. 전북 서해안의 마한 취락들은 4세기 중후반을 넘지 않지만 전남지역에서는 6세기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백제의 마한 잔여세력 병합시기에 대한 기존 통설을 재고해야 한다는 견해(김승욱 2000), 영산강유역의 마한 세력은 6세기 중엽경 백제와의 무리한 전쟁보다는 평화적인 방법을 택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며 나주 복암리 3호분의 5호·16호 석실에서 출토된 백제관식은 그와 같은 사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견해(임영진 2000a), 5세기 중엽경에 영산강유역 양식의 토기문화가 완성되는 것은 나주 반남을 중심으로 정치적 통합을 달성하였기 때문이라고 보는 견해(박순발 2000), 영산강유역은 4세기부터 금관가야를 정점으로 하는 낙동강하류역과 긴밀한 정치 연합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는 견해(신경철 2000), 분구묘의 단절없는 발전 과정을 통해 백제와의 관계 변화를 검토한 견해(임영진 2002), 영산강유역 웅관묘 사회의 구조 변화에 대한 견해(이영철 2004), 전남지역에서 출토된 금동관과 금동신발은 백제에서 하사한 것이 아니라 상호 평화 공존을 위해 제공된 것이라는 견해(임영진 2006), 5세기 말~6세기 초 영산강유역의 고분에서도 백제양식 토기가 출토되기 시작하지만 토착적인 영산강양식 토기가 6세기 초까지 지속된다는 점에서 영산강유역의 백제 편입은 6세기 중엽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서현주 2006), 영산강유역은 5세기 전반까지 백제를 매개로 왜와 교통하게 되었으며, 5세기 중~후엽에는 반남 집단과 같은 정치체가 백제와 동맹 관계를 맺었다고 보는 견해(김낙중 2009), 침미다례의 위치를 고흥반도로 보는 견해(임영진 2010b), 영산강유역 권에서는 5세기 말~6세기 초에 마한 제국의 유력자들에 의해 대규모 수묘들이 축조되었는데 백제에 병합된 이후 강력한 규제에 의해 자신들의 수묘에 묻힐 수 없게 되었다고 보는 견해(임영진 2011b), 영산강 상류지역은 취락으로 보아 5세기 후반에 들어 백제의 직접적인 지배권에 포함되었다고 보는 견해(이영철 2011), 200점에 가까운 백제 출토 중국 육조자기는 백제 왕실의 중국 견사에 동참하였던 지역 세력자들이 구입하였던 것으로 보고 5세기 말까지 전남지역에서 출토된 것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시 전남지역 마한 세력은 백제 왕실의 중국 견사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본 견해(임영진 2012b), 전남지역과 접경을 이룬다고 할 수 있는 정읍과 전주 지역에는 웅진시대에 백제 성곽이 축조되는데 이는 백제가 그 남쪽 지역을 견제하고 병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는 견해(임영진 2013b), 해남의 신금유적이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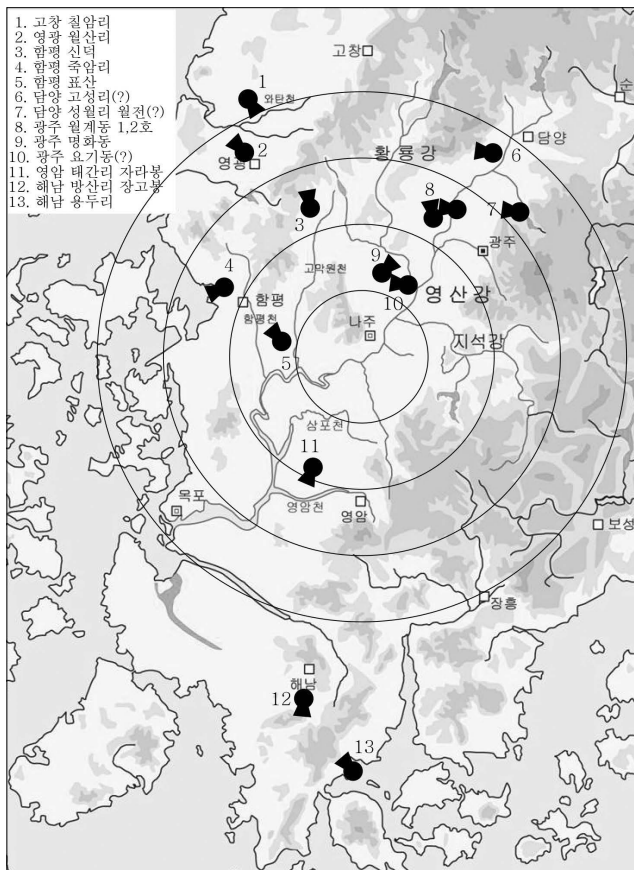


분토유적을 포함하여 강진 양유동유적 등 서남해안권 주거지 가운데 4세기 중반경에 화재로 인해 폐기된 예가 많다는 점에서 백제 근초고왕의 마한 잔여세력 공략설을 기정사실화하여 연결시킨 견해(정일·최미숙 2013), 침미다례의 위치에 대해 신공기 기사를 369년으로 본다면 나주지역이거나 해남지역으로, 5세기 중엽경이고 침미다례를 하나로 본다면 해남지역, 침미와 다례로 분리해 본다면 해남과 고흥지역으로, 5세기 후반으로 본다면 광주지역으로 추정하는 견해(최성락 2013), 백제의 침미다례 정복과 연계되어 있는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읍의 위치에 대해 고총고분이 등장한 고창 이남 지역은 백제의 영향력이 직접 미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이북일 것으로 보는 견해(김낙중 2013a),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읍은 백제의 침미다례 도륙 이후 스스로 항복하였다는 점에서 마지막 남은 마한권 가운데 전북 고창과 전남 서부해안지역의 4~5개 소국일 것으로 본 견해(임영진 2014a), 5세기 이후 황룡강·극락강권은 초대형 취락이 밀집하고 수공업시설의 밀집도도 높은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동성왕이 광주에 군사를 이끌고 갔던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견해(김승욱 2014), 5~6세기의 영산강유역은 백제에서 볼 때 대왜 교통로와 경제력 확보 측면에서 반드시 포섭해야 할 대상이었지만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는 쉽지 않았다는 견해(오동선 2017) 등이 발표되었다.

### 3. 倭系古墳 문제

해남반도를 비롯한 전남지역에는 옹관을 매장주체로 한 토착적인 고분과는 달리 비토착적인 횡혈식 석실이나 수혈식 석곽을 매장주체로 하면서 구축묘광, 제형석곽(석실), 주칠 등 왜와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되는 고분들이 적지 않다(조영현 2011). 분형에 있어서는 장고형이 대표적이지만 원형이나 방형도 있다. 또한 옹관과 공존하는 석실 가운데에도 구조적으로는 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특히 해남반도 동남부 북일면 일대에는 장고봉고분을 비롯하여 신방고분, 용운고분군, 밭섬고분군 등 왜계고분들이 집중되어 있다.

장고분을 비롯하여 왜계 석실을 가진 고분들은 대부분 내륙지역에 분포하고 규모가 큰 편이며 시기는 5세기 말부터 6세기 중엽경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석곽을 가지고 있는 고분들은 주로 해안도서지역에 분포하고 규모가 작은 편이며 5세기 초부터 중엽경에 해당한다. 장고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견해들이 제기되어 왔는데 크게 4가지 견해로 구분해 볼 수 있다(임영진 2013c).



도 3 장고분 분포도

첫째, 망명왜인설은 장고분의 분포 상황에 주목하고 일본의 내부 변화 속에서 더 이상 일본열도에서 거주하기 어려운 사정을 가진 사람들이 망명해 온 것으로 본 견해이다<sup>3</sup>. 이 견해는 그 망명지가 영산강유역권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남는데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둘째, 토착세력자설은 영산강유역권 외곽의 토착세력자들이 남하하는 백제의 압박 속에서 왜와 교류하면서 도입하였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견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일본열도의 전방후원분이 도입되기 전에 그러한

무덤을 쓸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현지 토착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 먼저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장고분들은 선행고분이 없는 지역에서 단독분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sup>4</sup> 현지 토착세력의 존재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셋째, 야마토파견왜인설은 영산강유역과 야마토 정권 사이에 교역과 같은 역할을 담당하

3 이 문제에 있어, 마한권에서 왜로 이주한 사람들이 당대에 다시 돌아온 것으로 이해하는 연구자들도 있는데 이는 대단히 큰 오해이다. 백제에 밀린 마한 세력의 일본열도 이주는 영산강유역권에 장고분이 축조되기 훨씬 전인 3세기 말경부터 시작되었던 일이므로(임영진 2000b) 당대의 귀향 운운하는 것은 필자의 견해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견해라고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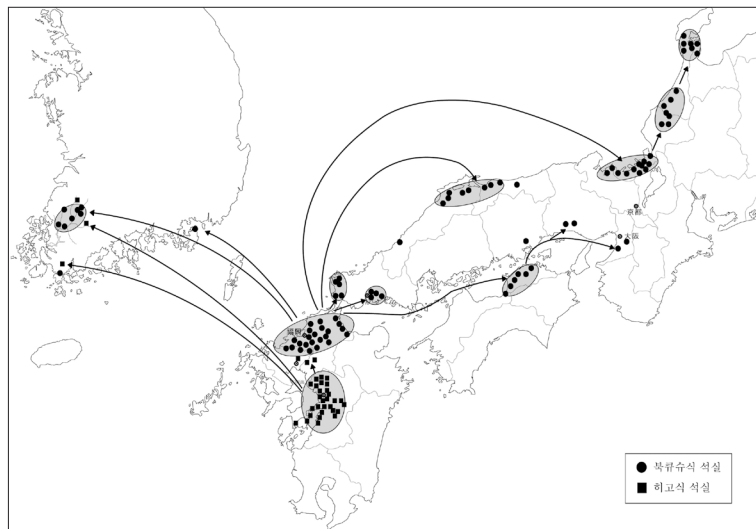
4 광주 월계동, 함평 표산·신덕, 해남 장고산 등지에서는 장고분에 인접한 고분들이 있지만 시기적으로 후대에 해당하는 고분들이기 때문에 현지 토착세력의 존재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기 위해 파견되었던 왜인이라는 견해이다. 그러나 왜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는 집단이 영산강유역권에 들어와 있었다면 조선시대에 부산 동래에 왜관이 설치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교역에 편리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였을 것이지만 영산강유역권의 장고분들은 내륙 오지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모두 분산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넷째, 백제파견왜인설은 백제의 공주 천도 이후 영산강유역권에 대한 직접적인 장악력이 떨어지자 백제가 이 지역의 토착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파견하였던 왜계 백제관료가 축조하였다는 견해와 일본열도에서 거주하다가 귀국한 백제인이 축조하였다는 견해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전자는 6세기 중엽에 등장한다는 점과 활동 지역이 백제나 가야 지역이었다는 점이 문제이다. 후자는 백제권에서 이주하여 近畿를 중심으로 활동하다가 곤지와 동성왕을 따라 귀국하였던 사람들에 의해 축조된 것으로 보는 견해인데 영산강유역권에 묻힌 이유가 불분명하다.

장고분의 피장자와 축조배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장고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고학적 현상이 가장 중요하다. 핵심적인 현상은 당시 영산강유역권의 중심지인 나주 일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며 그 주변지역에 단독분 위주로 산재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는 점이다. 이는 그 주인공들이 현지에 토착기반을 가지지 않았으며 상당한 규모의 장고분을 축조하였지만 그 역량을 후대로 계승시키지 못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현지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일본열도에서 들어오되 영산강유역권 토착세력의 승인 아래 주변의 땅을 빌어 생활하다가 현지에 문 힘으로써 끝이 나는 정치적 망명객이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임영진 1996).

구체적인 축조배경에 있어서는 5세기 4/4분기에서 6세기 1/4분기에 광



도 4 北九州型 석실과 肥後型 석실의 파급

주 월계동 1호분과 같은 北九州型 석실이 사용되다가 6세기 2/4분기에 해남 용두리 고분과 같이 肥後型 석실로 바뀌는 점이 중요하다. 가야지역에도 5세기 4/4분기에 거제 장목고분과 같은 北九州型 석실을 가진 원분들이 나타나고 일본열도에서도 5세기 4/4분기에 北九州型 석실이 畿内 지역을 제외한 주변 지역으로 광범위하게 파급되었지만 그 이후에 해당하는 肥後型 석실이 이어지지 못하는 점과 대비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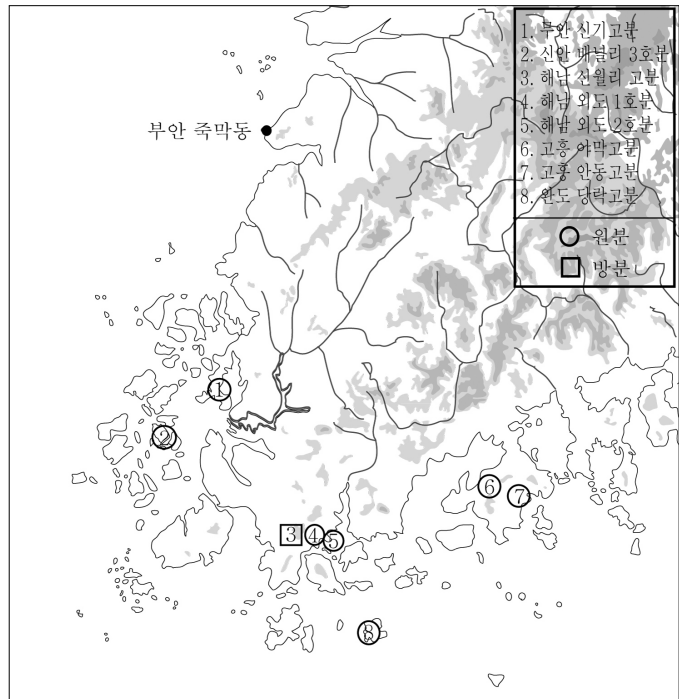
5세기 4/4분기 일본열도 北九州型 석실의 파급 배경에 대해서는 혼인 등을 통한 교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고분을 축조할 때 공인을 파견하였던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柳澤一男 1991). 그러나 파급 시기와 범위를 보면 한반도와 일본열도를 동일한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北九州型 석실이 성행하였던 북부 큐슈가 5세기 말 磐井 세력에게 병합당하면서 북부 큐슈 세력이 각각 자신들과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던 한반도 남부지역과 일본열도 각지로 망명함으로써 해당 지역에 北九州型 석실묘를 남기게 되었지만 肥後型 석실을 사용하고 있었던 磐井 세력은 529년 야마토 정권에 병합되면서 이미 야마토 정권이 장악해 버린 일본열도에서는 더 이상 망명처를 얻기 어려웠기 때문에 야마토 정권과는 무관한 한반도에서 망명처를 찾을 수 밖에 없게 됨으로써 肥後型 석실은 일본열도에서는 확산되지 못하고 한반도 남부지역으로만 확산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임영진 2011a).

北九州型·肥後型 석실을 가진 장고분과 肥後型 석실을 가진 원분이 영산강유역권에 국한되고 경남 남해안을 비롯한 낙동강유역권에는 나타나지 않은 이유에 있어서는 망명처라는 것은 이를 구하고자 하는 자의 요청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망명을 요청받은 세력의 승인이 있어야만 확보된다는 점이 중요할 것이다.

일본열도에서는 磐井 전쟁을 지방 호족의 반란 정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이를 진압한 야마토 繼體 왕조가 3년 뒤에 무너졌던 점과 磐井 세력이 신라와 연계하고자 하였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그 세력은 상당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국제 정세를 보는 눈도 정확하였다(이기동 2009). 비록 야마토에 패하였지만 磐井 세력은 불리해지는 전황 속에서 당연히 안전한 망명처를 구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야마토 치하의 일본열도에서는 망명처를 찾을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남부지역에서 망명처를 구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磐井 세력으로부터 망명처를 요청 받은 입장에서는 일본열도를 통합한 야마토 왕권과의 갈등을 감수하면서까지 쫓겨오는 磐井 세력을 수용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磐井 세력과 관련된 肥後型 석실을 가진 장고분과 원분들이 영산강유역권에 국한된 것은 磐井 세력의 최종 선택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백제·

신라·가야와는 달리 영산강유역권의 마지막 마한 세력은 아마도 세력과 무관하였기 때문에 磐井 세력의 망명을 받아줄 수 있었을 것이다(임영진 2014b). 다만 이들이 세력을 형성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며 이는 해당 고분의 분포상으로 통해 추정할 수 있듯이 외곽지대에 분산 수용함으로써 해결하였다고 본다.



도 5 왜계고분 분포도(임영진 2014b)

장고분 문제에 이어 최근에는 해남 발삼 고분과

같은 소형 왜계고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발표자는 전남 남해안 지역의 고분들은 매장주체부가 석실로 추정되면서도 입지, 장축방향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영산강식이나 백제식 석실과 다른 특징을 갖는다는 점에서 남해안식 석실로 명명하고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임영진 1997b). 당시에는 도굴로 인해 노출되었던 해남 발삼 고분의 석곽 외에 구조가 밝혀진 고분이 없었지만 이후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신안 배널리고분, 고흥 야막고분, 해남 신월리 고분, 무안 신기고분 등 유사한 구조를 가진 고분들이 속속 발굴되면서 북부 九州 지역의 수혈식석곽과 상통하는 석곽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짐으로써 그 피장자에 대해 토착세력자설, 가야인설, 백제 왕·후설, 왜인설 등 다양한 견해들이 제기되고 있다.

토착세력자설은 고흥 안동고분에 대한 견해가 중심이 되는데 남해안 연안항로의 길목에 해당하는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기항지로 발전하였던 세력(임영진·오동선 2006), 한군현시기부터 활동해 왔던 포구세력(강봉룡 2006), 한성시대 최단거리의 간선 교통로와 남해안 연안항로가 만나는 국제교역항의 지역 세력자(곽장근 2008), 백제 금동관과 금동신발로 미루어 백제의 지배과정에서 의제적 친족으로 편입되었던 현지 유력자(이한상 2011), 현지 유력 수장일



수는 있지만 백제 연안항로 상의 역할로 보아 현지 지배에서 갖는 의미는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견해(김영심 2011) 등이 있다. 또한 전략적으로 중요시하거나 긴밀한 우호관계를 통해 백제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는 견해(성정용 2006), 나주 신촌리 9호분의 피장자와 함께 백제의 전략적 필요에 따라 선택·후원된 것으로 보는 견해(권오영 2007), 이 지역을 무대로 활동하였던 토착세력가 혹은 해양세력으로 보는 견해(정재윤 2008) 등이 있다. 하지만 인근에서 토착세력이 존재하였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찾아보기 어려운 유적도 섞여있기 때문에 일괄해서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백제 왕·후설은 고흥 안동고분에 대한 것으로서 백제 금동관과 금동신발이 출토된 점을 중시하여 금동관이 출토된 나주 신촌리 9호분과 함평 신덕 장고분의 피장자와 함께 백제가 현지 토착세력을 임명한 왕·후로 보는 견해이다(문안식 2007). 백제의 왕·후는 임지를 옮겨 다닌다는 점과 『양직공도』에 보이는 방소국에 대해 백제 스스로 자신들과 구분되는 부용국으로 인식하는 점 등에서 백제의 왕·후로 보는 것은無理일 것으로 보기도 하지만(정재윤 1992) 백제가 임명한 왕·후라고 보는 점을 제외하면 토착세력자설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가야인설은 신안 배널리 3호분에 대한 견해로서 백제-가야-왜를 연결하는 해로와 관련된 가야 군사 집단의 무덤으로 보는 것이다(동신대박물관 2011). 주변에서 토착세력의 존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토착세력일 가능성은 낮을 것이다. 출토된 갑옷과 투구가 가야 출토품과 상통하고, 『남제서』에 479년 가야 왕 荷知가 사신을 파견하여 ‘輔國將軍本國王’ 관작을 받았던 기록이 있기 때문에<sup>5</sup> 가야가 중국에 사신을 파견할 때 이용하였던 해로를 관리하는 인물이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야의 중국 전사가 1회에 그쳤다는 점에서 상주 가능성은 그다지 높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왜인설은 왜계 석곽과 갑주를 비롯한 무기류 위주의 부장품으로 미루어 그 주인공이 왜인일 것으로 보는 것이다. 축조 배경에 있어서는 선진문물을 입수하기 위해 파견된 왜인(홍보식 2006), 백제의 남해안 진출과 관련된 왜계 관료(박천수 2006) 혹은 군사집단(김영민 2011), 4세기 후반 백제 근초고왕의 침미다례 도륙과 관련시켜 북방의 고구려와 대치해야 하는 사정 속에서 백제의 본대를 상주시키는 것이 부담이 되자 전투시 충원된 왜군을 상주시켰던 고고학적 증거라고 보는 견해(이정호 2013), 왜와 백제 사이의 교역에 종사하였던 왜인으로

5 『南齊書』卷五十八 列傳 第三十九 蠻東南夷傳: 加羅國 三韓種也 建元元年 國王荷知使來獻 詔曰 量廣始登 遠夷洽化 加羅王荷知款關海外 奉贄東遐 可授輔國將軍本國王

보는 견해(김낙중 2013b) 등이 있다.

전남 해안도서지역 왜계고분의 성격에 대한 위의 4가지 설은 모든 왜계고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5세기 초부터 왜인들의 왕래가 증가하면서 항해의 안전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되 현지에 토착세력이 존재하는 경우와 존재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여 살펴 본 바 있다. 토착세력이 존재하는 지역에서는 그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반대급부로 갑주류와 같은 특산품을 제공하였을 것이고, 토착세력이 존재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직접 정착하여 필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을 것으로 본 것이다(임영진 2014b).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왜5왕의 중국 견사와 관련되었을 것으로 보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임영진 2017).

전남 신안에서 고흥에 이르는 해안도서지역의 왜계고분들은 바다를 통한 백제와 왜의 교류에서 항해의 안내와 같은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당시 서울에 도움을 두고 있었던 백제와 일본열도 왜 사이의 항로 가운데 특별히 전남 연안도서지역에 왜계고분이 국한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장고분을 제외한 전남 해안도서지역 왜계고분들은 규모가 장고분에 미치지 못하면서 5세기에 해당하는 왜5왕의 중국 견사 시기와 일치하는 점이 중요하다. 왜5왕의 중국 견사 배경이나 목적 가운데에는 일본열도 내부의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으로부터 작호를 받는 것이 중요하였는데 중국에 요청한 독제군사호에 백제를 포함시킨 사실을 보면 백제의 안내를 받았다고보다는 백제와 구별되는 독자적인 교섭을 시도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전남지역은 백제에 병합되지 않은 마한 세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왜5왕의 중국 견사시 도움을 받는 과정에서 해남을 비롯한 전남 해안도서지역에 왜계고분들이 축조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전북 죽막동 이북의 백제 해역에서는 왜계고분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일 것이다.

6세기 중엽 이후부터는 신안 도창리 고분이 있는 장산도를 비롯하여 압해도, 임자도, 비금도, 하의도, 안좌도, 자은도, 신의도 등지에서 백제계 석실묘들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중국 『수서』에 백제가 서남해 도서지역에 15곳의 군현을 두었다는 기록이 보이는 점과 상통하는 것으로서 백제가 전남지역 마지막 마한 세력을 병합한 후 전남 도서지역에 군현을 설치하고 관리를 파견하여 가야나 왜로 통하는 연안항로를 관할하도록 하였던 것과 직결되는 것이다(문안식 2014). 해남지역에서는 6세기 중엽 이후의 백제 석실묘가 확인되지 않는데 이는 백제가 6세기 전엽 섬진강을 통한 대외 교섭 루트를 확보하였을 뿐만 아니라 항해술의 발달로 인해 보다 먼 바다 항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 것과 관련되었을 것으로 본 것은(김낙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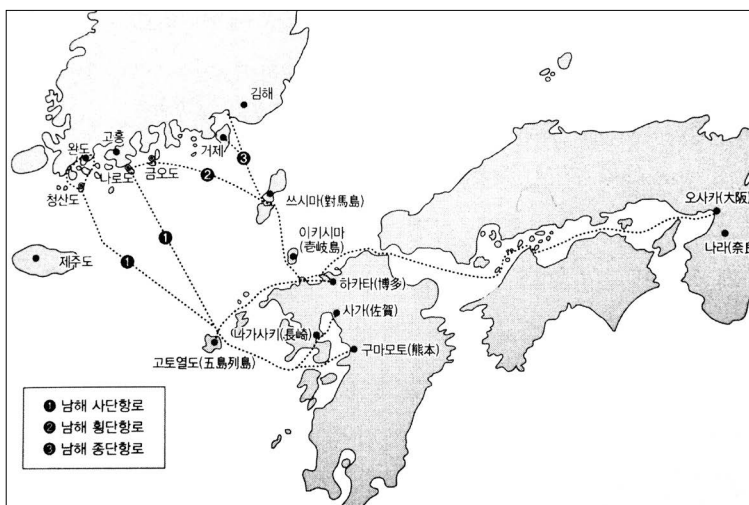
2015) 위 견해와 부분적으로 통하고 있다. 여하튼 5세기대의 이 지역 왜계고분들이 6세기 중엽 이후에 해당하는 백제계 고분들과 반세기 이상 단절되어 있다는 사실은 5세기대 왜계고분의 주인공이 왜와 관련된 세력이라 하더라도 한시적, 국지적이었음을 말해 줄 것이다.

해남반도에서는 5세기대의 왜계 석곽묘 이후에도 북일면 방산리와 용운리 일대를 중심으로 6세기대에 왜계 장고분과 왜계 석실분이 축조되었는데 이 역시 한시적인 것으로서 내동리 발삼 고분과 같은 5세기대 고분과 무관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이다. 해남 북일면 일대와 같이 5~6세기에 걸쳐 왜계고분들이 집중된 예는 다른 지역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 지역은 해남반도 안에서도 두륜산맥으로 서부지역과 구분되면서 남해에 접해 있는 지리적인 특징 속에서 왜계 문물이나 주민들의 왕래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였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V. 맺음말

해남반도는 영산강유역권의 마한 사회에 해당하면서 고대 중국-한국-일본을 연결하는 연안항로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연안항로 뿐만 아니라 제주도(김경주

2018), 일본 고토열도(문안식 2016; 박재룡 2016) 등지에 이르는 근해항로에 있어서의 역할도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해남반도는 백제, 영산강유역권의 마한 사회, 왜 등 광범위한 지역 속에서 부분적으로 다루어



도 6 백제와 왜를 연결하는 3대 항로(문안식 2016)



지고 있을 뿐 해남반도 자체를 주제로 삼은 세부적인 연구 성과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해남반도가 처음으로 문헌기록에 등장하였다고 인정되는 『삼국지』 위지동이전 한조나 『진서』 장화전 등 3세기 후엽경부터 접근해 볼 수 있는 해남반도의 역사적 성격 문제에 있어서는 신미국 혹은 침미다례 등 문헌에 기록된 나라를 해남반도와 직결시키기는 쉽지 않다. 일반적으로 고기록에 나오는 한자 명칭을 음독 혹은 훈독하여 백제 이래의 현지 지명과 비교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지만 연구자에 따라 판이한 경우가 많은데 이는 고기록 속의 한자 지명을 당시에 어떻게 읽었는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고기록 속의 특정 나라를 찾는 보다 합리적인 노력과 함께 광범위한 시각에서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문화적 특성을 찾아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남반도 고대 사회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에서 벗어나서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유적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비롯하여 학계에서 논란이 계속되는 세부 주제나 중요 유적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학술 회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봉룡, 1997, 「5-6세기 영산강유역 웅관묘사회의 해체」, 『제18회 학술대회 자료집』, 한국상고사학회.
- 강봉룡, 2006, 「고대 동북아 연안항로와 영산강·낙동강유역」, 『제12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김해시.
- 강봉룡, 2010, 「고대 동아시아 연안항로와 영산강·낙동강유역의 동향」, 『도서문화』 36.
- 강인구, 1987, 『한국의 전방후원분 舞妓山과 長鼓山 측량조사보고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곽장근, 2008, 「섬진강유역 교통로의 재편과정과 그 의미」,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 권오영, 1999, 「고대의 나주」, 『북암리고분군』, 전남대학교박물관.
- 권오영, 2007, 「고고자료로 본 백제의 지방사회」, 『백제의 정치제도와 군사』, 충청남도역사문화원.
- 권오영, 2008, 「성스러운 우물의 제사」, 『지방사와 지방문화』 11-2.
- 김경주, 2018, 「문헌과 고고자료로 본 탐라의 대외교류」, 『호남고고학보』 58.
- 김기섭, 1995, 「근초고왕대 남해안진출설에 대한 재검토」, 『백제문화』 24.
- 김기섭, 2014, 「백제의 영역확장과 마한병탄」, 『백제학보』 11.
- 김낙중, 2009, 『영산강유역 고분 연구』, 학연문화사.
- 김낙중, 2013a, 「고고학 자료로 본 비리벽중포미지반고사읍의 위치」, 『백제학보』 9.
- 김낙중, 2013b, 「5~6세기 남해안지역 왜계고분의 특성과 의미」, 『호남고고학보』 45.
- 김낙중, 2015, 「3~6세기 해남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 『호남고고학보』 51.
- 김석형, 1966, 『초기조일관계연구』, 사회과학원출판사.
- 김승옥, 2000, 「호남지역 마한주거지의 편년」, 『호남고고학보』 11.
- 김승옥, 2014, 「취락으로 본 전남지역 마한 사회의 구조와 성격」, 『전남지역 마한제국의 사회성격과 백제』, 학연문화사.
- 김영민, 2011,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축조의 역사적 배경」,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의 역사적 성격』, 전남대박물관.
- 김영심, 1997, 「백제 지방통치체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영심, 2011,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축조의 역사적 배경」,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의 역사적 성격』, 전남대박물관.
- 김주성, 1997, 「영산강유역 대형웅관묘 사회의 성장에 대한 시론」, 『백제연구』 27.
- 김태식, 1996, 「백제의 가야지역 관계사: 교섭과 정복」, 『백제의 중앙과 지방』, 충남대 백제연구소.
- 노중국, 2003, 「백제사에 있어서의 익산의 위치」, 『익산의 선사와 고대문화』.
- 대한문화재연구원, 2017, 「해남군 화산면 안호리·석호리 유적 현장 설명회자료」.
- 동신대박물관, 2011, 「안좌면 읍동고분 및 배널리고분 발굴조사 회의자료」.

- 문안식, 2007, 「고흥 길두리고분 출토 금동관과 백제의 왕·후제」, 『한국상고사학보』 55.
- 문안식, 2013, 「백제의 전남지역 마한제국의 편입 과정」, 『전남지역 마한제국의 사회성격과 백제』, 학연문화사.
- 문안식, 2014, 「백제의 해상활동과 신의도 상서고분군의 축조 배경」, 『전남 서남해지역의 해상교류와 고대문화』, 전남문화재단연구소.
- 문안식, 2016, 『동아시아 해양문화와 한반도 서남해지역 해양문화』, 해안.
- 박순발, 2000, 「백제의 남천과 영산강유역 정체체의 재편」, 『한국의 전방후원분』, 충남대출판부.
- 박재용, 2016, 「백제의 對倭 교섭과 항로 - 5~6세기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19.
- 박찬규, 1995, 「백제의 마한 정복 과정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천수, 2006, 「임나4현과 기문, 대사를 둘러싼 백제와 대가야」, 『제12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발표자료집』, 김해시.
- 박현숙, 1997, 「백제 지방통치체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 백승욱, 2012, 「4~6세기 백제와 가야제국 - 『일본서기』 관련기사 검토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7.
- 서성훈·성낙준, 1984, 『해남 월송리 조산고분』, 국립광주박물관.
- 서현주, 2006, 『영산강유역 고분 토기 연구』, 학연문화사.
- 성정용, 2006, 「4-5세기 백제의 물질문화와 지방지배」, 『한성에서 웅진으로』, 공주박물관·충청남도역사문화원.
- 손희하, 2014, 「“卑離”·“夫里” 그리고 “buri”에 대한 토론」, 『전남지역 마한제국의 사회성격과 백제』, 학연문화사.
- 신경철, 2000, 「고대의 낙동강, 영산강, 그리고 왜」, 『한국의 전방후원분』, 충남대출판부.
- 신홍남, 2016, 「탐진강유역 석실묘의 도입과 전개」, 『호남고고학보』 52.
- 안춘배, 1985, 「한국의 옹관묘에 관한 연구」, 『부산여대박물관학술총서』 18.
- 양기식, 2013, 「전남지역 마한 사회와 백제」, 『백제학보』 9.
- 연민수, 1996, 「일본서기 신공기의 사료비판」, 『일본학』 15.
- 오동선, 2009, 「나주 신촌리 9호분의 축조과정과 연대 재고」, 『한국고고학보』 73.
- 오동선, 2017, 「5~6세기 영산강유역권의 동향과 왜계고분의 의미」, 『백제학보』 20.
- 유원재, 1997, 「백제의 마한 정복과 지배 방법」, 『백제논총』 6.
- 이기동, 1990, 「백제의 발흥과 대외국관계의 성립」, 『고대한일문화교류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이기동, 1996, 「백제사회의 지역공동체와 국가권력」, 『백제연구』 26.
- 이기동, 2009, 「한·일 관계에서 본 이와이(磐井)의 난」, 『영산강유역권 장고분 조사연구보고서』, 백제문화개발연구원.
- 이근우, 1997, 「웅진시대 백제의 남방경역에 대하여」, 『백제연구』 27.

- 이도학, 1991, 「백제 집권국가 형성과정 연구」, 한양대 박사학위논문.
- 이도학, 1995, 『백제 고대국가 연구』, 일조각.
- 이동희, 2006, 「전남동부지역 복합사회 형성과정의 고고학적 연구」, 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 이병도, 1976, 『한국고대사연구』, 박영사.
- 이영식, 1995, 「백제의 가야진출과정」, 『한국고대사논총』 7,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이영철, 2004, 「웅관고분사회 지역정치체의 구조와 변화」, 『호남고고학보』 20.
- 이영철, 2011, 「영산강 상류지역의 취락변동과 백제화 과정」, 『백제학보』 6.
- 이용현, 2013, 「梁職貢圖 止迷의 위치」, 『전남지역 마한 소국과 백제』, 학연문화사.
- 이정호, 2013, 「고분으로 본 전남지역 마한제국의 사회성격」, 『전남지역 마한제국의 사회성격과 백제』, 학연문화사.
- 이한상, 2011,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금동관모와 금동식리에 대한 검토」,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의 역사적 성격』, 전남대박물관.
- 이현혜, 2007, 「마한사회의 형성과 발전」, 『백제의 기원과 건국』(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2).
- 임영진, 1990, 「영산강유역 석실분의 수용과정」, 『전남문화재』 3, 전라남도.
- 임영진, 1996, 「전남 고대묘제의 변천」, 『전남의 고대묘제』, 전라남도·목포대박물관.
- 임영진, 1997a, 「호남지역 석실분과 백제의 관계」, 『호남고고학의 제문제』, 한국고고학회.
- 임영진, 1997b, 「전남지역 석실봉토분의 백제계통론 재고」, 『호남고고학보』 6.
- 임영진, 2000a, 「영산강유역 석실봉토분의 성격」, 『지방사와 지방문화』 3-1.
- 임영진, 2000b, 「마한의 소멸 과정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호남고고학보』 12.
- 임영진, 2002, 「영산강유역권의 분구묘와 그 전개」, 『호남고고학보』 16.
- 임영진, 2006,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출토 금동관의 의의」, 『충청학과 충청문화』 5-2.
- 임영진, 2010a, 「묘제를 통해 본 마한의 지역성과 변천과정」, 『백제학보』 3.
- 임영진, 2010b, 「침미다례의 위치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백제문화』 43.
- 임영진, 2011a, 「나주 북암리일대의 6~7세기 경관」, 『6~7세기 영산강유역과 백제』, 국립나주문화재 연구소·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 임영진, 2011b, 「영산강유역권의 분구묘」, 『분구묘의 신지평』, 전북대박물관.
- 임영진, 2012a, 「풍납토성의 역사적 의미와 연구 과제」, 『동아시아 속의 풍납토성』, 백제학회.
- 임영진, 2012b, 「중국 육조자기의 백제 도입배경」, 『한국고고학보』 83.
- 임영진, 2013a, 「고고학 자료로 본 전남지역 마한 소국의 수와 위치 시론」, 『백제학보』 9.
- 임영진, 2013b, 「전남지역 마한과 백제」, 『백제, 마한을 품다』, 한성백제박물관.
- 임영진, 2013c, 「호남지역 삼국시대 고고학의 연구 성과와 과제」, 『호남고고학보』 45.
- 임영진, 2014a, 「전남지역 마한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 『백제학보』 11.

- 임영진, 2014b, 「영산강유역권 왜계고분의 피장자와 ‘임나일본부’」, 『지역과 역사』 35, 부정역사연구소.
- 임영진, 2017, 「倭五王의 중국 견사와 전남지역 왜계고분」, 『백제문화』 51.
- 임영진·오동선, 2006,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 시굴조사 개보」, 『연구원논문집』, 호남문화재연구원.
- 전덕재, 2000, 「삼국시기 영산강유역의 농경과 사회변동」, 『지방사와 지방문화』 3-1.
- 전진국, 2017, 「『晉書』에 보이는 마한의 대외교류와 백제의 성장」, 『백제학보』 20.
- 정일·최미숙, 2013, 「강진 양유동취락의 특징과 고대사적 의미」, 『호남고고학보』 45.
- 정재윤, 1992, 「웅진·사비시대 백제의 지방통치 체제」, 『한국상고사학보』 10.
- 정재윤, 2008, 「백제의 섬진강유역 진출에 대한 고찰」, 『백제와 섬진강』, 서경문화사.
- 조근우, 1996, 「전남지방의 석실분 연구」, 『한국상고사학보』 21.
- 조근우, 2009, 「탐진강유역 고분의 성격」, 『호남고고학보』 32.
- 조영현, 2011,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의 축조구조」, 『고흥 길두리 안동고분의 역사적 성격』, 전남대박물관.
- 천관우, 1979, 「광개토왕릉비문 재론」, 『전해중박사회갑기념사학논총』, 일조각.
- 천관우, 1989,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 최몽룡, 1986, 「고고학적 측면에서 본 마한」, 『마한백제문화』 9.
- 최성락, 1987, 『해남군곡리패총 I』, 목포대학교박물관.
- 최성락, 1990, 「전남지방의 마한문화」, 『마한백제문화』 12.
- 최성락, 2013, 「고고학에서 본 침미다례의 위치」, 『백제학보』 9.
- 한국학중앙연구원, 2010, 『디지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 홍보식, 2006, 「한반도 남부지역의 왜계 요소」, 『한국고대사연구』 44.
- 王健群(임동석역), 1985, 『광개토왕비연구』, 역민사.
- 江上波夫, 1968, 『騎馬民族國家』, 中央公論社.
- 白井克也, 2001, 「百濟土器·馬韓土器と倭」, 『檢證古代の河内と百濟』, 枚方歴史フォーラム.
- 水野祐, 1967, 『日本古代の國家形成』, 講談社.
- 鈴木靖民, 1988, 「好太王碑の倭の記事と倭の實體」, 『好太王碑と集安の壁畫古墳』, 木耳社.
- 柳澤一男, 1991, 「若狹の横穴式石室の源流を探る」, 『躍動する若狹の王者たち-前方後圓墳の時代』, 福井縣若狹歴史民俗博物館.
- 井上秀雄, 1973, 『任那日本府と倭』, 東出版.

# 국가사적 제449호 해남 군곡리유적의 위상

한옥민(대한문화재연구원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출토토기에 대한 기존 인식

## III. 자료 검토

1. 층위 검토
2. 기층별 주요 유물과 연대
3. II기층 출토 경질무문토기의 변화 관찰

## IV. 출토토기를 통해 본 유적의 중요성과 그 위상

## V. 맺음말

## I. 머리말

해남 군곡리유적(이하 군곡리유적으로 약칭)은 2003년 7월 2일 국가사적 제449호로 지정되었다. 유적의 존재는 이보다 앞서 1983년 3월 자그마한 공사 중 발견·신고되어 세상에 알려졌다.

군곡리유적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된 계기는 1986~1988년까지 진행된 세 차례의 발굴조사 성과의 기여가 컸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지정 범위는 83,569㎡이며, 이 가운데 매장 문화재의 실체가 밝혀진 것은 일부(약 3%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유적이 지니는 가치가 높았기 때문일 것인데, 출토된 다양한 고고자료에서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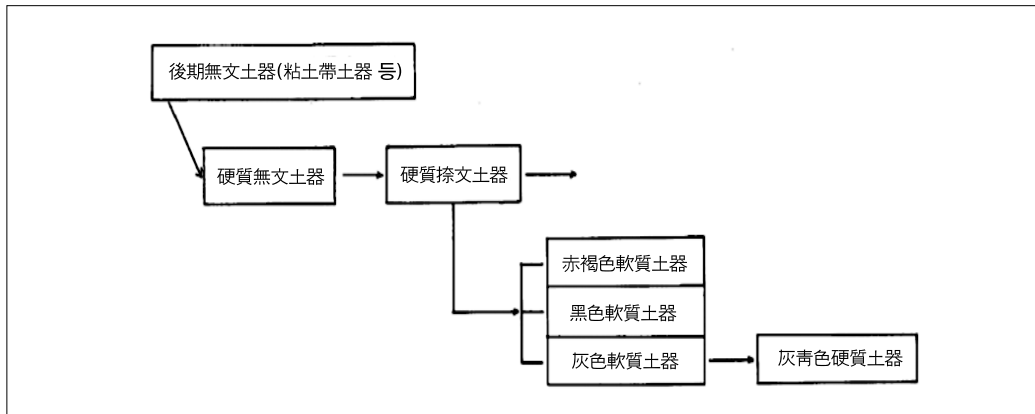
그러나 유적은 1988년 발굴조사를 끝으로 고고학 연구자의 필드 조사 대상으로서는 꽤 길었던 30년의 휴식을 취한 후, 2017년 7월에 네 번째 발굴조사가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데스크에서 진행된 연구는 토기를 중심으로 꾸준히 이루어졌는데(김장석 2009; 이동희 2010; 김진영 2015; 이창희 2014; 강귀형 2016; 전세원 2016; 한옥민 2018), 이는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졌던 성과를 둘러싼 시각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커 보인다. 경질무문토기 단순기의 존재 여부,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의 관계, 타날문토기 상한 문제 등이 그것이다.

본고는 군곡리유적이 토말에 위치한 특정 상황이 아닌 호남 서남부지역의 철기문화를 대변하는 데 여전히 유효하다는 인식하에서 그 중요성과 위상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주된 대상은 고고자료 중 많은 수량이 출토된 토기 자료를 중심으로 검토하겠다.

## II. 출토토기에 대한 기존 인식

호남지역의 철기시대(원삼국시대) 토기 변천을 이해할 수 있었던 계기는 군곡리유적의 발굴조사에서 출발한다. 제작기술의 차이에 따라 크게 산화염계 경질무문토기, 환원염계 타날문토기로 나누고 있다(도 1). 전자는 기왕의 무문토기 전통에서 연속된 것이고, 후자는 중국 회도의 영향에 따른 급격한 변화로 이해되고 있다. 특히 환원염의 고온소성은 완성된 토기의 질감을 결정짓는다는 전제하에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를 구분하는 주요 기술속성으로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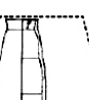




































도 1 토기 변천과정(최성락 1987)

고 있다. 이외에 태토 첨가물, 성형방법, 문양구성 등도 분별 기준에 포함된다.

경질무문토기는 대체로 철기시대 출발 시점,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의 출현 시점에 등장하는 철기시대의 무문토기를 가리킨다. 즉 청동기시대의 무문토기가 철기문화의 영향으로 이전보다 개량된 경질무문토기로 변화되었다는 것이다. 지역별 양상에 따라 중부지역은 중도식무문토기, 호남지역은 경질무문토기, 영남지역에서는 종말기무문토기로 다르게 불려지면서 범주<sup>1</sup>와 계통 등 이견이 발생되고 있다. 군곡리유적의 경질무문토기(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 포함) 기종은 <도 2>와 같이 크게 호, 발, 완, 시루, 주구토기, 고배, 뚜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미 II기층부터 진행되었다(강귀형 2016: 45~46). 특히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는 단면 원형점토대토기 단계에는 없던 시루나 미니어처식토기가 등장하며, 뚜껑이 유행하기 시작하는 등 기종구성이 다양해진다. 정면기법에 있어서는 목리가 보편화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이창희 2013: 485).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유적의 층위관계에 근거하여 시간적으로 순수 경질무문토기 → 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 공존 → 타날문토기의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타날문토기는 철기시대의 주요한 물질변동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기술속성에서 고온 소성, 타날정면 등이 물질문화 변동을 주도한다는 것이 핵심이며, 출현은 중국 전국말 승석 문화도의 영향으로 보고 있다(한옥민 2018: 110~111).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 개시기에 철기

1 경질무문토기의 범주 속에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를 포함하는 입장(최성락 1987: 26~27; 이동희 2010: 54~55; 이성주 2011: 85; 강귀형 2016: 44~47; 한옥민 2016: 101~102), 미포함하는 입장(박순발 2005: 93~95; 김장식 2009: 55~57; 이창희 2014: 15)이 있다.

기층	의반호	소형호	직구용	자비용	용형	심판	완	시루	주구토기	고배	뚜껑	기타
I		 1-12호				 1-19호	 1-13호			 1-14호	 8-5호	 8-12호
II	 1-5호	 1-11호	 1-17, 20호	 1-9호	 1-22호	 1-27호	 1-11호	 1-6호	 1-11호	 1-8호	 1-11호	 1-5호, 1-31호, 1-32호, 1-33호
III		 8-19호	 1-39호	 1-29호	 1-28호	 1-4호	 1-8호	 1-8호	 1-8호	 8-6호	 8-19호	 1-8호
IV	 8-4호		 1-29호	 1-7호		 1-7-5호	 1-5호	 1-7-5호		 1-7호	 1-7호	 1-6호
V	 8-2호	 1-12호	 1-29호	 1-29호		 8-4호	 1-12호	 1-12호	 1-2호			 1-2호, 1-3호, 1-4호, 1-5호, 1-6호, 1-7호, 1-8호, 1-9호, 1-10호, 1-11호, 1-12호, 1-13호, 1-14호, 1-15호, 1-16호, 1-17호, 1-18호, 1-19호, 1-20호, 1-21호, 1-22호, 1-23호, 1-24호, 1-25호, 1-26호, 1-27호, 1-28호, 1-29호, 1-30호, 1-31호, 1-32호, 1-33호, 1-34호, 1-35호, 1-36호, 1-37호, 1-38호, 1-39호, 1-40호, 1-41호, 1-42호, 1-43호, 1-44호, 1-45호, 1-46호, 1-47호, 1-48호, 1-49호, 1-50호, 1-51호, 1-52호, 1-53호, 1-54호, 1-55호, 1-56호, 1-57호, 1-58호, 1-59호, 1-60호, 1-61호, 1-62호, 1-63호, 1-64호, 1-65호, 1-66호, 1-67호, 1-68호, 1-69호, 1-70호, 1-71호, 1-72호, 1-73호, 1-74호, 1-75호, 1-76호, 1-77호, 1-78호, 1-79호, 1-80호, 1-81호, 1-82호, 1-83호, 1-84호, 1-85호, 1-86호, 1-87호, 1-88호, 1-89호, 1-90호, 1-91호, 1-92호, 1-93호, 1-94호, 1-95호, 1-96호, 1-97호, 1-98호, 1-99호, 1-100호

도 2 기층별 토기상(강귀형 2016, 보완 후 인용)

제작기술과 함께 들어온 신식 제도기술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다(이성주 2000a: 100). 제도기술의 기원은 전국계(최병현 1998:114~115; 정인성 2016 24~25)로 보는 데는 견해를 같이한다. 그러나 등장 시점을 놓고 낙랑설치 이전(안재호 1989: 132~139; 최병현 1998: 122~142; 정인성 2009: 216; 김장석 2009: 54~60)과 이후(이성주 2000b: 21; 김일규 2009: 168~169; 이동희 2010: 63)로 나뉘고 있다.

타날문토기 등장을 보더라도 중부지역은 가평 대성리유적에서 출토된 기원전 2세기의 전국계 타날문단경호와 가평 달전리와 춘천 우두동유적에서 출토된 기원전 1세기 후반의 낙랑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영남지역은 창원 다호리 1호분 사례로 볼 때, 기원전 1세기에 이미 한반도 남부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다(김낙중 2017: 135~136). 이에 반해 호남지역은 기원 이전의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이상의 내용을 고려할 때 군곡리유적에서 새로운 제도기술의 반영 시점은 I~V기층으로 구분된 층위 중 II기층도 유력 후보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II기층(기원전 1세기대)에 대해 신 제도기술의 도입과 구분하면서 무문토기 제작기술로부터 계승된, 즉 전통이 투영되었다는 내부적 시각으로 인식해 왔다. 그러나 II기층은 이미 해상교류와 관련된 중국계 등 다양한 외래계 유물이 존재하고, 토기 기종의 다양화 등 물질변동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인식이 문제라고 생각된다. Ⅱ기층의 주류 토기인 경질무문토기의 변화가 자체적인 진보인지, 타날문토기 제작기술과 관련되는지의 판별이 요구되는 시점에 놓여있다. 이는 토기 연구의 주요 쟁점인 타날문토기의 등장 시점과 긴밀히 연동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 III. 자료 검토

#### 1. 층위 검토

1980년대 후반, 군곡리유적에서 진행된 패총구역 발굴조사 결과는 모두 Ⅰ~Ⅲ권의 보고서로 발간되었다. 패각층은 표토층과 생토층을 제외하고 모두 14개층을 이루며, 이를 Ⅰ~Ⅴ기층으로 나누었다. 5개의 기층에서 출토된 토기는 크게 2가지 방식으로 보고되었다. 하나는 주로 完形을 중심으로 도면과 사진을 덧붙여 설명한 방식이다. 다른 하나는 이미 파손되어 세부 속성만 알 수 있는 小片(구연·동체·저부)에 대해 분류표로 간단히 제시한 방식이 있다. 보고서에 수록된 것을 기준으로 할 때 출토토기는 모두 25,928편이다. 전자에 해당되는 것은 263편(1%)이고, 후자는 25,665편(99%)으로 압도적이다. 그동안 연구의 주된 대상은 전자의 토기류로써 불과 1%에 해당되는 자료였다.

따라서 패각 전층(Ⅰ~Ⅴ층)에서 출토된 토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 하겠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여기에서는 전고(한옥민 2018: 111~116)의 내용에 한·두 가지를 덧붙여 문제점을 언급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Ⅰ기층의 의미가 평가절하된 측면이 다분하다. <표 1>에서 보듯 Ⅰ기층은 기왕에 알려진 토기 외에도 다량의 소편(1,940片)이 더 존재한다. 이제까지의 인식은 청동기시대 후기 문화층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경질무문토기가 85%의 비율로 압도적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또한 층위적으로 新古遺物이 뒤섞이지 않아 패각의 퇴적과 유물의 동시성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Ⅰ기층에 대해 청동기시대 후기의 문화층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철기시대의 경질무문토기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여주는 기층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둘째, Ⅰ기층 출토 단면원형점토대토기의 성격이 지엽적인지의 문제이다. 연구자들은 상

표 1 기층별 출토토기 현황(한옥민 2018, 재편집 후 인용)

구 분		1차 ~ 3차 조사						
기층	보고 방식	무문토기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단원	무토	단삼	경문	경찰	연타	경타
I	설 명	2	16	0	0	0	0	0
	片분류	139	142	30	1,629	1	0	0
	소 계	141	158	30	1,629	1	0	0
II	설 명	0	0	13	86	0	0	1?
	片분류	6	0	1,320	6,433	12	0	0
	소 계	6	0	1,333	6,519	12	0	1?
III	설 명	0	0	3	55	0	0	0
	片분류	0	0	761	3,536	12	0	0
	소 계	0	0	764	3,591	12	0	0
IV	설 명	0	1	1	14	4	1	0
	片분류	2	0	534	4,561	332	24	0
	소 계	2	1	535	4,575	336	25	0
V	설 명	0	0	0	21	10	11	2
	片분류	2	0	319	2,871	1,135	731	16
	소 계	2	0	319	2,892	1,145	742	18

\* 단원: 단면원형점토대토기, 무토: 무문토기, 단삼: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 경문: 경질무문토기, 경찰: 경질찰문토기, 연타: 연결계 타날문토기, 경타: 경질계 타날문토기

대적으로 극소량 출토되었다는 점에 근거하여 단편적 내지는 지엽적(서현주, 1996: 52~53; 이창희, 2014: 11; 전세원, 2016: 36~41)인 것으로 취급하면서, 연대에 대해서도 동물뼈 탄소연대와 부합된다고 보아 기원전 1세대로 하향조정하였다(이창희 2014: 8~11). 그러나 소편 상태로 139편이 더 확인되고, I ~ V기층(古 → 新)으로 가면서 141편(97%) → 4편(3%)으로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점토대의 단면형태가 원형에서 삼각형으로 이행된다는 고고학적 통설에도 부합되며, 원형은 소멸되어 가는 방향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I 기층의 단면원형점토대토기에 대해 지엽적인 성격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셋째, 경질무문토기의 상한문제이다. 경질무문토기(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 포함)는 II 기층의 대표 유물이며, 이전의 (조질)무문토기에 비해 경도가 높고 기형이 다양화되는 특징으로 이해되고 있다. <표 1>에서 보듯, I 기층 출토 상당량의 소편(1,660편)이 제외된 시각이었음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상한 연대는 I · II기층간 토기제작기술 차이가 뚜렷하지 않는 점,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의 등장 시점, II기층과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기왕의 연대

보다 소급시켜 기원전 3세기 전후<sup>2</sup>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넷째, 경질무문토기와 타날문토기의 관계를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이다. 군곡리유적뿐 아니라 광주 신창동, 순천 연향동, 화순 삼천리<sup>3</sup> 등은 경질무문토기 단순기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러한 양상을 중부지역에 일괄 적용은 어렵다 하더라도 하남 미사리 10호·20호 주거지, 춘천 천전리 126-16번지유적 등으로 보면 짧게나마 존재할 가능성마저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를 부정하는 입장은 전국 회도의 영향으로 재래 무문토기가 변질된 현상일 뿐이고(최병현 2013: 15), 미사리 등은 수천 기 주거지 중에서도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례를 경질무문토기 단순기 실존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하였다(김장석·김준규 2016: 68). 이 문제에 대해 연구자 간의 견해 차이가 분분한데, 한강유역과 영남지역에서는 타날문단경호를 동반하지 않은 경질무문토기 단계를 정의하기 힘들기에 호남지역만 예외적으로 볼 것인지의 문제가 발생된다는 지적이 있다(이성주 2011: 72).

다섯째, 경질찰문토기의 초출 기층과 그 성격 문제이다. 그동안 타날문토기로 이행하는 가교적 성격으로 이해되면서 IV기층(기원후 2세기 전반)부터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왔다. 문제는 상당량의 소편(1,339편)이 IV기층 이전의 II~III기층부터 출토된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IV기층으로 오인(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48~49; 박순발 2005: 93; 이창희 2014: 15; 김진영 2015: 56; 전세원 2016: 37)해 왔음을 보여주고, 타날문토기가 기원 이전으로 상향될 수 없다는 시간적 위치를 갖는 데에 조력한 측면이 있다. I기층에서 출토된 1점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보더라도 II층의 12점, III기층의 12점까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잘못이다. 토기의 태토, 성형방법, 소성상태의 차이로 볼 때 타날문토기계로 구분하기도 한다(서현주 1996: 43; 한옥민 2016: 94~98). 이러한 차원에서 초출 기층에 대해 IV기층이 아니라 II기층이라고 바로 잡아둔다.

---

2 자료가 빈약한 상태에서 타 지역과 직접 비교는 무리가 있겠으나, 중부지역의 경우 탄소14연대 측정으로 볼 때 출현은 기원전 3세기대로 볼 수 있다고 한다(이창희 2018: 126).

3 13기의 주거지에서 단면삼각형점토대토기, 경질무문토기가 출토되어(대한문화재연구원 2018: 26~27) 타날문토기가 공반되지 않은 경질무문토기 단순기의 존재를 보여주고 있다.

## 2. 기층별 주요 유물과 연대

군곡리 패총의 연대 설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패총에 버려진 유물들 가운데에는 생산과 동시에 훼손되어 버려진 것들과 일정 기간 사용된 후 폐기되는 것들이 혼재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나 분묘 출토유물보다도 고고학적 연대결정이 어렵고, 간층의 혼입이 복잡하게 진행된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출토유물은 폐기연대보다는 사용연대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최성락 1987: 75).

현재 각 기층별(I~V기층) 연대는 층서적 상하관계에 의해 설정된 사례로 인정되고 있으

표 2 연구자별 편년안 비교(한옥민 2018, 보완 후 인용)

구분	I기층 14-12층	II기층 11-9층	III기층 8층	IV기층 7-5층	V기층 4-1층	
최성락 (1989)	BC 4-3c 원형점토대, 삼각형석축, 공렬토기	BC 2c前 내지 2c後- AD 1c中 삼각형점토대, 화천, 복골	AD 1c後 경질무문토기 주류	AD 2c初 -2c前 경질찰문토기 등장, 회색연질토기 등장	AD 2c後-3c後 회청색경질토기 등장, 경질무문토기 잔존	
안재호 (1989)	1기 BC 2-1c	2a기 AD 1c代		2b기	3기 AD 3c前-4c後	
		직구장동호(지내동과 비교), 와질토기 부재			2기와 비연속	
이창희 (2014)	BC 1c 원형점토대(지역적), C14 참고	AD 1c 화천, 복골, 대형장동호(須玖Ⅱ식), 삼각형점토대 주류		AD 2c前 경질찰문토기 소량, 회색연질토기	AD 2c中 타날문토기 주류	
김진영 (2015)	BC 3c末-2c中 원형점토대, 두형토기	BC 2c後 -1c 後 야요이계 토기, 삼각 형점토대	BC 1c後- AD 1c後 화천, 낙랑계타날문토기, 직구장동호	AD 2c前-中 삼각형점토대 소멸, 경질찰문토기 등장	AD 2c後-3c 경질무문토기 지속, 타날문토기 주류	
목포대 박물관 (2016)	BC 4-3c 원형점토대, 고배, 삼각형석축	BC 2c末 내지 1c初-AD 1c中 삼각형점토대, 화천, 패천	AD 1c後 토제곡옥, 복골	AD 2c初 -2c中 경질무문토기 등장	AD 2c後-3c後 타날문토기 등장	
전세원 (2016)	I BC 1c 원형점토대 극소	II BC 1c前-AD 1c中 화천	III AD 1c後 경질무문토기 주류	IV AD 2c前 경질찰문토기 등장, 연질타날문토기 등장	Va 2c中-3c 中 경질찰문 토기 주류	Vb 3c中-4前 타날문 토기주류
강귀형 (2016)	BC 4-3c 원형점토대, 삼각형석축, 두형토기	BC 2c末 -AD 1c前 경질무문토기, 소형토기, 낙랑계토기, 화천, 철조	AD 1c後 경질무문토기, 조형토기, 복골, 도지미	AD 2c前 삼각형점토 퇴화, 경질찰문무문토기	AD 2c後-3c後 경질찰문토기, 타날문토기	
한옥민 (2016)	BC 3-2c 원형점토대 소량, 경질무문토기 등장	BC 1c-AD 1c 경질무문토기 주류, 경질찰문토기 등장, 화천		AD 2c 경질찰문토기 소량, 연질타날문토기 등장	AD 3c-5c前 경질타날문토기 등장, 가야계토기	
정 일 (2018)	BC 2c 원형점토대, 두형토기	BC 1c 삼각형점토대, 경질찰문토기 등장	AD 1c 화천, 경질무문장란형토기	AD 2c 경질무문토기 주류, 연질타날문토기 출토	AD 3c-5c前 타날문토기, 주거지, 토기가마, 승석문토기	



며, 보고 당시의 연대관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가운데 Ⅱ기층의 연대 비정은 화천의 역연대가 제공하는 객관화된 근거에 따르기 때문에 견해차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 다만, 상한(Ⅰ층)과 하한(V층)에 대해서는 연구자 간 이견이 있다. 유적의 하한에 해당하는 V기층의 연대에 대해 절두형파수, 아라가야계 승석문단경호와 화염형투창 무개고배 등의 연대를 고려할 때 5세기 전반대로 하향조정이 필요하게 되었다(정일 2016: 72~74; 한옥민 2016: 104). 필자(한옥민 2018: 112)는 경질무문토기로부터 타날문토기가 순차적으로 폐기된 보성 금평패총, 나주 수문패총 등이 이즈음에 마감되는 양상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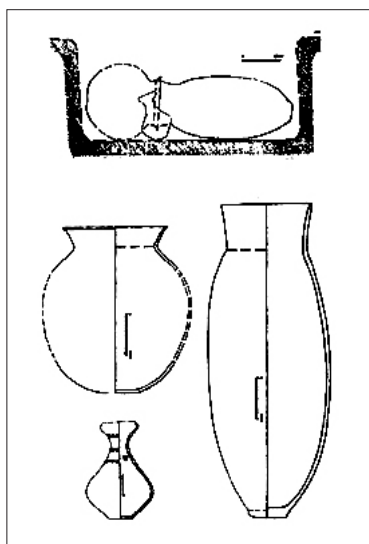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각 기층별 세부적인 편년안 비교는 생략하고 <표 2>의 정리로 대신한다.

### 3. Ⅱ기층 출토 경질무문토기의 변화 관찰

지금까지 호남지역을 비롯한 중서부 및 영남지역 역시 타날문토기 등장 과정과 관련된 자료는 매우 단편적이다. 그나마 타날문토기가 본격적으로 생산되는 기원후 1~2세기대 자료를 통해서 타날법, 환원법, 성형법 등의 제작기술 요소를 기준으로 분별해 왔다. 이미 1990년대 후반에 한반도 중부 이남지역에서 최초로 보이는 타날문은 보령 교성리, 안면도 고남리패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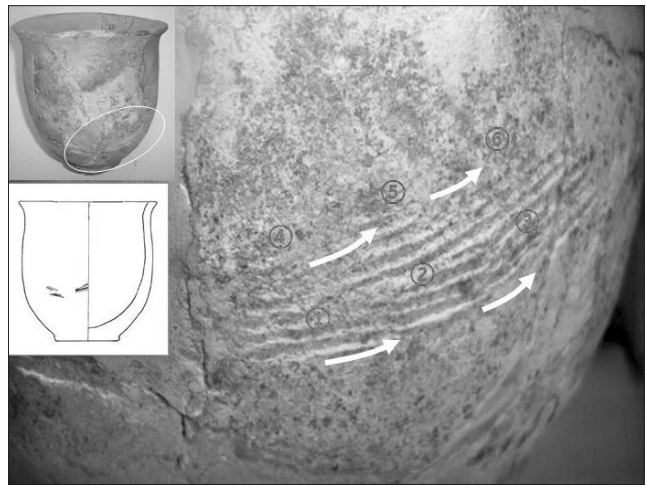
등 서해안 일대의 점토대토기 단계에 존재하고(이성주 2000a: 69), 충청 서해안권의 분포를 근거로 청동기시대 후기의 송국리식토기(소위 원시타날토기)에 처음 등장한다고 보기도 한다(장다인 2104: 65). 반면, 철기시대(원삼국시대) 이후에 등장하는 타날은 바닥을 등글려 원저화하는 기술을 포함하지만 청동기시대의 타날은 동체부를 쌓아올린 점토띠 사이의 접합력 보강이라는 분명한 차이(김은정 2018: 152)가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일찍이 군곡리유적에서 타날문토기 등장과 관련하여 주목된 것은 Ⅲ기층의 옹형토기 2점이다(도 6-⑤~⑥). Ⅲ기층에서 직접적으로 타날문토기가 출토되지 않았지만, 김해 지내동 옹관묘 자료를 참고할 때 그 가능성은 언급되어 왔다(도 3). 지내동 옹관은 승석문타



도 3 김해 지내동 출토 승석문타날단경호

날단경호와 옹형토기가 결합된 합구식으로 내부에 須玖Ⅱ식의 대상구연호가 부장되었다(심봉근 1982: 94~95). 연대는 기원전 1세기 후반~기원전후이다. 군곡리-지내동은 생활용과 분묘용, 옹형토기의 높이가 35cm와 80cm이라는 차이는 있으나, 서로 유사성이 많아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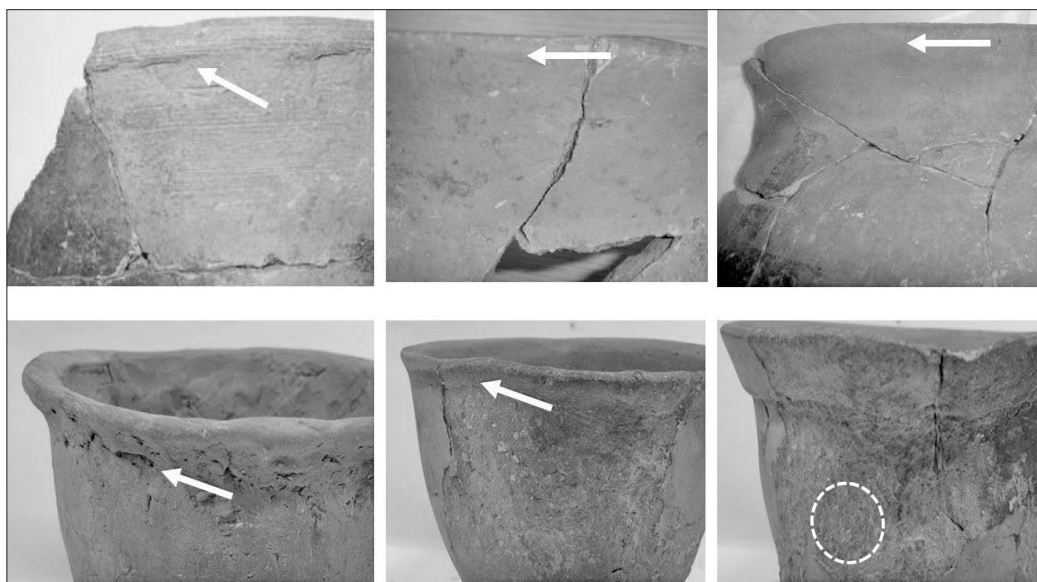


도 4 Ⅱ기층 출토 승문타날토기(한옥민 2018)

그렇다면 타날문토기 등 장과 관련하여 Ⅱ기층에서의 존재 여부가 관건인데, Ⅲ기층 이전의 Ⅱ기층에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증명해 줄 수 있는 토기가 새롭게 확인되었다. 보고서 I 권의 〈사진 26-③〉에 해당되는 높이 19.9cm의 심발형토기로, Ⅱ기층의 최하층(11층)에서 출토되었다.

토기 관찰을 통해 새롭게 확인된 내용은 타날 행위이다(도 4). 타날은 2줄의 승문이며, 좌에서 우방향 순으로 이루어졌다. 타날 과정에서 후행 타날에 의해 선행 타날이 약간 겹쳐지는데, 바로 윗줄도 동일하다. 동체 하위부에 한정된 부분 타날 행위가 이루어졌더라도 그 절차를 정확히 인지했음을 말해준다. 훼손 보강된 동일 지점에서도 같은 타날 흔적이 관찰되고 있다는 점에서 타날의 범위는 좀 더 넓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승문타날이 이루어진 지점의 내면은 물손질 마감되어 단정할 수 없지만 내박자를 대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타날 순서나 우상좌하의 방향성으로 볼 때 토기를 뒤집은 상태였을 것이다(한옥민 2018: 115~116). 이 토기는 경질무문토기에서 보이지 않았던 새로움이 있다. 현재의 분류대로 경질무문토기로 부른다면 타날법과 타날문이 드러내는 부분마저 희석될 수 있다. 따라서 경질무문토기와 구분이 필요하다. 이를 강조하고자 여기에서 잠정적으로 승문타날토기로 부르하고자 하며, 후술하겠지만 타날문토기계(광의의 타날문토기)로 보고 있다.

이 승문타날토기와 관련하여 또 하나 주목되는 자료로 호형토기편 3점이다. 승문타날토기와 동일한 Ⅱ기층 출토이다(도 5-上). 〈도 5-上左〉에 대해 “동체부가 완만하게 축약되다가 구연부는 둥글게 외반한다. 기벽 내외면에 손누름흔적과 약한 빗질흔적이 있고 구연부는 회전조정 흔적이 있다.” 〈도 5-上中〉에 대해 “구연부와 동체부의 일부로 기형을 짐작하는 것으



도 5 II기층 출토토기의 제작기술 비교(上: 타날문토기계, 下: 무문토기계)

로 동체부가 위로 가면서 오무려 들었다가 구연부는 곧게 외반되는데 상단에 손누름자국이 있고 동체부 외면에는 약한 빗질이 부분적으로 보인다.”〈도 5-上右〉에 대해 “일부만 남은 것으로 구형의 동체부를 가진 호이다. 목이 둥글게 꺾이며 외반하다가 구연부의 끝이 편편하게 잘라져 있다. 내외면에 드문드문 약한 빗질수법이 보이고 구연부는 회전조정 흔적이 남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목포대학교박물관 1988: 26~27).

반면, 〈도 5-下〉는 같은 II기층 출토이지만 〈도 5-上〉과 제작기술적인 차이가 있다. 육안으로 보더라도 구연부의 마무리 수준, 점토대 부착, 점토띠 접합흔 잔존, 거친 물손질, 비대칭성, 다량의 비가소성 첨가물, 두꺼운 기벽, 높은 굽 등에서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거칠다. 그래서인지 기면의 요철을 고르기 위한 목판긋기 또는 목판문지르기 등의 행위를 최종 단계에서도 부분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를 무문토기계로 구분한다.

이에 필자는 〈도 5-上〉를 타날문토기계로 구분하고자 한다. 물론 무문토기계 잔영이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타날문토기계로 구분하는 것이 제작 의도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구연부의 마무리 수준, 홀구연화, 대칭성, 정선된 태토, 기벽의 균일성, 무굽화 등은 순수한 자체적 발전으로 보기 어렵고, 무문토기계에서는 보이지 않는 특징들이다. 〈도 5-上左〉는 회전물손질 후에도 구순 아래로 요철흔을 남기고 있으나, 기본적인 토기제작기술 요소의 맥락에서 다르지 않다. 이들 토기에 저부가 잔존하지 않아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II기층 출토 홀구연화된 호형토기(II권 사진 31-③)의 저부를 참고할 시 굽의 퇴화를 보이는 점도

무문토기와 차이가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을 고려할 때, 기면에 직접적인 타날법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속에 내재된 제작기술의 변화를 모두 무문토기계로 간주할 것이 아니다. 비록 미숙할지라도 제작기술 측면은 전통기술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리는 타날문토기 개념에 대해 기원후 2세대 자료를 모델로 삼아 초현품까지 과도한 완성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토기질이 시간성을 가진다는 인식에서 볼 때, 환원염계 연질토기에서 경질토기<sup>4</sup>로 전환되기까지 200여 년의 시간이 걸렸다. 만약 승문타날토기로부터 출발한다면, 완벽한 타날문토기가 생산되는 시점까지 200여 년이 걸리게 되는데, 인지(도입)로부터 생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인 셈이다. 이는 토기제작의 사회적 속도를 말해주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 IV. 출토토기를 통해 본 유적의 중요성과 그 위상

발굴조사를 해서 얻은 자료 가운데 토기는 시간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하다. 토기는 생활 유적이든 분묘유적이든 고고자료 중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어 활용도가 높은 고고자료이다. 토기에 반영된 시간성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일상의 반복이 그대로 발현된 표준적 시간성, 지각이 투영된 시원적 시간성이 있다. 고고학에서 전자는 전통의 고수. 후자는 변화의 적응으로 해석되고 있다. 타날문토기는 후자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신기술의 등장을 기준으로 그 수용과 기각 범위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이다.

군곡리유적에서 타날문토기와 관련되어 주목되는 유구가 토기가마이다. 지하식 등요로써 토기 생산력 및 표준화의 증대 등의 전제가 수반되는 측면에서 존재 자체에 의미를 둘 수 있다(도 6). 출토토기는 대부분 타날문토기로 모두 4,129편(연질계 98%, 경질계 2%)으로 연질계가 압도적이다. 경질무문토기도 일부(39편) 확인된다. 토기가마의 등장 배경은 해상교역

4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 서부지역의 경질토기 등장은 4세기 중엽(김낙중 2009: 149), 4세기 후반(이영철 2015: 22)으로 보는데, 제형분에서 옹관이 목관보다 우위에 서게 되는 시점이다.



도 6 군곡리 토기가마 구조

의 거점지역에 신기술이 가장 먼저 도입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이영 2016: 86~87). 다만 환원계 연질토기가 주류인 점, 경질토기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점은 패각층 V기층의 후반부와 대응되므로 4세기 전반대를 중심 연대로

볼 수 있다. 이보다 앞선 단계에 광주 신창동에서도 반개방식 구조의 토기가마가 확인되었다. 구상유구 형태인 점은 고고학적 검토가 남아 있지만, 영산강 내륙의 국제 무역 港市(이영철 2017: 30)에서 먼저 시작된 것은 군곡리유적과 일맥상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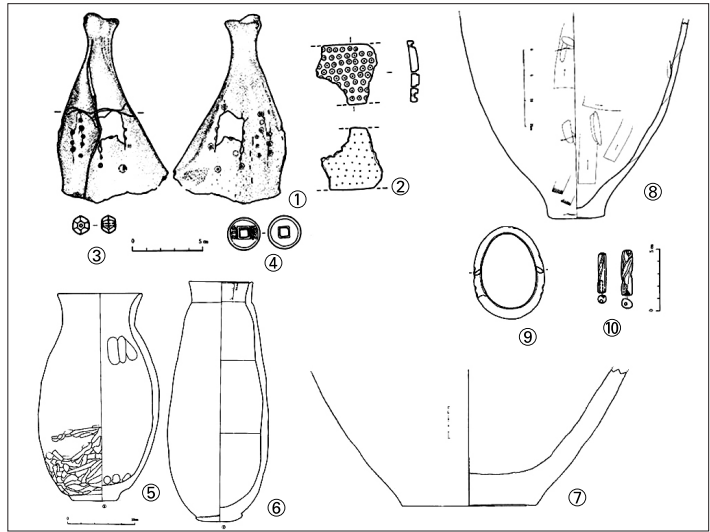
또 하나 주목되는 고고자료가 외래계 유물들인데, 대외 교류의 증거는 상대적으로 유적의 위상을 읽는 데 활용할 수 있다. 상기에서 언급했던 승문타날토기가 여타 유적보다 이른 시기에 출현할 수 있었던 배경을 부가적으로 설명한다. 이들 외래계 유물들은 교류이든 교섭이든 상대는 중국(낙랑, 대방), 제주, 변·진한, 일본열도와 관련되므로 그 자체로 상징성을 가지며, 역으로 지역집단은 대표성을 부여받았음을 반영한다. 대외 교류와 관련하여 다량의 철도자 손잡이도 주목된다. 조개채취 도구였다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재사용이 가능한 철도자까지 폐기되었던 현상은 철소재의 입수가 비교적 수월했던 정황을 시사하며(이정호 2016: 116), 그 용도가 교류 시 문자 기록을 수정하기 위한 삭도용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김진영 2018: 127). 이러한 철 혹은 철기의 생산은 대외 교환망과 깊은 연계를 가졌음에 틀림없어서 철은 수장권의 경제 기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이희준 2011: 67).

바닷길의 여정을 통해 획득된 외래계 유물은 중국, 제주, 변·진한, 일본열도 관련으로 나뉜다. 중국계는 화천, 복골, 수정다면옥, 소옥, 소형토기<sup>5</sup> 등이다. 제주 관련은 대웅편, 현무

5 소형토기와 복골은 하가점 상층문화(夏家店 上層文化)에 해당하는 요령 남산군, 심양 정가와자 등과 한반도 동북지역의 회령 오동유적 등에서도 출토되어 문화적 흐름이 중국 동북지역에서 한반도 남부로 퍼졌을 가능성이 많다(국립중앙박물관 1998: 241).



암 혼입토기, 경석이 있다. 변·진한 관련은 옹형토기, 철소재 등이다. 일본 관련은 야요이계 대응편, 패천, 패제관옥, (추정)오키나와개오지 등이다. 이처럼 다양한 유통 경로를 시사하는 외래계 물품들이 대거 유입되었는데 대부분 Ⅱ~Ⅲ기층에서 출토되고 일부(복골, 패천, 패제관옥 등)는 IV~V



도 7 외래계 유물

①~④: 중국, ⑤~⑥: 변·진한, ⑦: 제주, ⑧~⑩: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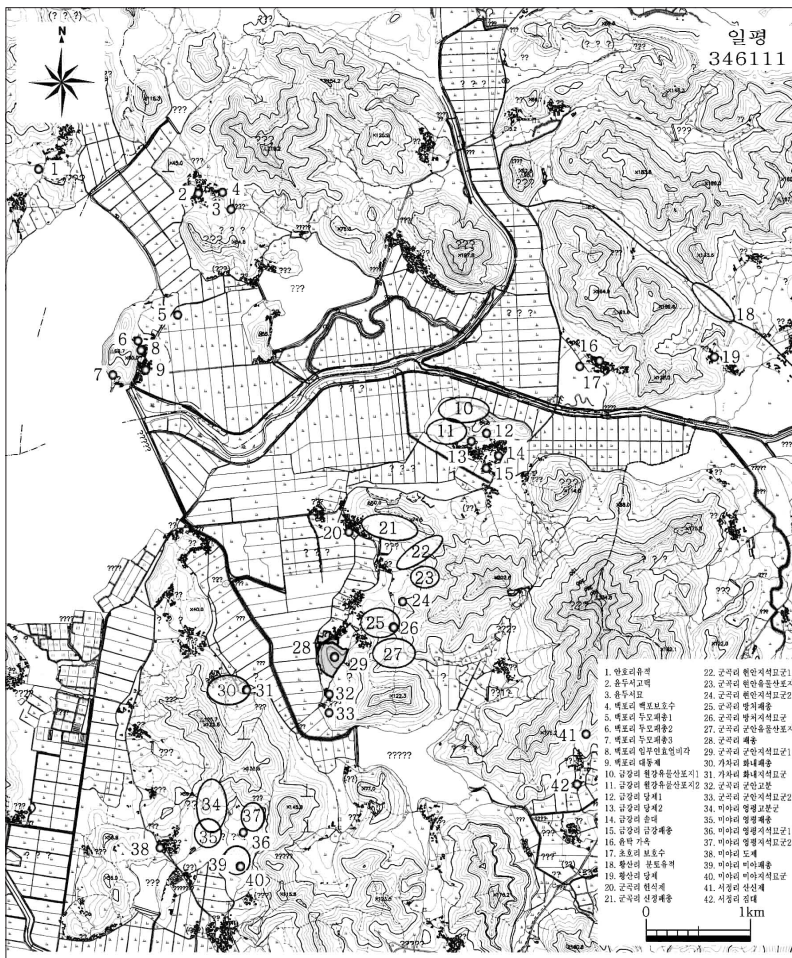
기층까지 연속된다(도 7). 직접 교류이든 중국으로부터 들어온 2차 교류이든 해로로 연결된 대외교류가 활발했던 증거이다. 또한 공백으로 비어 있는 기원전 2세기~기원전후 시기의 내막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료이다.

한편, 대외교류를 문헌기록과 대응시킬 때 『삼국지』 왜인조에서 대방-한반도 서남해안-왜로 가는 연안항로에 관한 기록<sup>6</sup>과 관련시킬 수 있다. 이후의 사건이지만 백제가 369년 도륙했던 침미다례가 백포만 일대(강봉룡 2010: 15~16) 또는 해남지역이 유력 후보지(김영심 2013: 93; 최성락 2013: 108; 김낙중 2015: 79)라면 군곡리 일원은 백제와 전쟁을 치러야 할 만큼 비중이 큰 곳이었음을 방증한다. 유적으로부터 5km 정도 떨어진 황산리 분토취락으로 4~5세기에 중심지가 옮겨가면서 군곡리는 선착지로 변해갔다고 보는 견해(정일 2016: 72), 백포만을 사이에 두고 53기의 제형분이 조사된 화산면 안호리·석호리유적이 4세기 후반에 마감되는 양상(대한문화재연구원 2017: 62), 군곡리 군안 옹관분, 현안 유물산포지(도 8) 등이 대체로 5세기 이전의 양상인 점을 고려할 때 백제의 공략으로 타격이 컸던 정황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까지의 자료로 보는 한 호남지역 타날문토기 출현 시점은 기원전으로 올릴 수 없다

6 從郡至倭,循海岸水行,歷韓國,乍南乍東,到其北岸狗邪韓國,七千餘里(『三國志』卷三十 魏書 三十).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중간 기항지이다(목포대학교박물관 2016: 14). 또한 『三國志』 弁辰條에서 변한으로부터 馬韓, 濊, 倭 및 二郡(대방, 낙랑) 등이 철을 사갔다는 기록<sup>8</sup>도 기항지로서의 역할을 시사한다. 특히 중국으로부터 유입된 화천, 복골, 장신구, 철기, 소형 토기 등은 이전 시대에는 없었던 새로운 종류로써 복잡해진 당시 사회상을 반영한다(최성락 1993: 252~253).

둘째, 호남지역에 처음 확인된 기원 이전 승문타날토기의 존재가 지닌 의미가 자못 크다. 이제까지 상당량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장 시점, 계통 등 견해차로 인해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더욱이 자료의 부재에도 불구하고 타날문토기=환원염=타날법이라는 등식을 적용하면서 실제와 추정을 동일시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승문타날토기의 존재는 새로운 토기제작기술의 투사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다.

셋째, 군곡리유적은 학사적으로 층서적 관계를 통해 연대가 설정된 유일한 사례이다. 연구자의 평가를 그대로 옮겨보면 “30여 년 전에 이루어졌던 남해안 군곡리유적 발굴을 제외하고는, 중부지역과 호서, 전북지역에서 각 토기의 선후관계가 층위를 통해 확인된 바는 없다.”라고 하였다(김장석·김준규 2016: 48). 병행기의 유적이 조사되었지만 유구 잔존상태가 불완전하고, 출토유물 역시 단편적이어서 지형식평 등 교란문제로 인해 이견이 상존한다. 이와 다르게 군곡리유적은 퇴적층과 출토유물의 관계를 동시성으로 보는 데는 큰 이견이 없는 듯하다. 특히 철기시대 토기 변천 및 연구 활성화에 기여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 V. 맺음말

해남 군곡리유적은 호남지역 철기시대(원삼국시대) 대표 유적으로 바다와 내륙을 연결하는 서남해안의 관문 역할을 했으며, 패각층의 다양한 유물이 이를 반영한다. 바다는 현재에도 생업 및 교류와 관련하여 중요한 곳으로, 유적의 발굴조사를 통해 고고학적으로 재인식된 공간

8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三國志』卷三十 魏書 三十).

이기도 하다.

최근 들어 군곡리유적에서 가장 주목되는 자료가 호남 최고의 승문타날토기(Ⅱ기층의 최하층)의 확인일 것이다. 이 토기는 완벽한 타날문토기의 요건에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경질무문토기로 분류되어 왔다. 현재의 분류가 유지된다면 승문타날토기에 새로움을 시도했던 타날법과 타날문이 드러내는 부분마저 희석되고 만다. 이에 필자는 타날문토기 개념에 대해 환원염 소성의 완벽한 생산품(기원후 2세기대)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요소가 보이기 시작하는 초현품(기원전 1세기대)을 포함하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두었다.

이러한 신 요소의 등장 배경은 연안 항로를 통한 중국-한반도-일본과 관련된 다양한 외래계 유물의 출토 맥락과 상통되는 것으로써, 군곡리 집단이 외부로부터 얻은 다양한 정보를 물질문화에 부합시킨 역동성과 개방성의 산물로 해석된다.

주지하듯 유적은 사적 지정면적의 일부(약 3%)에 불과한 지점만이 발굴조사되었다. 당시의 연구 환경에서는 최선을 다했음은 분명하지만, 본고의 대상 자료인 출토토기 역시 1%에 해당하는 정도만 분석·보고된 상태이므로 방대한 분량이 과제로 남은 셈이다. 즉 유적의 중요도에 대한 체감 온도와 다르게 조사 면적이나 출토품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라 하겠다.

군곡리유적은 최근 진행된 4차 발굴조사를 통해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최소 200여 기의 주거지들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되었다(목포대박물관 2017: 21). 확인 면적을 감안한다면, 유적 전체에는 과연 얼마만큼의 주거지가 자리하는지 상상이 안 된다. 따라서 기왕에 알려진 패총 내용만으로 유적의 가치를 평가하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예컨대, 고고학 연구의 특성상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면 더할 나위 없겠으나 기왕의 유적을 재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작업이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 유적일지라도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빛을 잃어가게 될 것임은 자명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면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첫째, 학술적인 측면에서의 제안이다. 유적의 발굴조사에서는 고고학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층서적인 조사와 더불어 여러 가지 자연과학적 방법이 적용되었다. 패각층을 이용한 방사성연대측정을 비롯하여 식물자료 분석, 동물시료 및 패각의 분석, 유리의 분석 등 자연과학적 분석이 시도된 패총 발굴조사의 모범 사례이다(최성락 2016: 11~12). 따라서 향후 ‘군곡리유적 종합 학술보고서’가 간행되어 자료의 종합 및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함께 미조사지역에 대한 연차적인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당시의 유적 경관을 복원할 수 있도

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행정적인 측면에서의 제안이다. 발굴조사 성과는 고고학계뿐만 아니라 지역민, 나아가 우리 모두가 공유해야 하는 지적 자산이다. 지적 자산은 사회적 요구에 맞게 전환될 때 의미가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해남의 역사·문화적 자긍심 고취 및 교육장으로 이용·소통할 수 있는 ‘해남 군곡리패총 전시관 건립’이 필요하다. 유적은 국가사적 제449호로 지정하여 보호 조치하고 있으나 미처 세심한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위해서라도, 해남 지역의 역사·문화적 관광자원과 연계된 다양화를 위해서라도 전시관 건립은 필수적이다.

## ::참고문헌

- 강귀형, 2016, 「군곡리유적 토기 제작기술의 검토」, 『해남 군곡리유적 패총의 재조명』, 목포대학교박물관.
- 강봉룡, 2010, 「고대 동아시아 연안항로와 영산강·낙동강유역의 동향-4세기 이전을 중심으로-」, 『도서문화』.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경질찰문토기」, 『한국고고학사전』.
- 국립중앙박물관, 1998, 『동래 낙민동패총』.
- 김낙중, 2009, 『영산강유역 고분 연구』, 학연문화사.
- 김낙중, 2015, 「3~6세기 해남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 『호남고고학보』 51, 호남고고학회.
- 김낙중, 2017, 「분묘출토 토기로 살펴본 마한의 성장과 지역성」, 『동북아시아에서 본 마한토기』, 학연문화사.
- 김영심, 2013, 「전남지역 마한 소국과 백제-문헌자료로 본 침미다례 위치-」, 『백제학보』 9, 백제학회.
- 김일규, 2009, 「2.가평 대성리유적의 원삼국시대 전기 취락」, 『가평 대성리 유적』,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 김장석, 2009, 「호서와 서부호남지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 편년에 대하여」, 『호남고고학보』 33, 호남고고학회.
- 김장석·김준규, 2016, 「방사성탄소연대로 본 원삼국시대-삼국시대 토기편년-중부, 호서,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00, 한국고고학회.
- 김진영, 2015, 「해남 군곡리패총 편년 검토」, 『전남문화재』 15집, 전남문화재연구소.
- 김진영, 2018, 「서남해안 철기문화 유입과 마한 정치체의 출현과정」, 『전남지역 고대문화의 양상과 교류』, 전남문화재연구소.
- 대한문화재연구원, 2016, 「광주 신창동유적(사적 제375호) 514-1전 일원 발굴조사 약보고서」.
- 대한문화재연구원, 2018, 「화순 삼천리 골재채취사업 구간내 문화유적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 목포대학교박물관, 1987, 『해남 군곡리패총』 I.
- 목포대학교박물관, 1988, 『해남 군곡리패총』 II.
- 목포대학교박물관, 1989, 『해남 군곡리패총』 III.
- 목포대학교박물관, 2016, 『해남 군곡리 해양교류를 알리다』(전시 도록).
- 목포대학교박물관, 2017, 「2017 해남 군곡리패총 발굴조사 약보고서」.
- 박순발, 2005, 「토기상으로 본 호남지역 원삼국시대 편년」, 『호남고고학보』 21, 호남고고학회.
- 서현주, 1996, 「남해안지역 원삼국시대 패총의 시기구분과 기원문제-출토유물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4, 호남고고학회.



- 심봉근, 1982, 「김해 지내동 옹관묘」, 『한국고고학보』 12, 한국고고학회.
- 안재호, 1989, 「3.삼각형점토대토기의 성격과 연대」, 『늑도주거지』, 부산대학교박물관.
- 이동희, 2010, 「호서와 서부호남지역 초기철기~원삼국시대편년에 대한 반론」, 『호남고고학보』 35, 호남고고학회.
- 이성주, 2000a, 「타날문토기의 전개와 도질토기 발생」, 『한국고고학보』 42, 한국고고학회.
- 이성주, 2000b, 「타날문단경호의 연구」, 『문화재』 33, 국립문화재연구소.
- 이성주, 2011, 「원삼국시대의 무문토기 전통-경질무문토기 발과 옹 제작의 지역성과 그 의미-」,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지』7,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이영철, 2015, 「영산강유역 고대 취락 연구」, 목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영철, 2017, 「마한 고지의 신자료 성격과 의미」, 『영산강유역 마한제국과 낙랑·대방·왜』, 전라남도 문화재관광재단·대한문화재연구원.
- 이정호, 2016, 「군곡리유적을 통해 본 대외교류」, 『해남 군곡리패총의 재조명』, 목포대학교박물관.
- 이지영, 2016, 「군곡리유적 토기가마의 성격」, 『해남 군곡리패총의 재조명』, 목포대학교 박물관.
- 이창희, 2013, 「철기시대의 역연대」, 『주거의 고고학』, 제3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이창희, 2014, 「군곡리패총의 연대와 경질무문토기-타날문토기 소고-영남고고학의 입장에서-」, 『영남고고학보』 68, 영남고고학회.
- 이창희, 2018, 「탄소14연대,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여명기의 물질문화」, 『점점, 중부지역 원삼국시대의 여명』,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이희준, 2011, 「한반도 남부 청동기-원삼국시대 수장의 권력 기반과 그 변천」, 『영남고고학보』 58, 영남고고학회.
- 장다인, 2014, 「청동기시대 후기 타날문토기의 전개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진세원, 2016, 「영산강 상류역 원삼국~삼국시대 취락 연대의 재검토」,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인성, 2016, 「연계 철기문화의 확산과 그 배경」, 『영남고고학』 74, 영남고고학회.
- 정일, 2016, 「군곡리유적 원형계 주거지의 성격」, 『해남 군곡리패총의 재조명』, 목포대학교박물관.
- 정일, 2018, 「영산강유역 마한 초현기의 취락 편년과 정의」, 『古墳時代・三國時代における日韓關係史の再構築-倭と榮山江流域の關係を中心に-』, 第5回共同研究會(발간 예정).
- 최병현, 1998, 「원삼국토기의 계통과 성격」, 『한국고고학보』 38, 한국고고학회.
- 최병현, 2013, 「원삼국시대 와질토기 논쟁, 그 후」, 『중부지역 원삼국시대 타날문토기의 등장과 전개』,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 최성락, 1987, 「제7장. 종합적 고찰」, 『해남 군곡리패총』 I, 목포대학교박물관.
- 최성락, 1988a, 「원삼국기 토기의 변천과 문제점」, 『영남고고학』 5, 영남고고학회.
- 최성락, 1988b, 「제7장. 종합고찰」, 『해남 군곡리패총』 II, 목포대학교박물관.



- 최성락, 1989, 「제8장. 종합고찰」, 『해남 군곡리패총』Ⅲ, 목포대학교박물관.
- 최성락, 1993, 『한국 원삼국문화의 연구-전남지방을 중심으로-』, 학연문화사.
- 최성락, 2000, 「호남지역의 철기시대」, 『호남고고학보』 11, 호남고고학회.
- 최성락, 2013, 「전남지역 마한 소국과 백제-고고학에서 본 침미다례의 위치」, 『백제학보』 9, 백제학회.
- 최성락, 2016, 「해남 군곡리 패총의 발굴 성과와 의의」, 『해남 군곡리유적 패총의 재조명』, 목포대학교 박물관.
- 한옥민, 2016, 「군곡리패총 연대론 재조명」, 『해남 군곡리유적 패총의 재조명』, 목포대학교박물관.
- 한옥민, 2018, 「타날문토기 등장과정에 대한 재해석-해남 군곡리유적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8, 호남고고학회.



# 해남반도 마한산성의 재인식

양시은(충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I. 머리말

II. 해남반도의 고대 산성 현황

III. 해남반도 마한산성에 대한 재인식

IV. 맺음말

## I. 머리말

3세기경 한반도 내 정치체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三國志』 魏書東夷傳에 따르면, 馬韓은 ‘모두 50여 국으로, 큰 나라는 萬餘家, 작은 나라는 數千家로서 총 10여만戶로 이루어져 있다’. 특히 ‘산과 바다 사이에 흩어져 살았는데, 城郭이 없었다’라고 묘사되어 있다. 상기 기록과 같이 마한에 성곽이 존재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같은 『삼국지』 위서동이전에서 ‘그 나라 안에 무슨 일이 있거나 관가에서 城郭을 쌓게 되면, 용감하고 건장한 젊은이는 모두 등의 가죽을 꿰고, 큰 밧줄로 그곳에 한丈쯤 되는 나무막대를 매달고 온 종일 소리를 지르며 일을 하는데, 아프게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작업하기를 권하며, 또 이를 강건한 것으로 여긴다’라고 하여 마한에서도 성곽을 축조하는 작업이 있었다는 상반된 기록이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시기의 辰韓과 弁辰에는 ‘城柵’과 ‘城郭’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마한 성곽은 문헌기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당연히 고고학 자료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만 그 실체를 밝힐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고고학 연구 결과를 놓고 본다면, 해남반도를 포함한 호남지역의 마한 세력은 『三國史記』 百濟本紀의 기록과는 달리 한동안 백제에 복속되지 않고 독자적인 세력을 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고대사학계에서는 서남해안 지역의 마한 세력을 『삼국지』 위서동이전 내 韓傳에 등장하는 臣雲神國, 『晉書』 張華傳에 등장하는 新彌國, 『日本書紀』 神功紀 49년조에 등장하는 枕彌多禮 등과 연계하여 설명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본 발표는 해남반도의 마한산성에 대한 고고학적인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만큼, 본문에서는 우선 원삼국에서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해남지역의 고대 산성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이후 마한 산성의 실체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 II. 해남반도의 고대 산성 현황

목포대학교박물관에서 2003년에 발간한 해남군 문화유적분포지도에 따르면, 해남지역에는



도 1 해남반도의 고대 산성(1: 50,000 - 1918년 지형도)



27개소의 성곽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 중 원삼국~삼국시대에 축성된 것으로 알려진 성곽은 12개소이다. 이들 성곽 중 일평리성지(죽금성)를 제외한 대부분의 유적은 아직까지 시굴조사 내지는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그 축성 시기와 활용 주체를 비롯한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관계로, 기존 지표조사를 통해 밝혀진 최소한의 정보만을 가지고 축성 시기를 막연하게나마 추정하고 있을 뿐이다.

도 1은 조선총독부에서 1918년에 간행한 1: 50,000 지형도에 해남지역 고대 성곽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그간의 활발한 간척사업으로 인해 해남 일대의 지형이 많이 바뀐 만큼, 그나마 원지형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지형도에 유적의 위치를 표시해본다면 산성의 입지에 따른 축조 배경 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표 1은 해남반도에 분포하는 고대 산성의 목록과 간략한 현황을 제시한 것인데, 목포대학교박물관에서 2003년에 발간한 해남군의 문화유적분포지도에 수록된 내용을 참고로 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2개의 고대 성곽 중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곳은 일평리성지뿐이며, 옥녀봉토성의 경우에는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에 의해 2003년에 별도로 정밀 지표조사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2013)에서도 영산강유역 고대 산성의 현황 조사에서 해남 지역을 다루었으나, 기존 조사 내용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이었다.

표 1과 도 1을 살펴보면, 해남반도의 고대 산성 유적은 진터산성을 제외한 모든 산성이 해안가에 인접한 구릉에 입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해와 남해가 연결되는 지정학적인 요충지인 해남반도가 고대부터 중국과 일본을 연결하는 연안해상교통로의 중요 지점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사실은 중국 王莽이 세운 新(9~25년)의 화폐인 貨泉이 출토된 군곡리패총을 통해서도 추정해볼 수 있는데, 호남지역에서는 중국 화폐(화천, 오수전) 외에도 중국식동검이나 한경, 철경동축, 낙랑토기 등이 출토되는 유적들이 분포하고 있어 초기철기 시대부터 이미 서해안 해로를 통해 중국과 교류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해남반도를 지역 거점으로 한 고대 정치체들은 해상교통로를 통제할 수 있는 서남해 연안지역의 구릉에 성을 쌓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산성 유적들은 옥녀봉토성처럼 단독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몇 개의 성곽이 군집을 이루며 분포하기도 한다. 군집 분포하고 있는 성곽의 경우에는 발굴조사 등을 통해 축성 및 활용 시기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고대 정치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겠으나, 현재의 정보만으로는 더 이상의 내용을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표 1 해남반도의 고대 산성 현황표(목포대학교박물관 2003,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3)

이름	입지	성벽	출토유물	주변 유적
옥녀봉토성	포곡식+산정식 해발 200m	토성 석심토축, 토축, 석축보강 계단식 토벽	경질무문토기 격자타날문토기 옹형토기 등	옥녀봉 패총 신금 옹관묘 용두리 전방후원분
죽금성 (일평리성지)	산정식 해발 52m	석성(173m) 후대 석축	경질토기편 삼국토기편 고려 자기,기와	성 외곽 삼국 취락 일평리 패총 현산 가야고분
읍호리성지	포곡식 해발 100m	성벽 불분명 토성? 석성? 석심토축	격자타날문토기 자기편 갑발	
고다산성 (성매산성)	산정식 해발 97m	석성(450m) 여장, 치, 문지	격자타날문토기 조선 기와편	
백방산성	산정식 해발 200m	석성(200m) 계단식 토축단	경질토기편 기와편	
거칠마토성	산정식 해발 44m	토성(290m) 계단식 성벽	삼국토기편	거칠마고분군
성마산성 (신월리산성)	산정식 해발 87m	토성(290m)? 석심토축, 석축보강 계단식 성벽	삼국토기편 기와편	신월리 방대형고분 방산리 장고봉고분 용일리고분
주성산성	산정식 해발 101m	토성(350m) 계단식 2단토벽		
산막리산성	산정식 해발 139m	성벽 미확인(2003년) 토성(500m)? 계단식 성벽		
죽산성	산정식 해발 157m	석성(780m) 계단식 성벽	회청색경질토기 고려 기와편	
맹진리산성	산정식 해발 87m	성벽 미확인(2003년) 석심토축?		
진터산성	산정식 해발 159m	토성(290m) 장대지, 수구	경질토기편	성산리 만의총

한편, 해남지역 고대 성곽 중에서 유적 일대에 초기철기 내지는 원삼국시대에 해당하는 패각층이 확인되는 유적은 옥녀봉토성과 일평리성지(죽금성)<sup>1</sup>로, 이 일대가 마한 초기부터 주민들이 생활을 영위하던 곳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죽금성으로도 알려진 일평리성지는 일평마을 북서쪽 구릉(당피) 정상부(해발 52m)에 축성

1 전남문화재연구소(2016)가 조사한 일평리성지 외곽의 1호 수혈에서도 상면에서 패각이 다수 확인되었다. 내부에서는 우각평파수부편, 적갈색연질토기편, 회청색경질토기편 등이 출토되었다고 한다.



도 2 일평리성지(죽금성) 주변 채집 유물



일평리성지 석축성벽 (고려 이후)

일평리성지 내부 고려 기와 및 자기편

도 3 일평리성지(죽금성)

된 둘레 173m 내외의 소규모 테뫼식 산성이다. 구릉 정상부 주위로 석축 성벽이 둘러져 있고, 내부에서는 삼국시대 토기편들과 함께 고려시대의 자기 및 기와편들이 다수 확인된다. 전남문화재연구소(2016)에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출토유물과 산성의 입지 조건 및 축조방식을 근거로 삼국시대에 처음 축조되어 사용된 산성으로 추정한 바 있다. 그리고 성벽 외곽에서는 성곽 축조 이전 시기에 존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형계 주거지, 구, 수혈 등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필자가 현지 조사할 당시에도 성지가 있는 구릉의 8부 능선에서 파수, 타날문 토기편, 뚜껑 편, 파상문과 삼각거치문이 각각 시문된 토기편 등을 수습할 수 있었다.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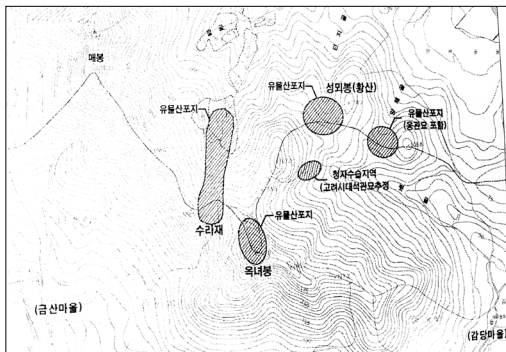


옥녀봉토성 북쪽



옥녀봉토성 남쪽(용두리고분에서 촬영)

도 4 옥녀봉토성 전경



옥녀봉토성 평면배치도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3)



옥녀봉토성 계단식 토벽 상면부

석재 보강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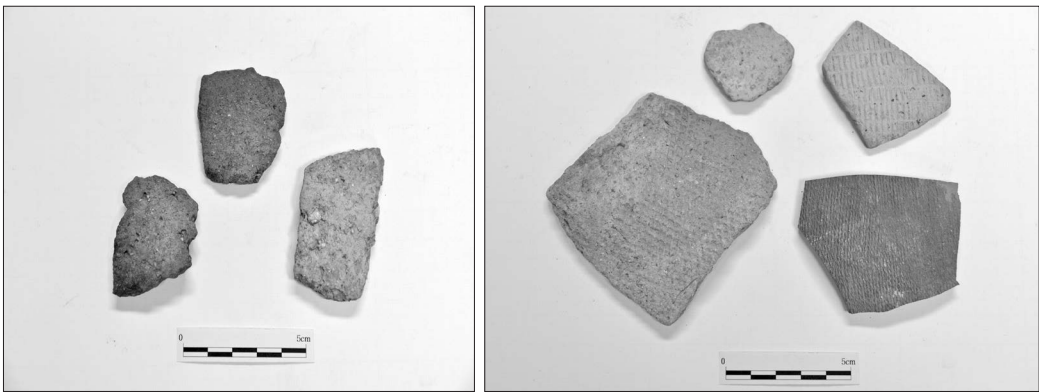
도 5 옥녀봉토성

밖에도 이도학(1995)의 보고에 따르면, 일평리성지와 주변 고분군에서는 가야계 토기도 확인되고 있다.

옥녀봉토성은 2003년에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가 옥녀봉 일대 전체 구역을 정밀지표조사 한 바 있다. 당시 조사에서는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등과 옹관 파편 등 3~5세기대로 추정되는 여러 유물들이 수습되어, 옥녀봉 일대에 마한시기에 해당하는 유적이 존재하고 있음이 분명해졌다. 다만 토성 여부에 대한 결론은 내리지 못하였는데, 이는 지표조사만으로는 추정 토성벽에 대한 인위적인 축조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해결될 수 없다. 이번 현지 조사에서도 경질무문토기, 시루의 파수, 격자타날문 연질토기, 타날문 경질토기 등을 수습할 수 있었다.



도 6 옥녀봉토성 계단식 토벽 상면부 일원 채집 토기편



도 7 옥녀봉토성 주변 채집 유물(좌: 남사면, 우: 북사면)

한편, 남한 지역의 석성은 대체로 5세기 이후에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다산성과 백방산성 역시 석축성벽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남반도의 토착 마한세력과는 거리가 있다. 이번 현지조사 당시 고다산성에서 채집한 유물 역시 우각형과수를 비롯한 삼국시대 이후의 경질토기편과 통일신라시대 이후에 유행한 선조문 기와편들이 대부분이었다. 경질우각형과수편으로 보건데 남해안의 가야세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표에서 채집된 일부 유물만을 가지고 축성 주체를 판단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다. 췌기형성돌을 이용한 성벽의 축조기법으로 본다면, 오히려 통일기 신라 이후에 축조되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축조 세력에 대한 자세한 정황은 역시 성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만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이 밖에도 읍호리 성지의 경우에는 성벽이 심하게 훼손되어 성곽의 전체 현황을 파악할 수 없어 관련 내용을 언급하기가 어렵지만, 해남반도의 다른 고대 산성들과는 달리 포곡식산





백방산성(좌측)과 고다산성(우측)



고다산성 석축 성벽



고다산성 석축 성벽



고다산성 채집 유물

#### 도 8 백방산성과 고다산성

성으로 추정된다는 점에서 마한산성에서 제외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성마산성이나 거칠마토성의 경우에는 토벽 사면에 석축을 부가한 구간이 확인되는데, 이들 유적에서는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토기편이 채집되고 있고, 인근에 신월리 방대형고분, 방산리 장고봉고분, 용일리고분 등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볼 때 6세기대 이후에 축조되었을 개연성이 있다. 현재로서는 마한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언급하기가 어렵지만, 추후 발굴조사를 통해 축성세력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산이면 일대의 나머지 산성 유적들은 채집된 유물이 없어 현재로서는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성마산성 전경



성마산성 석축보강부



신월리 방대형고분



거칠마토성 전경

도 9 성마산성과 거칠마토성

### III. 해남반도 마한산성에 대한 재인식

Ⅱ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남반도의 고대 산성 중 마한시기에 해당할 수 있는 유적으로는 우선 옥녀봉토성과 일평리성지를 들 수 있다. 다만 일평리성지의 경우 전남문화재연구소(2016)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상부에 축조된 석축성벽은 입지나 출토 유물로 판단해 볼 때 삼국시대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으나,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마한시기 산성과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옥녀봉토성의 경우에도 그간 채집된 유물로 보건데 마한시기에 조성된 생활유적임에는 분명하나, 성벽으로 단정지을 만한 명확한 유구가 확인되지 않아 성격 규명에 어려움이 있다(임영진 2003). 역시 옥녀봉토성이 3~5세기를 중심으로 활용된 것으로 보이나, 토성이었다는



표 2 남한지역 주요 초기 토성(이혁희 2007, 박성현 2007 수정)

명칭	입지	둘레	성벽	연대	인접 고분	기타
서울 풍납토성	강안 평지	3,500	관축 (교호성토)	3C후반	석촌동고분군	원삼국환호
서울 몽촌토성	평지 구릉	2,285	교호성토	3C후반	석촌동고분군	
고양 먹절산토성	구릉	300	교호성토	5C		
화성 길성리토성	구릉	2,311	교호성토	4C전반	사창리고분군 요리고분군	
화성 소근산성	산정식 해발110	629	관축	5C		
당진 성산리산성	산정식 해발67m	316	교호성토	4C중반		
이천 효양산성	산정식 해발188	1,500	교호성토	4C중반		
안성 망이산성	내: 산정식 해발472	350	관축	5C		
청주 정북동토성	평지	675	관축	3C후반 ~4C	송절동고분군	
충주 탄금대토성	구릉	420	교호성터	4C전반		제련시설
증평 이성산성	남: 산정식 북: 포곡식	741 1,052	남성 북성	4C중반 4C말		
경주 월성	평지 구릉	1,800	관축, 할석피복	3C말 5C중축		
대구 달성	평지 구릉	1,300	할석+점토	4C중엽	달성고분군	
양산 순지리토성	낮은산지	960	관축	5C전반	조일리고분군	
경산 임당토성	평지 구릉	950	관축	4C중엽	임당고분군	원삼국환호
김해 봉황토성	평지 구릉	1,200	관축, 할석피복	5C중엽	대성고분군	원삼국환호

증거는 찾을 수 없었다고 하였다. 특히 후대의 파괴로 인해 토성벽이 남아있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으나 원래부터 토성벽이 없었을 가능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하였다. 다만 채집된 유물의 중심연대가 3~5세기에 걸쳐있고, 그 분포 범위가 넓어 단순한 생활유적으로 보기도 어려운데, 비교적 높은 고개마루에 유적이 입지하고 있고 정상 일대에서 패각이 동반된다는 점을 들어, 남해안의 양산패총이나 웅천패총처럼 고지성 주거유적일 가능성 또한 검토해봐야 한다고 하였다.

옥녀봉토성이 예전부터 학계나 언론의 관심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발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해당 유적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기에는 조심스러우나 그 실체에 좀더 접근하기 위해 일단 남한지역에서 확인되는 이른 시기의 성곽유적과 비교검토해 보

고자 한다. 이는 원삼국에서 삼국시대에 이르는 관방유적의 현황을 검토해봄으로써, 마한 산성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고자 함이다.

한반도 중남부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토성은 서울의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으로, 모두 백제 중양세력에 의해 축조되었는데, 축조시기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대체로 3세기 중후반 내지는 후반에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한강 이남 지역에서 확인되는 지방 토성의 경우 이혁희(2013: 109쪽)에 따르면, 교호성토 기법으로 축조된 토성은 원삼국시기에서 한성백제 I기 유물이, 판축기법으로 축조된 토성은 한성백제 II기에 해당하는 유물이 주로 출토되고 있어, 이들 지방 토성의 축조 시기는 대체로 4세기 이후이다. 청주 정북동토성의 경우 성벽에 대한 전면적인 발굴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명확하지는 않지만, 방사성탄소연대측정결과값 등으로 추정해볼 때 3세기 중후반에 해당될 여지도 있으나(양시은 2018), 축성 세력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발굴조사 및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겠다.

영남지역의 초기 토성은 낙동강 이서 지역과 이동 지역에 따라 분포 양상을 달리한다. 낙동강 이동 지역에서는 경주와 경주로 통하는 교통로상에 분포하고 있는데, 신라의 도성인 경주의 월성은 3세기 말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달성과 임당토성을 대표로 하는 신라의 지방 토성의 경우에는 신라의 영역 확대에 따라 4세기 중엽 이후에 축조되었다. 반면 낙동강 이서 지역에서는 5세기 이후 김해, 함안, 고성 등과 같은 가야 연맹의 중심 지역에 토성이 축조되었음이 확인된다(박성현 2007: 21쪽).

한편, 영남지역에 토성이 조영되는 시점이 4세기 이후라는 이상의 연구 결과는 『삼국지』동이전에서 진한과 변한에 각각 성책과 성곽이 있다는 기록과는 일치하지 않아 논란의 여지가 있다. 현재까지 영남지역에서 발견된 삼한시기의 방어시설은 토성이나 석성이 아닌 환호시설로, 관련 유적으로는 양산 다방리유적, 창원 남산유적, 양산 평산리유적, 김해 봉황대유적 등이 있다.

고고학적인 양상과 문헌의 불일치에 대해 박성현(2007: 25쪽)은 4세기 이전 영남지역에서 확인되는 방어시설이 성곽이 아닌 환호시설이라는 점과 『삼국지』倭人條에 나오는 一支國의 국읍으로 알려진 일본 이키(壹岐) 섬의 하루노츠지(原の辻)유적의 경우에도 750m에 이르는 3중 환호로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들어, 『삼국지』동이전의 채록자는 환호 혹은 환호와 목책으로 이루어진 방어시설을 진한의 성책으로 기록했을 것이며, 변한 역시 진한과 같다는 뜻에서 “亦有城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영남지역의 이러한 양상은 마한에서도 마찬가지로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아직까지 남한지역

에서 마한의 성곽으로 확정지을 만한 유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성백제기의 지방 성곽유적처럼 한성백제 양식의 토기가 거의 출토되지 않는 그리고 교호성토를 통해 토축성벽을 축조한 유적의 경우 재지계의 영향력을 어느 정도는 상정해볼 수는 있겠으나, 축조 세력을 백제가 아닌 마한과 바로 연결시키기에는 현재 직접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러한 양상은 영남지역도 마찬가지이다. 해남반도의 고대 성곽 또한 이러한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해남반도의 고대 성곽 중 가장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옥녀봉토성의 경우에도 토성벽의 인위적인 조성 흔적이 발굴조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는 한, 현 시점에서 무리하게 토성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영남지역의 삼한시기의 방어시설이 환호 취락임을 고려해볼 때 구릉 정상부에 환호 내지는 자연 지세를 활용한 계단식 대지 등을 활용하여 방어를 한 취락이 있었을 가능성도 염두해볼 필요가 있다. 영남지역에서는 진변한 이전 시기인 초기철기시대에는 양산패총, 김해패총, 성산패총 등에서 목책의 흔적이 확인된 바 있으며, 이들 유적은 주로 방어가 용이한 얕은 구릉의 정상부에 입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토성이나 석성 등과 같이 본격적인 성곽 시설이 등장하기 이전 단계의 진, 변한 지역에서 목책, 환호 등의 방어시설을 갖춘 취락이 구릉 정상부를 중심으로 조영되고 있음을 볼 때, 마한 역시 그러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비슷한 시기에 마한의 세력범위 내에서도 환호와 같은 방어시설을 갖춘 유적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해남반도에서도 이러한 유적들은 옥녀봉 일대에 자리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방어시설을 갖춘 취락의 확인은 해남반도의 마한 정치체의 모습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마한 산성의 실체를 확인하는데도 중요하다.

다만, 4세기 후반 이후 해남반도의 마한 정치체가 백제나 가야, 왜 세력 등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데, 이는 관방 유적 외에도 일대의 고분과 함께 살펴봐야할 문제이다.

## IV. 맺음말

이상으로 해남반도의 마한시기의 산성 문제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는데, 아직까지 해남지

역에서는 마한 시기의 성곽이라고 할 만한 유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다만 마한 초기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옥녀봉토성을 들 수 있을 것인데, 현지 조사에서도 토성이라고 할 만한 분명한 증거는 확보할 수 없었다. 토성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발굴조사가 필수적이다.

그렇다면 해남반도를 포함한 전남지역에서 마한 시기의 성곽 유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이와 관련하여서는 영산강유역에서는 백제 병합 이전의 마한 사회뿐만 아니라 백제에 병합된 이후에도 성곽이 축조되었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어렵다는 임영진의 견해(2014)를 참고해볼 만하다. 그는 전남지역에서 마한 제국과 관련된 성곽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은 당시 마한 제국들이 성곽을 갖추어야 할 정도로 상호 경쟁적이거나 적대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며 백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전쟁을 대비해야 할 만큼 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한 바 있다.

그렇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마한과 동일 시기인 진한과 변한의 고고학적인 상황을 참고해볼 필요가 있는데, 영남지역에서도 4세기 이후에나 토성이 조영되기 시작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목책이나 환호 등으로 방어가 이루어진 취락 유적이 확인되고 있다. 해남반도 역시 유사한 시기의 고지성 취락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보성 조성리에서 조사된 1~2세기대로 추정되는 환호유적과 장흥 지천리에서 기초사된 3세기대의 환호유적 등(임영진 2013: 10쪽)이 참고가 될 수 있다. 방어시설을 갖춘 고지성 취락유적으로 옥녀봉토성이 바로 그러한 유적일 가능성이 높은 바, 앞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그 실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옥녀봉토성에 대한 앞으로의 발굴조사는 해남반도에 존재하였던 마한 정치체의 모습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3, 『영산강유역 고대산성』
-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2003, 『해남옥녀봉토성 지표조사 보고서』.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3,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해남군-』.
- 문안식, 2015, 「서남해지역 마한사회의 발전과 연맹체 형성 -해남반도 백포만 일대를 중심으로-」, 『동국사학』58.
- 박성현, 2007, 「4세기 전후 신라의 토성 축조와 그 목적 -영남 지역 초기 토성의 성격」, 『한국사연구』 139.
- 양기석, 2013, 「전남지역 마한사회와 백제」, 『백제학보』9.
- 양시은, 2018, 「정북동토성의 연대문제」, 『청주 정북동토성의 학술적 의미와 성과』, 충북대학교박물관.
- 이도학, 1995, 「해남 지역 마한세력의 성장과 백제로의 복속 과정」, 『동아시아 문화연구』26.
- 이도학, 2013, 「영산강유역 마한제국의 추이」, 『백제문화』49.
- 이혁희, 2013, 「한성백제기 토성의 축조기법」,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영진, 2003, 「IV. 마한의 발전과 옥녀봉유적」, 『해남옥녀봉토성 지표조사 보고서』, 명지대학교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 임영진, 2013, 「고고학 자료로 본 전남지역 마한 소국의 수와 위치 시론」, 『백제학보』9.
- 임영진, 2013, 「호남지역 삼국시대 고고학의 연구 성과와 과제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45.
- 임영진, 2014, 「전남지역 마한 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 『백제학보』11.
- 전남문화재연구소, 2016, 『해남 일평리성지(죽금성) 문화재 학술조사(시굴조사) 약식보고서』.
- 최성락, 2013, 「호남지역 초기철기시대와 원삼국시대의 연구현황과 전망」, 『호남고고학보』45.





# 해남 백포만 고대 포구세력의 존재양태

강봉룡(목포대학교 사학과)

## I. 머리말

## II. ‘東夷馬韓新羅諸國’: 3세기 말

1. ‘신미제국’의 遣使
2. ‘신미제국’ 遣使의 배경과 의미

## III. ‘枕彌多禮’: 4세기 후반

1. ‘침미다례’ 도륙사건
2. ‘침미다례 도륙사건’의 배경과 의미

## IV. ‘耽羅’: 5세기 후반

1. ‘탐라’에 대한 백제의 군사적 위협
2. ‘탐라’에 대한 백제의 군사적 위협, 그 배경과 의의

## V. 맺음말-백제의 5방제: 6세기

## I. 머리말

‘新彌諸國’에 대한 문헌 기록은 『晉書』에서 282년에 처음으로 쑤에 조공을 바쳤다고 하는 ‘東夷馬韓新彌諸國’이 유일하다. 신미제국은 ‘신미의 여러 나라’를 의미하는 것으로, 『진서』에는 20여 국(혹은 29개국)이 집단적으로 진에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나온다. 지금까지 신미제국에 대한 논의를 일별해 보면, 영산강유역의 여러 소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는 이론이 없다. 다만 ‘신미의 여러 나라’를 대표하여 칭한 ‘신미(국)’의 실체에 대해서는 해남군 백포만 연안에 위치한 포구세력이었을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소수 설이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신미제국과 신미 혹은 신미국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이에 대한 문헌기록이 3세기 상황을 전하는 위의 단 한 구절에 불과한 실정이므로, 주로 고고학적 성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일본서기』에 전하는 ‘침미다례’를 신미국과 동일시하려는 견해가 제기되면서, 신미국과 침미다례의 관계에 대한 논의가 시도되기도 하였다.<sup>1</sup> 그리고 더 나아가 『삼국사기』의 문주왕조와 동성왕조에 전하는 ‘탐라’를 신미국 및 침미다례와 관련지을 수 있다는 견해까지 제기되면서<sup>2</sup> 신미국 및 신미제국에 대한 연구는 고고학적 연구를 보완하는 문헌적 고찰이 가능하게 되었다.

고고학에만 의존하여 역사를 재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고고학의 연구 대상인 비문자자료(유적과 유물)는 말이 없어, 생생한 역사의 이야기를 엮어내기에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문자자료로 하여금 말을 하게하고 이야기를 구성하도록 하는데, 한 구절의 문헌기록일망정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여기에서는 간헐적으로 나오는 신미국 관련 문헌자료의 상호 관련성을 제기한 지금까지의 시도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다음의 몇몇 관점을 염두에 두면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해남 백포만의 포구세력이 3세기 말에는 ‘신미국’의 이름으로, 4세기 후반에는 ‘침미다례’의 이름으로, 그리고 5세기 후반에는 ‘탐라’라는 이름으로 간헐적으로 문헌에 출현

1 송태갑, 2002, 「해남반도의 고대사회와 대외교류」, 『전남사학』18 ; 문안식, 2015, 「서남해지역 마한사회의 발전과 연맹체 형성-해남반도 백포만 일대를 중심으로-」, 『동국사학』50 참조.

2 이근우, 1997, 「웅진시대 백제의 남방경역에 대하여」, 『백제연구』27.

하였다는 가설을 염두에 두고, 그 타당성을 설파한다. 둘째, ‘신미국’, ‘침미다례’, ‘탐라’ 관련 문헌자료가 내포하는 역사적 함의를 파악하고, 각각의 세기(3, 4, 5세기)에 한반도 및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양상을 각각(‘신미국’, ‘침미다례’, ‘탐라’)의 배경 및 상황과 매치시켜 논의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백포만 포구세력이 6세기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추적한다.

## II. ‘東夷馬韓新彌諸國’: 3세기 말

### 1. ‘신미제국’의 遣使

『진서』 장화열전은 ‘동이마한신미제국’이 췌에 사신을 처음 파견한 기사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이에 張華를 ‘持節 都督幽州諸軍事 領護烏桓校尉 安北將軍’으로 삼아 진출하였다. 新舊의 세력을 무마하여 받아들이니 오랑캐와 중국이 그를 따랐다. ‘東夷馬韓新彌諸國’은 산에 의지하고 바다를 띠고 있었으며 幽州와의 거리가 4천여 리였는데, 역대로 來附하지 않던 20여 국이 함께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을 바쳐왔다. 이에 먼 오랑캐가 감복해와서 사방 경계가 근심이 없어지고 매해 풍년이 들어 士馬가 강성해졌다.<sup>3</sup>

이 기사에 나오는 장화라는 인물은晉의 저명한 시인이자 명재상으로서 내외의 신망을 받던 인물이었으나 시기하는 자들의 참소로 좌천되어 동북 변방의 유주도독으로 진출되었다. 위 기사는 장화가 유주도독으로 재직하는 동안에 이제까지 來附해 오지 않던 ‘동이마한신미제국’ 20여 국이 처음으로 사신을 바쳐온 사실을 특기하여, 그의 비상한 공적으로 추켜세우고 있다. 그런데 『진서』 帝紀에 다음과 같은 관련 기사가 전한다.

春正月 … 甲午日에 尙書 張華를 都督諸軍事로 삼았다. … 9월에 東夷 29國이 歸化하여

3 『晉書』 권36, 열전 장화조.

方物을 바쳐왔다.<sup>4</sup>

이에 의하면 장화가 유주도독(‘都督諸軍事’)으로 파견된 것은 282년 정월이고, 그가 유주도독으로 재직하고 있던 같은 해 9월에 ‘東夷 29國’이 방물을 바쳐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동이 29국’은 곧 장화열전에 나오는 ‘동이마한신미제국 20여 국’을 지칭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그렇다면 ‘동이마한신미제국’ 20여 국의 정확한 수는 29국이고 그들이 처음 조공을 바쳐온 것은 282년 9월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동이마한신미제국’이란 무엇인가? ‘동이마한신미제국’은 ‘동이+마한+신미제국’의 합성어로서 ‘동이’란 막연히 중국 동쪽의 종족을 지칭하는 개념이고, ‘마한’이란 ‘마한 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sup>5</sup> 결국 실체는 ‘신미제국’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진서』 장화열전에 의하면 ‘산을 의지하고 바다를 띠고 있다’거나 ‘幽州에서 4천 여 리 떨어져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신미제국’은 노령산맥과 지리산 줄기로 둘러싸여 있고 서남해안을 끼고 있는 전남지역의 서부, 곧 서남해 영산강유역의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신미제국’이란 3세기 말경에 영산강유역에서 독특한 웅관고분을 공유하면서 정치적 연대를 결성해 가고 있던 30개 가까운 ‘國’들의<sup>6</sup> 느슨한 연맹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sup>7</sup>

결국 신미제국은 3세기 말 ‘영산강유역의 여러 국들’을 지칭한다고 하겠는데, 여기에서 그 국들의 이름은 일일이 파악할 길이 없지만, 다만 그들이 ‘신미’라는 이름으로 통칭되고 있었다는 것만은 인정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신미’라는 이름의 국(‘신미국’)을 대표로 내세워

4 『진서』 권3, 帝紀3, 武帝 太康 3년조.

5 이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상론하기로 한다.

6 필자는 여기에 나오는 ‘국’의 실체에 대하여, 『삼국지』 한조에 나오는 ‘국’과는 다른 개념으로 그보다 작은 ‘읍락’ 단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한 바 있다. (강봉룡, 1999, 「3~5세기 영산강유역 ‘웅관고분사회’와 그 성격」, 『역사교육』 69, 96~98쪽)

7 웅관고분을 공유하는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에 대하여 ‘마한’이라 부르자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지만, 필자는 이를 반대하면서 임시적으로 ‘웅관고분사회’(강봉룡, 1999, 위 논문) 혹은 ‘신미사회’라 부를 것을(본고 주 19 참조) 제안한 바 있다. 여기서는 ‘영산강유역 고대사회’라 칭하기로 한다.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를 ‘마한’이라 부르는 견해에 대한 비판은 강봉룡, 2018, 「문헌으로 본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흥망성쇠」, 『전남지역 고대문화의 양상과 교류』, 진인진, 16~26쪽 참조.

영산강유역의 여러 국들을 통칭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신미국’이란 무엇인가?

신미국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위치를 비정하는 것이 선결 과제이다. 먼저 영산강유역의 여러 국들을 대표했을 신미국의 위상을 염두에 둔다면, 신미국의 위치는 3~4세기 대에 영산강유역 웅관고분의 규모와 밀집도에서 단연 압도적인 영암 시종면 일대로 비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신미국의 위치에 대한 그간의 논의를 짚어보면, 신미국이 『일본서기』에 전하는 ‘침미다례’와<sup>8</sup> 동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주설, 강진설, 해남설, 고흥설 등이 제기되었을 뿐 시종면에 대한 관심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sup>9</sup> 제주설과 강진설의 경우 지명의 음상사에 주로 의거하였고, 해남설의 경우 음상사와 고고학적 전거를 함께 고려하였으며, 가장 최근에 제기된 고흥설의 경우 고고학적 전거에 주로 의거하였다.<sup>10</sup> 고고학적 전거만을 따진다면 시종면도 신미국의 유력한 후보지가 될 만하다.

보다 엄정한 지역 비정을 위해서는 고고학적 전거와 음상사 등을 복합적으로 따질 필요가 있다. 그 점에서 근래에 신미국=해남설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추세에 대하여 필자도 동의하는 바이다. 이에 대하여 부연해 보기로 하자.

먼저 음상사의 전거이다. 해남 백포만 연변의 오늘날 현산면 일대는 백제시대에 塞禁縣으로, 통일신라시대에 浸溟縣으로, 그리고 고려시대에 海南縣으로 불렸는데, 이중 특히 침명현의 경우 신미국 혹은 침미다례와 음상사하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다음에 백포만 연변의 고고학적 정황도 예사롭지 않다.<sup>11</sup> 특히 백포만 東南岸에 하나의 언덕을 이룰 정도의 큰 규모로 형성된 군곡리 패총은 백포만 고대세력의 추세를 가장 잘 보여준다. 즉 군곡리 패총은 B.C.3세기 말엽부터 A.D.4세기 전반 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고, 이로부터 국내외의 해상 문물교류를 반영하는 유물들이 대거 수습되었다.<sup>12</sup> 그 단적인 예로 기원후 1세기에 흥망한 중국 新 왕조(기원후 8~23년) 시대에 주조된 화

8 『일본서기』의 침미다례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살핀다.

9 김영심, 2013, 「문헌으로 본 침미다례의 위치」, 『백제학보』9, 2~6쪽.

10 고흥설에 의하면 침미다례를 침미와 다례의 두 지명으로 나누고 고흥반도의 고분 분포를 이에 매치하여, 침미는 고흥 동부, 다례는 서부 지역으로 비정하였다.(임영진, 2010, 「忱彌多禮의 위치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백제문화』43, 16~24쪽)

11 최성락, 1987, 『해남 백포만 일대의 선사유적』, 『최영희선생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참조.

12 최성락, 1987~1989, 『해남군곡리패총 I·II·III』, 목포대 박물관 참조.

천을 들 수 있겠는데, 이는 백포만에 1세기 이후 국제 물자교역의 주요 거점 포구가 있었음을 반영한다. 그밖에 복골, 골제 뒤꼴이, 철기류 등은 중국과의 문물교류를, 토제 곡옥, 복골, 각골, 토기류 등은 일본과의 문물교류를 반영하는 유물들이다. 또한 화천, 복골, 토제 곡옥 등은 김해지역의 패총에서도 출토된 바 있고, 군곡리에서 나온 단면삼각형구연토기나 토기뚜껑, 고배 등은 사천시 늑도 패총에서 출토된 대표 유물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때, 백포만이 연안항로를 통해 중국-한국-일본을 연결하는 국내외 문물교류의 주요 거점포구 역할을 수행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군곡리의 군안골에서 대형 습口甕棺과 수개의 원형 봉토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sup>13</sup> 이 일대의 세력집단 역시 웅관고분을 공유하는 영산강유역 고대 사회의 일원이었음을 알겠다. 최근에는 백포만의 北岸에 위치한 화산면 안호리 일대에서도 3~4세기의 고분 50여기가 발굴되어 단경호, 이중구연호, 양이호, 조형토기 등과 환두도, 철부, 철정, 철도자 등이 출토된 바 있다.<sup>14</sup>

이러한 고고학적 유물들은 백포만 연변에 유력한 고대 포구세력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고고학적 전거와 ‘침명현’의 음상사를 결부한다면 신미국의 위치를 해남의 백포만 연변으로 비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sup>15</sup>

그렇다면 백포만의 신미국 세력은 『진서』에 나타나듯이 3세기 말 영산강유역의 20여(29개) 국들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었을까? 필자는 이에 대하여 3~4세기에 신미국이 영산강유역 고대사회를 외부세계와 연결·소통시키며 대표하는 관문사회(gateway community)로<sup>16</sup> 기능했을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가야의 구야국을 그 비근한 사례로 든 바 있다.<sup>17</sup> 즉 낙동강 하구에서 일어난 구야국은 낙동강유역의 고대사회를 대표하며 외부세계와 소통시키는 관문사

13 최성락, 1987, 앞 논문, 700쪽.

14 (재)대한문화재연구원, 2017, 『해남 화산-평호 도로건설 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3차)』 참조.

15 일찍이 필자는 신미국의 위치를 해남 백포만의 南岸과 東岸에 위치한 송지면과 현산면 일대로 비정한 바 있는데(강봉룡, 1999, 「3~5세기 영산강유역 ‘웅관고분사회’와 그 성격」, 『역사교육』69, 86~87쪽), 이제 그 범위를 백포만 北岸의 화산면 일대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16 관문사회(gateway community)의 개념과 사례에 대해서는 이현혜, 1998, 『한국 고대의 생산과 교역』, 일조각, 298~301쪽; 강봉룡, 2010, 「고대 동아시아 연안항로와 영산강·낙동강유역의 동향-4세기 이전을 중심으로-」, 『도서문화』36, 16~17쪽 참조.

17 강봉룡, 2010, 위 논문, 16쪽.



회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다가, 낙동강유역의 국들을 단순히 대표하는 것을 넘어서서 마침내 그들을 명실상부하게 영도하는 위상을 확보하게 되면서 낙동강 전영역을 ‘구야 → 가야’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한 연원이 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그렇다면 백포만의 신미국 역시 낙동강 하구의 구야국처럼 이후 영산강유역 고대사회를 실질적으로 영도하는 세력으로 발전해 갔을까?

해남 백포만은 서해에서 남해로 꺾어지는 해로의 중요 지점에 위치하고, 상당히 인상적인 고고학적 유적도 확인되고 있어, 3세기 말에 신미국이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관문사회로 기능했을 가능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산강유역 고대사회를 실질적으로 영도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앞서 지적했듯이 3~4세기 단계에 영암 시종면 일대의 고고학적 유적이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어 시종면 일대가 당시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중심지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sup>18</sup>

그렇다면 『진서』 장화조에서 영산강유역 29국이 연명하여 진에 사신을 파견할 때 ‘신미’를 대표 이름으로 썼던 것(‘신미제국’)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는 신미국이 우세성과 영도성에서 두드러졌기 때문이 아니라 영산강유역의 외향으로서 대외교류의 주역을 담당했던 ‘관문사회’로서의 역할 때문이었지 않았을까 한다. 결국 영산강유역의 소국들이 연맹의 단계로 나아갈 때, 3~4세기에는 시종면 일대의 세력이, 5세기 중후반 이후에는 반남면 혹은 북암리 일대의 세력이 실질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현재로서는 타당하지 않을까 한다. 낙동강유역 고대사회를 ‘구야’에서 연원하는 ‘가야사회’로 부를 수 있는 것과는 달리 영산강유역 고대사회를 ‘신미사회’로 부르기에 주저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sup>19</sup>

이렇게 3세기 말 백포만 신미국의 존재양태에 대하여 『진서』의 ‘동이마한신미제국’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영산강유역의 여러 국들, 즉 ‘신미제국’이 282년에

---

18 본 논문의 토론을 맡아준 박현숙 교수(고려대)는, 최근 조사 성과에서 영암 시종일대의 고분과 동시기에 함평 만가촌, 마산리, 나주 북암리, 광주 평동유적 등 보다 넓은 범위에서 큰 규모의 세력이 확인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시종일대 중심이 아닌 多核의 사회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감사를 표하며 여기에 그 견해를 그대로 소개하여 학계의 판단에 맡기고자 한다.

19 필자는, 낙동강유역 고대사회를 ‘구야 → 가야’라 부르듯, 영산강유역 고대사회를 ‘신미’라 부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소견을 제시한 바 있다.(강봉룡, 2010, 앞 논문, 16쪽) 그러나 현재로선 좀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진에 ‘처음으로’ 사신을 파견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문제는 절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한다.

## 2. ‘신미제국’ 遣使의 배경과 의미

앞 절에서 소개한 『진서』의 관련 기사에 의하면, 282년에 29개국의 신미제국이 처음으로 사신을 보낸 것에 대하여 ‘사방 경계가 근심이 없어지고 매해 풍년이 들어 土馬가 강성해졌다’고 특기하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듯한 논조가 인상적이다. 영산강유역 국들이 사신을 파견해 온 것이 뜬금없게 이토록 중요한 것이었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 중국 세력과 韓 세력 사이에, 그리고 韓 세력 내부에서 복잡하게 전개되어간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제 몇 단계로 나누어 그 배경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진행한 연후에, 282년 신미제국이 진에 견사한 사건의 의미를 거론하기로 한다.

### 1) 목지국 辰王과 중국 세력의 갈등

『삼국지』에 의하면<sup>20</sup> 마한에 속한 55개의 소국 이름을 열거한 끝에, 이를 총괄하는 자는 目支國의<sup>21</sup> 辰王이며, 그는 또한 ‘臣智…’ 운운하는 긴 칭호를 쓰기도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伯濟國은 55개 소국 중의 하나로 나온다. 『후한서』에 의하면<sup>22</sup> ‘목지국 진왕’이 마한뿐 아니라 진한과 변한까지 왕노릇했다고 한다.

그런데 『삼국사기』의 초기기사에 의하면 ‘목지국 진왕’ 대신 ‘마한왕’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sup>23</sup> 이에 의하면 마한왕은 백제에게 동북 1백리의 땅을 할애하여 정착하도록 하였고, 그래서 백제는 수시로 마한왕에게 공납을 바치고 변경을 지키는 ‘번병’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한다.<sup>24</sup>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백제뿐만이 아니라 신라(진한)와 가야(변한)까지도 마한왕에게

20 『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전30, 한조.

21 『삼국지』에는 月支國이라 되어 있지만, 『후한서』에 나오는 목지국의 이름을 일반적으로 통용하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도 편의상 월지국 대신 目支國이라 칭하기로 한다.

22 『후한서』 권815, 동이열전75, 한조.

23 목지국 진왕이 ‘마한왕’을 칭한 것은 3세기 중반 이후의 상황이고, 그 이전에는 ‘목지국 진왕’이라 칭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기로 한다.(주 38 참조)

24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시조 온조왕 10년, 13년, 18년, 24년조.

부용했던 것으로 되어 있어,<sup>25</sup> 목지국 진왕이 마한과 진한과 변한에 왕노릇했다는 『후한서』의 기록과 일치하고 있다.

이상에서 목지국 진왕은 마한 55국뿐 아니라 진한과 변한까지 영도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북쪽에서 새로운 정세 변화가 일어났다. 고조선이 漢 무제의 공격을 받아 B.C.108년에 망하고, 고조선의 핵심 지역인 대동강하류의 평양 일대에 설치된 낙랑군이 모국인 漢의 명을 받아 고조선의 영역과 韓·濊·倭를 관할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 韓은 삼한을 말하고, 濊는 강원도 동부의 세력을, 倭는 일본열도의 세력을 지칭한다.

그러나 韓에 대한 관할 문제는 낙랑군의 뜻대로만은 되지 않았다. 2세기 중엽 경에 이르러 후한이 쇠퇴한 틈을 타고 강성해진 韓이 낙랑군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떠올랐다. 당시 韓 세력 결집의 중심에는 당연히 ‘목지국 진왕’이 있었을 것이다. 3세기 초에 요동에 대한 패권을 장악한 공손씨 세력은 쇠퇴한 후한 대신에 낙랑군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낙랑군의 남쪽에 대방군을 신설하여 남쪽 韓의 위협에 대처하기도 하였다.

## 2) 韓의 기리영 공격: 目支國과 伯濟國의 세력 역전

곧이어 공손씨를 제압하고 낙랑군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한 魏는 이제 본격적으로 韓의 세력 결집을 막고자 집요한 분열정책을 전개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韓 소국의 일부를 직할하려는 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래의 기사는 그 과정에서 분출된 심각한 갈등 상황을 전한다.

部從事 吳林은 낙랑이 본래 韓國을 통치했다는 이유로 辰韓의 8국을 분할하여 낙랑에 주려 하였다. 그 때 통역하는 관리가 말을 옮기면서 잘못 설명한 부분이 있어, 臣智가 韓의 원망을 격분시켜 帶方郡의 崎離營을 공격하였다. 이 때 (대방)태수 弓遵과 낙랑태수 劉茂가 군사를 일으켜 그를 쳤는데, 弓遵은 전사하였지만 2郡이 결국 韓을 멸하였다.<sup>26</sup>

이는 3세기 중반의 상황을 전하는 것으로 보인다. 기사의 내용이 복잡해서 논란도 많고

---

25 『삼국사기』 권1, 신라본기1, 시조 혁거세거서간 38년조.

26 『삼국지』 권30, 위서30, 오환선비동이전30, 한조.

맥락을 잡아내기도 어렵긴 하지만<sup>27</sup> 대체로 보면, 낙랑군이 진한 8국에 대하여 직할하려 시도하자 臣智가 이에 반발하여 韓 세력을 결집하여<sup>28</sup>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했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신지란 목지국 진왕을 지칭하고<sup>29</sup> 기리영은 대방군의 군사기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sup>30</sup> 결국 목지국 진왕을 중심으로 결성된 ‘韓 연합군’과 낙랑·대방 사이에 일대 전쟁으로 비화되었던 것이다. 초반의 전세는 韓 연합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 대방태수 궁준을 전사시키기도 하였지만, 결국에는 본국인 魏의 지원을 받은 낙랑·대방군의 공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韓 연합군은 거의 멸망(해체) 직전의 상황으로 몰릴 정도로 일대 타격을 입었던 것으로 보인다.<sup>31</sup> 결국 낙랑·대방군과 전면적 전쟁을 불사하면서 목지국 진왕의 韓 소국들에 대한 영도권은 크게 약화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백제국은 목지국에 협조하지 않고 점차 그 영도에서 벗어나 세력

27 이 기사를 둘러싼 상세한 논의는 윤용구, 1999, 「삼한의 대중교섭과 그 성격-曹魏의 東夷經略과 관련하여-」, 『국사관논총』85, 101~108쪽 참조.

28 이는 원문 ‘臣智激韓忿’에 대한 의역이다. 그런데 이 구절에 대하여 윤용구는 여러 판본을 비교 분석하여 ‘臣漬沽韓忿’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臣漬沽韓=臣漬沽國이 대방의 기리영을 공격하여 전쟁이 발발한 것으로 해석하였다.(윤용구, 1999, 위 논문 참조) 윤용구의 교감 과정은 매우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져서 그 타당성이 인정되고, 많은 연구자들의 지지도 받고 있다.(林起煥, 2000, 「3세기~4세기 초 魏·晉의 동방 정책」, 『역사와 현실』36, 21쪽; 權五榮, 2001, 「伯濟國에서 百濟로의 전환」, 『역사와 현실』40, 34~35쪽; 윤선태, 2011, 「마한의 진국과 臣漬沽國-嶺西濊 지역의 역사적 추이와 관련하여-」, 『백제연구』34, 13~14쪽) 그렇지만 가평 인근으로 비정되는 일개 소국에 불과한 신분고국이 단독으로 낙랑과 대방군을 상대로 전면전을 벌였다는 것은 상정하기가 쉽지 않고, 더욱이 전쟁 발발의 원인이 韓 사회의 근간을 흔들만한 진한 8국의 소속 문제였다는 점, 초반에 대방태수를 전사시킬 정도로 세력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 등의 내용을 고려할 때, 비록 후대의 판본에 나온다는 약점이 있기는 하나 ‘臣智激韓忿’을 채택하여 ‘신지’=‘목지국 진왕’이 중심이 되어 소국들을 결집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으로 보는 것이 내용상, 그리고 당시 역사 진행의 해석 상 자연스럽다고 생각된다.

29 목지국 진왕이 ‘臣智…」 운운하는 긴 칭호를 쓰기도 했다는 『삼국지』의 韓條 기사 참조.

30 기리영은 황해도 平山郡인산면 麒麟里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이병도, 1936, 「삼한문제의 신고찰4-辰國及三韓考-」, 『진단학보』5, 116쪽)

31 ‘2군이 韓을 멸하였다’는 표현은 한이 완전히 멸망했다기 보다는 멸망(해체)에 가까운 큰 타격을 입었음을 의미한다. 이후에도 한은 당분간 명맥을 유지했다.

의 확대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 기사를 보자.

魏의 幽州刺史 毋丘儉이 樂浪太守 劉茂와 帶方太守 弓遵과 함께 고구려를 치므로 왕은 그 틈을 타서 左將 眞忠을 보내어 낙랑을 쳐서 邊民을 빼앗았다. 劉茂가 듣고 노하매 왕이 侵討를 받을까 두려워하여 民口를 돌려주었다.<sup>32</sup>

이 기사는 고이왕 13년(246)의 일로 되어 있지만 毋丘儉의 고구려 공격 사건이 244~245년에 일어났으니 그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sup>33</sup> 대방태수 궁준이 살아서 참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 연합군’의 기리영 공격 사건(이 전쟁에서 궁준은 전사함)보다 약간 앞서 일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하면 백제는 魏(낙랑·대방)가 고구려를 공격하여 전쟁을 벌이는 틈을 타서 낙랑군으로의 세력 확대를 시도하였지만, 결국 낙랑군의 위세에 눌려 일단 포기하고 타협하여 세력을 유지하는 편을 선택했던 것을 보여준다. 이는 낙랑·대방군과 전쟁까지 불사하며 세력 추락을 자초했던 목지국의 비타협적인 투쟁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룬다. 결국 이런 대조적인 과정이 교차하면서 목지국과 백제국의 세력관계는 3세기 중엽을 넘어서면서 역전되어 갔던 것으로 보인다.

### 3) ‘馬韓’연맹체와 ‘百濟’연맹체의 대립

이제 목지국은 백제국을 견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수세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런데 마침 265년에 중국에서 魏가 망하고晉이 들어서는 왕조교체가 일어나자, 목지국은 백제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진에 접근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진서』 마한조에 나오는 다음 기사를 보자.

武帝 太康 원년(280)과 2년(281)에 그 主가 자주 사신을 파견하여 토산물을 조공하였고, 7년(286)·8년(287)·10년(289)에도 자주 왔다. 太熙 원년(290)에는 東夷校尉 何龕에게 와서 조공을 바쳤다. 咸寧 3년(277)에 다시 사신이 왔으며, 이듬해(278)에 또 內附하기

32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고이왕 13년조.

33 이병도, 1977, 『역주 삼국유사』, 을유문화사, 263쪽.

를 청하였다.<sup>34</sup>

마한의 주가 277년부터 290년까지<sup>35</sup> 8차례나 진나라에 사신을 파견하여 內附를 청하였다는 것이다. 『진서』동이열전에 ‘마한’조를 정식으로 설정하고 ‘其主’가 사신을 파견해온 사실을 입록한 것으로 보아, ‘마한’이 하나의 ‘국가체’를 지칭하는 개념으로 쓰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sup>36</sup> 그런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마한’이 국가체의 이름으로 쓰인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는 사실이다. 그 이전의 마한은 50여 국을 포괄하는 막연한 ‘지역적 개념’의 마한으로 쓰였다. 말하자면 목지국 진왕이 ‘마한지역’의 50여 국을 영도했다는 그런 맥락에서의 마한이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당시의 진행 상황을 간략히 정리해 보자. 이제까지 마한(더 나아가서 삼한) 諸國을 영도하던 ‘목지국 진왕’은 3세기 중반에 ‘韓 연합군’을 결성하여 낙랑·대방군과 전쟁을 벌이다 일대 타격을 입었고, 한편으로는 흥기하는 백제국의 위협에 대처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봉착하였다. 이에 목지국은 일정 영역의 소국들을 재결집하여<sup>37</sup> 정치체(일종의 ‘연맹체’)를 발족하고 이를 ‘마한’이라 칭하였다.<sup>38</sup> 伯濟國 역시 일정 영역의 우호 소국들을 결집하여 ‘百濟’연맹체를 결성하여<sup>39</sup> ‘마한’연맹체에 대적했을 것이다. 위 기사에 나타나듯이

34 『진서』 권97 동이열전 마한조.

35 일찍이 이병도는 위 기사에 나오는 咸寧을 永平의 착오로 보아, 함평 3년(277)과 그 이듬해(278)를 영평 3년(293)과 그 이듬해(294)로 정정한 바 있다.(이병도, 1959, 『한국사 - 고대편 -』, 진단학회, 358쪽) 이에 따르면 마한이 진에 사신을 파견한 것은 280년부터 294년까지가 된다.

36 『진서』 마한조의 ‘마한’을 ‘백제’의 잘못으로 보려는 견해가 다수설을 이루고 있으나, 일찍이 필자는 그 논리를 비판하면서 그대로 ‘마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논증한 바 있다.(강봉룡, 1997, 『백제의 마한 병탄에 대한 신고찰』, 『한국상고사학보』26, 145~147쪽)

37 필자는 마한의 범위에 대하여, 천안·직산 일대의 목지국을 중심으로 하여 서쪽으로 아산만[대두산성], 동남쪽으로 소백산맥 연변[원산성과 금현성], 북으로 안성천, 그리고 남으로 금강선에 이르는 충청도 일대에 한정적으로 미쳤을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강봉룡, 1997, 위 논문 참조)

38 그렇다면 『삼국사기』 초기 기사에 나오는 ‘마한’과 ‘마한왕’은 ‘마한’연맹체를 결성한 3세기 중반 이후의 상황을 기원 전후의 시기로 소급하여 쓴 셈이 된다.(주 23 참조)

39 『삼국사기』에서 백제가 ‘十濟’에서 ‘百濟’로 발전했다고 한 기사는 3세기 중후반에 ‘伯濟國’에서 ‘百濟연맹체’로 발전한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마한’연맹체는 그런 ‘백제’연맹체를 견제하기 위해 3세기 후반에 8차례에 걸쳐 쥬에 사신을 파견했던 것이다.

#### 4) ‘백제’연맹체의 ‘마한’연맹체 병탄<sup>40</sup>

‘백제’를 견제하기 위하여 쥬에 자주 사신을 파견한 ‘마한’의 외교 전략은 백제를 자극시켰을 것임에 틀림없다. 이에 백제는 마한 병탄의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기 시작하였다. 백제의 마한 병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삼국사기』 온조왕조에 집약적으로 실려 있다.<sup>41</sup>

- 24년 7월에 왕이 熊津柵을 만들자 馬韓王이 사신을 보내 꾸짖기를, “왕이 처음 강을 건너와서 밭 디딜 곳 하나 마련하지 못해서 내가 동북의 1백리 땅을 떼어주어 편안히 살게 하였으니 왕을 대우함이 두터웠다 할 것이다. 마땅히 이에 보답할 생각이 있어야 할 것이거늘, 이제 나라가 온전해지고 인민들이 모여들어 대적할 상대가 없다 생각하고서 城池를 크게 설치하고 우리의 강역을 침범하니 어찌 의롭다 하겠는가?”라 하였다. 이에 왕이 부끄러이 여겨 그 柵을 허물었다.
- 25년 2월에 왕궁의 우물이 솟아오르고 漢城 인가의 말이 머리 하나에 몸이 둘인 소를 낳았다. 日官이 말하기를 “우물물이 솟아오른 것은 대왕께서 발흥할 조짐이고 소의 머리가 하나이고 몸이 둘인 것은 대왕이 이웃 나라를 병합할 조짐입니다”라 하니, 왕이 이를 듣고 기뻐하면서 마침내 마한을 병탄할 마음을 굳혔다.
- 26년 7월에 왕이 말하기를 “마한이 점차 약해지고 위아래에서 인심이 이반하니 그 세력은 오래 갈 수 없을 것 같다. 혹시 다른 세력이 이를 차지하면 우리까지 위태로워지니 후회해도 소용없다. 남보다 먼저 취하여 후환을 면하는 것이 좋겠다”라 하였다. 10월에 왕이 사냥을 하는 체하면서 몰래 마한을 습격하여 그 國邑을 병합하였는데, 오직 圓山과 錦峴의 2성만이 굳게 지켜서 함락되지 않았다.
- 27년 4월에 2성이 항복하여 그 인민을 한산의 북쪽에 옮기니, 마한이 마침내 멸망했다. 7월에 大豆山城을 쌓았다.
- 34년 10월에 마한의 舊將인 周勤이 牛谷城에 근거하여 叛하였다. 왕이 병사 5천을

40 이 소절의 상세한 내용은 강봉룡, 1997, 앞 논문 참조.

41 『삼국사기』 권23, 백제본기1, 시조 온조왕 24년, 25년, 27년, 34년, 39년조.

거느리고 치니, 주근은 스스로 목 베어 죽었다. 그 시체의 허리를 베고 그 처자도 목 베었다.

위 기사에 나타난 백제의 마한 병탄 과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온조 24년(A.D.6년) 마한에 조심스런 도발을 감행했다. ② A.D.7년에 마한을 병탄할 마음을 굳혔다. ③ A.D.8년에 마한의 국읍을 급거 병합하였다. ④ A.D.9년에 마지막까지 항거하던 원산과 금현의 2성마저 투항했다. ⑤ A.D.16년에는 마한 장수 주근이 반란을 일으키자 이를 제압하고 주근을 처단하였다.

이에 의하면 백제는 A.D.1세기 초 10여 년에 걸쳐 마한 병탄을 완료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폈듯이 『진서』에 의하면 3세기 말경에 마한이 수차례 진에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어, 1세기 초에 백제가 마한을 병탄했다는 『삼국사기』 온조왕조의 기년은 3세기 말 이후로 재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다면 백제가 마한을 병탄한 실제의 시점은 언제였을까? 필자는 이를 책계왕 대(286~298)의 일로 파악한 바 있다.<sup>42</sup> 이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삼국사기』 책계왕조의 기사 전체를<sup>43</sup> 그대로 옮겨보기로 하자.

- 왕이 丁夫를 징발하여 慰禮城을 修葺하였다. 고구려가 帶方을 치니 대방이 우리에게 구원을 청했다. 이에 앞서 왕이 대방의 王女 寶菓를 취하여 부인으로 삼았으므로, 이로 인해 말하기를, “대방은 우리의 舅甥의 나라이니 그 청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드디어 군사를 내어 구원하니 고구려가 원망하였다. 왕은 고구려의 侵寇를 두려워하여 阿旦城과 蛇城을 수리하여 대비하였다.[即位年條]
- 東明廟에 拜謁하였다.[2年 正月條]
- 漢이 貊人과 함께 쳐들어오므로 왕이 나아가 막다가 적병에게 해를 입어 돌아갔다.[13年 9月條]

이에 의하면 책계왕 원년(286)에 대방군 태수의 딸을 부인으로 맞아 고구려의 공격을 받

42 강봉룡, 1997, 앞 논문 참조.

43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책계왕조.

은 대방군을 구원했다는 기사가, 2년(287)에는 동명묘에 배알하였다는 기사가 있을 뿐 중간의 기사는 통째로 생략되어 있다. 그러다가 13년(298)의 기사에서 갑자기 중국 측(晉)의<sup>44</sup> 공격을 받아 책계왕이 살해되었다는 기사가 나온다. 책계왕 원년에 중국 측(대방군)과 우호 관계를 맺었다던 백제가 13년에 그 중국 측의 공격을 받아 그 책계왕이 전사를 당했다고 하니 어리둥절할 뿐이다. 그 사이에 무언가 중대한 곡절이 있었을 터이다. 그런데 그 사이에 온조왕 24년~36년의 마한 병탄 기사를 삽입해보면 전후의 맥락이 다음과 같이 상쾌하게 들어맞는다.

① 책계왕은 원년(286)에 진에 접근하는 마한을 병탄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대방군과 혼인 등을 통해 우호관계를 강화하였다.(책계왕 원년 기사) ② 이렇게 중국 측의 환심을 사놓고서 마한을 전격 병탄하였다.(온조왕 24~36년 기사) ③ 이에 중국 측은 마한 병탄으로 일대 강국으로 급부상한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 공격하여 책계왕을 전사시켰다.(책계왕 13년 기사)

책계왕의 뒤를 이은汾西王 때도 중국 측(晉)과의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더욱 악화되었다. 분서왕은 중국 군현에 대한 적극 공세를 펼쳐서 동왕 7년(304)에 낙랑의 西縣을 攻取하기도 했으나, 결국 낙랑태수가 보낸 자객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sup>45</sup> 마한 병탄 이후에 백제와 중국 측 사이에 심각한 군사적 긴장 상태가 가시지 않고 지속되고 있었던 것이다.

## 5) 282년 신미제국 건사의 의미

앞에서 살폈듯이 ‘동이마한신미제국’이 뜰에 사신을 ‘처음’ 파견한 시점은 282년이었다. 그런데 『진서』 마한조에 의하면 마한(‘마한’연맹체)은 277년, 278년, 280년, 281년, 286년, 287년, 289년, 290년 8회에 걸쳐 진에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어, 282년 이전에 이미 4차례에 걸쳐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진서』 장화열전에서 282년에 ‘처음’ 사신을 파견하였다는 ‘동이마한신미제국’의 마한은 『진서』 마한조에 나오는 마한(‘마한’연맹체)과는 달리 단순히 ‘마한지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동이마한신미제국’에서 실체는 신미제국(영산강유역의 여러 국들)만이 남게 된다.

44 기사에는 漢이라 되어 있으나 이는 중국을 代稱한 것이고, 실제로는 당시 중국 왕조인 晉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45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분서왕 7년조.

그런데 ‘역대로 來附하지 않던’ 신미제국이 왜 282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진에 사신을 파견하게 된 것일까? 이는 백제의 강성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에서 살폈듯이 강성해진 ‘백제’연맹체가 상대적으로 열세에 처해 있던 ‘마한’연맹체를 병탄하려 하자, 마한연맹체는 진에 사신을 보내 ‘백제’연맹체를 견제하고자 하였다. 그런 동향을 살피고 있던 영산강유역 여러 국들은 백제의 강세에 대한 위협을 느끼고, 당시 대외교섭창구(‘관문사회’)로 기능하던 백포만 세력 ‘신미’의 이름을 앞세운 ‘신미제국’으로 연대하여 집단적으로 진에 처음으로 사신을 파견하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마한의 사신 파견에 이어 그 배후에 위치한 歷代未附의 영산강유역 ‘신미제국’까지 사신을 파견해 오자, 그렇지 않아도 급성장한 백제를 견제하고 제압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진으로서는 의외의 ‘百軍千馬’를 얻은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사방 경계가 근심이 없어지고 매해 풍년이 들어 土馬가 강성해졌다’라는 과장된 듯한 논평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마한과 신미제국의 진에 대한 견사는 백제를 자극시켜 충청도 일원의 마한을 병탄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이에 자극받은 췌과 낙랑·대방군은 백제를 공격하여 당시의 책계왕을 전사시켰으며, 이어 계위한 분서왕마저도 암살하는 등의 공세를 강화해 간 과정은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백제와 진 사이에 전개되어 간 치열한 공방의 과정에서 신미국의 운명은 어찌되었을까? 장을 바꾸어 살펴보자.

### III. ‘枕彌多禮’: 4세기 후반

#### 1. ‘침미다례’ 도륙사건

신미국은 당분간 문헌 기록에서 자취를 감추어 그 추이를 추적할 길이 없다. 그런데 그 후 4세기 후반에 이르러 신미국은 『일본서기』를 통해서 ‘침미다례’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재등장하게 된다. ‘침미다례’ 관련 기사는 다음과 같다.

(神功) 49년 3월에 荒田別과 鹿我別을 장군으로 삼아 久氏 등과 함께 군대를 거느리고 건너가 卓淳國에 이르러 장차 신라를 습격하려 하였다. 그러나 군사가 적어 신라를 깨뜨릴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 사백과 개로를 보내 군사의 증원을 요청하니, 즉시 木羅近資와 沙沙奴跪에게 명하여 정예군을 거느리고 사백 및 개로와 함께 가도록 하였다. 모두 탁순에 모여 신라를 쳐 깨뜨렸으니, 이로 인해 비자발·남가라·탁국·안라·다라·탁순·가라 등의 7국을 평정하였다. 그리하여 군대를 옮겨 서쪽으로 古奚津을 거쳐 南蠻인 忱彌多禮를 도륙하여 이를 백제에게 주었다.<sup>46</sup>

위 기사는 왜가 주도하여 백제와 함께 탁순국을 거점으로 삼아 신라를 깨뜨리고 가라 7국을 평정하고 여세를 몰아 고해진을 거쳐 침미다례를 도륙하여, 이를 백제에게 주었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마치 왜가 주체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은 백제가 주체이고 여기에 왜가 협력세력으로 참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기사는 여러 요소가 복합되어 있어 난해하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신공 49년(249)에서 2주갑(120년) 내린 369년의 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침미다례를 ‘南蠻’이라 비칭하고 이들을 ‘屠戮’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침미다례에 대한 백제의 적개심을 엿볼 수 있다. 이는 반대로 백제에 대한 침미다례의 극심한 저항과 적개심에 대한 반작용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282년 전에 처음으로 사신을 파견함으로써 백제의 위협에 대처하려 했던 ‘신미제국’의 반백제적 성향을 연상해 본다면, 신미제국의 대외창구(관문사회)였던 신미국이 4세기 후반에 백제에 의해 ‘남만’이라 멸시받으며 ‘도륙’당한 반백제적 성향의 ‘침미다례’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sup>47</sup>

46 『일본서기』 권9, 神功紀 49년 3월조.

47 신미국=침미다례는 군국리 패총 조성세력이 그 중심을 이루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앞에서 살폈듯이 군국리 패총은 B.C.3세기 말엽부터 A.D.4세기 전반에 걸쳐 조성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 4세기 후반에는 조성이 중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그 중단된 이유가 ‘백제에 의한 침미다례 도륙 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필자는 이런 관점에서 백포만 세력이 송지면 군국리를 중심으로 결집되었던 것에서, 현산면 고현리 일대가 대안 세력으로 흥기하는 것으로 변동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에 대한 논의는 후일로 미룬다.

## 2. ‘침미다례 도륙사건’의 배경과 의미

백포만의 포구세력은 시대를 달리하면서 신미국(『진서』)과, 침미다례(『일본서기』)로 나타났다. 신미국은 282년에 백제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진에 처음으로 사신을 파견한 것으로, 침미다례는 369년에 백제에게 남만이라 불리며 도륙 당한 세력으로 등장했다. 87년의 시차를 두고 문헌에 나타난 신미국과 침미다례는 공통적으로 백제와 양숙의 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점에서도 신미국과 침미다례는 동일 지역의 동일 세력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3세기의 말 신미국과 4세기 후반의 침미다례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이는 결국 ‘침미다례 도륙 사건’의 배경을 묻는 질문이기도 하다.

‘침미다례 도륙 사건’의 배경을 살피기 위해서는, 3세기 말 신미국 이후부터 침미다례 도륙사건이 터진 4세기 후반까지 전개되어간 주변 정세를 복기할 필요가 있다. 먼저 3세기 말 백제는 마한을 병탄하였고, 그 직후 쥘 및 낙랑·대방군의 반격을 받아 책계왕이 전사당하고 분서왕이 암살당하는 최악의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살핀 바 있다. 그렇다면 그 이후 백제는 어찌되었을까?

마침 그 즈음에 북방 모용씨의 선비족이 남하하여 진을 공격하는 의외의 변수가 나타나는데 바람에 백제는 기사회생할 수 있었다. 진은 결국 316년에 선비족에게 망하였고, 317년에 진 황실의 후예가 남쪽의 난징(南京)으로 옮겨가 이를 중심으로 부활하여 東晉의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모국(晉)을 잃게 된 낙랑군과 대방군은 고구려의 공격을 받아 313년과 314년에 각각 축출되고 말았다.

이렇듯 백제는 극적으로 기사회생하였지만, 분서왕의 뒤를 이은 비류왕으로서는 진에게 당한 치명적인 내상을 치유하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sup>48</sup> 백제가 국력을 회복하게 된 것은 단명에 그친 계왕을 거쳐 왕위에 오른 근초고왕 대에 이르러서였다. 근초고왕은 비류왕 말년에 교섭을 시작한 신라와의 우호를 다지는 한편<sup>49</sup> 고구려와는 낙랑·대방군의 고지를 둘러싸고 치열한 전투를 벌여 점차 승리를 거두고 우위를 확보해 갔다.

48 『삼국사기』에 의하면, 비류왕 대에 천문의 이상 현상과 자연 재해가 빈발하는 가운데 내정의 안정을 위해 분투했던 정황이 잘 나타나 있다.(『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비류왕조)

49 근초고왕은 366년과 368년에 신라에 사신을 파견하였다.(『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2, 근초고왕조)



결국 백제는 고구려에 대한 다툼에서 결정적인 주도권을 확보하기 전까지는 영산강유역 신미제국을 넘보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백제가 고구려에 대하여 결정적인 주도권을 확보한 시점이 바로 369(근초고왕 25)년이었으니,<sup>50</sup> 바로 이 해에 근초고왕은 이제까지 우호 관계를 유지해 오던 신라를 침략하는 한편 7가라를 ‘평정’하고서 고혜진을 거쳐 ‘침미다례 도륙사건’을 감행했던 것이다. 오늘날 강진으로 비정되는 고혜진을 발판 삼아 침미다례를 ‘남만’이라 멸시하며 도륙했던 것으로 보아, 고혜진은 백제에게 순순히 투항했을 것으로, 침미다례는 백제에게 끝까지 저항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앞에서 살폈듯이 신미제국은 3세기 말에 백제의 강성을 견제하기 위해 진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4세기 후반에는 침미다례가 끝까지 저항했다고 한다면, 신미국=침미다례는 3세기 말부터 4세기 후반까지 일관되게 반백제적 노선을 걸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이후 침미다례의 운명은 어찌 되었을까? 장을 바꾸어 살펴보기로 하자.

## IV. ‘耽羅’: 5세기 후반

### 1. ‘탐라’에 대한 백제의 군사적 위협

3세기 말 『진서』의 ‘신미국’과 4세기 후반 『일본서기』의 ‘침미다례’에 이어, 5세기 후반에 이르면 『삼국사기』에 ‘탐라국’ 혹은 ‘탐라’라는 이름이 등장한다. 다음과 같다.

- 耽羅國이 방물을 바치니 왕이 기뻐하여 사자에게 恩率을 拜하였다.<sup>51</sup>
- 동성왕은 耽羅가 공부를 바치지 않는다 하여 친히 정벌하여 무진주에 이르렀다. 탐

50 369년에 근초고왕은 치양(雉壤, 오늘날 황해도 백천)에서 고구려와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둠으로써 고구려에 대한 우위를 선점하고, 이를 과시하기라도 하듯 대규모의 군사 열병식을 거행하였다.(『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근초고왕 25년조)

51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문주왕 2년 4월조.

라가 이를 듣고 사신을 보내 죄를 비는지라 이에 그만두었다.(耽羅는 耽牟羅이다)<sup>52</sup>

위 『삼국사기』의 기사에 의하면 480년(문주왕 2)에 탐라국이 방물을 바쳐왔고, 그런 탐라가 18년 후인 498년(동성왕 20)에 이르러 백제에 등을 돌리고 공납을 바치지 않게 되어, 백제의 무력 공격의 위협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 기사에 나오는 탐라 혹은 탐라국은 제주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본서기』에 나오는 다음의 탐라 기사를 보면 생각이 약간 복잡해진다.

南海 가운데의 耽羅人이 ‘처음’으로 백제국과 통교하였다.<sup>53</sup>

이에 의하면 탐라가 백제와 ‘처음’ 통교한 것이 508년(무령왕 8)으로 되어 있어, 『삼국사기』에서 탐라국이 처음 방물을 바쳐왔다는 480년에 비해 38년 정도 늦은 시기가 되어 ‘처음’이라는 구절이 무색해진다. 이러한 두 사서 내용의 차이에 대해, 대개는 『일본서기』의 기사를 두찬으로 간주하여 버림으로써 문제를 간단히 해결하려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견해가 속속 제기되었다. 먼저 고고학적 견지에서 5세기 후반에 백제와 탐라(제주도)의 관계를 『삼국사기』의 기사처럼 설정하는 것을 의심하여 이를 부정하는 견해가 제기되기도 하였다.<sup>54</sup> 또한 위의 세 기사를 모두 사실로 인정하면서, 『삼국사기』에 나오는 탐라와 『일본서기』에 나오는 탐라를 별개의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재해석하려는 신설이 제기되기도 하였다.<sup>55</sup> 이 신설에 의하면 『삼국사기』의 480년과 498년 기사에 나오는 탐라는 해남·강진세력으로, 508년에 백제와 처음 통교했다는 『일본서기』의 탐라는 제주도세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남·강진 지역은 耽津이라는 지명이 생길 정도로 고대로 제주도와 통하는 포구가 발달한 곳이다. 또한 『삼국사기』 498년 기사의 말미에 ‘탐라는 탐모라이다’라는 특별한 주기를 부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 기사에 나오는 탐라를 제주도의 탐라와 구별하고자 한 의도의 반영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 필자는 이 신설에 무게를 두고 싶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신설에서 제기한 탐라=해남·강진지역 중에서 특별히 해남의

52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20년 8월조.

53 『일본서기』 권17, 繼體紀 2년 12월조.

54 이청규, 1995, 『제주도 고고학 연구』, 학연문화사, 320~323쪽.

55 이근우, 1997, 「웅진시대 백제의 남방경역에 대하여」, 『백제연구』27, 51~55쪽.

백포만 지역을 주목하고자 한다.

백포만 지역은 앞에서 살폈듯이 3세기 후반에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관문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던 ‘신미국’이 있었던 곳이고, 4세기 후반에 백제가 ‘남만’이라 부르며 도륙했던 ‘침미다례’가 있었던 곳이다. 이렇듯 신미국=침미다례가 3세기 후반부터 4세기 후반까지 일관되게 백제와 비우호적인 혹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한다면, 백포만의 세력, 곧 신미국=침미다례=탐라는 5세기 후반까지도 여전히 반백제적 성향을 유지하고 있었던 셈이 된다.

## 2. ‘탐라’에 대한 백제의 군사적 위협, 그 배경과 의의

‘침미다례=탐라’의 등식이 성립된다면, 4세기 후반 백제에게 도륙당한 백포만의 ‘침미다례’가 5세기 후반에 백제의 군사적 위협을 받는 ‘탐라’라는 이름으로 재등장하게 된 1세기 간의 내력이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잠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5세기 동아시아의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4세기 후반 백제가 고구려를 압도하고, 그 여세를 몰아 369년에 가야 7국을 평정하고 고해진을 거쳐 침미다례를 도륙하였던 사정은 앞에서 이미 살펴본 바 있다. 369년 백제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보다 가까이에 있는 전북 서해안지역에 대한 지배체제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에 있었고,<sup>56</sup> 서남해안의 여러 세력에 대해서는 일단 급한 불을 끈 연후에 후일을 도모하기로 했던 것 같다. 즉 가야 7국의 포구세력에 대해서는 ‘친백제’ 세력으로 포섭하고, 백포만의 침미다례에 대해서는 무력을 행사하여 반백제적 성향을 강압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왜로 이어지는 서남해안의 해로를 확보하는 것에 일단 만족했던 것 같다.

이후 백제의 주된 관심은 고구려로 옮겨갔던 것으로 보인다. 즉 백제는 371년에 패수로

---

56 『일본서기』의 침미다례 도륙 기사(본고의 주 46)에 연이어 백제왕 초고(근초고왕)와 구수(근구수왕)가 군대를 이끌고 합류하자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 등이 스스로 항복하였고, 이에 백제왕 부자와 침미다례 도륙의 주역 荒田別·木羅斤資 등이 意留村(州流須祇)에서 만나 기쁨을 나누었으며, 辟支山과 古沙山에 올라 서로 맹세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온다. ‘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을 4개 혹은 5개의 지명으로 나누는 견해 차이가 있는 것으로부터 그 지명들과 산명들에 대한 비정도 일치된 의견으로 모아지지 않고 있지만, 여기서는 일단 전북 서해안지역에 대한 백제의 지배권을 공고히 했던 일련의 의례절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기로 하고, 자세한 논의는 후일로 미룬다.

진출하여 고구려 군대를 격파하였고, 또 그해 겨울에는 평양성에서 고구려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대승을 거두었다.<sup>57</sup> 그리고 372년에는 동진과 국교를 개설하여,<sup>58</sup> 한반도 북부 서해안에서 중국 동해안으로 이어지는 연안해로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해 갔던 것이다.

백제의 다음 과제는 침미다례와 가야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권 강화였겠지만, 백제 패권의 시대는 이 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 정도로 오래가지 못했다. 371년에 백제에게 국왕(고국원왕)의 전사라는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고구려는 절치부심 내정을 수습하고<sup>59</sup> 대외관계를 조율하더니<sup>60</sup> 391년에 광개토왕이 즉위하면서 대외진출을 과감히 감행할 수 있는 일대 강국으로 부상했다. 이는 고국원왕 전사 이후 불과 20년 만에 나타난 변화였다. 백제 패권의 시대는 그 정도로 짧았던 셈이다.<sup>61</sup> 광개토왕은 신라와 통하는<sup>62</sup> 한편 거란, 숙신, 후연 등을 정벌하는 와중에서 백제에 대하여 위협적인 군사적 압박을 가해 갔으니, 396년에 고구려 광개토왕이 백제를 공격하여 58성 700여 촌을 점령하고 백제의 아신왕으로 하여금 ‘영원한 奴客’이 되겠다는 굴욕적 맹세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가장 저명한 사례이다.<sup>63</sup>

백제는 북방에 대한 주도권이 위태로워지자 왜에 이르는 서남해안 제세력과의 관계 복원에 집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여의치 않았다. 먼저 아신왕은 397년에 태자 전지를 왜에

57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근초고왕 27년조.

58 『삼국사기』 권24, 백제본기2, 근초고왕 28년조.

59 소수림왕과 고국양왕은 일련의 내정개혁을 추진하였다.(『삼국사기』 권18, 고구려본기6, 소수림왕·고국양왕조 참조)

60 고구려의 소수림왕은 381년에 신라를 前秦과 연결해 주었고, 신라의 내물왕은 고구려를 통해 전진에 衛頭를 사신으로 파견하기도 하였다.(『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내물왕 26년조)

61 백제의 패권시대는 근초고왕과 근구수왕의 두 왕대로 그친다. 근구수왕의 뒤를 이은 침류왕은 동진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불교를 받아들이는 등 강국으로 지속 발전을 추구했으나 재위 2년 만에 급거 사망함으로써 무위에 그쳤다. 그리고 진사왕, 아신왕으로 이어지면서 쇠퇴의 국면에 접어들었다. 한편 백제의 급속 쇠퇴의 주원인이 된 침류왕의 급사 원인에 대해서는, 요서 진출 과정에서 참살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견해가 있어 주목된다.(강종훈, 2003, 「4세기 백제의 요서 지역 진출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30, 30~34쪽)

62 신라의 내물왕은 392년에 귀족 실성을 고구려에 질자로 파견하였다.(『삼국사기』 권3, 신라본기3, 내물이사금 37년조)

63 이상 「광개토왕비」 참조.

질자로 파견하는<sup>64</sup> 한편 399년에는 왜 세력을 끌어들이어 이미 고구려에 기울어져 있던 신라와 가야를 공격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광개토왕은 신라의 구원요청을 받아들여 400년에 5만의 군대를 동원하여 신라와 가야 경내에 진출해 있던 백제와 왜 군대를 축출하고 일부 군대를 그곳에 주둔시킴으로써<sup>65</sup> 신라와 가야를 군사적 보호국으로 삼기에 이르렀다.

이렇듯 4세기 말 삼국과 왜의 관계가 급박하게 요동치는 가운데 5세기에 이르자 어느덧 고구려 패권시대가 도래해 있었던 것이다. 광개토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427년에 수도를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옮겨 본격적 남하정책의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제 고구려의 패권이 동아시아의 위협적 요인으로 떠올랐던 것이다.

백제는 바로 이점을 노려 외교 전략에 사활을 걸었다. 왜는 물론이고 중국 남조 왕조들(동진, 송, 제), 그리고 고구려의 군사적 보호국으로 전략하여 심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가야와 신라까지 끌어들이어<sup>66</sup> ‘반고구려국제연대’를 결성함으로써<sup>67</sup> 고구려의 패권에 대항하였다. 개로왕 대에 이르러 북조의 北魏까지 끌어들이어 고구려를 압박해 가자,<sup>68</sup> 이에 위협을 느낀 장수왕은 ‘반고구려국제연대’의 핵으로 부상한 백제의 개로왕을 제거하기로 작심하였다. 그리고 백제를 교란시키는 공작을 펼친 끝에<sup>69</sup> 475년에 전격적으로 백제 한성을 공격하여 개로왕을 전사시키고 말았다. 이후 문주왕은 웅진으로 천도하여 ‘반고구려국제연대’를 재건하려 하였으나 내분에 휩싸여 문주왕 본인은 물론 후계자인 삼근왕과 동성왕까지 잇따라 피살

64 『일본서기』 권10, 應神紀 8년 3월조.

65 「광개토왕비」 참조.

66 예컨대 백제의 비유왕은 송과 우호관계를 강화하고 왜에 누이인 신제도원을 질자로 파견하는 한편, 신라와는 이른바 ‘제1차 나제동맹’(433)을 체결하였다.(『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비유왕조 ; 『일본서기』 권10, 應神紀 39년 2월조 참조)

67 백제의 ‘반고구려국제연대’ 결성 노력과 시련에 대해서는 강봉룡, 2001, 「고대 동아시아 해상교역에서 백제의 역할」, 『한국상고사학보』38, 88~91쪽 참조.

68 개로왕은 472년에 북위에 국서를 보내 고구려의 호전성을 비난하는 한편 고구려가 동아시아 안보에 위협적인 존재임을 설득하였고, 북위 역시 이에 수긍하였다.(『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개로왕 18년조.)

69 장수왕은 첩보송 도림을 백제 왕실에 투입시켜 개로왕의 심기를 어지럽히는 공작을 펴도록 했다.(『삼국사기』 권25, 백제본기3, 개로왕 21년조)

당하는<sup>70</sup> 비운을 맞게 되면서 끝없는 절망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어 갔다.

이런 와중에 백제가 가장 공을 들였던 왜의 동향마저도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다. 왜는 5세기 전반부터 백제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노선을 행동으로 옮기기 시작했다. 왜는 讚王이 421년에 남조의 송에 처음 사신을 파견한 이후에 왜는 5대(讚, 珍, 濟, 興, 武의 倭5王)에 걸쳐 宋과 南齊에 지속적으로 사신을 파견하여, 신라·가야 등은 물론 백제까지도 자신의 군사적 영향력 하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면서 이를 인정하는 모종의 작호를 제수해 줄 것을 집요하게 요청하였다. 백제는 이에 맞서지 않을 수 없었다. 먼저 개로왕 대에 송에 사신을 파견하여 ‘장군호’의 제수를 요청하더니, 동성왕 대에 이르러서는 王·侯·太守의 작호 제수를 요청하였다. 5세기 백제와 왜의 남조에 대한 외교전은 이처럼 치열하고 경쟁적으로 전개되어 갔던 것이다.<sup>71</sup>

이런 가운데 백제의 외교적 노력은 분명한 한계를 노정하였다. 백제로서는 무언가 적극적으로 단호한 조치가 필요했다. 484년(동성왕 6)에 남제가 고구려 장수왕에 대하여 백제의 장군호를 능가하는 ‘표기대장군’으로 책봉하자 위기를 느낀 백제가 남제에 ‘內屬’되기를 자청하는 굴욕적 무리수를 쓰기도 하였다.<sup>72</sup> 흔들리는 왜와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차기 왕위 계승자나 최측근 왕족들을 왜에 파견하는 ‘왕족외교’의 전략을 적극 구사하였다.<sup>73</sup> 그렇지만 여의치 않았다. 동성왕 대에 백제와 왜는 외교적 단절 상태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sup>74</sup> 왜는 487년에 고구려와 통교하고 백제와는 군사적 충돌을 벌이기까지 하였다.<sup>75</sup>

이렇듯 왜의 적극적인 대외활동과 이에 대응하는 백제의 수세적 분위기가 감지되는 5세기의 시점에 서남해안을 중심으로 유사한 성격의 倭系性 고분이 출현하는 현상은 예사롭지 않다. 신안의 배넬리 3호분에서 시작하여 해남의 외도 1·2호분과 신월리고분, 고흥 안동고

70 삼근왕의 경우 피살당했다는 기록은 없지만, 재위기간이 2년에 그쳐 그 역시도 피살당했을 가능성이 있다.

71 백제와 왜의 대남조 외교전에 대해서는 강봉룡, 2018, 「문헌으로 본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흥망성쇠」, 『전남지역 고대문화의 양상과 교류』, 진인진, 36~42쪽에서 상론함.

72 『삼국사기』 권26, 백제본기4, 동성왕 6년조.

73 연민수, 1997, 「백제의 대외외교와 왕족」, 『백제연구』27 참조.

74 이재석, 2001, 「5세기 말의 백제와 왜국」, 『일본역사연구』14, 17~19쪽; 김수태, 2011, 「5세기 후반 백제의 대외 관계와 남조」, 『백제학보』6, 188~189쪽.

75 『일본서기』 권15, 顯宗紀 3년조.



분과 야막고분, 여수 돌산도 죽포리고분, 마산 대평리 M1호분, 김해 율하 B-1호분으로 이어지는 5세기 서남해안 고분벨트가 그것이다.<sup>76</sup> 이러한 고분벨트의 분포는, 5세기 고구려 패권 시대에 백제가 무력해진 틈을 타서, 영산강유역에서 왜에 이르는 연안도서지역의 고대 해양 세력들이 서남해의 해로를 통해 문물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해 갔음을 증언해 준다고 하겠다.

바로 이 5세기 영산강유역의 고고학적 변화상 역시 당시 동아시아 정세의 격변 현상이 영산강유역에도 연동되고 있었음을 증언한다.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중심부인 나주 반남면에서는 웅관고분이 대형화되고 백제계뿐만 아니라 왜계의 화려한 위신재가 부장되는 변화가 나타나면서 이러한 변화의 추세가 나주 북암리 일대로 확산되어 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주변부에서는 전방후원형을 포함한 왜계 횡혈식석실분이 출현하는 변화가 나타난다.<sup>77</sup> 또한 다국적의 복합문화적 양상을 내포하는 이른바 ‘아파트형 고분’이 고창 봉덕리에서 출현하기 시작하더니 북암리 일대에서<sup>78</sup> 정형화되기에 이르렀다.<sup>79</sup>

해남 지역은 5세기 중반에서 6세기 초 사이에 왜계의 횡혈식석실분이 가장 두드러지게 대두된 곳 중의 한 곳으로서, 특히 이곳의 횡혈식석실분 중에는 외계의 방형 및 전방후원형을 띤 것이 3기나 포함되어 있어,<sup>80</sup> 왜와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게 맺어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왜는 백포만 세력과의 문물교류를 통해 영산강유역 전반에 영향력을 확대해 갔던 것

76 김낙중, 2016, 「서남해안 일대의 백제 해상 교통로와 기항지 검토」, 『백제학보』16, 78~80쪽 ; 김재홍, 2017, 「고대 남해 도서의 유적과 특성」, 『한국학논총』48, 8~15쪽 ; 이정호, 2018, 「4~5세기 남해안지역 외래계 고분 출현과 그 배경」, 『전남지역 고대문화의 양상과 교류』, 진인진 참조.

77 生土田純之, 2000, 「한·일 전방후원분의 비교검토-석실구조와 장송의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방후원분』,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8~13쪽 ; 柳沢一男, 2002, 「全南地方の榮山江型横穴式石室の系譜と前方後圓墳」, 『前方後圓墳と古代日朝關係』(朝鮮學會 편), 同成社, 189~197쪽 ; 홍보식, 2011, 「한반도 남부지역의 倭系 횡혈식석실의 구조와 계통」, 『한반도의 전방후원분』, 학연문화사, 260쪽 ; 홍보식, 2005, 「영산강유역 고분의 성격과 추이」, 『호남고고학보』21, 114~119쪽 ; 김재홍, 2017, 위 논문, 15~19쪽 참조.

78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원·고창군, 2016, 『고창 봉덕리 1호분 종합보고서』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羅州 伏岩里 3號墳』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나주 북암리 정촌고분』.

79 영산강유역 고고학적 변화의 양상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강봉룡, 2018, 앞 논문, 9~15쪽 참조.

80 해남지역의 왜계 방형 횡혈식석실분으로는 월송리 조산고분이 대표적이다.(서성훈·성낙준, 1984, 『해남 월송리 조산고분』, 국립광주박물관 참조) 해남의 전반후원형 횡혈식석실분으로는 방산리 장고봉고분과 용두리고분 등이 있다.

이고, 백제는 이를 위협적 상황으로 인식하여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5세기 후반의 상황을 염두에 둘 때, 앞 절에서 인용한 탐라 관련 세 기사는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① 『삼국사기』에 나오는 탐라는 3세기 말 신미국과 4세기 후반의 침미다례를 잇는 5세기 후반의 해남 백포만 세력이다. ② 백포만 세력은 왜와 긴밀한 교류 관계를 맺어오던 중, 백제의 회유와 협박에 못 이겨 480년에 백제에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치는 의례적 행위를 하였다. ③ 그런데 그 이후에 백포만 세력이 다시 공부를 바치지 않고 왜와의 우호적 관계를 지속해 나가자 498년에 동성왕이 친히 군대를 일으켜 武珍州에 이르렀고, 이에 백포만 세력은 다시 어쩔 수 없이 백제에 굴복하였다. ④ 무령왕 대 이후 영산강유역에 대한 백제의 지배력이 확고해지자, 백포만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어오던 제주도의 탐라(『일본서기』의 탐라)가 508년에 처음으로 백제와 통교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백포만 세력(신미국=침미다례=탐라)은 3세기 말 이래로 백제와 비우호적, 혹은 적대적 관계를 유지해 오던 중, 5세기 후반에 이르러 백제가 군사적 위협을 가해오자 백제에 방물을 바치다가 이를 중단하고, 또 다시 이를 사죄하는 수순을 밟았던 것이니, 백제에 대하여 소극적이고 변화무쌍한 태도로 임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런 탐라(백포만 세력)가 480년에 방물을 바쳐왔으니 백제에게는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을 터이고, 또한 498년에 공물 헌상을 중단했으니 그 실망과 분노의 정도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간다. 480년 사자에게 백제의 제3위에 해당하는 고위의 관등인 은술을 제수한 것에서 백제의 기쁨의 정도를, 498년에 무진주까지 무력시위를 감행했던 것에서 분노의 심정을 짐작해 볼 수 있겠다.

## V. 맺음말-백제의 5방제: 6세기

본고는 『진서』 282년 기사의 ‘新彌諸國’, 『일본서기』 369년 기사의 ‘枕彌多禮’, 그리고 『삼국사기』 480년과 498년 기사의 ‘耽羅’가 백포만 고대 포구세력의 실체를 간헐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간주하여, 각각의 존재양태와 배경 및 의미를 매치시켜 추적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백포만 고대 포구세력은 3세기 후반 이후 영산강유역 고대사회를 대외적으로 대표

하여 소통의 창구, 즉 관문사회(gateway community)로 기능하였다. 당시 영산강유역 고대사회는 읍락규모의 소국들이 느슨한 연맹체를 형성하고 있었고, 연맹체의 맹주국은 4세기까지는 영암 시종면 일대에, 5세기 중엽 이후에는 나주 반남면 일대에 소재하였다.

둘째, 백포만 고대 포구세력은 3세기 후반부터 5세기 후반까지 백제와 비우호적 혹은 적대적 관계를 지속하였다. 3세기 후반에는 백제가 마한을 병탄할 정도로 강성해지자, 영산강유역의 29개 소국은 이를 견제하기 위하여 백포만의 ‘신미국’을 앞세운 ‘신미제국’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쑥에 사신을 집단적으로 파견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데뷔하였다. 4세기 후반에는 백제의 패권에 저항하는 ‘침미다례’라는 이름으로, 5세기 후반에는 백제의 무력적 강압에 소극적인 복속을 표명하는 ‘탐라’라는 이름으로 문헌에 등장한다.

셋째, 백포만 고대 포구세력은 5세기 대에 고구려의 패권으로 무력해진 백제와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는 대신, 가야나 왜와의 문물교류를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 시기에 서남해안에 왜계 혹은 가야계 고분 내지 유물들이 다수 확인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한다. 특히 해남지역을 포함한 영산강유역에서는 5세기 중후반에 전반기후원형을 포함한 왜계 횡혈식석실고분이 주로 주변부에 다수 출현하여 왜와 긴밀한 관계에 있었음을 증언해준다. 이에 백제는 영산강유역 관문사회로 기능하던 백포만 세력에게 무력적 압력을 가하는 등 왜와의 밀착관계를 견제하고자 했다. 그래서 이 시기 영산강유역에서의 고분 양식도 매우 복잡하게 나타났고, 그 부장품들도 백제계는 물론 왜계와 가야계와 신라계 등이 복합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후 백포만 고대 포구세력은 어찌 되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백제의 영역으로 편입되어 갔다. 이런 추세에서 498년 동성왕이 ‘탐라’(백포만 세력)에 대하여 군사작전을 감행한 것은 차후 백제의 영산강유역 진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단순히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관문사회의 기능을 해오던 백포만세력의 귀복 맹세를 받아내려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군사적 무력시위를 통해 영산강유역 주변부에 확산되어 가고 있던 친왜적 성향의 세력집단에 경종을 울리는 한편 영산강유역에 대한 영향력을 관철시키는 주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6세기에 접어들어 무령왕 대의 백제는 국력을 회복하여 쇠락해 가고 있던 고구려를 군사적으로 제압하고 남조의 梁에 사신을 파견하여 ‘다시 강국이 되었음’을 과시하기에 이르렀다.<sup>81</sup> 이는 4세기 후반 백제가 반쪽 패권을 누렸던 근초고왕 대 강국의 위상을 ‘다시’ 회복한

81 『梁書』 권54, 열전48, 諸夷 백제조.

것임을 과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백제는 고구려를 제압하는 한편 독자노선을 걷던 왜를 압도하였고 영산강유역에 대해서도 지배권을 확립해 갔다. 이 시점 508년(무령왕 8)에 제주도의 탐라가 백제와 ‘처음’ 통교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백제의 국제적 위상을 증언하는 하나의 사례라 할 것이다.

이후 성왕은 영산강유역은 물론 오늘날 전남의 전지역에 대한 영역화를 완료하였으니, 22담로제에서 5方制(혹은 方郡制)로 개편한 것은 그 확대된 영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한 지방제 개편의 의미로 이해된다.<sup>82</sup> 또한 538년에는 수도를 웅진에서 큰 배가 도달하기에 편리한 사비로 천도함으로써, 5세기 대의 수세적 입장을 탈피하여 대외 진출의 포문을 열어갈 의지를 드러내었다고 할 수 있다.<sup>83</sup>

그렇다면 백제가 영산강유역을 영역화한 이후에 백포만 세력은 어찌 되었을까? 백제는 백포만 연변의 현산면 고현리 일대를 塞琴縣으로 편제하고 고현리 일대에 죽금성을 위시로 하여 고다산성, 백방산성, 읍호리산성 등을 축조하여<sup>84</sup> 요새화함으로써 국제 해양교류의 거점포구로 활용하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현리 일대는 통일신라 시대에 3세기 후반의 ‘신미’와 4세기 후반의 ‘침미다례’와 음상사한 침명현으로 개칭되었고, 고려시대에는 해남현의 치소로 편제되어 고려 말에 오늘날의 해남읍으로 치소를 옮기기까지 해남의 치소(고해남)로 기능하였으니,<sup>85</sup> 백포만 포구세력은 깊고도 장구한 역사문화의 뿌리를 내려왔다고 할 것이다.

\* 이 글은 2018년 7월 12일(목) 해남군에서 주관하고, 백제학회, (재)대한문화재연구원에서 주최한 〈2018 국제학술회의 -해남반도 마한 고대사회의 재조명-〉에서 발표한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백제학보』 25호(2018년 11월 30일 간)에 게재한 논문을 전재한 것이다.

82 6세기 중후반 이후 영산강유역은 토착의 웅관고분과 왜계의 횡혈식석실분이 사라지고, 그 대신 백제 사비계의 횡혈식석실분으로 일원화되고 그 추세가 서남해 도서연안지역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백제 영역화에 대응하여 나타난 고고학적 변화라 생각된다. (강봉룡, 2003, 「영산강유역 ‘웅관고분사회’의 형성과 전개」, 『한국고대사강좌』10, 95~96쪽 참조)

83 무령왕과 성왕 대 백제의 영산강유역 영역화 과정에 대해서는 강봉룡, 2018, 앞 논문, 46~54쪽 참조.

84 강봉룡·장선영, 2001, 「남창-삼산간 국도 확·포장공사지역의 역사유적」, 『남창-삼산 간 국도 확·포장 공사구간 지역 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 박물관, 49~55쪽.

85 이화영, 2002, 「해남군 치소 이설의 추이」(목포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참조.

## ::참고문헌

- 『삼국사기』, 『후한서』, 『삼국지』, 『晉書』, 『梁書』, 『일본서기』
- 강봉룡, 1997, 「백제의 마한 병탄에 대한 신고찰」, 『한국상고사학보』26
- 강봉룡, 1999, 「3~5세기 영산강유역 ‘웅관고분사회’와 그 성격」, 『역사교육』69
- 강봉룡, 2001, 「고대 동아시아 해상교역에서 백제의 역할」, 『한국상고사학보』38
- 강봉룡·장선영, 2001, 「남창-삼산간 국도 확·포장공사지역의 역사유적」, 『남창-삼산 간 국도 확·포장 공사구간 지역 내 문화유적지표조사보고』, 목포대 박물관
- 강봉룡, 2010, 「고대 동아시아 연안항로와 영산강·낙동강유역의 동향-4세기 이전을 중심으로-」, 『도서문화』36
- 강봉룡, 2018, 「문헌으로 본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흥망성쇠」, 『전남지역 고대문화의 양상과 교류』, 진인진
- 강종훈, 2003, 「4세기 백제의 요서 지역 진출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30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나주 복암리 정촌고분』
-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羅州 伏岩里 3號墳』
- 권오영, 2001, 「伯濟國에서 百濟로의 전환」, 『역사와 현실』40
- 김낙중, 2016, 「서남해안 일대의 백제 해상 교통로와 기항지 검토」, 『백제학보』16
- 김수태, 2011, 「5세기 후반 백제의 대외 관계와 남조」, 『백제학보』6
- 김영심, 2013, 「문헌으로 본 침미다례의 위치」, 『백제학보』9
- 김재홍, 2017, 「고대 남해 도서의 유적과 특성」, 『한국학논총』48
- 대한문화재연구원, 2017, 『해남 화산-평호 도로건설 구간 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집 (3차)』
- 生土田純之, 2000, 「한·일 전방후원분의 비교검토-석실구조와 장송의례를 중심으로-」, 『한국의 전방후원분』,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서성훈·성낙준, 1984, 『해남 월송리 조산고분』, 국립광주박물관
- 송태갑, 2002, 「해남반도의 고대사회와 대외교류」, 『전남사학』18 ; 문안식, 2015, 「서남해지역 마한사회의 발전과 연맹체 형성-해남반도 백포만 일대를 중심으로-」, 『동국사학』50
- 연민수, 1997, 「백제의 대외외교와 왕족」, 『백제연구』27
- 원광대 마한백제문화연구소·고창군, 2016, 『고창 봉덕리 1호분 종합보고서』
- 柳沢一男, 2002, 「全南地方の榮山江型横穴式石室の系譜と前方後圓墳」, 『前方後圓墳と古代日朝關係』(朝鮮學會 編), 同成社

- 윤선태, 2011, 「마한의 진국과 臣瀆沽國-嶺西濊 지역의 역사적 추이와 관련하여-」, 『백제연구』34
- 윤용구, 1999, 「삼한의 대중교섭과 그 성격-曹魏의 東夷經略과 관련하여-」, 『국사관논총』85
- 이근우, 1997, 「웅진시대 백제의 남방경역에 대하여」, 『백제연구』27.
- 이병도, 1936, 「삼한문제의 신고찰4-辰國及三韓考-」, 『진단학보』5
- 이병도, 1959, 『한국사 - 고대편-』, 진단학회
- 이재석, 2001, 「5세기 말의 백제와 왜국」, 『일본역사연구』14
- 이정호, 2018, 「4~5세기 남해안지역 외래계 고분 출현과 그 배경」, 『전남지역 고대문화의 양상과 교류』, 진인진
- 이청규, 1995, 『제주도 고고학 연구』, 학연문화사
- 이화영, 2002, 「해남군 치소 이설의 추이」(목포대 교육대학원 역사교육전공 석사학위논문)
- 임기환, 2000, 「3세기~4세기 초 魏·晉의 동방 정책」, 『역사와 현실』36
- 임영진, 2010, 「枕彌多禮의 위치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백제문화』43
- 최성락, 1987, 『해남 백포만 일대의 선사유적』, 『최영희선생화갑기념한국사학논총』
- 최성락, 1987~1989, 『해남군곡리패총 I · II · III』, 목포대 박물관
- 홍보식, 2005, 「영산강유역 고분의 성격과 추이」, 『호남고고학보』21
- 홍보식, 2011, 「한반도 남부지역의 倭系 횡혈식석실의 구조와 계통」, 『한반도의 전방후원분』, 학연문화사



## 해남지역 마한 취락의 특징과 변화

정 일(대한문화재연구원 조사연구1실장)

### I. 머리말

### II. 마한, 그리고 취락형태

### III. 해남지역 마한취락의 단계설정

1. 권역 설정
2. 주거구조
3. 단계 설정

### IV. 해남지역 마한 취락의 변화

1. 취락의 등장(환호취락의 존재)
2. 취락의 성장(읍락으로 성장)
3. 취락의 확대와 급격한 쇠락

### V. 맺음말

## I. 머리말

해남지역은 한반도의 남서쪽의 최남단에 위치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다. 이곳은 조석간만의 차이에 의해 내륙과 해양의 문물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유리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해남지역은 고대로부터 선·역사적인 다양한 유적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해남지역의 고고학적 조사는 1973년 현산면 월송리 조산고분에서 유물이 출토되면서 처음 시작되었으며 이후 1982년 국립광주박물관에 의해서 조산고분의 수습조사가 실시되었다. 발굴조사는 1986년 목포대학교박물관에 의해 군곡리패총이 발굴되면서부터이다. 이 유적은 고고학적으로는 ‘철기시대’이며 역사적으로는 삼한의 ‘마한’에 해당하는 유적으로 해남지역의 마한 문화상을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해남지역의 마한과 관련된 문헌기록은 『晉書』‘東夷馬韓新彌諸國’, 『日本書紀』神功紀 49年の‘枕彌多禮’ 등에 언급되며, 그 위치는 전남지역, 영산강유역 특히, 백포만 일대의 해남지역<sup>1</sup>이라는 비정설이 여러 연구자에 의해 제기되었다. 최근에는 화산면, 현산면, 해남읍, 계곡면 등지에서 마한의 목관묘·옹관묘의 제형고분, 취락 등이 확인되면서 해남지역의 마한의 실체 등에 좀 더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본고는 해남지역의 마한과 관련하여 사람이 거주했던 취락의 등장과 특징, 변화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다. 시기는 마한의 초현기인 기원전 4~3세기에서 취락이 쇠락되어 가는 5세기 후반대까지이다.

1 김영심, 2013, 「문헌으로 본 침미다례의 위치」, 『백제학보』9, 백제학회.

문안식, 2015, 「서남해지역 마한사회의 발전과 연맹체 형성-해남지역 백포만 일대를 중심으로-」, 『동국사학』58, 동국역사문화연구소.

강봉룡, 2017, 「문헌으로 보는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흥망성쇠」, 『전남지역 고대문화의 양상과 교류』,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 II. 마한, 그리고 취락형태

마한과 관련된 문헌기록은 『三國志』魏書 東夷傳, 『後漢書』東夷傳, 『晉書』東夷傳 등에 나타나며 우리나라 문헌에는 『三國史記』百濟本紀를 비롯하여 新羅本紀와 高句麗本紀에도 마한 관련 기사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sup>2</sup>. 마한의 형성 시기는 역사적으로 고조선 준왕의 남래 기사, 고고학적으로는 세형동검 문화 등 초기철기 문화와 관련되며<sup>3</sup>, 그 시기는 기원전 4~3세기로 보고 있다. 마한 사회는 한반도 중서부 지역에 자리 잡은 삼한의 맹주로 백제가 고대국가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점차적으로 흡수되었으며, 기원후 4세기 후반에는 영산강유역에 남아 있던 잔여세력까지도 백제에 통합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자는 6세기 중엽경까지 전남지역의 마한사회 전통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마한사를 동북아시아 정세 변화와 연결하여 총 네 단계로 구분한 연구<sup>4</sup>가 있는데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형성기(조기 마한사회, 기원전 4세기~2세기, 韓의 대두 및 마한/진변한 양분, 금강유역권)

정립기(전기 마한사회, 기원전 1세기~기원후 3세기, 마한 50여國/目支國, 경기-충청-전라지역)

분화기(중기 마한사회, 기원후 3세기 후엽~4세기 중엽 伯濟國/新彌諸國, 서울과 인근, 전북 이남)

소멸기(후기 마한사회, 기원후 4세기 후엽~6세기 전반, 백제에 의한 마한 흡수, 영산강유역)

위의 마한사 구분은 우리나라, 중국, 일본까지를 포함하며 문헌기록, 고고학적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어 전남지역의 고고학적인 자료를 마한사와 연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마한사 단계 구분을 전남지역의 고고학 자료와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전남지역 마한 사회는 취락이나 묘제를 통해서 그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형성기 취락은 송국리형주거문화에 원형점토대토기가 공반되는 시기이며<sup>5</sup> 상한은 기원전 4세기 후반대로

2 최성락, 2000, 「마한론의 실체와 문제점」, 『박물관연보』9, 목포대학교박물관.

3 임영진, 1995, 「마한의 형성과 변천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10, 한국고대사학회.

4 권오영, 2017, 「마한제국의 출현과 동북아정세」, 『영산강유역 마한제국과 낙랑·대방·왜』,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5 장지현, 2015, 「호남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양상과 특징-생활유적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

나주 운곡동 유적이 해당한다. 묘제는 호남지방 점토대토기문화기의 묘제와 지역성<sup>6</sup>, 2017년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학술대회<sup>7</sup> 자료집에 잘 정리되어 있다. 묘제는 기원전 4세기보다는 조금 늦은 단계인 기원전 3~2세기 자료가 다수이며 대표적 유적은 함평 상곡리유적이다. 함평 상곡리유적<sup>8</sup>은 영산강유역의 가장 이른 시기의 마한 묘제로 석관묘에서 출토된 경형동기가 밀납 주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중국 동북지방의 제작기술이 전해져 현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추정하며 늦어도 기원전 3세기대에 축조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석관묘보다 선행하는 제형계주구의 존재 가능성도<sup>9</sup> 언급되어 그 시기는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

정립기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대까지이다. 취락은 광주 신창동·평동유적, 해남 군곡리유적이 대표적이며, 유물은 삼각형점토대토기,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가 공반 내지는 단순기 형태로 확인되고 있다. 삼각형점토대토기는 홀구연으로 퇴화되고 경질무문토의 단순기인 유적이 최근 화순 삼천리, 나주 산제리유적에서 확인된다. 화순 삼천리는<sup>10</sup> 주거형태는 원형, 말각방형이며 내부구조는 일반적인 노지와 점토대토기를 사용한 초기형의 부뚜막을 혼용하고 있다. 또한 전 시기에는 없었던 장타원형 수혈, 사주공이 확인된다. 유물은 경질무문토기에 소량의 점토대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나주 산제리<sup>11</sup>는 원형계에 외부 구가 돌아가며 경질무문토기만 출토된다. 이 시기의 취락은 평지성 입지, 원형 내지는 말각방형 형태, 초기형의 부뚜막이 특징이며 작은 군집의 단기취락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묘제는 토광묘, 옹관묘, 주구토광묘가 있다. 토광묘는 영광 수동·군동, 나주 도민동, 광주 성덕유적이 대표적이며 삼각형점토대에 흑도장경호가 공반하고 있다. 옹관묘는 광주 신창동·장자·

보』51집, 호남고고학회.

6 이동희, 2002, 「호남지방 점토대토기문화기의 묘제와 지역성」, 『고문화』 60권, 한국대학박물관협회.

7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대한문화재연구원, 2017, 『2017 학술대회 영산강유역 마한제국과 낙랑·대방·왜』.

8 (재)한국문화재재단, 2016.10, 『함평 상곡리 114-4번지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9 이영철, 2017, 「마한 고지의 신자료 성격과 의미」, 『영산강유역 마한제국과 낙랑·대방·왜』,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10 (재)대한문화재연구원, 2018, 『화순 삼천리 골재채취사업 구간 내문화유적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11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17, 『나주 장성리·은사·산제리유적』.

운남동, 함평 장년리·송산, 곡성 대평리 등에서 확인된다. 연대는 기원전 1세기 대에 집중되며 송국리형토기에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된다. 주구토광묘는 영광 군동, 곡성 대평리유적에서 확인되며 곡성 대평리<sup>12</sup>에서는 주구토광묘 내부에 토광묘, 석개토광묘의 매장주체부가 확인된다. 유물은 연대 순으로 점토대토기·두형토기-경질무문토기·호형토기-회색연질토기·철기 유물 순으로 출토되고 있다.

분화기에는 문헌기록에 마한과 관련된 신미제국, 침미다례 등의 기록이 언급된 시기이다. 취락은<sup>13</sup> 이전 단계의 층적지에서 소군집 단위로 확인되는 것이 구릉지의 중·대 군집 단위로 변화한다. 연대는 기원후 3세기에서 4세기 전반대로 연질타날문토기가 대부분이고 유적별로 회청색경질토기도 등장한다. 취락내 활동은 농경, 어로, 사냥에 집중하며 토기 및 단야 제작과 같은 생산활동에 관여한 집단도 등장한다. 하위 취락이 대부분이지만 광주, 화순, 함평, 해남 등 지역적인 거점취락이 등장하기도 한다. 묘제는 주구토광묘에서 분구묘로 발전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 마한 소국의 위치는 고분, 취락 등을 통해 여러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다. 마한소국의 위치는 15개 권역<sup>14</sup> 또는 보성강권과 여수반도를 추가하여 17개 소국<sup>15</sup>으로 설정하고 있다. 최근 침미다례의 위치를 비정함에 있어 해남 안호리·석호리<sup>16</sup>유적의 고분 자료를 통해 해남 백포만의 연안지역 전체를 염두에 둘 필요성이 새롭게 제기되었다<sup>17</sup>.

소멸기는 기원후 4세기 후엽에서 6세기 전반경으로 영산강유역의 마한사회의 최전성기임과 동시에 백제에 의해 상당한 지역이 흡수된 시기이다. 취락은 지역단위의 중심취락이 등장하는데 영산강 상류를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다. 묘제는 옹관고분의 대형화, 재지적인 제형분의 유지, 방대형 고총고분 등장, 원형분 전방후원형고분과 왜계유물을 부장한 왜계 고분의 출현, 남해안식 석실 등 다양한 묘제가 공존한다. 이러한 다양한 묘제는 전남지역 마한사회

12 (재)영해문화유산연구원, 2012, 『곡성 대평리유적』.

13 이영철, 2015, 『영산강유역 고대 취락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 임영진, 2013, 「전남지역 마한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 『전남지역 마한 제국의 사회성격과 백제』, 2013년 백제학회 국제학술회의, 백제학회.

15 김승옥, 2013, 「취락으로 본 전남지역 마한 사회의 구조와 성격」, 『전남지역 마한 제국의 사회성격과 백제』, 2013년 백제학회 국제학술회의, 백제학회.

16 (재)대한문화재연구원, 2017, 『해남 화산-평호 도로건설구간 내 문화유적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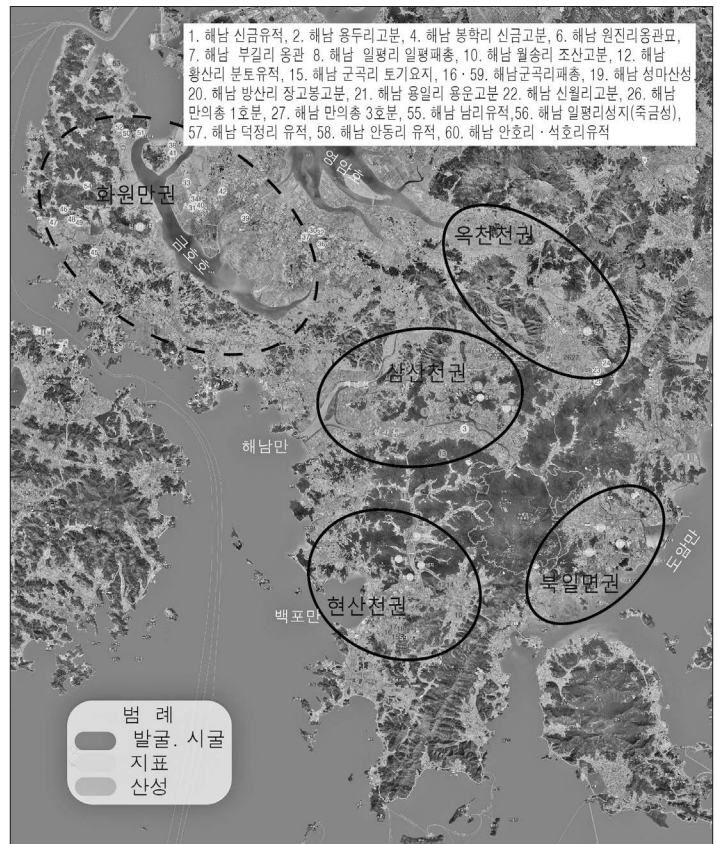
17 강봉룡, 2017, 앞의 논문.

가 매우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됨을 알 수 있고, 이는 영산강유역 세력의 독자성 고양과 유지의 노력이면서 좌절이라는<sup>18</sup> 양면이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 III. 해남지역 마한취락의 단계설정

#### 1. 권역 설정

해남지역의 권역설정은 고고학적인 자료와 수계와 연결되는 해만(海灣)을 중심으로 세 개의 지역권<sup>19</sup> 또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네 개의 권역으로 나누고 있다<sup>20</sup>. 그리고 기원후 5~6세기 유력 고분을 중심으로 네 개 지역<sup>21</sup>으로 구분한 경우도 있다. 여기서는 최근 조사 성과와 유물을 중심으로 네 개의 지역권에 영산강 초입의 화원만권을 추가하여 다섯 개 권역으로 설정하였다(도 1, 표1).



도 1 해남지역 권역별 유적 현황도

18 권오영, 2017, 앞의 논문.

19 김미연, 2007, 『3~6세기 해남지역 고고학적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김낙중, 2015, 「3~6세기 해남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 『호남고고학보51집』, 호남고고학회.

21 이정호, 2013, 「만의총고분과 고대사회의 동향」, 『해남 옥천 만의총고분 국제학술대회』,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표 1 권역별 유적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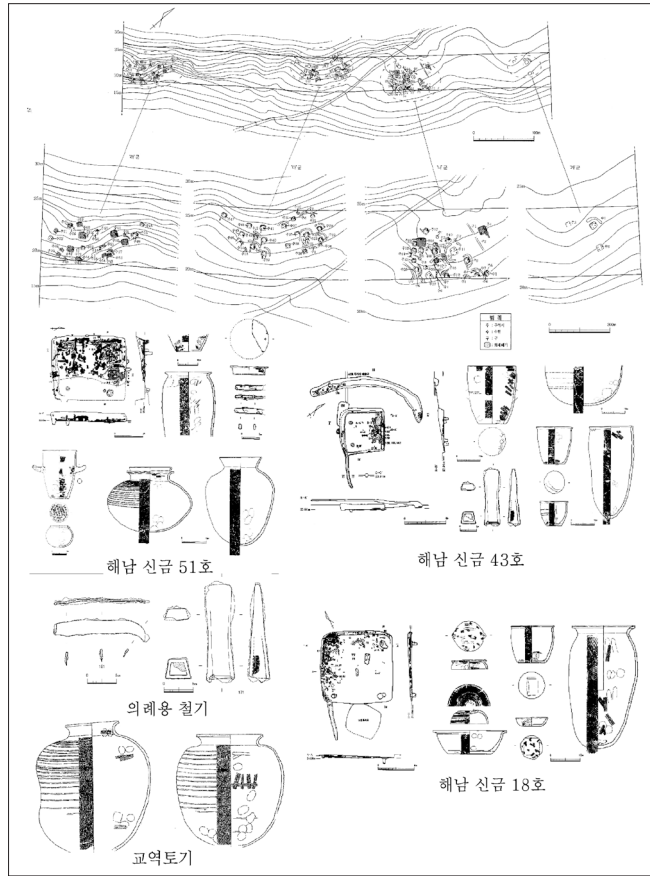
	지역	유적명	연대	유적 현황
삼산천권	삼산면	해남 신금유적	3세기~5세기	주거지72동, 철정, 함안계토기
	삼산면	해남 용두리 고분	6세기 전반	전방후원형고분, 토기류, 중국제도자기, 금속류, 철기류
	삼산면	해남 봉학리 신금고분	4세기	옹관묘, 단경호, 철정
	삼산면	해남 원진리 농암고분	4세기 후반	옹관묘, 꺾형토기, 원저호, 철부, 철정, 소옥
	해남읍	해남 안동리 유적	3세기~4세기	제형분(옹관묘, 목관묘), 발, 광구호, 단경호, 이중구연호
	해남읍	해남 옥녀봉 토성지	삼국시대	테피식+포곡식산성, 마장터, 장대지, 대형옹, 패각, 경질토기
	해남읍	해남 옥산고성지	삼국시대	
옥천천권	옥천면	해남 만의총 1호분	삼국(6세기 전반)	고분(석곽, 수혈식석실), 백제 금장식곡옥, 은제곡옥, 서수형토기, 대부완, 조개팔찌
	옥천면	해남 만의총 3호분	삼국	고분(횡구식석실)
	계곡면	해남 덕정리 유적	청동기, 삼국	주거지, 지석묘, 옹관묘, 석곽묘, 제형분, 석실, 단경호, 이중구연호,
	옥천면	해남 진터산성지	(추정)삼국	테피식, 토루, 장대지, 수구, 회색경질토기, 회청색 경질토기, 성산고분
현산천권	화산면	해남 부길리 옹관유구	4C후반~5C전반	옹관묘, 호형토기, 철부, 철검, 철정
	화산면	해남 안호리·석호리	삼국-고려	삼국 고분(58기 목관, 옹관), 옹관128기, 주거지, 도로, 수혈
	현산면	해남 일평리성지(죽금성)	삼국	성곽, 주거지, 수혈, 주혈, 구, 호, 장관형토기
	현산면	해남 일평리 일평패총	철기	패총
	현산면	해남 월송리 조산고분	삼국	석실, 호형토기, 대부토기, 고배, 개배, 금속류, 철기류, 옥류, 동경
	현산면	해남 황산리 분토유적	청동기-삼국	주거지, 지석묘, 옹관묘, 토광묘, 방형주구, 석실분 등
	현산면	해남 백방산성지	삼국	석축성, 삼국시대 경질토기편, 기와편
	현산면	해남 고다산성지	삼국	성매산성, 테피식석축, 치, 문지
	현산면	해남 읍호리성지	삼국	토축, 포곡식산성, 석축, 삼국시대 격자타날 회청색경질토기
	현산면	해남 일평리성지	삼국	죽금성, 시굴(석축, 삼국시대 주거지, 구 등)
	송지면	해남 군곡리패총	청동기, 철기, 삼국	청동기 지석묘, 철기패총, 삼국 주거지, 요지, 수혈, 구, 주공 등
	송지면	해남 방산리 장고봉고분	삼국	전방후원형고분, 토기편
북일면권	북일면	해남 용일리 용운고분	삼국	수혈식석곽묘, 원형, 횡구식석실묘, 철검, 철준, 철촉, 단경호, 병
	북일면	해남 신월리고분	삼국	고분(석곽), 호, 발, 환두도, 철도, 철모, 철준, 철부, 광구소호, 철정
	북일면	해남 성마산성	삼국	성포산성, 마장터, 테피식 토축, 삼국시대 토기편
	북일면	해남 거칠마토성지	삼국	신월리산성, 수청봉토성과 삼각형, 테피식, 삼국시대 토기편
	북일면	해남 수청봉토성	(추정)삼국	성마산성, 거칠마 토성지와 함께 삼각형 형태
	북일면	해남 남리유적	삼국, 조선	미상유구(옹관편), 구
화원만권	화원면	해남 일성산성지	(추정)삼국	백제시대 황술현의 치소로 비정되는 고당리의 배후산

## 1) 삼산천 권역

삼산천 권역은 해남의 중앙부에 해당하며 동고서저 지형으로 해남천과 삼산천이 합류하여 해남만으로 흘러간다. 취락은 신금유적에서 3~5세기대의 주거지가 72동, 수혈, 구가 확인되었다(도 2). 다수의 방형계 사주식으로 축조하고 점토부뚜막을 갖추고 있다. 규모는 큰 차이는 없으나, 나군집의 4세기대에 해당하는 16·18호 주거지가 다른 주거지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주거간의 우열이 생긴 것으로<sup>22</sup> 보지만 유물에서는 두드러짐이 없다. 의례행위는 4·40·43호 주거지에서 부뚜

막 후벽에 철검, 철부를 매납하는데, 철기 단조품 제작이나 유통에 관련한 집단<sup>23</sup>으로 철기에 대한 신성한 의례행위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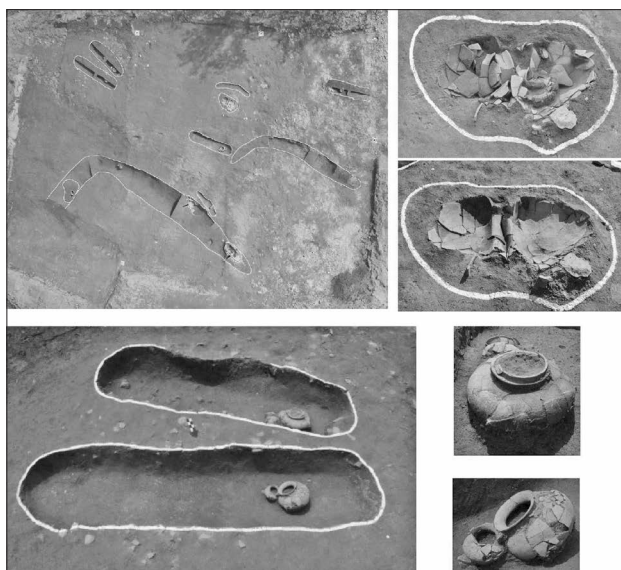
고분유적은 최근에 해남읍 안동리유적에서 제형분이 확인되었다(도 3). 고분은 제형분에 주구를 연접하고 주 매장주체부는 목관묘이다. 옹관묘는 주구에 매장하였다. 목관은 세장형이며 내부 발치에 이중구연호, 광구호, 발 등을 부장하였으며 시기적으로 3~4세대로 추정된다. 이 고분과 관련하여 남쪽의 옥녀봉토성이 주목된다. 지표조사에서 테피식+포곡식이 결합된 복합식 산성으로 마장터, 장대지가 확인되고 내부에서 대형옹, 패각, 경질토기가 출토



도 2 해남 신금유적 및 출토유물

22 김낙중, 2015, 앞의 논문.

23 이영철, 2015, 앞의 논문.



도 3 해남 안동리고분 및 출토유물

된 것으로 삼국시대 토성으로 인식하고 있다<sup>24</sup>.

## 2) 옥천천 권역

옥천천 권역은 해남의 동쪽에 해당하며 북서쪽을 제외하고 산으로 막힌 분지형이다. 계곡면 덕정리유적에서 3~6세기대의 고분이 확인되었다. 옥천천 주변에는 낮은 구릉 사면부에 영춘리 영춘유물산포지, 연신리 영안유물산포지, 신죽리 신죽·



도 4 옥천천 권역 유적현황도

한천유물산포지, 흑천리 학동유물산포지 등 다수의 삼국시대 유물산포지가 분포하고 만의총 북동쪽 성산리에는 삼국시대 토성으로 추정되는 진터고성지가 위치해 있다(도 4).

만의총은 1·3호분이 조사되었는데 수혈식석곽, 횡구식석곽으로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전엽에 축조된 것이다. 두 고분은 묘제 구조가 다르면서 출토유물도 금장식곡옥, 은제곡옥, 서수형토기, 대부완, 조개팔찌 등 백제, 신라, 왜계 등 다양한 계보를 보이고 있다<sup>25</sup>.

해남 덕정리유적은 주구토광묘, 웅관

24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 해남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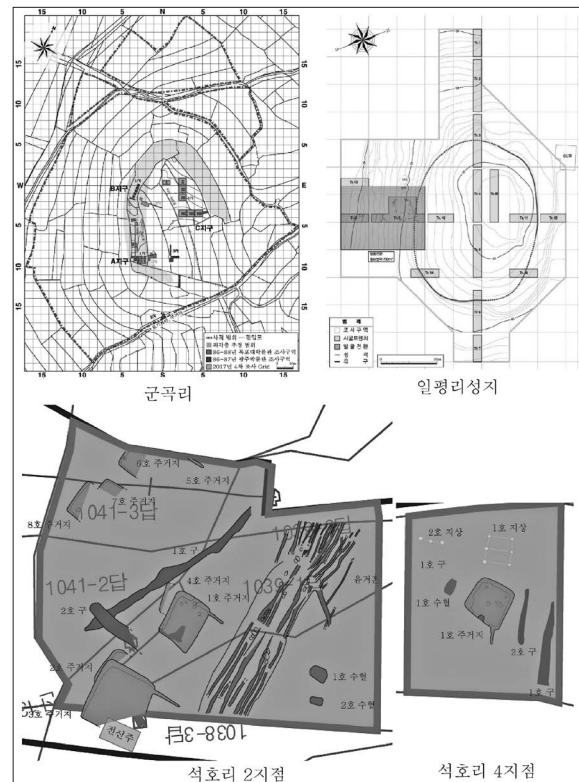
25 이정호, 2013, 앞의 논문.

묘, 석실(곽) 등이 확인된다<sup>26</sup>. 주구토광묘는 제형에 세장방형 목관묘가 중앙에 위치하며 유물은 주구 내에서 소형토제품이 출토되며, 석실(곽)은 4기가 확인되는데 석실분 상면에 주구가 돌아간다. 유적은 주구토광묘에서 석실분 단계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묘역으로 사용되고 있어 옥천천 권역을 이해하는데 좋은 자료이다.

### 3) 현산천 권역

현산천 권역은 해남의 남서지역으로 화산면, 송지면, 현산면의 백포만에 인접한 지역이다. 현산천 권역에 포함된 화산면에서는 화산천의 부길리와 내만한 석호리, 백포만 일원의 군곡리 등에서 새로운 자료가 확인되고 있다(도 5).

백포만 일대는 고대 해남의 중심지로 알려져 있고 문헌에 기록된 신미제국, 참미다례와 관련성이 있는 지역으로 현산 일평리성지, 화산 석호리, 송지 군곡리패총 등 해안가에 위치하는 소규모 취락이 대부분이며 황산리 분토유적처럼 3세기부터 5세기에 해당하는 대규모 중심취락도 존재한다. 군곡리패총은 약 2만평 내외의 단독 구릉을 3차례에 걸쳐 조사하였으며 총 5개 층으로 나뉜다. 시기는 기원전 3~4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 후반까지 편년되고 있다<sup>27</sup>. 석



도 5 현산천 권역 신자료

26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8.02, 『보성-임성리 철도건설구간 내(4·5·6공구)유적 발굴(시굴)조사 4차 약식보고서』.

27 최성락, 2016, 「해남 군곡리 패총의 발굴성과와 의의」, 『해남 군곡리 패총의 재조명』, 해남 군곡리패총 발굴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목포대학교박물관.

호리 취락<sup>28</sup>은 바다와 인접한 곳에 입지하고 소규모로 확인된다. 사주식 방형계에 점토부뚜막, 벽구 등이 확인되며 유물은 동쪽 고분군과 유사한 것으로 4세기대에 바닷가에 입지한 해촌취락이다. 일평리 성지<sup>29</sup> 내부 Tr 조사에서도 주거지가 확인된다. 넓은 평야지대의 단독구릉에 위치하는 구상유구도 보이는데 환호일 가능성이 높다. 황산리 분토유적은 중심취락으로 내륙에 입지하면서 4세기 이후에 교역의 중심이 되면서 중심취락으로 발전하게 된다. 유물 중 철정, 승석문호, 광구소호 등은 아라가야 지역과의 교류가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sup>30</sup>.

#### 4) 북일면 권역

북일면 권역은 주작산-두류산-달마산으로 이어지는 산지와 도암만의 내해로 공간이 매우 협소하여 농경활동보다는 해상활동에 적합한 지역이다.

취락은 용일리 용운고분 1·2호분 사이 Tr조사에서 3개의 트렌치에서 원삼국시대 주거지가 확인된다. 주거지는 평탄대지의 서쪽 사면에서 확인되는데 방형계에 규모 3.5~7.5m 정도로 내부에 목탄, 소토가 깔려 있어 화재주거지일 가능성이 크다<sup>31</sup>. 7m가 넘는 대형의 주거지는 3세기경에는 잘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4세기부터 용운고분 축조 이전까지 거주 공간으로 이용되었을 것이다. 산성은 성마산성, 거칠마토성, 수청봉토성이 삼각형 형태로 분포하고 산성들 중앙에 고분군이 위치해 있다. 고분은 외도고분, 방산리 장고봉, 신월리고분, 용일리 용운고분군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외도고분-신월리고분-장고봉-용일리 용운고분 순으로 축조되고 있다.

#### 5) 화원만 권역

화원만 권역은 화원면, 문내면, 산이면 등 해남군의 서쪽지역에 해당하며 바다와 맞닿아 있다(도 6).

---

28 (재)대한문화재연구원, 2017, 앞의 보고서.

29 (재)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2016, 『해남 일평리성지(죽금성)문화재 학술조사(시굴조사)』약식보고서.

30 (재)전남문화재연구원, 2008·2009, 『해남 황산리 분토유적 I·II』.

31 국립광주박물관 2004, 『해남 용일리 용운고분』.



대부분 지역은 낮은 구릉지대로 중앙의 높은 구릉지를 제외하고 내만의 영향을 받고 있다. 북쪽에는 영암호, 중앙 금호호, 남서쪽은 해남만-울돌목-서해로 대부분이 바다와 인접해 있다. 발굴된 취락, 고분유적이 극소수이지만 삼국시대로 추정되는 고성지, 유물산포지가 산재해 있어 권역으로 설정이 가능하다. 산성은 문내면에



도 6 화원만 권역 유적분포도

에 일성산성지가 있는데 백제시대 황술현(黃述縣) 치소로 비정되는 고당리마을의 배후산으로 남쪽에 고당유물산포지가 있다.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산포지는 화원면에 집중되고 바다를 바라보는 구릉 사면부에 다수 분포한다. 최근 발굴된 문내면 남리유적에서 삼각형거치문이 시문된 옹형토기가 다수 출토되는데 옹관에 사용되는 대용토기로 초기의 제형고분 또는 옹관고분의 존재 가능성이 크다.

## 2. 주거구조

### 1) 입지

해남지역 취락은 반도의 특성상 바다에 인접하거나 강이 조망되는 단독구릉이나 사면부에 입지한다. 바다에 인접한 경우는 군곡리, 석호리, 용운리 등 현산천과 북일면 권역으로 백포만, 도암만을 직접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입지해 있다. 군곡리는 단독구릉에 위치하면서 바다에 인접해 백포만을 통해 유입되는 모든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곳이다. 석호리는 바닷물이 유입되는 내만의 사면 끝자락에 위치하고 도로흔적이 바다 방향으로 있어 포구의 해춘성격



을 가지고 있다.

하천 주변부에는 신금, 일평리성지, 분토취락이 입지한다. 신금은 삼삼천을 조망하며 산을 등지고 있어 하천을 따라 불어오는 바람을 피할 수 있어 장기적인 입지가 가능한 지역이다. 일평리성지 취락은 하천변의 단독구릉에 위치하며 주변의 평야지대를 관망할 수 있다. 그러나 협소한 공간으로 대규모 취락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하위취락에 머무른 것으로 보인다. 분토는 높은 지대의 구릉 사면부에 넓게 분포하며 강가를 조망하고 조산천을 통해 쉽게 바다로 향할 수 있어 군곡리의 배후취락으로 크게 성장한다.

해남지역 취락입지는 바다를 통한 문화유입이 고대로부터 빈번하였기 때문에 내륙보다는 바닷가 주변을 선호하였고, 내륙으로는 바다와 멀지 않은 하천변에 주로 입지하고 있다. 이는 지역적 특성을 잘 활용한 것으로 해남지역 취락은 대외교류의 전초기지로 해안가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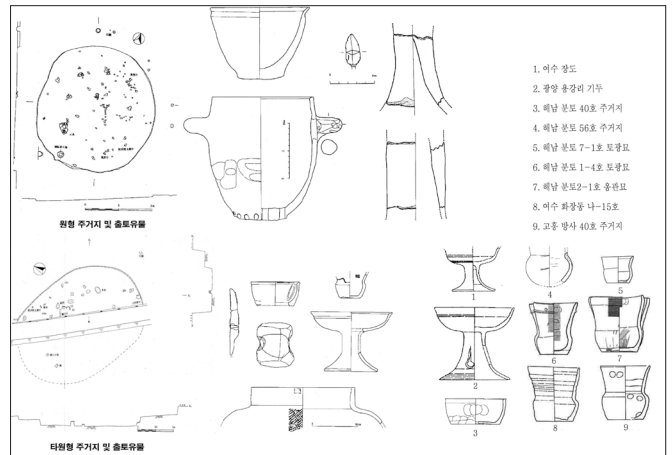
## 2) 평면형태

해남지역에서 확인된 주거의 평면형태도 영산강유역의 마한계 주거지의 평면형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원형계(도 7)는 군곡리에서만 3기가 확인되고 나머지는 모두 방형계이다. 조사된 2기는 남서 구릉능선에서 확인되고 미발굴된 1기는 남동사면부의 토기가마 하단부에서 확인된다. 원형주거지는 내부 시설이 없고 경질무문의 시루, 발, 고배 대각, 점토대구연부편이 출토되며 연대는 기원후 1세기를 하한으로 한다. 군곡리패총의 패각 범위 중 경질무문토기가 가장 많다는 점, 경질무문토기의 하한을 3세기대까지<sup>32</sup> 보는 것은 원형계 주거지의 범위, 시간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원형계 주거지의 계통과 관련해서는 외부유입보다는 송국리형 주거문화가 그대로 계승된 것으로 생각된다. 타원형계는 주거지 성격에 대해서는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규모, 내부 무시설 구조는 원형계와 동일하다. 유물구성은 원형계와 달리 연·경질의 타날문토기가 확인된다. 기종은 발, 광구소호, 호형토기, 고배편이며 특히 광구소호, 고배 대각은 김해, 마산 등지의 5세기 전반대로 편년되는 가야계토기로 외부와의 교역에 원형계 주거 집단이 관여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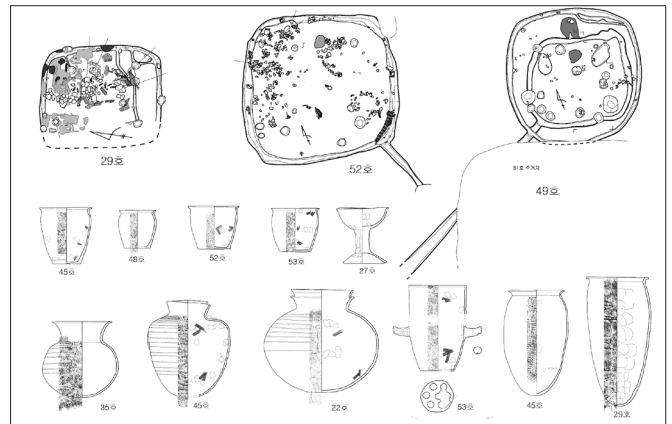
방형계는 신금 72기, 분토 57기 등 대부분에 해당한다(도 8). 두 유적의 방형계는 내부구조에 점토부뚜막, 4주식(무주공 포함), 벽구, 외부 구 등 전형적인 마한계주거지의 특징을 가지고

32 김진영, 2015, 「해남 군곡리패총 편년검토」, 『전남 문화재』15집, 전남문화재연구소.

있다. 일부 주거지에서 점토벽체, 벽주공 등이 확인되지만 백제계 대방 건물과는 차이가 있다. 방형계는 다시 무주공식과 사주식으로 구별되는데 무주공이 3세기경에 소수 축조되다가 4주식이 채용되면서 4세기대에 취락의 규모가 급격히 확장된다. 취락의 확장이 건축기술의 발전에 따른 이유가 있으나 정치·경제적으로 마한 재지세력의 통합력이 높아진 것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이는 3세기 중후반에 대외교류의 확장으로 경제적인 성장을 가져오고 이를 통해 하위취락을 통제할 수 있는 거점 취락이 생겨나게 된다. 방형계 주거형태는 이러한 발전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원형계와는 차별화된 주거형태로 볼 수 있다.



도 7 군곡리 원형계주거지 및 출토유물



도 8 분토 방형계주거지 및 출토유물

### 3) 사주공

사주공은 집의 상부를 지탱하기 위해 벽가에 일정한 공간에 나무기둥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3세기 이전 마한지역에 보이지 않았던 선진적인 주거 구조로 무주공식과 대별되며 “사주식주거지”라는 용어로 마한계주거의 표지적인 주거형태이다. 영산강유역에는 3세기 전반에 주구토광묘 계통의 묘제와 함께 영광, 함평 등 서해안의 구릉지대에 출현하고 영산강유역과 내륙으로 급속히 확산된다. 이후 4세기대는 일반 주거지와 차별화되는 경향을 보이며 5세기 중반에는 대형의 사주식주거지가 중심취락의 가장 우위를 차지하게 된다<sup>33</sup>.

33 정 일, 2006, 「전남지역 사주식주거지의 구조적인 변천 및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54, 한국상고사학회.

해남지역의 3세기 이후 주거지는 모두 방형계이며 이중 사주식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신금은 72기 중 60기가 사주식으로 초기형의 무주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에 해당한다. 방형의 주거형태에 사주공을 채택하여 지붕을 지상으로 올려 내부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여기에 점토부뚜막을 사용하여 새로운 토기문화를 변화시키는 과정은 전 단계의 무주공식보다는 발전된 선진기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거기술을 통해 장기적이고 안정적 정주생활이 가능하게 되었고 3세기 후반을 지나 4세기 중반까지는 몇몇 취락이 거점취락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해남지역 사주식주거지는 4세기 중반 이후에 마을의 대부분이 화재소실을 겪으면서 취락이 급격하게 쇠퇴하게 된다. 이후 4세기 후반~5세기 초반대는 마한계 사주식이 소수만 확인되며 백제계의 주거로의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 이는 화재, 전쟁, 전염병 등의 사회적 변화에도 새로운 주거형태가 유입되지 않은 것은 현지인들에 익숙한 주거문화가 그대로 존속되고 일부에서는 지상화로의 변화를 가져왔을 것이다.

### 3. 단계 설정

해남지역의 마한 취락의 토기편년은 마한시기 구분론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편년은 좀 더 세분할 필요성이 있다. 마한취락의 토기편년은 군곡리패총, 신금·분토취락에 어느 정도 정리되어 있지만, 5세기 이후 자료는 분묘중심의 편년이 중심이다.

군곡리패총 연대는 점토대토기의 상한, 경질무문토기의 단순기 내지는 타날문토기의 등장, 경질토기의 하한 문제 등에서 크게 4단계~5단계로 구분하며 점토대토기(I기층, 기원전 3세기 전후)-경질무문토기(II·III기층, 기원1세기~기원후 1세기)-경질무문+타날문토기(IV기층, 기원후 2세기)-연·경질타날문토기(V기층, 기원후 3~5세기)의 4단계로 구분되며 4단계의 연·경질타날문토기는 신금, 분토취락의 토기구분을 통해 세분할 수 있다(표 2).

신금취락은 발, 장란형, 호형토기, 시루에 대한 상대편년, 화재폐기 주거지의 선후관계(12·15·16호), 문양의 변화(격자·평행타날 → 승문타날) 등을 감안하여 4단계로 구분하였다<sup>34</sup>.

34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해남 신금유적』.

표 2 해남 신금 · 분토취락 편년표

	신금		분토	
	연대	특징	연대	특징
I 단계	3세기 중반	발 I, 호 · 장란형 I · II		
II 단계	3세기 후반	화재폐기, 장란형 I · II, 호 쏘형식, 경질토기 등장	3C후반-4C초	자비용기 초기형, 고배, 이중구연호, 뚜껑
III 단계	4세기대	후행 형식, 편구형 사라짐, 철기매납	4C전반-4C후반	호 경질화, 승문타날
IV 단계	5세기 전후	화재폐기, 새 기종 등장, 철기매납	4C말-5C후반	소수, 후행 시루, 분묘(호 장동화)

분토취락은 신금보다 늦은 3세기 후반에 나타나는데 회청색경질토기가 처음부터 등장하고 신금보다는 늦은 형식의 자비용기, (경질)무문토기 유물이 극소수 포함되어 있다.

해남지역의 취락편년은 기원후 3~5세기 대를 백년 단위로 3단계로 구분하고<sup>35</sup>, 묘제를 포함하여 총 4단계로 구분하였다. 취락의 주거구조, 타날문토기의 변화에는 동의하지만, 군곡리 패총 형성 이전의 유구 존재가능성, 타원형주거지에 대한 연대설정에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분토유적의 토광묘 출토 토기는 회전대 사용, 목리조정, 적갈색 연질소성으로 군곡리패총의 IV기층과 연결하여 기원후 2세기 중·후엽으로 설정하고 있어<sup>36</sup> 기원전후한 시기를 포함한 연대설정이 필요하다.

해남지역의 마한취락의 상한(I 단계)은 군곡리패총<sup>37</sup>에서 찾아볼 수 있다(표 3). 기존검토<sup>38</sup>에서 남서쪽 패각층 최하층에 형성된 구덩이를 주목하고 패각 퇴적 이전에 만들어진 환호<sup>39</sup>로 추정된 바 있다. 토층도와 보고서상 구덩이로 표현된 부분은 A~B동벽, A3~A4북벽, B3~A3서벽, B~B3북벽이며 A2, A3의 구덩이 벽가로는 석재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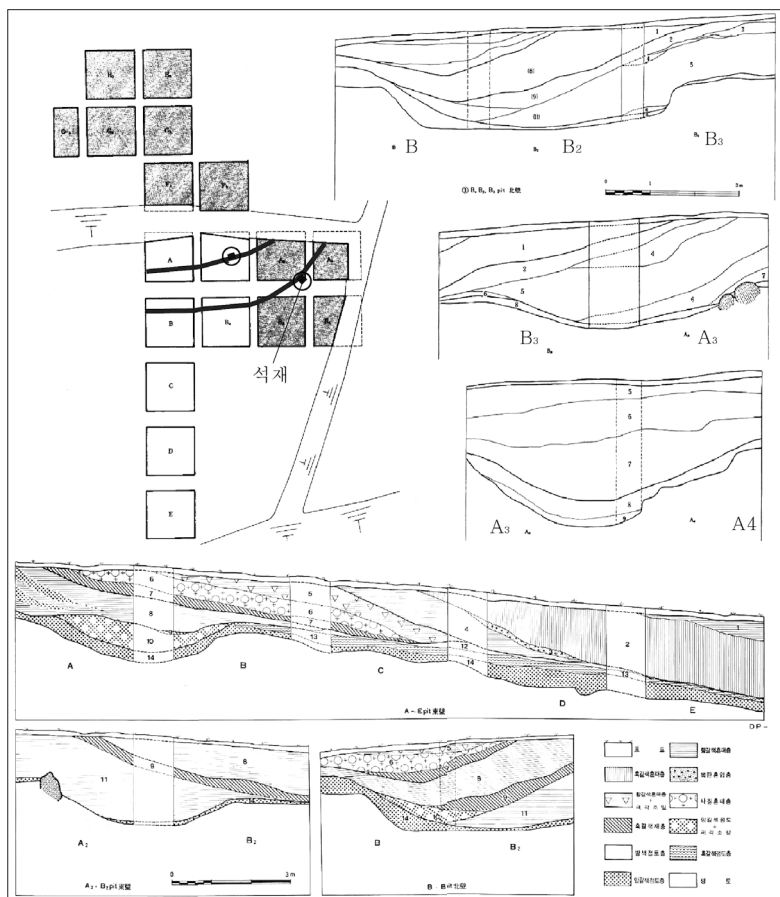
35 김미연, 2007, 앞의 논문.

36 김낙중, 2015, 앞의 논문.

37 목포대학교박물관, 1987·1988·1989, 『해남 군곡리패총 I · II · III』.

38 정 일, 2016, 「군곡리 원형계 주거지 성격」, 『해남 군곡리 패총의 재조명』, 해남 군곡리패총 발굴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목포대학교박물관.

39 청동기시대 이래 단독구릉 전체에 구를 파서 돌리는 경우는 환호, 환구 등이 있다. 환호는 구 내부에 주거지가 확인되는 경우, 환구는 주거지 없이 의례와 관련된 유구가 확인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4차례 조사에서 군곡리 구 내부에 원형점토대 또는 이른 시기의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유구가 없어 환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도 9 해남 군곡리패총 I 단계 추정 환호

층 10·14층은 암갈색점토층으로 패각층과 다른 퇴적으로 패각 이전의 선행유구의 퇴적토일 것이다. 단면도상의 선을 연결하면 <도 9>와 같이 열상의 구(溝)로 확인되며 유적의 칠부 능선을 따라 남북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 유구의 양상은 순천 덕암동, 좌야패총, 여수 월산패총, 남해 봉황산 등 남해안 패총의 특징 중 하나로 환호취락에서 흔히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선행하는 구는 최하층의 원형점토대, 두형토기와 공존하거나 이른 시기의 것으로 I

단계는 기원전 3세기 전후 시기로 설정할 수 있다.

Ⅱ단계는 점토대토기, 경질무문토기, 화천 등이 출토되는 시기로 군곡리의 원형주거지가 해당한다. 연대는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대이다. 점토대토기와 관련된 주거, 분묘유적은 확인된 바는 없지만 군곡리 패총의 패각 두께, 백포만 일원에 다수의 패총과 유물산포지 등은 넓게 취락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경질무문토기와 관련된 유적은 군곡리패총 원형주거지이다. 주거지는 경질무문토기만 출토되며 군곡리 Ⅱ·Ⅲ기층으로 늦어도 기원후 1세기경에는 축조된 것으로 생각된다.

Ⅲ단계는 경질무문토기가 지속되면서 타날문토기가 본격적으로 제작·사용된 시기로 기원후 2세기에서 3세기 전반대에 해당한다. 경질무문토기 연대는 영산강유역 상류권에서 기원후 3~4세기대 주거유적에서 출토되는 것과 대비해 해남지역 취락에서는 공반 되는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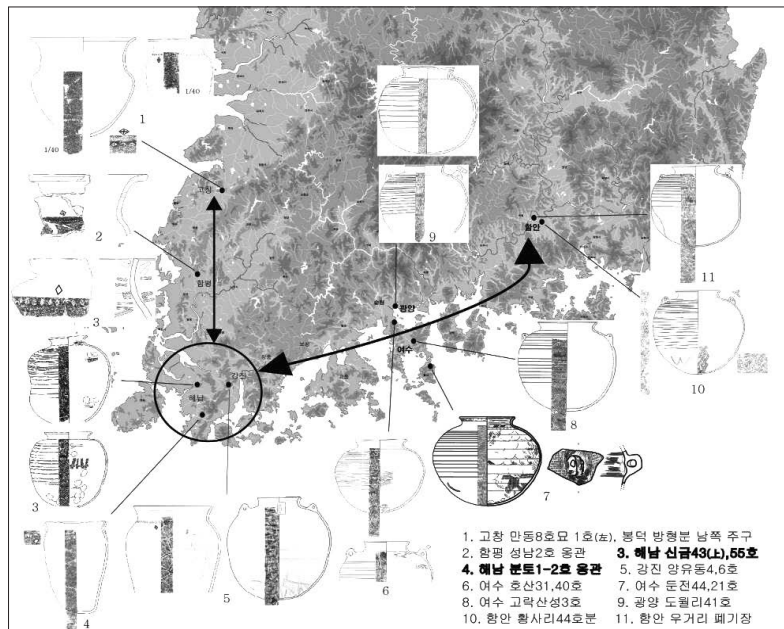
가 없다. 군곡리패총과 분토 토광묘의 경질무문토기에는 회전대 사용 흔적이 보이는데 기원 후 2세기경에 타날문토기 제작기법을 채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타날문토기 연대에 대해서는 군곡리패총의 경질무문토기에 승문타날이 존재한다는 근거로 연대를 기원전 1세기대로 상향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sup>40</sup>.

IV단계는 연질토기에 경질화된 토기가 유입 또는 제작되는 시기이다. 시기는 기원후 3세기 중반에서 4세기 중반에 해당한다. 이른 형식의 자비용기, 호형토기 등이 제작되고 일부토기는 다음 형식으로 변화된다. 주거지는 현산천권역과 삼산천권에서 확인되고 있다. 주거지 내부에 점토부뚜막이 채용되면서 자비용기가 급속도로 다양해지면서 발전하는 시기이다.

V단계는 경질토기에 광구소호, 유공광구소호 등 새로운 기종이 등장하게 된다. 주거지 수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신금, 분토주거와 군곡리 타원형주거지에서는 외부지역과의 교역을 통해서 유입된 가야계토기가 확인된다(도 10).

마지막 단계는 취락자료는 조사된 예는 없지만 용일리 용운고분 시굴조사에서 확인된 7.5m 크기의 대형주거지 흔적이 주목된다. 이 주거지 규모는 영산강유역의 5세기 중반 이후 대형주거지의 등장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 일대가 산성과 대형고분군 등이 밀집된 북일면 일원으로 해상 경제

력이 우월한 집단이 거주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특정 시기에 왜계 고분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단기성 거점취락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도 10 해남지역 대외교류 관련 토기

40 한옥민, 2018, 「타날문토기 등장과정에 대한 재해석」, 『호남고고학보』58집, 호남고고학회.



표 3 해남지역 마한취락의 단계설정

	편년	유구(주거)	특징	분묘
I 단계	BC 3C 전후	군곡리(폐각층 보다 선행하는 구의 존재(환호))	환호취락(?), 점질토 퇴적, 원형점토대, 두형토기 단계	분토지석묘(석관), 군곡리 주변 지석묘
II 단계	BC 2C-AD 1C	군곡리 원형주거지, 주변 小 취락 밀집 가능성	점토대, 경질무문, 원형계주거지, 무시설, 경질무문시루·발·대각편	지석묘?
III 단계	AD 2세기-3C 전반	군곡리 패총, 주변 취락 존재	경질무문, 타날문토기 등장	분토 토광묘
IV 단계	AD 3세기 중반-4세기 중반	신금, 분토, 석호리, 남리, 군곡리(4차) 용운?	경질토기, 점토부뚜막(다양한 형태), 주거간 차별성, 화제폐기, 왜래계 문물	제형분, 옹관묘 (분토, 안호리·석호리, 부길리, 신금)
V 단계	AD 4세기 후엽-5세기 중반	신금, 분토, 일평지성지 방형주거, 군곡리 타원형 주거	화제폐기, 취락주거지 쇠락, 새로운 기종 등장, 왜래계토기	제형분, 옹관묘, 외도고분
VI 단계	AD 5세기 중반-6C 이후	용운?(7m이상 대형주거)	취락 미확인(지상화)	분형, 묘제 다양화 (만의총, 조산, 장고봉, 용두리, 용일리)

## IV. 해남지역 마한 취락의 변화

해남지역의 마한 취락자료는 기원전 3세기 이전부터 시작해서 기원후 5세기 이후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다. 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마한취락의 단계별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배경을 알아보려고 한다.

### 1. 취락의 등장(환호취락의 존재)

해남지역에서 마한 취락 중 가장 먼저 출현하는 것은 I 단계 군곡리 패총에 선행하는 환호 유구이다. 패총의 최하층보다 선행하는 유구 존재를 검토한 결과, 유적의 능선 끝자락을 따라 남서방향으로 구가 확인된다. 구는 현 길이 약 11m, 너비 3~5m, 단면 ‘U’자 또는 완만한 ‘V’자형을 하고 있다. 내부 퇴적토는 점토이며 패각은 상부에만 최소로 혼입되어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감안하여 기원전 3세기를 전후하여 구릉 끝자락을 따라 환호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청동기 후기에서 초기철기시대 환호는 서울·경기지역은 의례와 관련된 환구로, 남해안의 사천, 진주, 울산 등지는 소수의 주거지가 설치된 환호취락이<sup>41</sup> 있어 백포만 일대에

41 배덕환, 2013, 「청동기-원삼국시대 환호취락의 전개양상」, 『한일취락연구』, 한일취락연구회.

도 이와 유사한 환호취락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묘제는 군곡리 주변 반경 5km 이내에는 11개소의 지석묘군이 존재한다. 분토리에서는 석관묘가 조사되었고 내부에서 석검이 출토되었다. 영산강유역에서 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지석묘는 김진영 분류 2형식<sup>42</sup> 지석묘에서 확인된다. 유적은 광주 매월동 동산 가군 5호, 보성 송곡리 1호, 나주 월양리 4호, 영암 엄길리 5호에서 원형점토대가 출토되며 그 시기를 기원전 3세기대로 보고 있다. 최근 함평 등에서 경형동기가 출토된 석관묘, 선행 주구 등이 확인되고 있어 서해안을 따라 백포만에 유입되는 새로운 묘제 등장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기』진시황본기에 기록된 서복의 불로초 구입을 위한 파견은 흥미롭다. 서복은 기원전 3세기경 중국 산둥지역을 출발하여 제주도와 남해안을 경유하여 왜까지 간다는 기사로 연안항로가 이 시기에 존재했음을 보여주며<sup>43</sup> 서복이 영산강유역의 서해도서 지역권이나 해남지역권을 경유하였을 가능성도<sup>44</sup> 제기되었다.

해남지역은 기원전 3세기대에 마한과 관련된 취락이 등장하며 그 형태는 백포만 일대의 환호취락일 것이다. 토기는 원형점토대 또는 삼각형점토대 문화단계로 토착적인 지석묘 묘제를 사용한 집단이다. 지리적으로는 백포만 일대가 중심이며 대외교류와 관련된 연안항로의 길잡이, 물자보급 등 해촌 성격의 취락형태일 것이다.

## 2. 취락의 성장(읍락으로 성장)

해남지역 마한계 취락이 등장한 이후 과정은 군곡리패총에서만 확인된다. 그 시기는 II·III 단계인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후 3세기 전반대까지이다. 해남의 다른 권역에서는 분묘, 주거 취락은 확인되지 않고 현산면의 분토리에서 2세기 중반대의 토광묘가 유일하다. 유물은 삼각형점토대토기, 경질무문토기, 타날문토기, 왜래계 유물 등이 출토되는 시기이고 경질무문토기가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고 있다. 군곡리패총의 원형주거지, 패각층, 유물수량, 왜래계

42 김진영, 2018, 『영산강유역 철기시대 문화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3 강봉룡, 2000, 「영산강유역 고대사회 성격론-그간의 논의를 중심으로-」,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새로운 조명』3, 전라남도.

44 김진영, 2018, 앞의 논문.

유물 등을 통해서 취락의 정도를 살펴볼 수 있다.

군곡리에서는 원형계주거지는 1기가 조사되었고 경질무문토기 발, 시루, 고배편에 삼각형점토대토기, 타날문토기가 소량 확인된다. 주거지의 시대 폭이 크고 삼각형은 퇴화형식, 발, 시루는 경질무문토기의 속성이 유지되고 새로운 제작기술이 도입되기 이전으로 기원전에서 기원후 1세대로 편년할 수 있다. 군곡리 패총의 퇴각층 두께를 보면 군곡리와 주변 백포만 일대에는 소규모 취락이 넓게 분포했을 개연성이 높다. 군곡리패총에 약 2만여 점이 넘는 유물 중 이 단계 유물이 가장 많은 것도 상당한 규모의 취락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백포만 하류의 유적분포도를 통해 취락의 규모를 단편이나마 예측할 수 있다. <도 11>을 보면 군곡리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에 패총, 지석묘, 유물산포지가 10여 개소에 이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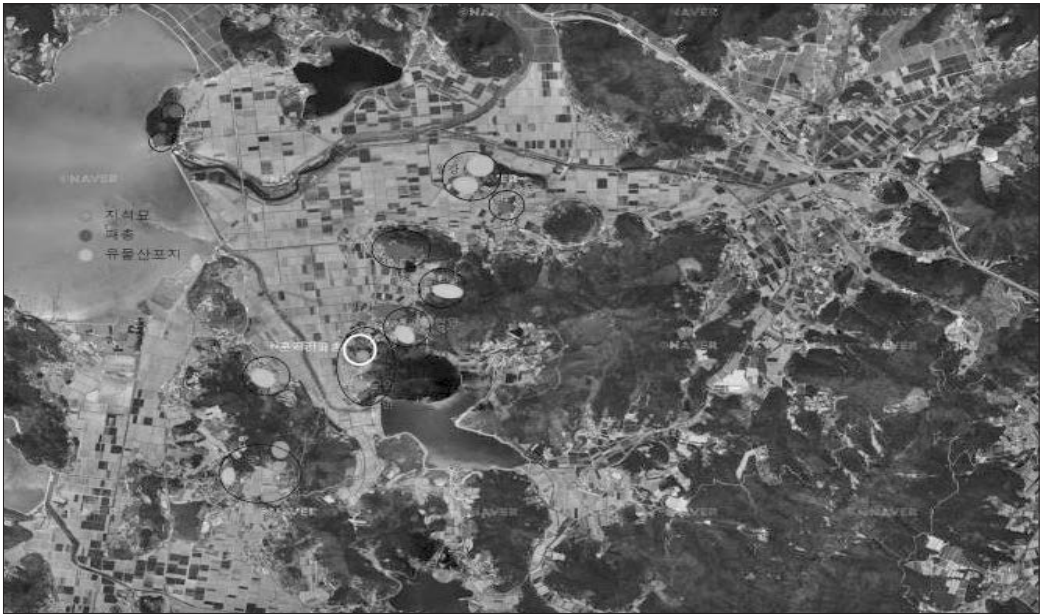
유물산포지는 월강, 현안, 방처, 화내, 영평마을에 분포하는데 모두 경질무문토기가 수습되었다. 이중 군곡리패총 북쪽의 월강, 현안, 방처마을에는 넓은 유물산포지로 취락의 규모가 백포만 하류에서는 가장 큰 것으로 생각된다. 패총은 방처, 신정, 월강, 두모, 군곡마을에서 주변에는 유물산포지가 위치하고 있어 생활과 폐기물이 한 공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묘제는 지석묘가 패총, 유물산포지 주변에 분포하거나 내륙으로 들어간 산사면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을 하나의 주거 단위로 본다면 10여 개 이상의 주거 군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백포만 일원의 화산면의 부길리, 방축리, 백포만의 내륙인 백포리, 분토리, 읍호리까지 군곡리에서 약 6km 까지 확대한다면 주거군은 10개소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

현산천 권역의 백포만 하류에는 10개소 이상의 주거군이 밀집하고 각각의 주거군에는 패총, 묘제(지석묘)를 포함하고 있어 소국의 읍락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그 중심지는 백포만 하류의 군곡리 일대일 것이다.

이 시기 군곡리 출토품에는 대외교류와 관련된 유물<sup>45</sup>이 다수 확인된다. 중국의 점술문화의 영향을 받은 복골, 위세품 성격이 짙은 동남아시아의 소다유리게 초록색 투명관옥<sup>46</sup>, 중국 신(新)나라 화폐인 화천(貨泉), 제주도 토기, 김해 가야 지역의 유공토기, 왜와 관련이 있는 패천과 패제관옥 등 위신재로부터 생활용품까지 다양 다종한 교역품이 출토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교역품은 중국-한반도-왜를 잇는 해양무역망으로 이를 관리하고 통제하는 생

45 김진영, 2018, 앞의 논문.

46 이인숙, 1989, 「한국 고대 유리의 분석적 연구(Ⅰ)」, 『선사와 고대』34, 한국대학박물관협회.



도 11 백포만 초입의 마한취락 분포 예상도

활터전, 지도자 등이 필요하다. 백포만 일원의 취락은 이러한 교역을 위한 전초기지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백포만 일대는 마한 소국의 읍락단계의 취락으로 성정하며 전 단계의 연안 교통의 안내자 역할에서 벗어나 해상교류의 거점기능을 가진 중간기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 3. 취락의 확대와 급격한 쇠락

백포만 일원에 자리 잡은 읍락 수준의 취락은 3세기 중반대를 기점으로 변화하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넓은 권역으로 취락이 확대되고 묘제의 통일성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 시기는 4세기 중·후반대까지이다(IV단계). 취락은 백포만 중심에서 북일면, 삼산천, 현산천 내륙으로 확대되고 생활토기들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취락권역 내에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토성, 제형분의 고분이 확인되는데 특정 권역에서 벗어나 중·대단위의 취락이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3세기 중반에 서·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출현하는 방형 사주식주거지는 백제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세력으로 구분하는 시점도 이 시기에 해당한다.

취락은 백포만의 내륙인 분토리에서 3세기 후반에서 4세기 후반까지의 방형계 취락으로 성장한다. 백포만 일원의 취락은 석호리의 4세기대 주거, 일평리성지의 4~5세기대 주거유적 등 하위취락 등이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분토유적은 백포만 일대의 해외교역의 거점으로 부각되면서 취락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백포만 하류에 있던 중심취락 세력이 이곳으로 바뀌게 된다. 대신 군곡리는 해상활동에 머무르지 않고 토기생산, 철기의 유통에도 관여하게 된다. 최근 재조사과정에서 확인된<sup>47</sup> 방형계 취락의 밀집도, 점토부뚜막, 토기가마, 수혈 등은 군곡리가 갖고 있던 이전의 위상은 크게 변화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주거지 연대가 4세기 중반대까지 국한된다는 점에서 이후에는 분토유적으로 이동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군곡리에서 전혀 이질적인 타원형계 주거지가 등장하는 것도 이런 변화된 모습의 하나일 것이다. 삼산천의 신금취락은 3세기 중반에서 5세기 초반대까지의 거점취락으로 철기 유통을 기반으로 삼산천의 거점취락으로 성장하게 된다. 철기유통은 신금유적의 남쪽에 있는 신금고분, 원진리 농암 옹관묘에서 출토된 철소재인 철정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철기유물은 주거지의 축조 과정에서 주거지 벽면에 철기를 매납하는 의례행위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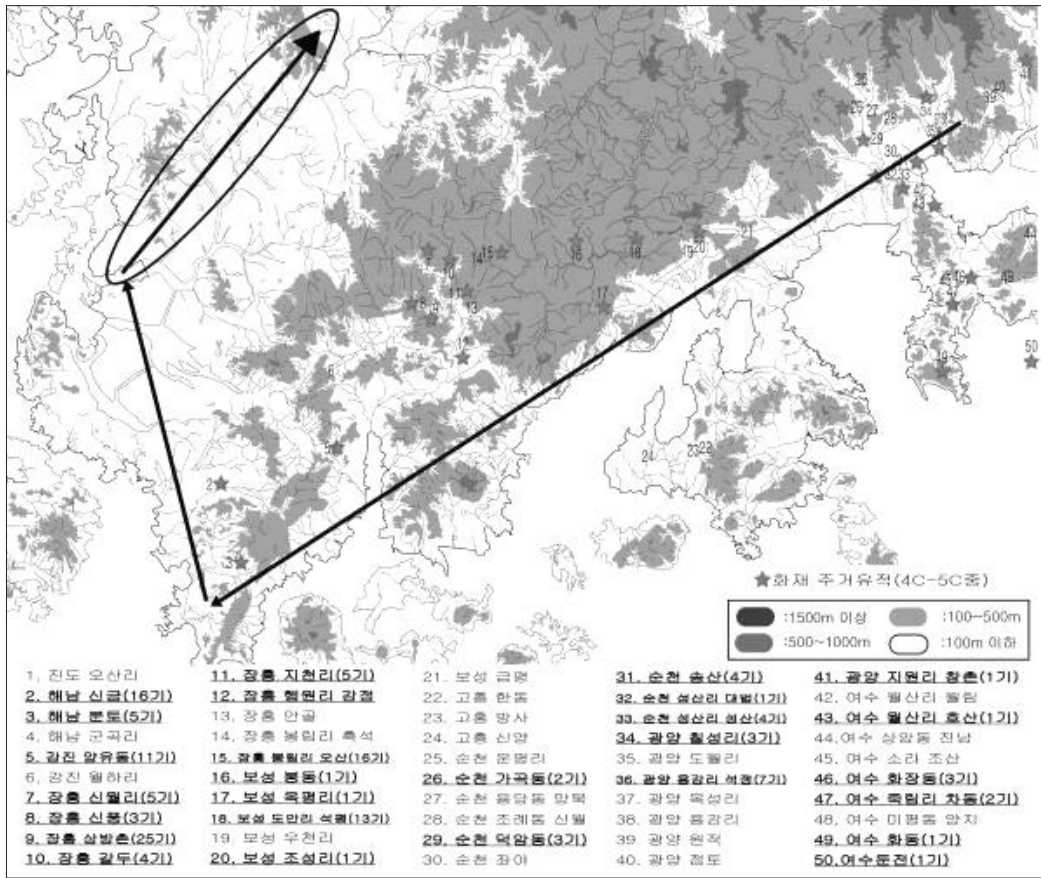
마한의 전통묘제로 알려진 제형분은 황산리 분토유적에 집중되었지만 최근 옥천천의 덕정리유적, 삼산천의 안동리유적, 백포만 북안의 내해인 안호리·석호리유적 등에서 새롭게 확인되고 있다. 특히 백포만의 내해 입구에 안호리·석호리유적에서는 다수의 고분이 확인되었다. 고분은 단독묘를 제외하고 모두 제형분이고 바닷가에는 고분과 동시기의 주거지도 존재하고 있다.

해남지역의 3세기 중반에서 4세기 중반 또는 후반까지 권역별로 거점취락이 확대되고 다수의 제형분이 군집하고 전통적인 묘제를 축조하면서 정치적인 통합체를 구축하게 된다. 이러한 취락의 성장배경에는 백포만을 중심으로 한 해상교역의 직접적인 참여와 철 소재의 유통을 통한 경제력의 성장에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고학적인 자료는 문헌기록에 언급된 마한 소국의 하나를 해남지역의 백포만 일대로 비정할 수 있는 근거가 아닐까 생각된다.

해상교역의 관문이자 마한 신미제국의 주체로 성장했던 해남지역은 4세기 중반에 급격한 취락의 쇠락을 맞이한다(V단계). 신금, 분토유적에서 4세기 후반대의 취락이 없거나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는 양상이 이 단계이다. 이와 관련해서 강진 양유동유적, 장흥 봉림리유적의 연구사례가 주목된다. 강진 양유동은 도암만에 유입되는 도암천의 상류에 해당하는데 서

47 목포대학교박물관, 2017, 『2017 해남 군곡리패총 발굴조사 약보고서』.





도 12 4세기 후반 화재주거지 및 369년 공략 예상경로(이영철 2015)

쪽의 옥천천으로 연결되는 곳으로 해남으로 들어오는 지정학적인 교통의 요충지에 해당한다. 취락은 4세기 중엽 이후에 화재소실로 일시에 폐기되는데 그 원인에 대해 백제 근초고왕 때의 군사활동 중에 발생한 도륙사건<sup>48</sup>의 근거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장흥 봉림리유적도 4세기 초에 등장했다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다. 이 취락은 일상생활을 하기에는 불편한 입지조건이지만 방어에는 효율적인 곳으로 폐기원인을 사회갈등 즉, 근초고왕의 침미다례 도륙사건으로 추정하고 있다<sup>49</sup>. 이처럼 4세기대의 집단 화재로 소실된 유적은 남해

48 정 일·최미숙, 2013, 「강진 양유동취락의 특징과 고대사적 의미」, 『호남고고학보』45, 호남고고학회.

49 이정호, 2013, 「고분으로 본 전남지역 마한제국의 사회 성격-3세기 후반~5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전남지역 마한 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 2013년 백제학회 국제학술회의, 백제학회.



안 지역, 영산강유역, 서해안, 전북 순창, 임실 김제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도 12). 이 지역의 집단소실은 근초고왕의 정복 이후 회군하는 경로와 일치하는 것으로<sup>50</sup>, 『일본서기』49년조 기사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기사와 관련하여 해남지역에도 4세 후반에 취락이 일시적으로 쇠락하거나 사라진 이유로 볼 수 있다. 현재까지 발견된 제형분이 4세기 중반대까지만 확인되다 이후에는 다른 형태의 분형으로 변화된 것도 같은 시점의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V. 맺음말

해남지역 마한 시기의 취락자료는 조사 예는 많지 않지만 문헌기록에 언급된 역사적 사건들에 의해 그 중요성이 끊임없이 부각되고 있다.

마한 취락은 기원전 3세기를 전후해서 군곡리패총보다 선행하는 환호취락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연한 해안의 길잡이와 내외 무역활동을 통해서 등장하게 된다. 이러한 환호 취락 이후에는 마한소국 단계의 읍락이 백포만 일대에 자리하게 된다. 이러한 배경에는 다양한 무역활동의 범위를 중국, 왜로 확대하면서 급성장하게 된다. 이러한 무역을 통해서 위신재, 일상 생활용품까지 유입되는데 중간기항기적인 성격을 가지는데 그 중심에는 군곡리패총이 있는 백포만 일원이 있다.

이러한 읍락의 발전은 새로운 주거문화 유입 및 정착, 마한 묘제의 통일성을 유지하면서 넓은 권역으로 확대하게 된다. 취락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백포만 일원은 4세기 중반대를 기점으로 백포만의 내륙인 분토리 일대로 이동하게 된다.

그러나 해남지역의 마한취락은 백제의 군사적 확장으로 큰 변화를 맞이하는데 4세기 중 후반대에 집중되는 화재주거지가 근거 중 하나일 것이다. 이러한 변화에 취락이 급격하게 쇠락하고 묘제도 제형분의 전통성에서 벗어나 이질적인 묘제들이 새롭게 채용되는 변화를 갖게 된다. 5세기 이후 취락은 현재까지는 파악되지 않지만 묘제 양상으로 보면 재지계의 재기

---

50 이영철 2015, 앞의 논문

의 노력이 끊임없이 진행되었을 것이고 특정 시기에는 이해관계가 다른 정치세력이 상당 기간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취락 형태가 존재하였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귀형, 2013, 『담양 태목리취락의 변천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강봉룡, 2000, 「영산강유역 고대사회 성격론-그간의 논의를 중심으로-」,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새로운 조명』3, 전라남도.
- 강봉룡, 2017, 「문헌으로 보는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의 흥망성쇠」, 『전남지역 고대문화의 양상과 교류』,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 권오영, 2017, 「마한제국의 출현과 동북아정세」, 『영산강유역 마한제국과 낙랑·대방·왜』,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 김낙중, 2015, 「3~6세기 해남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 『호남고고학보51집』, 호남고고학회.
- 김미연, 2007, 『3~6세기 해남지역 고고학적 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승옥, 2013, 「취락으로 본 전남지역 마한 사회의 구조와 성격」, 『전남지역 마한 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 2013년 백제학회 국제학술회의, 백제학회.
- 김영심, 2013, 「문헌으로 본 침미다례의 위치」, 『백제학보』9, 백제학회.
- 김진영, 2015, 「해남 군곡리패총 편년검토」, 『전남 문화재』15집, 전남문화재연구소.
- 김진영, 2018, 『영산강유역 철기시대 문화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문안식, 2015, 「서남해지역 마한사회의 발전과 연맹체 형성-해남지역 백포만 일대를 중심으로-」, 『동국사학』58, 동국역사문화연구소.
- 배덕환, 2013, 「청동기-원삼국시대 환호취락의 전개양상」, 『한일취락연구』, 한일취락연구회.
- 이동희, 2002, 「호남지방 점토대토기문화기의 묘제와 지역성」, 『고문화』60권,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이동희, 2017, 「영산강유역 마한 초현기의 분묘와 정치체의 형성」, 『영산강유역 마한제국과 낙랑·대방·왜』,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 이인숙, 1989, 「한국 고대 유리의 분석적 연구(Ⅰ)」, 『선사와 고대』34,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이영철, 2015, 『영산강유역 고대 취락연구』, 목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철, 2016, 「담양 태목리·응용리 태암유적의 성격과 가치」, 『담양 태목리·응용리 태암유적 국가사적 지정추진 국제학술세미나』, 담양군·(재)대한문화재연구원.
- 이영철, 2017, 「마한 고지의 신자료 성격과 의미」, 『영산강유역 마한제국과 낙랑·대방·왜』,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 이정호, 2013, 「고분으로 본 전남지역 마한제국의 사회 성격-3세기 후반~5세기 전반을 중심으로」, 『전남지역 마한 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 2013년 백제학회 국제학술회의, 백제학회.
- 이정호, 2013, 「만의총고분과 고대사회의 동향」, 『해남 옥천 만의총고분 국제학술대회』,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 임영진, 1995, 「마한의 형성과 변천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한국고대사연구』10, 한국고대사학회.
- 임영진, 2013, 「전남지역 마한제국의 사회 성격과 백제」, 『전남지역 마한 제국의 사회성격과 백제』, 2013년 백제학회 국제학술회의, 백제학회.
- 장지현, 2015, 「호남지역 점토대토기문화의 전개양상과 특징-생활유적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1집, 호남고고학회.
- 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대한문화재연구원, 2017, 『2017 학술대회 영산강유역 마한제국과 낙랑·대방·왜』.
- 정 일, 2006, 「전남지역 사주식주거지의 구조적인 변천 및 전개과정」, 『한국상고사학보』54, 한국상고사학회.
- 정 일·최미숙, 2013, 「강진 양유동취락의 특징과 고대사적 의미」, 『호남고고학보』45, 호남고고학회.
- 정 일, 2016, 「군곡리 원형계 주거지 성격」, 『해남 군곡리 패총의 재조명』, 해남 군곡리패총 발굴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목포대학교박물관.
- 최성락, 2000, 「마한론의 실체와 문제점」, 『박물관연보』9, 목포대학교박물관.
- 최성락, 2016, 「해남 군곡리 패총의 발굴성과와 의의」, 『해남 군곡리 패총의 재조명』, 해남 군곡리패총 발굴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목포대학교박물관.
- 한옥민, 2018, 「타날문토기 등장과정에 대한 재해석」, 『호남고고학보』58집, 호남고고학회.
- 국립광주박물관, 2004, 『해남 용일리 용운고분』.
- 목포대학교박물관, 1987·1988·1989, 『해남 군곡리패총 I·II·III』.
- 목포대학교박물관, 2002, 『문화유적분포지도-전남 해남군-』.
- 목포대학교박물관, 2017, 『2017 해남 군곡리패총 발굴조사 약보고서』.
- (재)대한문화재연구원, 2018, 『화순 삼천리 골재채취사업 구간 내 문화유적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 (재)대한문화재연구원, 2017, 『해남 화산-평호 도로건설구간 내 문화유적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 (재)영해문화유산연구원, 2012, 『곡성 대평리유적』.
- (재)전남문화재연구원, 2008·2009, 『해남 황산리 분토유적 I·II』.
- (재)전라남도 문화관광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2016, 『해남 일평리성지(죽금성)문화재 학술조사(시굴조사)』약식보고서.
- (재)한국문화재재단, 2016.10, 『함평 상곡리 114-4번지 유적』, 소규모 국비지원 발굴조사 약식보고서.
-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해남 신금유적』.
- (재)호남문화재연구원, 2017, 『나주 장성리·은사·산제리유적』.
- (재)한강문화재연구원, 2018.02, 『보성-임성리 철도건설구간 내(4·5·6공구)유적 발굴(시굴)조사 4차 약식보고서』.

# 古墳時代の朝鮮半島西南部と倭の交渉における海南地域

高田 貫太(日本国立歴史民俗博物館 准教授)

## I. はじめに

1. 海村のネットワークの展開 — 3世紀後半~4世紀前半
2. 朝鮮半島西・南海岸地域の「倭系古墳」と海南地域 — 4世紀後半~5世紀前半
3. 栄山江流域の前方後円墳と海南地域 — 5世紀後葉~6世紀前半

## II. おわりに

## I. はじめに

日本列島の九州南部から東北中部に展開した古墳時代の社会(≒倭)は、朝鮮半島のさまざまな社会との交渉を積み重ねる中で、須恵器、馬匹、金工、土木など先進技術に関わる情報、人、モノを獲得し、それを変容させながら定着させていった。そればかりではなく、カマドや甑など生活様式に直接関わる文化も受容した。特にその動きが活発だった5世紀は、「技術革新の世紀」と呼ばれることがある。

そして、朝鮮半島西南部(≒馬韓)もまた、倭が活発に交渉した地域であり、近年、その交渉の実態をしめす考古資料が多く確認されている。その中で海南地域は、地勢的にみただけでも、朝鮮半島の西・南海岸をつた交渉ルートの結節点にあたることは明らかであり、実際に倭とのつながりをしめす考古資料が充実している地域のひとつである(図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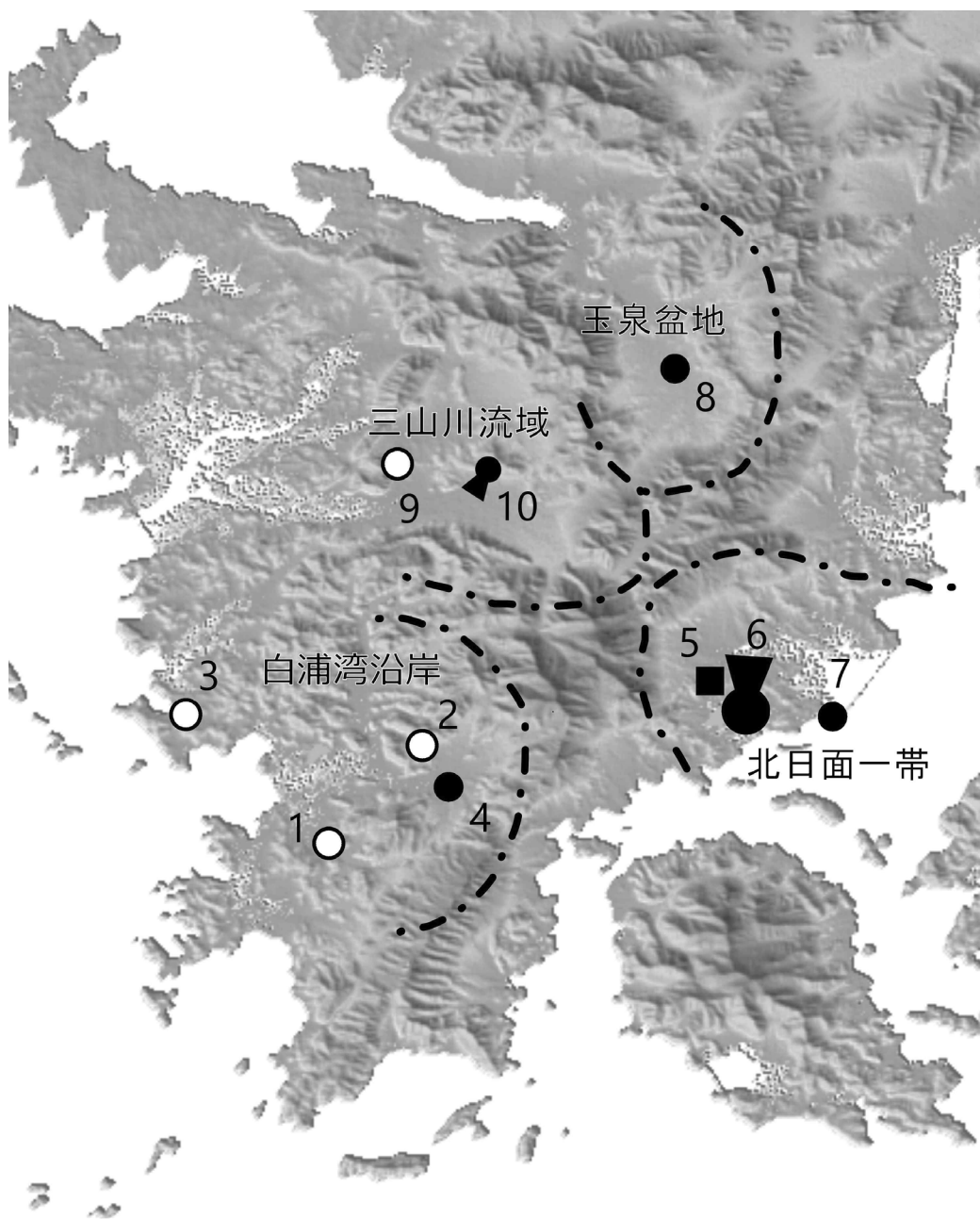
そこで、本発表では日本列島の古墳時代前期から後期前半にあたる時期、おおむね3世紀後半から6世紀前半頃を大きく、3世紀後半～4世紀前半、4世紀後半～5世紀前半、5世紀後葉～6世紀前半と区分して、各期の倭と海南地域の交渉の実態について迫ってみたいと思う。対象とする資料は、海南地域出土の倭系資料を中心としつつ、必要に応じて日本列島の半島西南部系の資料も取り上げることとしたい。

### 1. 海村のネットワークの展開 — 3世紀後半～4世紀前半

九州北部の交易拠点—西新町遺跡(図 2) おおむね弥生時代後半期には、倭と三韓の政治経済的な交渉は本格化しており、古墳時代を迎えた3世紀後半になると、九州北部の玄界灘沿岸に大規模な交易拠点が整備される。沿岸の砂丘域に形成された、著名な福岡市西新町遺跡である。

西新町遺跡における集落の形成は、弥生時代後半期には認められる。遺跡では穂積具の石包丁はあまり確認されず、石錘や釣針などの漁撈具が出土する。また、朝鮮半島との交易によってもたらされた板状鉄斧やガラストンボ玉なども確認されている。





1: 郡谷里貝塚 2: 黄山里分吐遺跡 3: 安湖里・石湖里遺跡 4: 月松里造山古墳 5: 新月里古墳  
6: 長鼓峯古墳 7: 外島1・2号墳 8: 萬義塚1・3号墳 9: 新今遺跡 10: 龍頭里古墳

図1 海南地域の地域区分と主要集落遺跡・古墳

集落を営んだ集団は、漁撈を生業のひとつとしながら、海を媒介とした交易に従事していたと考えられる。武末純一はこのような集落を「海村」として定義している(武末 2009)。

この西新町の「海村」が3世紀後半に大規模化する。居住域に約500棟もの竪穴住居が濃密に分布し、その竪穴住居の多くにカマドが備わり、そして多数の朝鮮半島系土器が出土している。また、畿内、山陰、瀬戸内など、西日本各地に系譜をもつ土師器も出土し、大型の板状鉄斧、ガラス小玉の鋳型、鉛板片など、先進技術にかかわる遺物も確認された。その臨海性の高い地勢をふくめて考えると、まさに国際的な交易拠点として発展をとげたと評価できる(久住 2007・重藤 2012など)。

カマド付竪穴住居や朝鮮半島系土器の存在は、朝鮮半島から多数の人びとが渡来してきたことを示す。カマド付竪穴住居の平面形が方形であること、カマドの取り付け位置が住居の隅や一辺の中央のことが多いことは、朝鮮半島西南部との共通性を示している(重藤 2012、李暎澈 2016)。そして朝鮮半島系土器の系譜をみると、全羅道、慶尚南道西部、そして洛東江下流域などに区別することができ、半島南部の各地から人びとが渡来し、その中に少なからずの半島西南部の人びとがふくま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図 2)。

実際に、重藤輝行は西新町遺跡と並行する時期の全羅南道の集落遺跡として、海南新今遺跡を取り上げ、特に新今Ⅰ、Ⅱ段階(3世紀中後半)との器種構成や、二重口縁平底壺・タタキ文壺・甗などの形態に、類似性が認められることを指摘している(重藤 2012)。傾聴すべき見解であり、海南地域から人びとが渡来した可能性も想起される。

海南地域の「海村」その可能性を高めるかのように、海南地域においても、西新町遺跡と並行する時期に該当する「海村」のような集落遺跡(群)が確認されている。ひとつが、著名な海南郡谷里貝塚と海南横山里分吐遺跡である。鄭一は、木浦大学博物館によって調査された楕円形住居(図 3)の時期を4世紀末~5世紀初頭と判断し、郡谷里の集落はその時期まで存続していたとみる。そして、おおむね3世紀後半以後の地域集団の交流主体は、中心的な集落である分吐遺跡を営む集団であり、郡谷里は船着場のある集落として機能していたとみる(정일 2016)。その地勢的な位置や、郡谷里Ⅴ期層出土の鉄製釣針や楕円形住居出土の石錘などの漁撈具などを積極的に評価すれば、「海村」としての性格を想定できそう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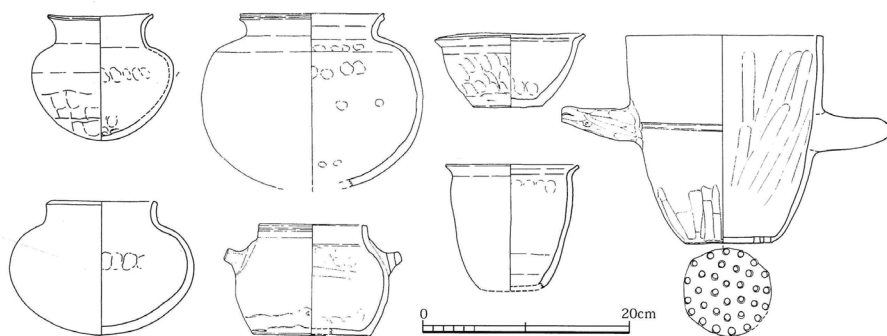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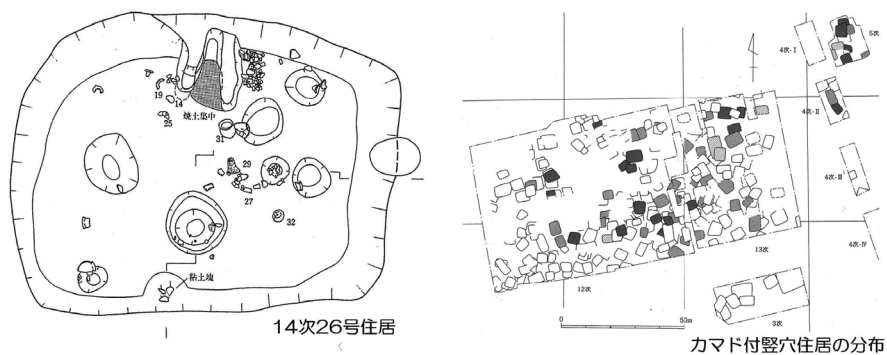


図2 西新町遺跡のカマド付竪穴住居と朝鮮半島系土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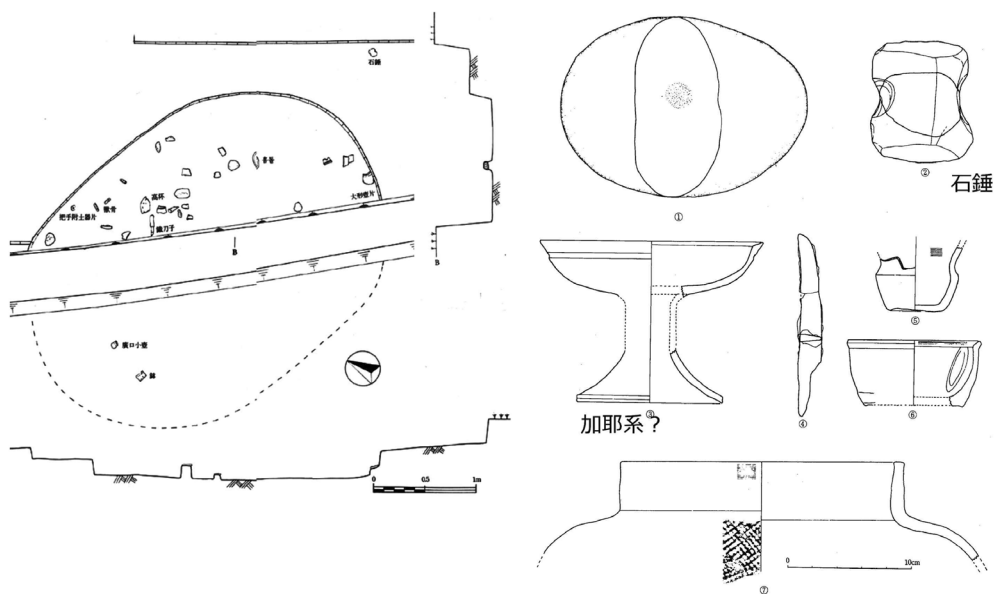


図3 郡谷里貝塚の楕円形住居址と出土遺物

もうひとつが近年、大韓文化財研究院によって発掘調査された海南安湖里・石湖里遺跡である。この遺跡は白浦湾と小さな内湾に面した地勢にあり、存続時期は3世紀後半～4世紀中頃とされる。低丘陵上には甕棺や木棺を埋葬施設とする古墳群が広がり(安湖里)、谷間の平地で竪穴住居・竪穴・道路遺構(石湖里)が確認された(石湖里대지遺跡Ⅱ)。特に、道路遺構が内湾へと伸びることから、住居や竪穴とあわせて船着場を備えていた可能性が高い。調査者がすでに指摘するように、「海岸地域において船着き場を備えた海村」(익산지방국토관리청대한문화재연구원 2017 67頁)としての性格が考えられよう。

海村のネットワーク 筆者は、「海村」についての武末純一の指摘を参考としつつ、この時期の日朝関係は、北部九州—壱岐—対馬—金海・釜山という基幹的な交渉ルートと、半島の西・南海岸や西日本の沿岸域に点在する「海村」をつなぐ網の目状の地域ネットワークが両輪となって機能していたと指摘したことがある(高田 2017)。

海南地域の人びとも、半島東南部や倭へと続く「海村」のネットワークを活用しながら、半島西南部系の土器が出土する、釜山・金海地域、九州北部(西新町遺跡)や山陰地域(島根県山持遺跡や古志本郷遺跡)などを往来しながら、交易活動を行っていた可能性は高い。その具体的な往来ルートについては、南海岸—金海—北部九州というルートを軸としながらも、南海岸沿いのある地点から直接九州北部へと向かうルートも想定できそうである。今後は、3、4世紀の海南地域において、倭人が当地に赴いたことをしめす考古資料(例えば土師器系土器など)や、交易拠点としての評価が可能な遺跡の確認が期待される。

## 2. 朝鮮半島西・南海岸地域の「倭系古墳」と海南地域 — 4世紀後半～5世紀前半

王権間の外交の進展 4世紀後半になると、交易拠点として機能していた西新町遺跡は衰退する。その一方で朝鮮半島から九州北部を経由せずに瀬戸内や畿内地域へと向かう航路上に位置する沖ノ島において、祭祀が大規模化する。その背景には、倭王権が金官加耶と直接的に外交を重ねるようになることや、百濟の正式な通交関係を樹立する動きが想定できる(菱田 2013、高田 2017など)。





往来する倭と馬韓の人びと そのような王権間の外交も遠因となり、倭と半島西南部とのつながりはさらに広がりをもせるようになる。例えば、咸平昭明遺跡17号住居、光陽龍江里石停遺跡(図 4)などの臨海性の高い集落において、土師器系土器が確認されており、渡海して西南部へと赴く倭人の痕跡が確認できる。

逆に、倭(の人びと)との交渉を重ねる半島西南部の人びとの姿も把握可能である。例えば、巨済鵝洲洞集落遺跡(1485・1580番地)では、搬入品を多く含むおおむね九州北部に系譜を迫える土師器系高坏、西南部(全羅道~慶尚南道西部)系統の甑や長胴甕が多数確認された(図 5)。それらは竪穴住居において共伴して出土することから、九州北部を中心とした倭系の集団と馬韓系の集団が、おおむね4世紀後半に「雑居」していた可能性が高い。

寺井誠は「(南海岸ルート)の中継地であり、交易の拠点としての役割を果たした遺跡」として評価し、「馬韓と倭が別の勢力(金官国: 筆者註)を挟まずに接点を持つために」重要な役割を果たしたと想定している(寺井 2014 388頁)。

趙晟元も、政治的変動に直接結びつけることに慎重を期しつつ、「金官加耶と近畿の大和勢力の交易関係とは別途に、南海岸勢力と九州勢力の新たな交易ルートが創出され」た可能性を指摘する(趙晟元 2017 120頁)。寺井と趙の見解には、巨済鵝洲洞集落遺跡を、政治勢力に管理された交易拠点とみるか、交易の必要上から営まれた「短期間の臨時の滞在用」の集落とみるかにおいて、違いがある。

ともあれ、鵝洲洞集落遺跡の竪穴住居の大多数は、平面が方形もしくは長方形である。そして西南部地域に特徴的な隅からのびる排水溝も確認できることから、集落を営んだ集団が、半島西南部(慶尚南道西部も含む)系統の集団であった可能性は高い。その目的のひとつには倭との交易があり、それに呼応して倭の人びとも鵝洲洞集落に赴き、両者が「雑居」するような状況が生じたものと考えられる。倭と半島西南部(≒馬韓)の人びとが南海岸を往来しながら各地で交渉を重ねた状況をしめす遺跡と評価できる。

「倭系古墳」出現の背景 このように、半島西・南海岸の各地には、4世紀後半~5世紀前葉頃の土師器系土器や半島西南部系の土器が共伴して出土する遺跡が確認される。おそらく、基軸となる釜山・金海(金官加耶)—九州北部・畿内(倭)ルートとともに、臨海性の高い集落(≒海村)を結ぶ地域ネットワークが活発に機能していたことがうかがえる。

すなわち、当時の交渉は多様で錯綜した(日常的な)交渉活動が基層にあって、それを活用する形で倭、百済、栄山江流域、金官加耶の間で、王権間の政治経済的な外交が



行われていたのであろう。このような状況が、近年確認が相次ぐ西・南海岸域に点在する倭系古墳の出現につながったものと考えられる(図 4 右上)。

海南地域の倭系古墳とその性格―外島1・2号墳(図 7) 5世紀前半の海南地域において確認された倭系古墳は、海南外島1・2号墳(国立光州博物館・海南郡 2001)である。南海や北日面一帯を一望できる小島(外島)に立地する。1号墳は直径23m、2号墳は12m程の円墳と想定されており、埋葬施設はいずれも箱式石棺である。1号墳では三角板革綴短甲や長頸鏃の破片が出土した。

箱式石棺は栄山江流域では定着しない埋葬施設であり、九州北部の箱式石棺との関連性が認められる。また、1号墳で三角板革綴短甲と長頸鏃がセットで副葬品として納められた可能性が高く、その型式からおそらく倭からの移入品と考えられる。したがって、倭(九州北部)の墓制にのっとって造営された倭系古墳と判断でき、その築造時期は、おおむね日本列島の須恵器編年のTK216型式期、5世紀第2四半期頃と考えられる。

筆者は、高興野幕古墳・雁洞古墳、外島1・2号墳、新安배널리3号墳など、TK73~216型式期(おおむね5世紀前半)に西・南海岸地域に築かれた倭系古墳について次のように評価したことがある(高田 2018)。

- ① 被葬者像として倭の対百済、栄山江流域の交渉を実質的に担った倭系渡来人を想定できる。百済系装身具やサルポを出土した雁洞古墳の存在から、倭と百済(そして栄山江流域)を取り結ぶような複属性を備えた人物と考える。
- ② 倭系古墳を造営する倭系渡来人集団が南海岸地域を円滑に航行するうえで、西・南海岸の諸地域との関わりが非常に重要であった。すなわち、複雑な海上地理と潮流を熟知する在地の集団の仲介(航路沿いの港口を「寄港地」として活用することや航行の案内など)が不可欠であった。
- ③ 倭系渡来人集団が航行上の要衝地に一定期間滞在し、在地の集団と「雑居」していた可能性は高く、その中で倭系古墳が築かれた。

海南北日面一帯の地域集団(図 6) 実際に、外島1・号墳が位置する海南北日面一帯において、外島1・2号墳を造営した倭系渡来人集団と関わりを有した地域集団の存在が想定できる。この想定の根拠となるのは、海南新月里古墳(木浦大学校博物館・海南郡 2010 図 6)である。新月里古墳は短辺14m×長辺20m程の規模を有する在地系の方台形墳である。埋葬施設は外島1・2号墳と同様の箱式石棺であり、壁石と天井石に赤色顔料を塗布

している。また墳丘には葺石を有している。その副葬土器は栄山江流域に通有な土器群と判断されるが、鉄製品に鐔付鉄銚が含まれている点に注目できる。

鐔付鉄銚は主に洛東江以東地域を中心に分布するが、鐔が袋部の上部や中間に取り付けられる古相の資料については、漢城百済圏にも分布する(高田 2002)。新月里古墳の鐔付鉄銚は袋部の中間に鐔を取り付けた古相の資料であり、漢城百済圏との関係の中で、移入もしくは現地で製作された可能性が高い。新月里古墳の造営時期については今一つ判然としないが、出土土器や鐔付鉄銚、そして外島1・2号墳と同様な箱式石棺を埋葬施設とする点から判断すれば、外島1・2号墳と同時期かそれほど遅くはない時期であった可能性が高い。

葺石や箱式石棺(朱を塗布する慣習を含めて)に認められる倭系要素、鐔付鉄銚から垣間見える漢城百済圏との関係を勘案すれば、その造営集団は海上交通を基盤とした地域集団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おそらくは倭系渡来人集団との交流の中で、在地の集団が葺石や箱式石棺など倭の墓制を受容しつつ、新月里古墳を造営したのではなかろうか。

海南の地域集団とネットワーク 現状では、海南地域における北日面一帯以外の小地域では、倭とのつながりを直接しめす考古資料は確認されていない。ただし、百済や栄山江流域との交渉にのぞむ倭系集団が活用した地域ネットワーク、あるいは交流を重ねたと予想される地域集団の存在は、想定できそうである。

例えば、海南横山里分吐遺跡(전남문화재연구원·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8・2009)では、周溝をめぐるして内部に甕棺や木棺(土壙)、石槨など複数の埋葬施設を設置する「多葬墳」が累々と営まれており、その造営集団の居住域も確認されている(図 8)。副葬品や住居出土遺物の中には、半島東南部地域(≡加耶)系統と想定し得る遺物も含まれる。また、先述した郡谷里貝塚の楕円形住居からも、加耶(阿羅加耶?)系統の高坏が出土している。そして海南新今遺跡(湖南文化財研究院・益山地方國土管理廳 2005)でも、衰退期にありつつも集落は存続しており、5世紀代と考えられる18号住居址から慶尚南道西部系統(?)の蓋が出土した。

以上の諸集落はいずれも臨海性が高く、加耶系を中心とした外来系統の遺物が出土している。このような状況を積極的に評価すれば、海上交通に秀でた有力な地域集団が各地に点在しており、それをつなぐようなネットワークの存在を想定し得る。この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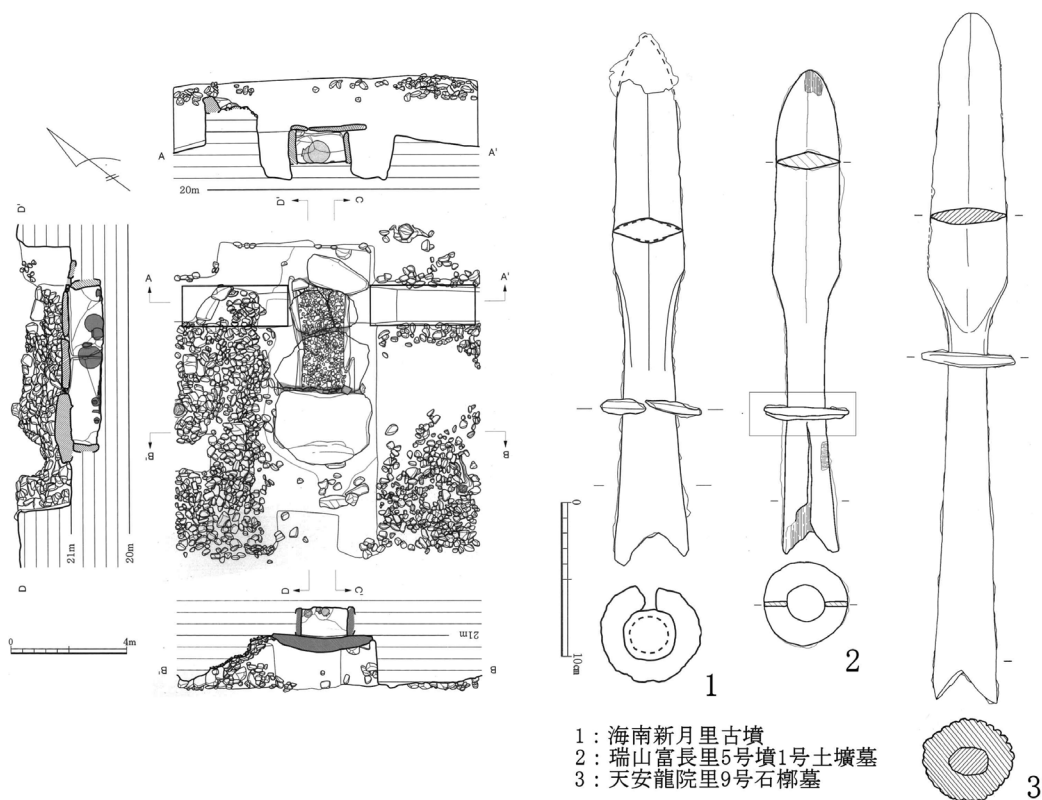


図6 新月里古墳の埋葬施設と鐔付鉄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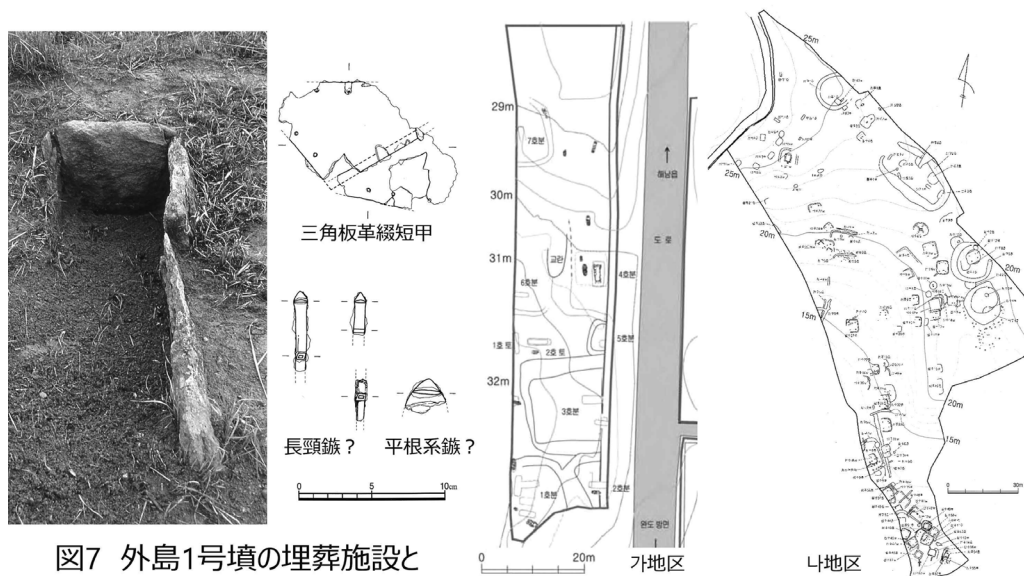


図7 外島1号墳の埋葬施設と副葬品

図8 横山里分吐遺跡

ような地域集団とも倭系集団は交渉を重ねたと予想されうるが、今後、倭との直接的な関係をしめす資料の確認を期待したい。

### 3. 栄山江流域の前方後円墳と海南地域 — 5世紀後葉～6世紀前半

#### 1) 栄山江流域の前方後円墳や倭系の円墳についての筆者の評価

海南地域の前方後円墳 前節まで述べてきたような倭と朝鮮半島西南部の不断の交渉の中で、5世紀後葉～6世紀前半に、栄山江流域に前方後円墳や倭系の円墳などが築かれるようになる。

前方後円墳や倭系の円墳の築造背景、被葬者像については、すでに多くの見解が提示されているが、未だ見解の一致をみていない。その要因としては、この問題が当時の栄山江流域社会の構造、百済や倭との関係の実態、そして「前方後円墳」に含意された政治経済的な意味あいなどを明らかにするうえで、根幹をなす課題であり、研究者それぞれの歴史観が鋭く問われるからであろう。

筆者の評価 筆者も先行研究に導かれながら、朝鮮半島西南部の前方後円墳を検討したことがあり、現状では次のように評価している。やや長文になるがまとめておきたい(高田 2017・2018)

- ① 5世紀後葉～6世紀前半の栄山江流域においては、首長層の墓制として、在地系の高塚古墳(方台形墳や円墳)と前方後円墳(と一部の倭系円墳)の両者が盛行していた。在地系の高塚古墳にも少なからず、倭や百済系の要素が確認できる。
- ② 両者の間には、墓制上の共通性と差異性が認められ、その造営のために必要な人・物・情報を得る基幹的な交通路を共有していた。両者を造営した集団の関係は「排他的・対立的」というよりも協調や対峙の関係をふくみこんだ微妙な「併存的」なものだった。
- ③ ①や②のような状況を重視すれば、その被葬者は百済や倭(そして加耶など)とつながりのあった地域集団の首長やそれに準ずる人物と考えられる。その中には百済や倭で生まれ、栄山江流域に定着し首長層へと成長を遂げたような人物も含まれていた可能性がある。

④ 造営の背景としては、百済の社会統合の動きへの対応策のひとつであった可能性が高い。倭や百済、加耶などの外部社会との接触を持ちえた栄山江流域の外縁域（高敞、咸平、光州、潭陽、靈岩、海南など）の地域集団の主体的な動きとして評価できる。

⑤ その一方で、倭の側の対外交渉の維持・展開という意図、百済の栄山江流域に対する統合志向が前方後円墳に反映されていることも確かである。そのような点において、ある特定の政治勢力の政治経済的な意図が強く反映されたというよりも、築造から葬送儀礼の一連の過程において、栄山江流域（の前方後円墳造営集団）を主体としつつも、倭や百済の思惑も内包された、多義的な墳墓として評価できる。

①～⑤は、あくまでも5世紀後葉～6世紀前半の栄山江流域社会を鳥瞰的に解釈したうえで得られた見解であり、それをより実証的なものとしていくためには、栄山江流域の諸地域における地域史的な検討が不可欠である。その意味で、海南地域は格好のケーススタディとなる。

## 2) 海南地域の前方向後円墳と倭系の円墳

海南地域においても、前方後円墳2基（海南長鼓峯古墳・海南龍頭里古墳）、倭系の円墳1基（海南月松里造山古墳）が確認されている。その特徴について整理する。

海南月松里造山古墳（国立光州博物館・百済文化開発研究院 1984）横穴式石室を埋葬施設とする直径20m弱の円墳である。横穴式石室は玄室四壁の最下段に大型の石材を用いる腰石の使用、玄門立柱・楣石・梱石による玄門部の構成、そして玄室平面形が長方形である点、中央羨道、そしてあまり発達しない羨道など、北部九州系の横穴式石室として評価できる（図 12）。

副葬品の中で倭系と判断できるものは、珠文鏡、ゴホウラ製腕輪（貝釧）、f字形鏡板付轡+剣菱形杏葉の馬具セットなどがある（図 9）。このうち、珠文鏡とゴホウラ製腕輪は移入品の可能性が高い一方で、馬具セットについては日本列島における型式変化と一致するものではなく、製作地の特定が難しい。その点で、他の馬具（鉄製輪鍔、小型鋳銅鈴）などの類例が、大加耶圏にも認められることには注意する必要がある（諫早 2016）。副葬土器については、基本的には在地系と判断できるが、一部に百済系と判断でき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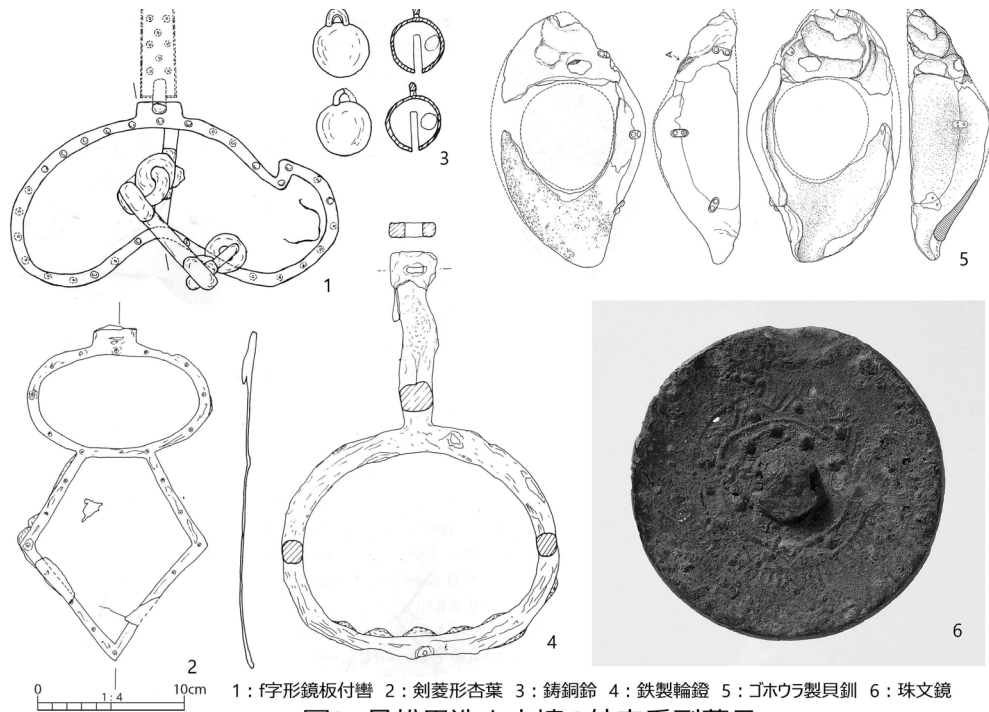


図9 月松里造山古墳の外来系副葬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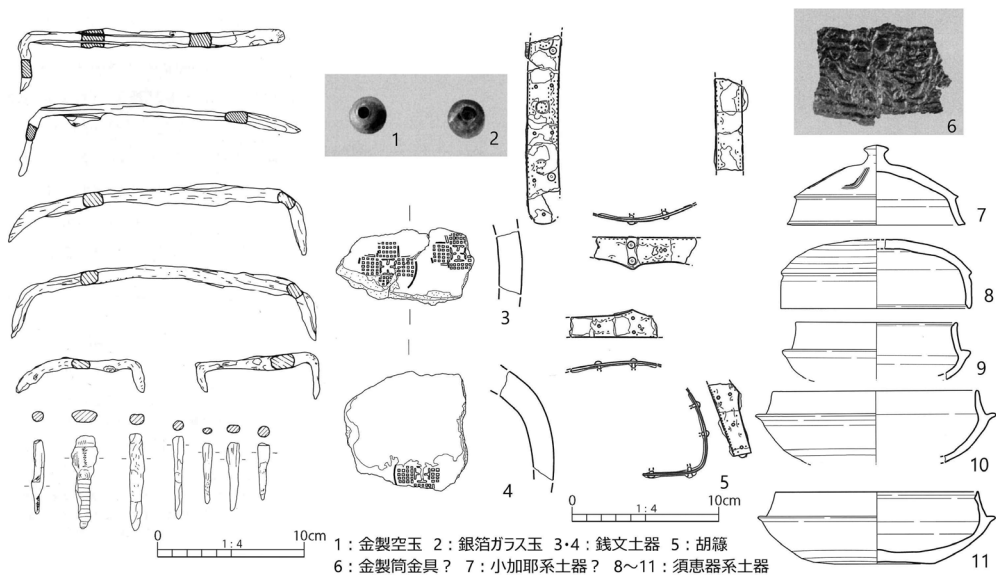


図10 造山古墳の鍔・釘

図11 龍頭里古墳出土の外来系遺物



うな器種もある(例えば平底短頸壺など)。

造山古墳では、おそらく木棺の緊結に用いられた金具として、釘と鋌が出土している(図 10)。釘付木棺はおそらく百済系と判断できる一方で、鉄棒を折り曲げて製作された鋌は百済圏では一般的ではなく、むしろ加耶地域との関わりを想起させる。

海南龍頭里古墳(國立光州博物館・海南郡 2011) 横穴式石室を埋葬施設とする墳丘長41.25mの前方後円墳である。墳丘には葺石が葺かれている。横穴式石室の構造は、すでに多くの指摘があるように、造山古墳と酷似した北部九州系である(柳沢 2006、金洛中 2012など 図 12)。

後世の盗掘によって副葬品の多くは破片として出土したが、それでもそれらの系譜は非常に多様である(図 11)。まず、副葬土器についてみると、在地系の土器を基本とするが、加耶系のつまみ付蓋や倭系の須恵器などが確認できる。錢文陶器片や金(銀)箔ガラス玉など各種の玉で構成される頸飾や金銀空玉などは、百済からの移入品と判断される。その一方で、胡籐金具は棘状突起を有する帯輪部が特徴的であり、現状では倭や大加耶圏との関わりを想定できる(土屋 2018)。

海南長鼓峯古墳(國立光州博物館・海南郡 2001) 横穴式石室を埋葬施設とする墳丘長76m程の前方後円墳である。横穴式石室はいわゆる「長鼓峯類型」とも評され、細長の玄室平面形と狭長な羨道が特徴的である。中北部九州地域には類例は存在せず、その系譜については、複数の地域からの影響を受けた複合的なものとして評価されている(柳沢2006など 図 13)。少なくとも、腰石の使用、玄門構成(立柱石+楣石)、そして石室壁への赤色顔料の塗布などは、中北部九州系の要素である。

古墳の多様な属性 以上のように、海南地域の前方後円墳や倭系の円墳の諸属性には、倭系の要素(前方後円という墳形、横穴式石室、葺石、副葬品)を中心としつつも、百済(装身具や釘付木棺)、あるいは加耶(大加耶?)(馬具や胡籐金具)との関連も考慮しなければならない要素も含まれる。

さらに、副葬土器の主体がおそらく栄山江流域で生産された土器であるように、地系の要素も多々認められる。例えば、腰高の墳丘で段築を持たない点や、龍頭里古墳で確認されたように一定の区画ごとに掘られる周溝は、栄山江流域の在地系の高塚古墳の特徴である。また、横穴式石室の玄室床面に長大な板石を敷く造作が造山、龍頭里、長鼓峯のいずれにも確認できる。このような造作は、例えば羅州佳興里新興古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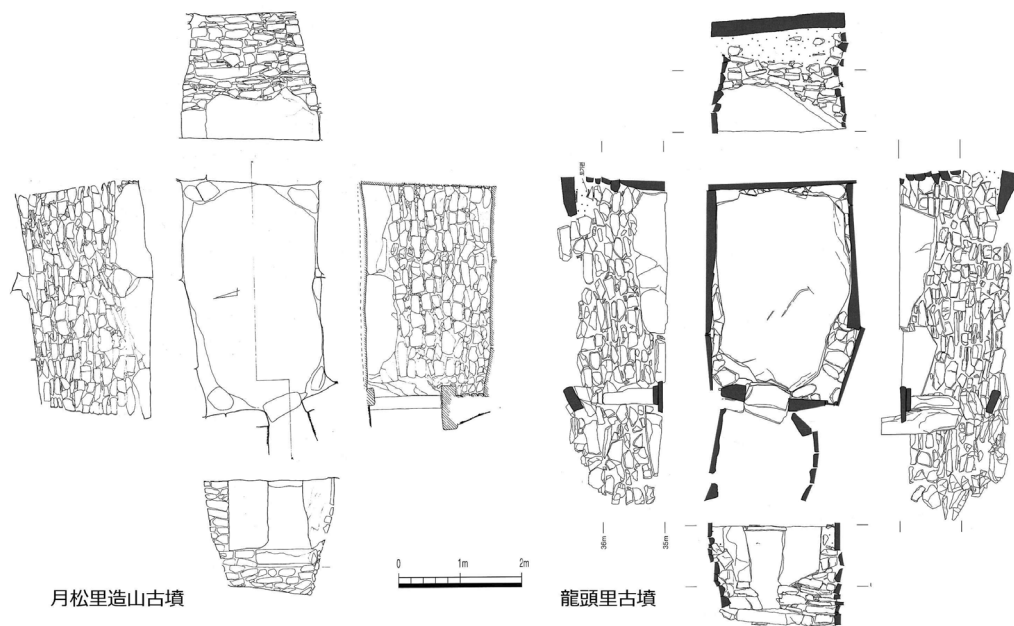


図12 月松里造山古墳と龍頭里古墳の横穴式石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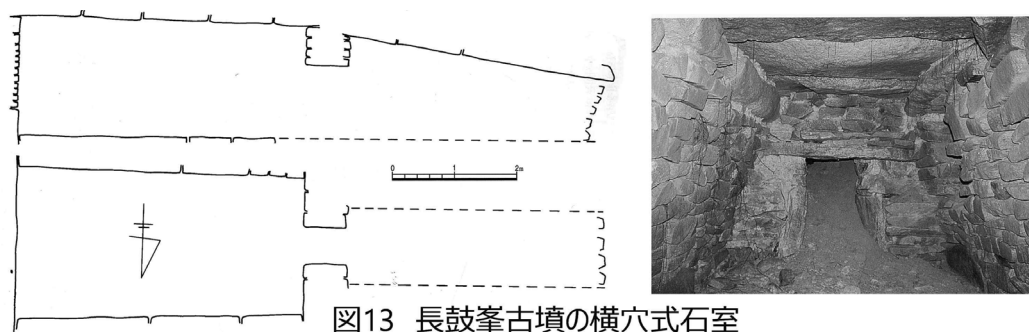


図13 長鼓峯古墳の横穴式石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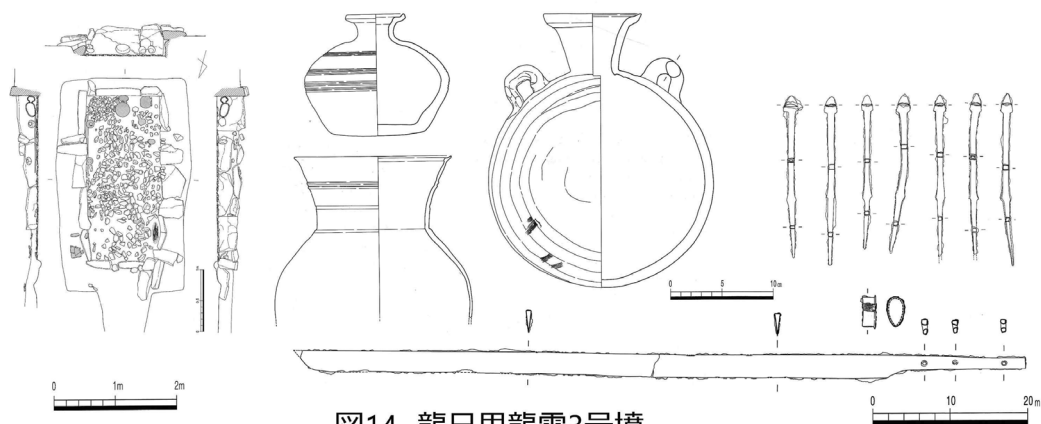


図14 龍日里龍雲3号墳

(大韓文化財研究院 2015)の竪穴系横口式石室にも認められ、栄山江流域の地域的な特色として判断できそうである。

### 3) 海南各地の地域集団の動向

地域集団の実態 このように、海南地域の前方後円墳にみられる多様な属性に考慮する時、その造営主体として重視すべきは、中北部九州を中心とした倭や百済中央、そして加耶などと盛んに交渉を重ねた(と予想される)海南地域に点在する地域集団であろう<sup>1</sup>。

海南西南部—白浦湾沿岸 例えば、月松里造山古墳から北北西に直線で1.6km程の距離にある海南分吐遺跡の2号溝状遺構は、鉢形器台片の型式からみて造山古墳にやや先行するか並行する時期の墳墓の周溝と考えられる(이정호 2014)。分吐遺跡では、おおむね3世紀から6世紀後葉という長期的にわたって、集落や墳墓が営まれている。泗泚期百済系の横穴式石室墳も造営している。造山古墳に並行する時期の集落や外来系資料の様相が判然としないので、両者の関連は今一つ判然としないけれども、その地理的な近接性を重視すれば、分吐遺跡の地域集団も造山古墳の造営に一程度関与していたのではなかろうか。

海南東部—北日面一帯(図 14) また、北日面一帯の海南東部では長鼓峯古墳に近接して、龍日里龍雲古墳群(國立光州博物館・海南郡 2004)が営まれている。3号墳は横穴式石室墳で、須恵器の提瓶、洛東江以東地域系の(台付?)長頸壺など外来系の土器や長頸鉢などが出土した。須恵器はおおむね陶邑編年のMT15型式期に該当し、6世紀前葉頃と判断できる。長鼓峯古墳とほぼ並行する時期と把握でき、葺石を有する円墳である2号墳<sup>2</sup>とともに、倭や新羅など外部の社会との接触を重ねる地域集団の存在がかいま見え

---

1 海南地域の小地域区分は、이정호 2014を参考とした。

2 龍雲2号墳の時期比定は非常に難しく、一般的には3号墳と近接した造営時期と判断される場合が多い。ただ、筆者は葺石を有する直径15m程の円墳であること、墳丘構築後にその中央に墓壙を掘り込み竪穴式石室を構築している点(墳丘先行型)、竪穴式石室が長2.91m×幅0.78~1mと狭小で板石積みみを基本としている点、墓壙と石室本体の間に裏込石を充てんしている点、土器片が石室内部から全く出土していない点、そして臨海性の高い立地などから、あるいは5世紀代(前中葉?)の倭系古墳の

る。

海南北部一玉泉盆地(図 15)そして、より明確に活発な対外交渉を重ねた地域集団の姿が浮かび上がるのが、玉泉盆地の玉泉古墳群(萬義塚1・3号墳)である(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4、國立光州博物館・海南郡 2009)。萬義塚1号墳は直径18m程の円墳で、埋葬施設は竪穴式石室である。石室の床面に板石を敷き、四壁は板石を立て並べて築いており、一見、箱式石棺や石棺系竪穴式石室を想起させる。しかし内部に組合式木棺を設置し、壁体と木棺の間に小ぶりの板石を充てんする点など、独特な構造をみせている。木棺の緊結に釘や鋊を用いていない点も特異であり、複合的な石室型式として判断できそうであ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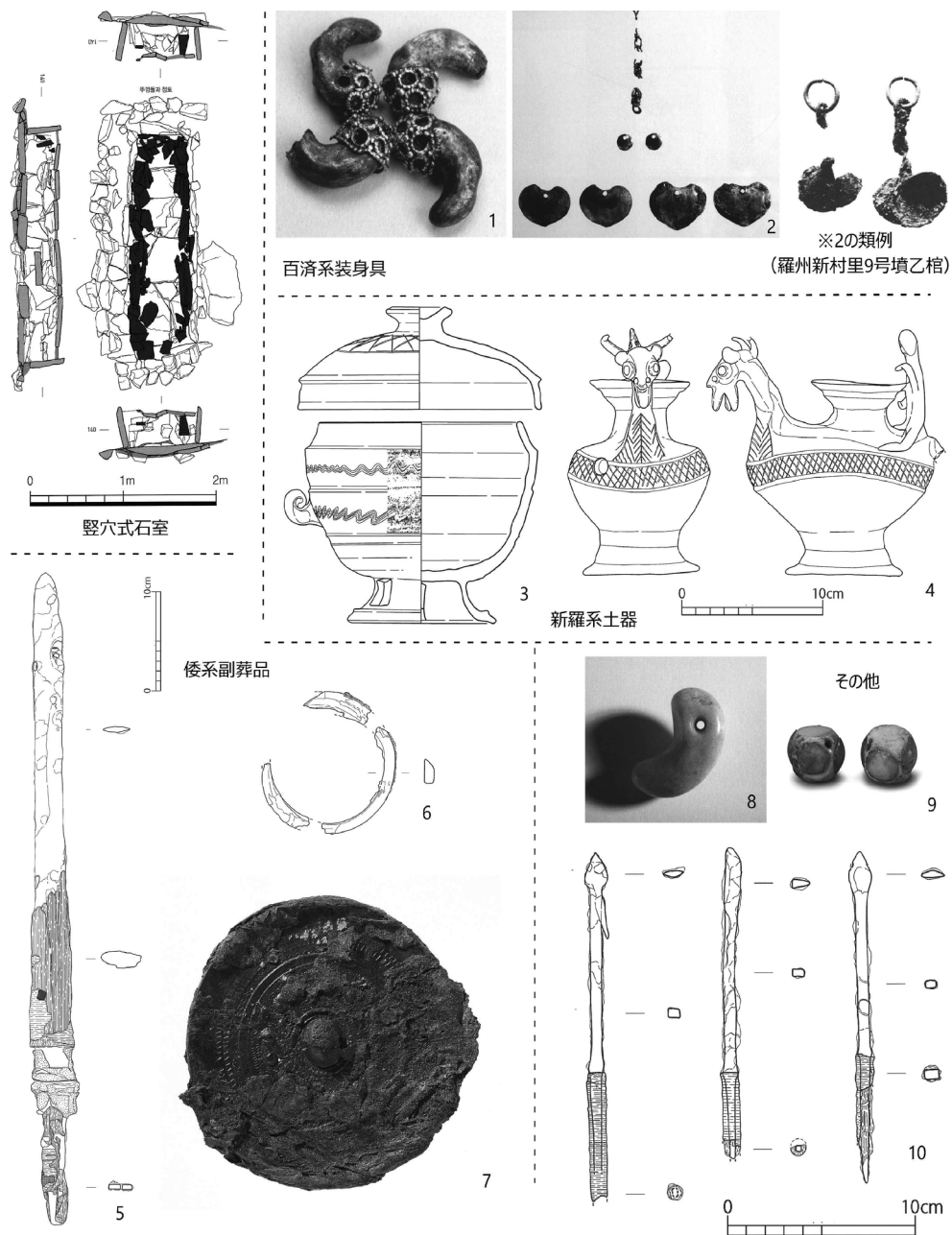
副葬品は多種多様である。羅州新徳9号墳や益山笠店里98-12号墳などに類例のある垂飾付耳飾をはじめ、金帽銀製勾玉・ガラス玉・銅釧などは百済系と判断できる(이한상 2014)。その一方で、被葬者の佩用品の可能性が高い木装剣やイモガイ?製釧などは倭系の可能性が高い。独立片逆刺長頸鏃なども榮山江流域ではほとんど確認できない型式であり、倭や大加耶圏とのつながりをうかがわせる。そして、土偶付象形土器や有蓋台付鉢などは新羅系土器と把握するのが妥当である。

このような独特な墓制の成立の背景に、玉泉古墳群の被葬者や造営集団が、倭、百済、新羅(そして大加耶?)など実に多様な政治勢力と交渉を重ねていた状況を想起することができよう。ちなみに萬義塚3号墳の埋葬施設である無袖の竪穴系横口式石室も、おそらく外来系の墓制であり、朝鮮半島中西部地域や洛東江以東地域に系譜を求めることができそうである。

龍頭里古墳が築かれた海南西北部(三山川流域)における地域集団の動向は、同時期の遺跡が調査されておらず、判然としないが、おそらく他の小地域と同様に、海を介した活発な対外活動を重ねる集団の存在は予想しえる。

---

可能性もあるのでは、と憶測している。ただし、その場合、墳丘出土の土器のうち、少なくとも平底瓶は古墳に伴わないものと考えなければならなくなる。憶測の可否については、未だ調査が行われていない1号墳の様相や6世紀の榮山江流域における竪穴式石室の構造を検討したうえで判断していく必要があろう。



1: 金帽付銀製勾玉 2: 垂飾付耳飾 3: 有蓋台付椀 4: 像形土器 5: 木装鉄剣 6: イモガイ製? 貝釧 7: 旋回式獸像鏡  
8: ヒスイ製勾玉 9: モザイクガラス玉 10: 長頸鏡

図15 萬義塚1号墳の埋葬施設と副葬品の系譜



## 4) 海南地域から見た前方後円墳と倭系円墳の造営背景

これまで整理してきたように、海南の諸地域集団(北日面一帯、白浦湾沿岸、三山川流域、玉泉盆地)が活発な対外的活動をくりひろげている中で、北日面一帯と三山川流域に前方後円墳(長鼓峯古墳、龍頭里古墳)、白浦湾沿岸に倭系の円墳(造山古墳)、そして玉泉盆地には非常に独特な墓制の萬義塚1号墳が築かれた。

白浦湾沿岸(造山)と三山川流域(龍頭里)の連携 これらの古墳の諸属性を比較すると、対外活動や造墓活動における地域集団相互の関係性、相互に連携する場合とやや距離を置く場合などを確認できる。例えば、白浦湾沿岸(造山)と三山川流域(龍頭里)の地域集団は密接に連携していた可能性が高い。それを示すのは、両古墳の横穴式石室の構造における共通性である。

龍頭里古墳と造山古墳の横穴式石室の構造は、腰石の使用、楣石や梱石、立柱石による玄門構成の他にも、次のような共通性をみせる(図 12)。

① 石室平面や立面のプラン、② 床面に巨大な板石を敷く造作、③ 板石(立柱石)を石室主軸と直交するように配して、その板石面によって前壁下半をほぼ構成する点、④ 羨道を玄室主軸よりもわずかに左右にずらして取り付けると、④ 奥壁と両側壁の取り付け方を観察すると、一方では目地が通り奥壁に側壁が取り付くのに対し、もう一方では奥壁と側壁の石材がそれぞれかみ合っている点。

このような石室構造の共通性を重視すれば、両古墳の石室が同一の技術伝統を有する集団によって構築された可能性がきわめて高い。すなわち、白浦湾沿岸と三山川流域の地域集団は、対外的な活動において相互に密接な連携をはかりながら、ある特定の北部九州からの倭系渡来人(集団)との交流を重ね、同じ型式の横穴式石室を造営したと考えられる。ただし、三山川流域では墳丘形態に前方後円形を採用したのに対し、白浦湾沿岸では円墳を造営した。

北日面一帯(長鼓峯古墳)と玉泉盆地(萬義塚1号墳)の独自性 その一方で、北日面に立地する長鼓峯古墳の横穴式石室は、上述の②や④の点で龍頭里古墳や造山古墳と類似する一方で、その長大な石室プラン、狭長な羨道、比較的小ぶりの板石を石室主軸と並行に配して立柱石とする造作などは大きく異なっている(図 13)。したがって、この石室型式は、北部九州のみならず複数の地域(社会)との交渉の中で創出された可能性が高い。そして墳丘形態に前方後円形を採用している。



そして、玉泉盆地の地域集団は、前方後円形の墳丘のみならず横穴式石室も採用せずに、複合的な竪穴式石室を埋葬施設とした円墳(萬義塚1号墳)を築いていた。そして百済、新羅、倭、さらには大加耶?に系譜を求め得る多種多様な副葬品を納めている(図15)。他の小地域と比較して相対的に倭の墓制の影響は少ないのが特徴的である。

高塚古墳の造営背景 以上のように、海南各地の高塚古墳を比較すると、北日面一帯、白浦湾沿岸、三山川流域、玉泉盆地の地域集団それぞれが、時には相互に連携し時にはやや距離を置きながら、主体的な対外活動をくりひろげ、その中で、新来の墓制を取捨選択することで高塚古墳を造営している状況を浮かび上がる。したがって、筆者は海南地域における高塚古墳の出現を次のように考えている。

5世紀後葉~6世紀前半は、百済による栄山江流域に対する社会統合の動きが本格化した時期である。また、日朝両地域において、さまざまな政治的な変動が起こった時期でもある(高田 2017)。そのような状況において、古くから海上交通に長けた海南各地の地域集団は、百済や倭を中心としつつ新羅、加耶などの諸勢力の力学関係の中で、政治経済的に連携する勢力(や集団)を模索した。その連携の中で、前方後円墳や倭系古墳、そして萬義塚1号墳のような高塚古墳を、倭、百済、新羅、そして加耶の(渡来)集団との交流を重ねながら、主体的に造営した。このような高塚古墳には、地域集団による対外的な政治経済的活動の表象という意義が、多分に内包されていたと判断する。

## II. おわりに

本発表では、日本列島の古墳時代前期から後期前半にあたる時期(おおむね3世紀後半から6世紀前半頃)に、倭と海南地域の間で基層的な交渉が継続的に積み重ねられていた状況を明らかにした。また、5世紀前半の倭系古墳の造営集団については、百済、栄山江流域と倭の交渉を担う倭系渡来人集団と考えた。5世紀後葉~6世紀前半の前方後円墳(そして倭系の円墳)の造営も、長期にわたる交渉の積み重ねが背景にあって可能となったもの

であり、その主体は活発な対外的な活動をくりひろげた海南各地の地域集団<sup>3</sup>であったと判断した。

日朝両地域に割拠する政治勢力の狭間の中で、主体的に對外活動をくりひろげた海南の地域社会の姿が、少しでも浮き彫りになっていれば、望外の幸せである。

## ::참고문헌

(紙幅の関係上、本文内容に直接かわる文献についてのみ挙げた。詳細は高田2018を参照)

### 日本語文献

- 諫早直人, 2016, 「韓・倭の馬具—栄山江流域出土馬具を中心に」, 『歴博国際シンポジウム 古代日韓交渉の実態 予稿集』, 国立歴史民俗博物館.
- 李暎澈2016, 「栄山江流域と日本の4~5世紀の日常土器・土師器・須恵器—土師器と軟質日常土器の情報交換段階—」, 『日韓4~5世紀の土器・鉄器生産と集落』, 「日韓交渉の考古学—古墳時代—」, 研究会.
- 久住猛雄, 2007, 「『博多湾貿易』の成立と解体」, 『考古学研究』53—4.
- 重藤輝行, 2012, 「九州に形成された馬韓・百濟人の集落—福岡県西新町遺跡を中心として—」, 中央文化財研究院編, 『마한·백제인들의일본열도이주와교류』, 서경문화사.
- 高田貫太, 2002, 「朝鮮半島南部地域の三国時代古墳副葬鉄銚についての予察」, 『古代武器研究』3, 古代武器研究会.
- 高田貫太, 2017, 『海の向こうから見た倭国』, 講談社現代新書.
- 高田貫太, 2018, 「5,6世紀朝鮮半島西南部における『倭系古墳』の造営背景」,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211.
- 土屋隆史, 2018, 『古墳時代の日朝交流と金工品』, 雄山閣.
- 寺井誠, 2014, 「馬韓と倭をつなぐ」, 『東アジア古文化論攷』1, 中国書店.
- 武末純一, 2009, 「三韓と倭の交流—海村の視点から」, 『国立歴史民俗博物館研究報告』151.
- 菱田哲郎, 2013, 「古墳時代の社会と豪族」, 『岩波講座日本歴史第1巻 原始・古代1』, 岩波書店.
- 福岡県教育委員会, 1985・2001~2003・2005・2006・2008・2009, 『西新町遺跡』I~IX.
- 柳沢一男, 2006, 「5~6世紀の韓半島西南部と九州」, 『加耶, 洛東江에서榮山江으로』, 김해시.

### 韓国語文献

- 거제시·우리문화재연구원, 2012, 『巨濟鵝洲洞 1485番地遺蹟』.
- 國立光州博物館·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4, 『羅州潘南面古墳群 綜合調查報告書』.
- 國立光州博物館·全羅南道·羅州郡, 1984, 『海南月松里造山古墳』.
- 國立光州博物館·海南郡, 2001, 『海南方山里長鼓峰古墳試掘調査報告書』.

- 國立光州博物館·海南郡, 2004, 『海南龍日里龍雲古墳』.
- 國立光州博物館·海南郡, 2009, 『海南萬義塚3號墳』.
- 國立光州博物館·海南郡, 2011, 『海南龍頭里古墳』.
- 국립나주박물관, 2013, 『국립나주박물관상설전시도록』.
- 金洛中, 2012, 「한반도남부와일본열도에서횡혈식석실묘의수용양상과배경」, 『韓國考古學報』85, 韓國考古學會.
- 大韓文化財研究院, 2015, 『羅州佳興里新興古墳』.
-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4, 『해남만의총1호분』.
- 木浦大學博物館·全羅南道·海南郡, 1987~1989, 『海南郡谷里貝塚』I~III.
- 목포대학교박물관·해남군, 2010, 『해남신월리고분』.
- 우리문화재연구원·협성건설, 2017, 『거제아주동공동주택부지내巨濟鵝洲洞 1540-1番地遺蹟』.
- 이정호, 2014, 「만의총고분과고대사회의동향」, 『해남만의총1호분』,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 이한상, 2014, 「海南萬義塚1號墳裝身具의검토」, 『해남만의총1호분』,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 전남문화재연구원·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8·2009, 『海南黃山里分吐遺蹟 I·II』.
- 정일, 2016, 「군곡리원형계주거지성격」, 『해남군곡리패총의재조명』해남군곡리패총발굴 30주년기념학술대회목표대학교박물관.
- 조성원, 2017, 「맷음말」, 『거제아주동공동주택부지내巨濟鵝洲洞 1540-1番地遺蹟』우리문화재연구원협성건설.
- 한국철도시설공단·대한문화재연구원, 2012, 『光陽龍江里石停遺蹟』.
- 湖南文化財研究院·益山地方國土管理廳, 2005, 『海南新今遺蹟』.

## 図 出典

- 図 1: 筆者作成
- 図 2: 福岡県教育委員会 2005·2009、重藤 2012
- 図 3: 木浦大學博物館·全羅南道·海南郡 1989、정일 2016
- 図 4: 한국철도시설공단·대한문화재연구원 2012、高田 2018
- 図 5: 거제시·우리문화재연구원 2012
- 図 6: 목포대학교박물관·해남군 2010、高田 2018
- 図 7: 國立光州博物館·海南郡 2001、埋葬施設の写真は筆者撮影
- 図 8: 전남문화재연구원·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8·2009
- 図 9·10: 國立光州博物館·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4、국립나주박물관 2013

図 11: 國立光州博物館・海南郡 2011

図 12: 國立光州博物館・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4、國立光州博物館・海南郡 2011 『海南龍頭里古墳』

図 13: 國立光州博物館・海南郡 2001

図 14: 國立光州博物館・海南郡 2004

図 15: 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4、國立光州博物館・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4





## 고분시대의 한반도 서남부와 왜의 교섭에서 해남지역

高田貫太(일본국립역사민속박물관 준교수)

### I. 머리말

1. 해촌(海村) 네트워크의 전개 -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2. 한반도 서·남해안지역의 왜계고분과 해남지역 - 4세기 후반~5세기 전반
3.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분과 해남지역 - 5세기 후엽~6세기 전반

### II. 맺음말

## I. 머리말

일본열도의 규슈 남부에서 토우호쿠 중부에 전개된 고분시대 사회(≒왜)는 한반도의 다양한 사회와 교섭을 거듭하는 가운데 스에키, 말, 금공, 토목 등 선진기술과 관련된 정보, 사람, 물건을 획득하고 그것을 변용시키면서 정착시켜 갔다. 이뿐만 아니라 부뚜막, 시루 등 생활양식에 직접 관련된 문화도 수용했다. 특히 그 움직임이 활발했던 5세기는 ‘기술혁신의 세기’로 불리기도 한다.

그리고 한반도 서남부(≒마한)도 왜가 활발하게 교섭한 지역으로 최근 그 교섭의 실태를 나타내는 고고자료가 많이 확인된다. 그 중에서 해남지역은 지세(地勢)만 보더라도 한반도 서·남해안을 따라 이동하는 교섭 루트의 결절점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한데 실제로 왜와 교섭을 나타내는 고고자료가 많은 지역 중 한 곳이다(도 1).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일본열도의 고분시대 전기부터 후기 전반에 해당하는 시기, 대략 3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반까지를 크게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4세기 후반~5세기 전반,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으로 구분하고 각기의 왜와 해남지역의 교섭 실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대상으로 하는 자료는 해남지역에서 출토된 왜계자료를 중심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본열도의 한반도 서남부계의 자료도 언급하도록 하겠다.

### 1. 해촌(海村) 네트워크의 전개 - 3세기 후반~4세기 전반

규슈북부의 교역거점 - 니시신마찌(西新町)유적(도 2) 대략 야요이시대 후반기에는 왜와 삼한의 정치경제적인 교섭은 본격화되며 고분시대인 3세기 후반이 되면 규슈북부의 현해탄 연안에 대규모의 교역 거점이 정비된다. 연안의 사구역(砂丘域)에 형성된 저명한 후쿠오카시 니시신마찌(西新町)유적이다.

니시신마찌유적에서 취락의 형성은 야요이시대 후반기에 확인된다. 유적에서는 돌칼은 그다지 확인되지 않고 석추와 낚싯바늘 등 어로구가 출토되었다. 또 한반도와 교섭을 통해 반입된 판상철부와 유리옥이 확인된다. 취락을 영위한 집단은 어로를 주된 생업으로 하면서 바다를 매개로 한 교역에 종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武末純一은 이러한 취락을 해촌(海村)으

로 정의한다(武末 2009).

이 니시신마찌의 ‘해촌’이 3세기 후반에 대규모화한다. 거주 지역에 약 500동의 수혈주거지가 농밀하게 분포하고 많은 수혈 주거지에 부뚜막이 설치되며 다수의 한반도계 토기가 출토된다. 또 키나이(畿内), 산인(山陰), 세토나이(瀬戸内) 등 서일본 각지에 계보를 지닌 토기류도 출토되며 대형의 판상철부, 유리소옥의 거푸집, 납판편 등 선진기술과 관련된 유물도 확인된다. 이처럼 임해성(臨海性)이 높은 지세를 포함하여 생각하면 국제적인 교역거점으로 발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久住 2007, 重藤 2012 등).

부뚜막이 설치된 수혈 주거지와 한반도계 토기의 존재는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건너 온 것을 나타낸다. 부뚜막이 설치된 수혈 주거지의 평면형이 방형인 것, 부뚜막을 주거지의 모퉁이 혹은 한 변의 중앙에 설치한 것이 많은 점은 한반도 서남부와 유사하다(重藤 2012, 李暎澈 2016). 그리고 한반도계 토기의 계보를 보면 전라도, 경상남도 서부, 그리고 낙동강 하류역으로 구분할 수 있어 한반도 남부의 각지에서 사람들이 도래하였으며 그 중에는 한반도 서남부의 사람들도 적지 않게 포함된 것으로 생각된다(도 2).

重藤輝行은 니시신마찌유적과 병행하는 시기의 전라도 취락유적으로 해남 신금유적에 주목하고, 특히 신금 I, II 단계(3세기 중후반)의 기종 구성과 이중구연평저호, 타날문호, 시루 등의 형태에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重藤 2012). 경청해야 할 견해로 해남지역에서 사람들이 도래하였을 가능성도 상정된다.

해남지역의 ‘해촌’ 그 가능성을 높이듯이 해남지역에서도 니시신마찌유적과 병행하는 시기에 해당하는 해촌과 같은 취락유적(군)이 확인된다. 그 중 하나가 저명한 해남 군곡리패총과 해남 횡산리 분토유적이다. 정일은 목포대학박물관에 의해 조사된 타원형 주거지(도 3)의 시기를 4세기 말~5세기 초두로 판단하고 군곡리 취락은 그 시기까지 존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대략 3세기 후반 이후의 지역집단의 교류 주체는 중심적인 취락인 분토유적을 영위한 집단이며 군곡리는 선착장이 있는 취락으로 기능한 것으로 보았다(정일 2016). 지세적인 위치와 군곡리 V기층 출토 철제닭싯바늘과 타원형 주거지 출토 석추 등의 어로구 등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면 ‘해촌’으로서 기능을 상정할 수 있을 것 같다.

또 하나가 최근 대한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된 해남 안호리·석호리유적이다. 이 유적은 백포만과 작은 내만에 면하는 지세에 있으며 존속 시기는 3세기 후반~4세기 중반경으로 비정된다. 저구릉상에는 옹관과 목관을 매장 시설로 하는 고분군이 있고(안호리), 곡간(谷間)의 평지에서 수혈 주거지, 수혈, 도로유구(석호리)가 확인되었다(석호리대지유적 II). 특히

도로유구가 후미진 만(內灣)까지 뻗어 있어 주거지, 수혈과 함께 선착장을 갖추었을 가능성이 높다. 조사자가 이미 지적한 것처럼 ‘해안지역에 선착장을 갖춘 해촌’(익산지방국토관리청 대 한문화재연구원 2017: 67)의 성격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해촌의 네트워크 필자는 ‘해촌’에 대해서 武末純一의 지적을 참고로 하면서 이 시기의 한 일관계는 북부규슈-이키-쓰시마-김해·부산이라는 기간적(基幹的)인 교섭 루트와 한반도의 서·남해안과 서일본의 해안에 점재하는 ‘해촌’을 연결하는 그물눈과 같은 상태의 지역네트워크가 양륜(兩輪)이 되어 기능한 것으로 지적한 적이 있다(高田 2017).

해남지역의 사람들도 한반도 동남부와 왜로 이어지는 ‘해촌’네트워크를 활용하면서 한반도 서남부계의 토기가 출토되는 부산·김해지역, 규슈북부(니시신마찌유적)와 산인지역(島根県山持유적과 古志本郷유적) 등을 왕래하면서 교역활동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인 왕래루트에 대해서는 남해안-김해-북부규슈라는 루트를 축으로 하면서도 남해안의 연안 지점에서 직접 규슈북부로 향하는 루트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는 3-4세기대 왜인이 해남지역으로 간 것을 나타내는 고고자료(예를 들어 하지키게토기 등)와 교역거점으로 평가할 수 있는 유적의 발견이 기대된다.

## 2. 한반도 서·남해안지역의 왜계고분과 해남지역 - 4세기 후반~5세기 전반

왕권간 외교의 진전 4세기 후반이 되면 교역거점으로 기능한 니시신마찌유적은 쇠퇴한다. 한편 한반도에서 북부규슈를 경유하지 않고 세토나이와 키나이지역으로 향하는 항로상에 위치하는 오키노시마(沖ノ島)에서 제사가 대규모화한다. 그 배경에는 왜왕권이 금관가야와 직접적으로 외교를 거듭하는 것과 백제가 공식적으로 통교관계를 수립하는 움직임이 상정할 수 있다(菱田 2013, 高田 2017 등).

왕래하는 왜와 마한의 사람들 그러한 왕권간 외교도 遠因이 되어 왜와 한반도 서남부의 관계는 더욱 확산된다. 예를 들어 함평 소명유적 17호 주거지, 광양 용강리 석정유적(도 4) 등 임해성이 높은 취락에서 하지키게토기가 확인되어 서남부로 건너 간 왜인의 흔적을 확인할 수 있다.

역으로 왜(의 사람들)와 교섭을 거듭하는 한반도 서남부의 사람들의 모습도 파악할 수 있

다. 예를 들어 거제 아주동 취락유적(1485·1580번지)에서는 반입품을 많이 포함하여 대체로 규슈북부에서 계보를 구할 수 있는 하지키게고배, 서남부(전라도~경상남도 서부)계통의 시루와 장동옹이 다수 확인된다(도 5). 이것들은 수혈주거지에서 공반되므로 규슈북부를 중심으로 하는 왜계의 집단과 마한계 집단이 대략 4세기 후반에 ‘잡거(雜居)’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寺井誠는 ‘(남해안루트의) 중계지이며 교역의 거점으로 역할을 한 유적’으로 평가하고 ‘마한과 왜가 다른 세력(금관국: 필자주)을 통하지 않고 점점을 가졌기 때문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상정한다(寺井 2014: 388).

조성원도 정치적 변동과 직접 결부시키는 것에 신중을 기하면서 ‘즉 금관가야와 近畿의 大和세력의 교역관계와는 별도로 새롭게 남해안 세력과 九州세력의 새로운 교역루트가 창출’되었을 가능성을 지적한다(조성원 2017: 120). 寺井와 조성원의 견해는 거제동 아주동 취락유적을 정치세력에 관리된 교역거점으로 보거나, 혹은 교역의 필요에 의해 영위된 ‘단기간의 임시적인 체류용’의 취락으로 보는데 차이가 있다.

어쨌든 아주동 취락유적의 수혈주거지의 대다수는 평면이 방형 혹은 장방형이다. 그리고 서남부지역에 특징적인 것으로 모퉁이에서 이어진 배수구도 확인되기 때문에 취락을 영위한 집단이 한반도 서남부(경상남도 서부도 포함)계통의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 목적 가운데 하나가 왜와 교역이며 이에 호응하여 왜인들도 아주동취락으로 향하여 양자가 ‘잡거’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와 한반도 서남부(≒마한)의 사람들이 남해안을 왕래하면서 각지에서 교섭을 거듭한 상황을 나타내는 유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왜계고분’출현의 배경 이처럼 한반도 서·남해안 각지에는 4세기 후반~5세기 전엽경의 하지키게 토기와 한반도 서남부계의 토기가 공반되는 유적이 확인된다. 아마 基軸이 된 김해·부산(금관가야) - 규슈북부·키나이(왜) 루트와 함께 임해성이 높은 취락(≒해촌)을 잇는 지역 네트워크가 활발히 기능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당시 교섭은 다양하고 착종된(일상적인) 교섭활동이 기층에 있고 그것을 활용하는 형태로 왜, 백제, 영산강유역, 금관가야 사이에서 왕권간의 정치경제적인 외교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최근 잇달아 확인되는 서·남해안 지역에 점재하는 왜계고분 출현의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도 4의 좌상).

해남지역의 왜계고분과 그 성격 - 외도 1·2호분(도 7) 5세기 전반의 해남에서 확인된 왜계고분은 해남 외도 1·2호분(국립광주박물관·해남군 2001)이다. 남해와 북일면 일대를 일망할 수 있는 小島(외도)에 입지한다. 1호분은 직경 23m, 2호분은 12m 정도의 원분으로 상정되며 매

장시설은 모두 상자식 석관이다. 1호분에서는 삼각판혁철단갑과 장경촉 파편이 출토되었다.

상자식 석관은 영산강유역에서는 정착하지 않은 매장시설로 규슈북부의 상자식 석관과 관련성이 인정된다. 또 1호분에서 삼각판혁철단갑과 장경촉이 세트로 부장품으로 매납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며 형식으로 보아 왜에서 반입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왜(북부규슈)의 묘제를 따라 조영된 왜계고분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축조시기는 대략 일본열도의 스에키 편년 TK216형식기, 5세기 2/4분기경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고흥 야막고분·안동고분, 외도1·2호분, 신안 배널리3호분 등 TK73-216형식기(대략 5세기 전반)에 서·남해안지역에 축조된 왜계고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한 적이 있다(高田 2018).

- ① 피장자는 왜의 대백제, 영산강유역의 교섭을 실질적으로 담당한 왜계도래인으로 상정할 수 있다. 백제계장신구와 살포가 출토된 안동고분의 존재로부터 왜와 백제(그리고 영산강유역)를 중재하는 듯한 여러 속성을 갖춘 인물로 생각한다.
- ② 왜계고분을 조영한 왜계도래인집단이 남해안지역을 원활하게 항해하는 가운데 서·남해안의 모든 지역과 관련성이 매우 중요하였다. 즉 복잡한 해상지리와 조류를 숙지한 재지 집단의 중개(항로에 면한 항구를 ‘기항지’로써 활용하는 것과 항해의 안내 등)가 불가결하였다.
- ③ 왜계도래인집단이 항행(航行)상 요충지에 일정 기간 동안 체류하고 재지 집단과 ‘잡거’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가운데 왜계고분이 축조되었다.

해남 북일면 일대의 지역집단(도 6) 실제로 외도1·2호분이 위치하는 해남 북일면 일대에 외도1·2호분을 조영한 왜계도래인집단과 관련성을 가진 지역 집단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이 상정의 근거는 해남 신월리고분(목포대학교박물관·해남군 2010)이다. 신월리고분은 단변 14m, 장변 20m 정도의 재지계 방대형분이다. 매장시설은 외도 1·2호분과 같은 상자식석관이고 벽석과 천정석에 적색안료를 도포하였다. 또 분구에는 좁석이 있다. 부장 토기는 영산강유역과 공통된 토기군으로 판단되며 철제품 가운데 반부철모가 포함된 점이 주목된다.

반부철모는 주로 낙동강이동지역에 분포하는데 鐔(검코, 날뿔)가 공부의 상부와 중간에 부착된 고식의 자료는 한성백제권에도 분포한다(高田 2002). 신월리고분의 반부철모는 공부 중간에 鐔를 부착한 고식의 자료로 한성백제권과 관계 속에서 이입 혹은 현지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신월리고분의 조영시기는 불분명하나 출토토기와 반부철모, 그리고 외도1·2호분과 같은 상자식석관을 매장시설로 하는 점으로 보건데 외도1·2호분과 동시기 혹은 그



것보다 약간 늦을 가능성이 크다.

즙석과 상자식석관(주를 도포하는 습관을 포함하여)으로 인정되는 왜계요소, 반부철모로 엿볼 수 있는 한성백제권과 관계를 감안하면 그 조영집단은 해상교통을 기반으로 한 지역집단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아마도 왜계도래인집단과 교류 가운데 재지집단이 즙석과 상자식석관 등 왜의 묘제를 수용하면서 신월리고분을 조영한 것이 아닐까.

해남지역집단과 네트워크 지금까지 해남지역의 북일면 일대 이외의 소지역에서는 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고고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만 백제와 영산강유역과 교섭에 임하는 왜계집단이 활용한 지역 네트워크, 혹은 교류를 거듭한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집단의 존재는 상정할 수 있을 듯하다.

예를 들어 해남 횡산리 분토유적(전남문화재연구원·익산지방국토관리청 2008·2009)에서는 주구를 둘러싸고 내부에 옹관과 목관(토광), 석곽 등 복수의 매장시설을 안치한 ‘多葬墳’이 축조되며 조영집단의 거주역도 확인된다(도 8). 부장품과 주거지 출토 유물 중에는 한반도 동남부지역(≒가야)계통으로 상정할 수 있는 유물도 포함되어 있다. 또 앞서 언급한 군곡리패총의 타원형 주거지에서도 가야(아라가야?)계통의 고배가 출토되었다. 그리고 해남 신금유적(湖南文化財研究院·益山地方國土管理廳 2005)에서도 쇄퇴기이나 취락이 존속하며 5세기대로 생각되는 18호 주거지에서 경상남도 서부계통(?)의 뚜껑이 출토되었다.

이상의 취락은 모두 임해성이 높고 가야계를 중심으로 한 외래계계통의 유물이 출토된다.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평가한다면 해상교통에 뛰어난 유력한 지역집단이 각지에 점재하고 그것을 연결하는 듯한 네트워크의 존재를 상정할 수 있다. 이러한 지역집단과도 왜계집단은 교섭을 거듭한 것으로 상정되나 앞으로 왜와 직접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자료의 확보를 기대한다.

### 3.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분과 해남지역 - 5세기 후엽~6세기 전반

#### 1)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분과 왜계 원분에 대한 필자의 평가

해남지역의 전방후원분 전절까지 언급한 왜와 한반도 서남부의 不斷한 교섭 가운데 5세기 후엽~6세기 전엽에 영산강유역에 전방후원분과 왜계 원분이 축조된다.

전방후원분과 왜계 원분의 축조배경, 피장자상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견해가 제시되어

있으나 아직 일치된 것은 아니다. 원인은 이 문제가 당시의 영산강유역사회의 구조, 백제와 왜 관계의 실태, 그리고 ‘전방후원분’이 함의된 정치경제적 의미 등을 명확히 하는 데 근간이 되는 과제이며 연구자마다 역사관이 첨예하게 문제시되기 때문일 것이다.

필자의 평가 필자도 선행연구를 참고하면서 한반도 서남부의 전방후원분을 검토한 적이 있는데 현재는 아래와 같이 평가한다. 약간 장문이나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高田 2017·2018).

- ① 5세기 후엽~6세기 전반 영산강유역에서는 수장층의 묘제로 재지계의 고총고분(방대형 분과 원분)과 전방후원분(과 일부 왜계 원분) 양자가 성행한다. 재지계의 고총고분임에도 왜와 백제계의 요소를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다.
- ② 양자 사이에는 묘제상 공통성과 차이성이 확인되며 조영을 위해 필요한 사람·물자·정보를 얻는 기간적(基幹的)인 교통로를 공유하였다. 양자를 조영한 집단의 관계는 ‘배타적·적대적’이라기보다 협조와 대치의 관계를 포함하여 미묘하게 ‘병존적’인 것이었다.
- ③ ①과 ②와 같은 상황을 중시하면 피장자는 백제와 왜 (그리고 가야)와 관계가 있는 지역 집단의 수장과 이에 준하는 인물로 볼 수 있다. 그 가운데에는 백제와 왜에서 태어나서 영산강유역에 정착하고 수장층으로 성장한 인물도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 ④ 조영 배경으로는 백제의 사회 통합 움직임에 대한 대응책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왜와 백제, 가야 등 외부사회와 접촉할 수 있는 영산강유역의 외연지역(고창, 함평, 광주, 담양, 영암, 해남 등)의 지역집단의 주체적인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다.
- ⑤ 한편 倭족의 대외교섭의 유지·전개라는 의도, 백제의 영산강유역에 대한 통합 지향이 전방후원분에 반영된 것도 분명하다. 이런 점에서 어느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경제적인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었다기보다 축조부터 장송의례까지 일련의 과정에서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분조영집단)을 주체로 하면서도 왜와 백제의 의도도 내포된 다의적인 분묘로 평가할 수 있다.

①~⑤은 어디까지나 5세기 후엽~6세기 전반의 영산강유역사회를 鳥瞰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견해이며 이를 보다 실증적으로 입증하기 위해서는 영산강유역 제집단의 지역사적인 검토가 불가결하다. 이런 의미에서 해남지역은 적절한 사례이다.

## 2) 해남지역의 전방후원분과 왜계 원분

해남지역에서도 전방후원분 2기(해남 장고봉고분, 해남 용두리고분), 왜계의 원분 1기(해남 월송리 조산고분)가 확인된다. 그 특징에 대해 정리한다.

해남 월송리 조산고분(國立光州博物館·百濟文化開發研究院 1984) 횡혈식석실을 매장시설로 하는 직경 20m가 약간 안 되는 원분이다. 횡혈식석실은 현실 네 벽의 최하단에 대형의 석재를 사용한 요석의 사용, 현문입주(玄門立柱)·미석(楣石)·곤석(梱石)에 의한 현문부 구성, 그리고 현실 평면형태가 장방형인 점, 중앙연도, 그리고 그다지 발달하지 않은 연도 등 북부규슈계의 횡혈식석실로 평가할 수 있다(도 12).

부장품 가운데 왜계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주문경(珠文鏡), 고호우라제팔찌(패천), f자형 정관부비 + 검릉형행염으로 구성된 마구 세트가 있다(도 9). 이 가운데 주문경과 고호우라제팔찌(패천)는 반입품일 가능성이 높은 한편 마구 세트는 일본열도에서 형식 변화와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제작지의 특징이 어렵다. 그러나 이외 마구(철제윤등, 소형의 주조제 방울)의 유례가 대가야권에서 확인되는 것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諫早 2016). 부장 토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재지계로 판단할 수 있으나 일부 백제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 기종도 있다(예를 들어 평저단경호 등).

조산고분에서는 아마도 목관의 결구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는 못과 꺾쇠가 출토되었다. 못을 사용한 목관은 아마 백제계로 판단할 수 있는 한편 철봉을 구부려 제작한 꺾쇠는 백제권에서 일반적이지 않아 가야지역과 관련성을 상기시킨다.

해남 용두리고분(國立光州博物館·海南郡 2011) 횡혈식석실을 매장시설로 하는 분구 길이 41.25m의 전방후원분이다. 분구에는 층석을 쌓았다. 횡혈식석실은 구조는 이미 많이 지적된 것처럼 조산고분과 유사한 북부규슈계이다(柳沢 2006, 金洛中 2012 등 도12).

후세의 도굴로 인해 부장품의 대부분은 파편으로 출토되었으나 그 계보는 매우 다양하다(도 11). 우선 부장 토기를 보면 재지계의 토기를 기본으로 하나 가야계의 손잡이가 붙은 뚜껑, 왜계의 스에키 등이 확인된다. 錢文토기 편과 금(은)박 유리옥 등 각종의 옥으로 구성된 경식과 금은공옥(金銀空玉) 등은 백제로부터 이입품으로 판단된다. 한편 성시구는 극상(棘狀) 돌기가 있는 대륜부가 특징적이며 왜 및 대가야권과 관련을 상정할 수 있다(土屋 2018).

해남 장고봉고분(國立光州博物館·海南郡 2001) 횡혈식석실을 매장시설로 하는 분구 길이 76m정도의 전방후원분이다. 횡혈식석실은 소위 ‘장고봉유형’으로도 불리는 세장한 현실평면형태와 좁고 긴 연도가 특징적이다. 중북부 규슈에 유례가 존재하지 않아 그 계보에 대해서는 복수의 지역에서 영향을 받은 복합적인 것으로 평가된다(柳沢2007 등, 도 13). 적어도 요석의 사용, 현문구조(입주석(立柱石) + 미석(楣石)), 그리고 석실벽 등 적색안료의 도포 등은 중북부 규슈계의 요소이다.

고분의 다양한 속성 이상과 같이 해남지역의 전방후원분과 왜계 원형분의 속성에는 왜계 요소(전방후원이라는 분형, 횡혈식석실, 층석, 부장품)를 중심으로 하면서 백제(장신구와 못을 사용한 목관), 혹은 가야(대가야?) (마구와 호록금구)와 관련도 고려해야 하는 요소도 포함된다.

더욱이 부장 토기의 주체는 아마도 영산강유역에서 생산된 토기인 것처럼 재지계의 요소가 많이 확인된다. 또한 고대한 분구에서 단축을 가지지 않는 점과 용두리고분에서 확인되듯이 일정의 구획마다 팬 주구는 영산강유역의 재지계 고총고분의 특징이다. 또 횡혈식석실의 현문상면에 장대한 판석을 깎은 것은 조산, 용두리, 장고봉 모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조작(造作)은 예를 들어 신흥 가흥리고분(大韓文化財研究院 2015)의 수혈계 횡구식석실에도 확인되어 아마 영산강유역의 지역적인 특색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 3) 해남각지 지역집단의 동향

지역집단의 실태 이처럼 해남지역의 전방후원분에 보이는 다양한 속성을 고려할 때 그 조영 주체로 중시해야 하는 것은 중북부 규슈를 중심으로 한 왜와 백제 중앙, 그리고 가야 등과 빈번하게 교섭을 거듭한(것으로 예상되는) 해남지역에 점재하는 지역집단일 것이다<sup>1</sup>.

해남 서남부 - 백포만 연안 예를 들어 월송리 조산고분에서 북북서로 직선거리 1.6km 떨어진 해남 분토유적 2호 구상유구는 발형기대편의 형식으로 보아 조산고분보다 약간 선행하거나 병행하는 시기로 분묘의 주구로 생각된다(이정호 2014). 분토유적에서는 대략 3세기부터 6세기 후엽이라는 장기에 걸쳐 취락과 분묘가 조영된다. 사비기 백제계의 횡혈식석실분도 조영된다. 조산고분과 병행하는 시기의 취락과 외래계 자료의 양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양자의 관계가 불분명하나 지리적인 근접성을 중시하면 분토유적의 지역집단도 조산고분의 조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것이 아닐까.

해남 동부 - 북일면 일대(도 14) 또 북일면 일대의 해남동부에서는 장고봉고분에 근접하여 용일리 용운고분군(國立光州博物館·海南郡 2004)이 조영된다. 3호분은 횡혈식석실분에서 스에키 제병(提瓶), 낙동강 이동지역계의 (대부?)장경호 등 외래계의 토기와 장경축 등이 출토되었다. 스에키는 대략 스에무라 편년 MT15형식기에 해당하여 6세기 전엽경으로 판단할 수 있다. 장고봉고분과 거의 병행하는 시기로 파악할 수 있으며 층석을 가진 원분인 2호분<sup>2</sup>과

1 해남지역의 소지역구분은 이정호 (2014)를 참고로 하였다.

2 용운2호분의 시기 비정은 매우 어려워 일반적으로는 3호분에 근접한 조영시기로 판단되는 경우가

함께 왜와 신라 등 외부 사회와 접촉을 거듭한 지역집단의 존재를 엿볼 수 있다.

해남 북부 - 옥천분지(도 15) 그리고 보다 활발한 대외교섭을 거듭한 지역집단의 모습은 옥천분지의 옥천고분군(만의총 1·3호분)에서 명확하다(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2014, 國立光州博物館·海南郡 2009). 만의총1호분은 직경 18m 정도의 원분이며 매장시설은 횡혈식석실이다. 석실의 상면(床面)에 판석을 깔고 네 벽은 판석을 줄지워 세워 만들어 일견 상자식석관과 석관계수혈식석실을 상기시킨다. 그러나 내부에 조합식목관을 설치하고 벽체와 목관 사이에 작은 판석을 채운 점 등 독특한 구조를 띤다. 목관의 결구에 못과 꺾쇠를 사용하지 않는 점도 특이하여 복합적인 석실형식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부장품은 다종다양하다. 나주 신촌리9호분과 익산 입점리98-12호분에 유례가 있는 수하식이식을 포함하여 금모은제관옥, 유리옥, 동제팔찌 등은 백제계로 판단할 수 있다(이한상 2014). 한편 피장자의 패용품일 가능성이 큰 목장검(木裝劍)과 청자고동제 팔찌 등은 왜계의 가능성이 크다. 독립편역자장경축 등도 영산강유역에서는 거의 확인할 수 없는 형식으로 왜와 대가야권의 관계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토우가 달린 상형토기와 유개대부발 등은 신라 계토기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독특한 묘제의 성립 배경에 옥천고분군의 피장자와 조영집단이 왜, 백제, 신라(그리고 대가야?) 등 실로 다양한 정치세력과 교섭을 한 상황을 상기할 수 있을 것이다. 덧붙여 말하면 만의총3호분의 매장시설인 무수(無袖)의 횡혈계 횡구식석실도 아마 외래계 묘제로 한반도 중서부지역과 낙동강 이동지역에서 계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다.

용두리고분이 축조된 해남 서북부(삼산천 유역)의 지역집단의 동향은 동시기 유적이 조사되지 않아 분명하지 않으나 아마도 다른 소지역과 마찬가지로 바다를 매개로 활발한 대외활동을 거듭한 집단의 존재를 예상할 수 있다.

---

많다. 다만 필자는 좁석을 가진 직경 15m 정도의 원분인 점, 분구 구축 후 그 중앙에 묘광을 판 횡혈식석실을 구축한 점(분구선행형), 수혈식석실의 길이 2.91m, 폭 0.78~1m로 협소한 판석 쌓기를 기본으로 하는 점, 묘광과 석실 본체 사이에 뒷채움석을 채운 점, 토기편이 석실내부에서 전혀 확인되는 않는 점, 그리고 임해성이 높은 입지로 보아 5세기대(전중엽?)의 왜계고분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역측한다. 다만 그 경우 분구에서 출토된 토기 가운데 적어도 평저병은 고분에서 출토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해야 된다. 역측의 가부(可否)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1호분의 양상과 6세기 영산강 유역의 수혈식석실의 구조를 검토한 후 판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4) 해남지역으로 본 전방후원분과 왜계고분의 조영배경

지금까지 정리한 것처럼 해남의 여러 지역집단들(북일면 일대, 백포만 연안, 삼산천 유역, 옥천분지)이 활발한 대외교섭활동을 반복해 가는 가운데 북일면 일대와 삼산천 유역에 전방후원분(장고봉고분, 용두리고분), 백포만 연안에 왜계 고분(조산고분), 그리고 옥천분지에는 매우 독특한 묘제인 만의총1호분이 축조된다.

백포만 연안(조산)과 삼산천 유역(용두리)의 연휴(連携) 이 고분들의 여러 속성을 비교하면 대외활동과 조묘(造墓)활동에 있어 지역집단 상호의 관계성, 상호 연휴하는 경우와 약간 거리를 두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백포만 연안(조산)과 삼산천 유역(용두리)의 지역집단은 밀접하게 연휴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를 나타내는 것은 양 고분의 횡혈식석실 구조가 공통적인 것이다.

용두리고분과 조산고분 횡혈식석실의 구조는 요석(腰石)의 사용, 미석(楣石)과 곤석(梱石), 입주석에 의한 현문구성 외에도 다음과 같은 공통성을 보인다(도 12).

① 석실평면과 입면 플랜이 흑사한 점, ②바닥면에 거대한 판석을 까는 점, ③판석(입주석)을 석실주축으로 교차하도록 배치하고 그 판석면에 의해 전벽의 하반을 거의 구성하는 점, ④연도를 현실주축보다 약간 좌우로 어긋나게 하여 설치한 점, ⑤후벽과 양측벽의 설치방법을 관찰하면 한 쪽은 후벽을 구축한 후에 측벽이 설치된 양상인데 비해 다른 한 쪽에는 후벽과 측벽의 벽재가 각각 맞물리는 점.

이와 같은 석실구조의 공통성을 중시하면 양 고분의 석실이 동일 기술전통을 지닌 집단에 의해 구축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즉 백포만 연안과 삼산천 유역의 지역집단은 대외적인 활동을 서로 밀접하게 연휴하면서 북부규슈의 어느 특정 왜계도래인(집단)과 교섭을 거듭하여 동일한 형식의 횡혈식석실을 조영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삼산천 유역에서는 분구형태에 전방후원분을 채용한 것과 달리 백포만 연안에서는 원분을 조영하였다.

북일면 일대(장고봉고분)와 옥천분지(만의총1호분)의 독자성 한편 북일면에 입지하는 장고봉고분의 횡혈식석실은 위에서 언급한 ②와 ④로 보아 용두리고분과 조산고분과 유사한 반면 장대한 석실플랜, 좁고 긴 연도, 비교적 작은 판석을 석실주축과 병행하도록 배치한 입주석으로 하는 조작 등은 크게 다르다(도 13). 따라서 이 석실형식은 북부규슈만이 아니라 복수의 지역(사회)과 교섭하는 가운데 창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분구형태에 전방후원분을 채용한다.

그리고 옥천분지의 집역집단은 전방후원분 분구만이 아니라 횡혈식석실도 채용하지 않고 복합적인 수혈식석실을 매장시설로 한 원분(만의총1호분)을 축조하였다. 그리고 백제, 신



라, 왜 더욱이 대가야?에서 계보를 구할 수 있는 다종다양한 부장품을 매납하였다(도 15). 다른 소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왜의 묘제 영향은 적은 것이 특징이다.

고총고분의 조영배경 이상과 같이 해남각지의 고총고분을 비교하면 북일면 일대, 백포만 연안, 삼산천 유역, 옥천분지의 각 지역집단들이, 때로는 서로 연휴하고 때로는 약간 거리를 두면서, 주체적인 대외활동을 거듭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신래(新來)의 묘제를 취사선택함으로 고총고분을 조영한 상황이 떠오른다. 따라서 필자는 해남지역에서 고총고분의 출현을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5세기 후엽~6세기 전반은 백제에 의해 영산강유역에 대한 사회통합의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시기이다. 또 한일 양 지역에서 다양한 정치적 변동이 일어난 시기이기도 하다(高田 2017). 이러한 상황에서 일찍부터 해상교통에 뛰어난 해남 각지의 지역집단은 백제와 왜를 중심으로 한 신라, 가야 등 세 세력의 역학관계 가운데 정치경제적으로 연휴하는 세력(과 집단)을 모색하였다. 그 연휴 가운데 전방후원분과 왜계고분, 그리고 만의총1호분과 같이 고총고분을 왜, 백제, 신라 그리고 가야의 (도래)집단과 교류를 거듭하면서 주체적으로 조영하였다. 이러한 고총고분에는 지역집단에 의한 대외적인 정치·경제적 활동의 표상이라는 의의가 다분히 내포된 것으로 판단한다.

## II. 맺음말

본 발표에서는 일본열도의 고분시대 전기부터 후기 전반에 해당하는 시기(대략 3세기 후반에서 6세기 전반경)에 왜와 해남지역 사이에 기층적인 교섭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분명히 하였다. 5세기 전반의 왜계고분 조영집단에 대해서는 백제, 영산강유역과 왜 교섭을 담당한 왜계 도래인집단으로 생각하였다. 5세기 후반~6세기 전엽 전방후원분(그리고 왜계 고분)의 조영도 장기간에 걸쳐 지속된 교섭이 배경에 있어 가능하였던 것이며 그 주체는 활발한 대외적인 활동을 펼친 해남 각지의 지역집단<sup>3</sup>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

3 이러한 지역집단에는 각 지역에 정착하고 고분조영에 종사한 異郷(왜, 백제, 그리고 가야 등)의

한일 양 지역에 할거한 정치세력 사이에서 주체적으로 대외활동을 펼친 해남의 지역사회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부각되었다면 다행이겠다.

---

사람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상정한다.

# 海南半島와 加耶 · 新羅의 交流, 그리고 港市國家 止迷

이동희(인제대학교 인문융합학부)

## I. 머리말

## II. 해남반도와 가야 · 신라의 교류

1. I 단계: 아라가야와의 관계
2. II 단계: 소가야 · 대가야 · 신라와의 관계

## III. 交易港, 港市國家, 止迷

1. 枕彌多禮 · 新彌國 · 止迷와 海南
2. 港市國家 ‘止迷’의 역사적 변천

## IV. 맺음말

## I. 머리말

해남지역에는 가야·신라계 유물들이 적지 않게 출토되고 있다. 가야유물의 계통은 다양하여 아라가야·소가야·대가야 등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가야계·신라계 유물에 대한 시기 구분과 역사적 의미를 검토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야, 특히 아라가야 유물과 철정이 공반되는 경우가 확인되는데, 그 함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그런데, 가야권에서는 해남과 직결시킬 수 있는 유물을 특정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해남지역 출토 가야계유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해남 및 영산강유역과 밀접한 교류 관계에 있는 소가야권역은 일부 언급하고자 한다.

본고는 해남반도와 가야제국의 교류를 중심으로 다루겠지만, 해남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산강유역도 일부 포함시켜 논의를 전개할 것이다. 그리고, 해남지역에서 출토된 신라계 유물은 독자적으로 이동했다기보다는 가야, 특히 소가야와 관련되어 전남 남해안으로 유입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재검토해보기로 한다.

두 번째로 다룰 내용은 국제교역항으로서의 해남, 港市國家(항구도시국가) ‘止迷’에 대한 내용이다. 해남반도는 서남해안을 연결하는 돌출한 반도로서 지형학적으로 중요하여 원삼국 시대부터 국제교역항으로 그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에 남해안에서는 사천 늑도 유적과 함께 해남 군곡리유적이 대표적인 국제항이라 볼 수 있다.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 경남 고성이 가야·왜·신라 문물의 집산지이자 국제 교류의 거점이었다가 그 무렵 전남 남해안에서 동일한 지위를 점한 거점 항구가 해남반도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晉書』의 ‘新彌國’, 『日本書紀』의 ‘枕彌多禮’, 『梁職貢圖』의 ‘止迷’를 동일한 정치체로 해석하고, 그 위치를 해남 지역으로 보는 견해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나아가 『梁職貢圖』에 등장하는 旁小國 ‘止迷’를 북일면을 중심으로 한 해남으로 보고, 6세기 전엽까지 개별 정치체로 독립성을 유지하였던 항시국가 지미의 역사적 성격을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즉, 6세기 전엽에 해남반도에서 가장 외래계 문물이 풍부한 북일면 일원을 ‘지미’의 중심세력으로 보고, 그 이전 국제교역항의 중심이었던 현산면 등 백포만 일원과도 비교 고찰해 볼 것이다. 방소국으로서의 ‘지미’가 6세기 전엽까지 자치적인 정치체로 표현된 것은 국제교역항이자, 항구도시국가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역항과 항시국가에 대한 서구 이론을 援用하였다.

## II. 해남반도와 가야 · 신라의 교류

해남반도에서는 가야, 신라계 유물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그 중심 시기는 4세기 후반부터 6세기 전엽에 해당한다. 출토유물은 토기류가 다수를 점하지만, 철정·무기류·마구류 등 철기류도 확인되고 있다(표1 참조).

해남지역의 가야·신라계유물은 다시 2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4세기부터 5세기 전반대까지는 아라가야와의 관계가 중심이고, 5세기 후반~6세기 전반대에는 소가야·대가야 외에도 신라와의 관계가 부각된다.

가야권역에 전남 서남해안지역계 유물이 출토되지 않고, 전남 서남해안지역에만 아라가야계 및 소가야계 유물이 출토되는 것은 양 지역의 교역에 있어 교역을 담당한 주체가 전남 서남해안 집단이었을 가능성이 높다(홍보식 2008b, 142쪽).

표 1 해남지역의 가야계 · 신라계 유물 출토유적 일람표

유적명	유구	출토유물	계통	편년	권역	도면번호	
해남 분토	토광묘	광구소호(경배)	아라가야	5세기 전반	현산천	1-10	
	토광묘	승문타날호, 단경소호	아라가야	4세기 후반			
해남 군곡리	주거지	고배, 광구소호(경배)	아라가야	5세기 전반		1-11	
해남 신금	주거지	승문타날문단경호(55호)	아라가야	4세기 중후엽	삼산천		
해남 신월리	고분	광구소호(경배), 승석문호	아라가야	5세기 중엽	북일면	1-16	
		반부철모(盤附鐵鉢)	신라			3-8	
해남 현산초교 부근(일평리)	고분?	고배	비화가야	5세기 전반	현산천	3-5	
		고배(유개식)	아라가야	5세기 전반			
		대부장경호	신라	5세기 후반			
해남 월송리 조산	고분	대부장경호	신라	6세기 전엽			3-9
		f자형경관비, 검룡형행엽 공부다각형철모	대가야				
해남 용일리 용운	고분	대부장경호(3호)	신라	6세기 전엽	북일면	3-3	
해남 만의총	고분	서수형토기, 유개대부발	신라	6세기 전엽	옥천천	3-4	
해남 용두리	고분	대부장경호	신라	6세기 전엽	삼산천	3-2	
		개(단추형), 수평구연호	소가야			3-6	

## 1. I 단계: 아라가야와의 관계<sup>1)</sup>

### 1) 토기로 본 아라가야와의 교류

마한·백제 권역에서 가장 많은 아라가야계유물이 확인된 곳은 전남지역이다. 즉, 아라가야계 유물, 특히 아라가야계 토기들이 전남 남해안지역에 폭 넓게 분포한다. 이에 비해, 타지역에서의 아라가야계 문물의 출토례는 매우 드물다.

마한·백제권역 중 전남지역에서 아라가야계 유물이 가장 빈번히 출토됨은 상대적으로 아라가야권역과 가장 가깝다는 지리적인 문제가 가장 클 것이다. 아울러 고대사회에서 육로보다 더 편리했던 바닷길로 상호 긴밀히 연결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전남지역에서의 아라가야계 토기 출토 유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라가야와 더 가까운 전남 동부권에 아라가야계 토기의 빈도가 높고, 전남 서부권에서는 해남에서 가장 많은 아라가야 유물이 확인되고 있다.

전남지역이 함안지역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고 유물이 산발적으로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아라가야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접근할 수는 없고, 토기 자체의 유통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이성주 2000a). 예컨대, 화염형투창고배의 이른 단계 분포권이 늦은 단계(5세기 중엽~6세기 전엽)에 비해 넓어 부산·경주·경북 금릉·일본에까지 미치고 있음(이주헌 2000, 김형곤 2002)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5세기 중엽 이전까지의 아라가야토기의 확산은 정치권력과는 무관하고 교역이나 교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전남지역의 아라가야토기 출토유적이 주로 남해안이라는 점에서도 교역이나 교류설을 뒷받침한다. 토착세력이 교역이나 교류를 통해 당시에 가장 선진적인 아라가야토기<sup>2)</sup>와 鐵鋌 등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표 2 전남지역의 아라가야계토기 출토유적 일람표(이동희 2013 참조)

유적명	유구	출토유물	편년	도면번호
광양 지원리 창촌	주거지	노형기대	4세기 후반	1-2
광양 용강리	수혈유구	통형고배, 화염형투창고배	5세기 전반	1-3
광양 도월리	폐기장	고배	5세기 전반	

1 이에 대한 내용은 필자 논문(이동희 2013: 94-104)의 일부를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2 토기편년상 함안지역은 가장 일찍 도질토기 생산체계가 발전했던 지역이다(이성주 20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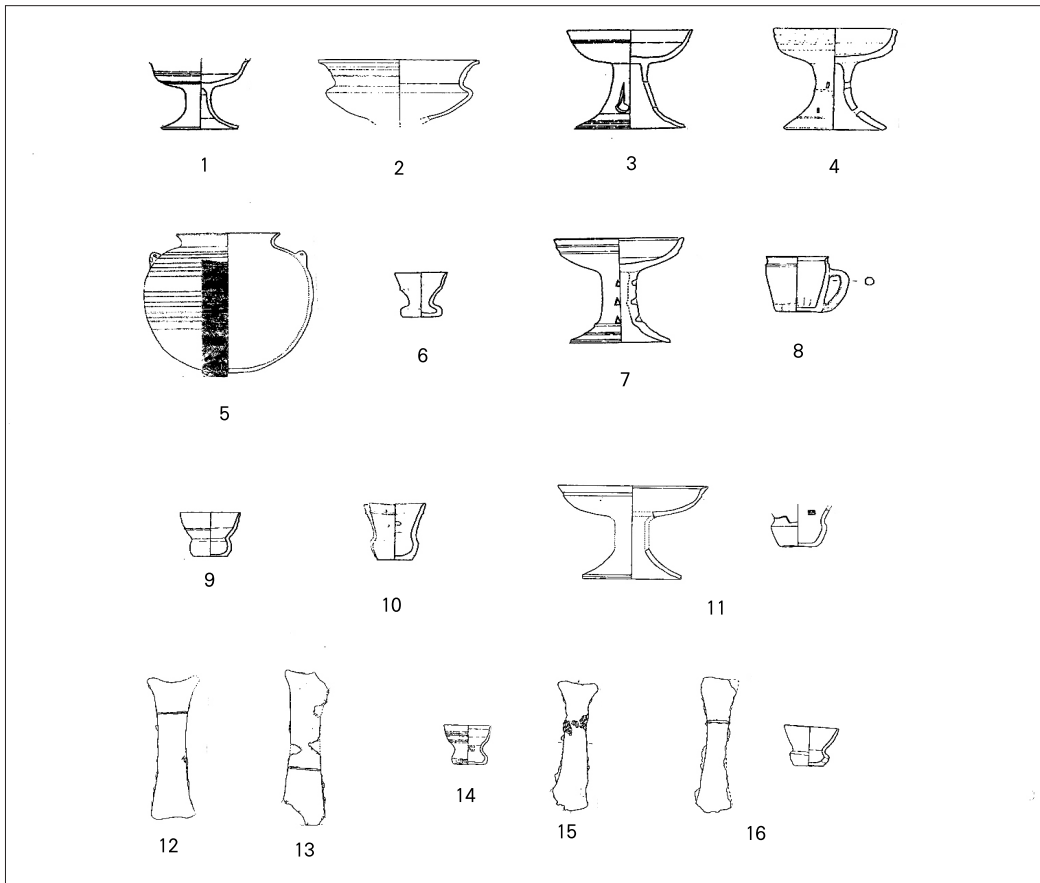
유적명	유구	출토유물	편년	도면번호
순천 덕암동	지표수습	고배	4세기 말-5세기 초	
여수 장도	?	고배	4세기 말-5세기 초	1-1
여수 석창성지	지표수습	통형고배	4세기 말-5세기 초	
여수 죽림리	토광묘	통형고배	4세기 말-5세기 초	1-4
여수 화동	주거지	승문타날호	4세기 중엽	
여수 고락산성	주거지	승문타날호	4세기 중엽	1-5
구례 용두리	?	고배	4세기 후반	
고흥 한천리 신촌	토광묘	광구소호(경배)	4세기 말-5세기 초	1-6
고흥 장덕리 장동	목곽묘	광구소호(경배)	5세기 전반	
장흥 신월리	지표수습	통형고배	4세기 후반	1-7
장흥 상방촌A	주거지	파배, 승문타날호	4세기 후반-5세기 초	1-8
장흥 상방촌B	토광묘	단경소호, 광구소호(경배)	4세기 말-5세기 초	
영암 만수리	목곽묘	광구소호(경배), 장경소호	4세기 말-5세기 초	1-14
함평 만가촌	목곽묘	광구소호(경배)	4세기 말-5세기 초	1-9
해남 분토	토광묘	광구소호(경배)	5세기 전반	1-10
	토광묘	승문타날호, 단경소호	4세기 후반	
해남 군곡리	주거지	고배, 광구소호(경배)	5세기 전반	1-11
해남 신금	주거지	승문타날호	4세기 중후엽	
해남 신월리	고분	광구소호(경배), 승석문호	5세기 전반	1-16
해남 일평리	고분?	고배(유개식)	5세기 전반	

## 2) 鐵鋌으로 본 아라가야와의 교류

鐵鋌은 철기중간 소재설, 화폐설, 중간 소재와 화폐로 동시에 사용되었다는 설 등이 있다(김정완 2000).

해남지역에서 철정이 출토된 주요 유적은 황산리 분토(5점), 원진리 농암(2점), 봉학리 신금(2점), 해남 신월리(10점) 등의 고분이다.

전남지역과 아라가야 간 교류의 배경에 대해 철의 공급과 관련짓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 즉, “5세기 전반부터 아라가야권역 고분에 철정이 부장된 것은 금관가야의 쇠퇴에 의해 가야권역의 철 유통 장악세력의 해체로 철 유통의 핵이 사라지고 다원화가 진행된 결과, 철 소재 확보에 아라가야가 우위를 선점하고 다른 가야는 물론 백제·왜 등지에도 철을 공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아라가야가 철을 공급하는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철을 입수하려는 남서해안 집단들이 아라가야와 교역을 하면서 아라가야계 토기를 입수하였을 개연성이 높다.”(홍보식 2008b).



도 1 전남지역 아라가야 관련 유물(이동희 2013)

1: 여수 장도 수습, 2: 광양 창촌 2호주거지, 3: 광양 용강리 2호수혈, 4: 여수 죽림리 2-6호 토광묘, 5: 여수 고락산성 3호 주거지, 6: 고흥 신촌1호 토광묘, 7: 장흥 신월리 수습, 8: 장흥 상방촌A10호 주거지, 9: 함평 만가촌 14-3호 목관묘, 10: 해남 분토 1-4호 토광묘, 11: 해남 군곡리 주거지, 12: 해남 원진리 농암1호 옹관묘, 13: 해남 봉학리 신금옹관묘, 14: 영암 만수리 4호분 10호 목관묘, 15: 영암 만수리 4호분 11호 목관묘, 16: 해남 신월리 고분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대체로 동의하지만, 편년관에는 이견이 있다. 즉, 전술한 바와 같이 전남지역의 아라가야계 토기는 4세기 후반대에는 출토되고 있기에, 전남지역과 아라가야 간의 교류와 교역은 5세기 이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영산강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서남부지역은 중서부지역과 동남부지역에 비해 철정의 개체수가 현저히 적고 대형 철정이 없다. 이는 서남부지역이 중서부 지역이나 동남부지역보다 원삼국-삼국시대초의 재지적 철생산기반이 미약하고 철의 유통도 훨씬 제한적이었음을 의미한다(성정용·성수일 2012).

이처럼 서남부지역에 철정의 생산체계가 미약하다는 것은 외부의 영향 가능성을 의미하고 그중에서도 철정이 활발하게 제작된 금관가야나 아라가야를 우선 거론할 수 있다. 그런데 전남지역에서의 공반유물로 보면 김해의 금관가야보다는 아라가야의 유물이 많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아라가야의 영향일 가능성이 높다.

전남지역에서 확인된 주요 철정 출토유적을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해남 일원에서 가장 많은 철정이 출토되어 전남지역 여러 세력 가운데 가야지역과의 교류가 가장 빈번했음을 알 수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전남지역에서 가장 이른 단계의 철정은 나주 용호 12호 목관묘 출토품이다. 이 철정은 판상철부형이며, 길이가 37cm에 달하여 대형이다<sup>3</sup>. 鐵鋌의 前身인 판상철부가 馬韓권역에서는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나주 용호 출토 철정은 낙동강 하류역(금관가야)

표 3 전남지역 주요 철정 출토유적 일람표(이동희 2013, 일부 수정)

유적명	유구	수량	크기 (단위: cm)	유적내 아라가야계 유물	편년	도면 번호
나주 용호	목관묘(12호분)	1	길이 37.3 두께 0.4		4세기 전반	
해남 황산리 분토	1-1 · 2-2 · 3-2호 토광묘	5	길이 18.2-30.7 두께 0.1-0.6	광구소호, 승문타날호, 단경소호	4세기 후반- 5세기 전엽	
해남 원진리 농암	웅관묘(1호)	2	길이 23.2-29.4		5세기 전엽	1-12
해남 봉학리 신금	웅관묘	2	길이 23.5-26		5세기 전엽	1-13
장흥 상방촌A	주거지(1-11 · 24, 2-19)	10	길이 6.6-18.3 두께 0.15-0.6	승문타날호, 파배, 고배	4세기 후반- 5세기 전반	
장흥 상방촌B	토광묘 (17-1호)	2	잔존길이 12.7-13.3 두께 0.1-0.2	광구소호, 단경소호	4세기 말- 5세기 초	
영암 만수리 (4호분)	목관묘 (10 · 11호)	3	길이 18.7-22 두께 0.4-0.45	광구소호, 장경소호	4세기 말- 5세기 초	1-15
고흥 장덕리	목관묘 (M2-2 · M2-3호)	13	길이 8.4-23.5 두께 0.2-0.9	광구소호	5세기 전반	
고흥 신촌	토광묘(9호)	1	길이 23.7 두께 0.2-0.3	광구소호	4세기 말- 5세기 초	
해남 신월리	고분(석관)	10	길이 16-21.1	광구소호	5세기 전반	1-16

3 나주 용호고분군(호남문화재연구원 2003)에서 대형 철정이 출토된 12호 목관묘는 전체 매장주체부에서 최대형이라는 점에서 철정이 위세품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홍보식 2008b).

그럼, 철정의 형태상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가야, 신라, 전남지역의 철정을 비교해 보기로 한다.

박천수는 금관가야, 아라가야, 신라의 철정의 형태적 특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형식 구분한 바 있다. 즉, “금관가야산 철정은 길이 30-35cm의 양 단부가 직선적이고 양측면이 대칭을 이룬 것으로, 김해 대성동 1·2·3호분, 부산 복천동 54호분, 김해 칠산동 20호분 출토품 등이 대표적이다. 이에 비해 신라산 철정은 길이 40cm전후의 양단부가 弧狀을 이루고 양측면이 비대칭적인 것으로, 경주 월성로 가6호분, 경산 임당동 G5,6호분 등의 출토품이 있다. 한편, 아라가야산 철정은 측면이 대칭적이고 양단부가 내만한 것으로, 함안 도항리 10호분 출토품이 대표적이다”(박천수 2006b).

이와 관련하여, 아라가야 철정에 대해 좀 더 살펴보기로 하자.

아라가야 철정은 5세기 전엽(목곽묘 단계)까지는 측면이 대칭적이고 양단부가 내만한 전형적인 예가 보이지만 5세기 후반대(석곽묘 단계)로 가면 비대칭적이고, 점차 소형화·세장방형으로 변하고 내만한 양단부의 예는 점차 줄어든다. 크기로 보면 5세기 전엽의 가장 전형적인 함안 도항리 (문)10호 목곽묘 출토품이 50cm에 달하여 가장 크다. 목곽묘 단계에는 철정의 길이가 20-50cm 정도이지만, 석곽묘 단계에서는 철정의 길이가 10-20cm정도로 소형화된 다. 5세기 후반대의 도항리 (현)15호 석곽묘 출토품은 길이가 10-15cm에 불과하다(표 4, 도 2).

도항리 (현)15호나 (현)22호의 철정은 소형이고 불균형해서 비실용품으로 파악된다. 즉, 제의적 용도나 피장자 재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0).

전남지역 출토 철정 가운데 크기나 형태면에서 함안 도항리 출토품과 유사한 예는 해남 원진리 농암 1호 옹관묘(도 1-12) 및 봉학리 신금 옹관묘 출토품(도 1-13)을 들 수 있다(국립광주박물관 1989).

해남 원진리와 봉암리 출토 철정의 측면은 대칭적이며 단부가 내만한다<sup>4</sup>. 길이는 23-26cm내외여서 함안 도항리의 5세기 전반대 목곽묘 출토품과 대동소이하다.

그리고, 영암 만수리 4호분 11호 목곽묘 출토품도 철정의 측면이 대칭적이며 단부가 내만한다(도 1-15). 한쪽 단부 가장자리가 부러져 현재 길이는 18.7cm이다(국립광주박물관

4 공반된 옹관묘의 형식으로 보면 5세기 전엽으로 볼 수 있다.

표 4 아라가야권역의 주요 철정 일람표(이동희 2013)<sup>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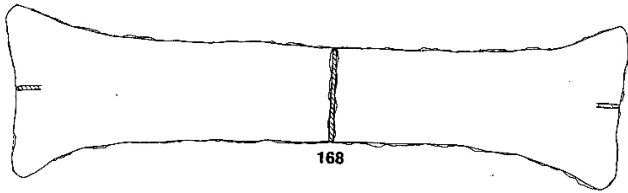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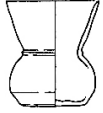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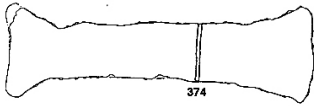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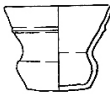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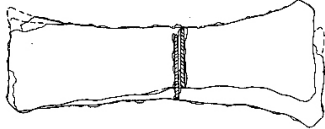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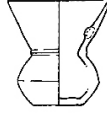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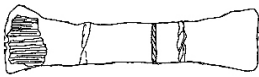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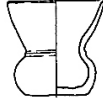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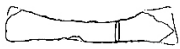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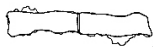
유구명	철정수	철정 길이 (단위: cm)	두께 (단위: cm)	형식	주요 공반유물	편년
도항리(문) 10호목곽묘	10	46.8-50.2	0.3-0.4	대칭, 단변 직선·오목	광구소호3, 유자이기, 격쇠, 마구류	5세기 전반
도항리(문) 27호목곽묘	7	21.1-23.5	0.2-0.3	대칭, 단변직선	광구소호2, 격쇠	5세기 전반
도항리(문) 36호 목곽묘	40	16-20.4	0.2-0.4	대칭, 단변 직선· 오목	광구소호1, 마구, 대도, 유자이기, 갑주	5세기 전반
도항리(문) 48호 목곽묘	77	17.2-41.9	0.2-0.8	대칭, 단변직선· 오목	광구소호3, 대도, 이식, 격쇠, 마구, 유자이기	5세기 전반
도항리(현) 15호 석곽묘	15	9.5-15.8		소형, 비대칭	마구, 유자이기	5세기 후반
도항리(문) 54호분	16	12cm내외	0.3	소형, 세장형, 비대칭	광구소호2, 격쇠, 마구, 대도, 갑주	5세기 후반
도항리(현) 22호분	27	14cm내외		소형, 세장형, 비대칭	광구소호3, 유자이기, 마구, 갑주	5세기 후반
도항리(현) 8호분	32+	18-20.5	0.2	소형, 세장형, 비대칭	광구소호1, 마구, 갑주, 환두대도, 유자이기	5세기 후반

1990).

영암 만수리 4호분 10·11호 목곽묘는 4호분의 매장주체부 15기 중에 가장 대형인데, 공교롭게도 10·11호 매장주체부내에서만 3점의 철정이 출토되었다. 그 중에서도 최대규모인 10호에서는 2점의 철정이 출토되어, 부장된 철정이 위세품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10호 목곽묘에서는 아라가야계 광구소호가 동반되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도 1-14). 만수리 4호분 출토 광구소호는 전남권에서 이른 단계에 속하면서 동시에 아라가야 현지 출토품과 유사하여 鐵鉞과 더불어 아라가야에서 유입된 유물일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발굴조사된 해남 신월리 고분 출토 철정도 주목된다(목포대박물관 2010). 신월리고분 출토 철정은 길이 16-21cm로서 도항리(문)36호와 거의 동일한데, 형태적으로도 유사한 면이 있다(도 1-16). 즉, 도항리 36호 출토 철정은 전형적인 도항리 10호 출토품에 비해 소형화·세장화되고 양단부의 내만 정도가 약하여 직선적이거나 약간 호형을 띠기도 한다(도

5 본고에서 함안 도항리유적의 편년은 발굴보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편년안보다 1/4분기 정도 빠르게 보는 견해도 있다. 예컨대, 함안 도항리(문) 36호를 4세기 4/4분기 혹은 5세기 1/4분기의 이른 시기로 보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정주희 2009). 이러한 견해도 일면 타당성이 있으므로, 편년에 대해서는 향후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유구명	철정	광구소호	편년
도항리 (문)10호			5세기 전반
도항리 (문)48호			5세기 전반
도항리 (문)27호			5세기 전반
도항리 (문)36호			5세기 전반
도항리 (문)54호			5세기 후반
도항리 (현)8호			5세기 후반
도항리 (현)22호			5세기 후반
도항리 (현)15호			5세기 후반

0 10 20cm

도 2 아라가야권역의 주요 철정 및 광구소호 변천(이동희 2013)



2). 신월리 고분이 5세기 전반에서도 늦은 시기에 해당하며, 아라가야계 광구소호가 출토되어 주목된다<sup>6</sup>. 이와 같이, 해남 신월리 고분에서 철정과 광구소호의 공반관계, 철정의 크기와 형태 등에서 아라가야와의 관련성이 보이므로 아라가야와의 교류를 추정해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라가야의 철정이 전남지역으로 직접 교역된 경우도 있겠지만, 아라가야의 철정제작 기술이 건너와 전남지역에서 모방제작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즉, 5세기 이후에는 전남지역도 자체적인 철기제작이 활성화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무안 사창리 웅관묘와 나주 복암리 '96석실내 1호 웅관묘에서 단야구 세트와 철제 집게가 출토된 바 있다(김상민 2007).

한편, 철정 공반유물 중 주목되는 것이 광구소호이다. 아라가야 권역, 특히 함안 도항리에서 철정이 출토되는 무덤에서는 대부분 평저의 광구소호가 출토되며(표 4, 도 2), 전남지역에서도 그러한 경향이 있어 철정을 논함에 있어 광구소호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7</sup>.

가야계 광구소호는 원저와 평저로 대별되며, 원저 광구소호는 낙동강 동안지역의 김해·부산 일대에서 주로 출토되고 평저 광구소호는 낙동강 서안지역으로 대표되는 함안 외에 신라의 경주권<sup>8</sup>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다(이유진 2007). 광구소호는 금관가야 쪽이 조금 더 이른 것으로 파악되는데, 4세기 후엽으로 편년되는 김해 예안리 117호묘의 경우에는 원저와 평저 광구소호가 공반되기도 한다. 하지만, 아라가야권역에서는 평저의 광구소호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아라가야의 광구소호는 5세기 전반과 5세기 후반으로 크게 대별되며, 5세기 말 혹은 6세기 초엽에는 거의 사라진다. 전자와 후자의 차이는 몇 가지 속성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동체부와 구경부 크기의 비율에서 5세기 후반대로 가면서 동체부가 점차 작아진다. 즉, 구형의 큰 동체부(5세기 전반)에서 편구형 혹은 육면체에 가까운 작은 동체부로 변화한다. 전체 크기에 있어서는, 5세기 후반대로 가면서 소형화된다. 즉, 5세기 전반대에 높이 6.5-8.2cm,

---

6 광구소호는 높이보다 구경이 더 큰 것이기에 5세기 후반으로 내려가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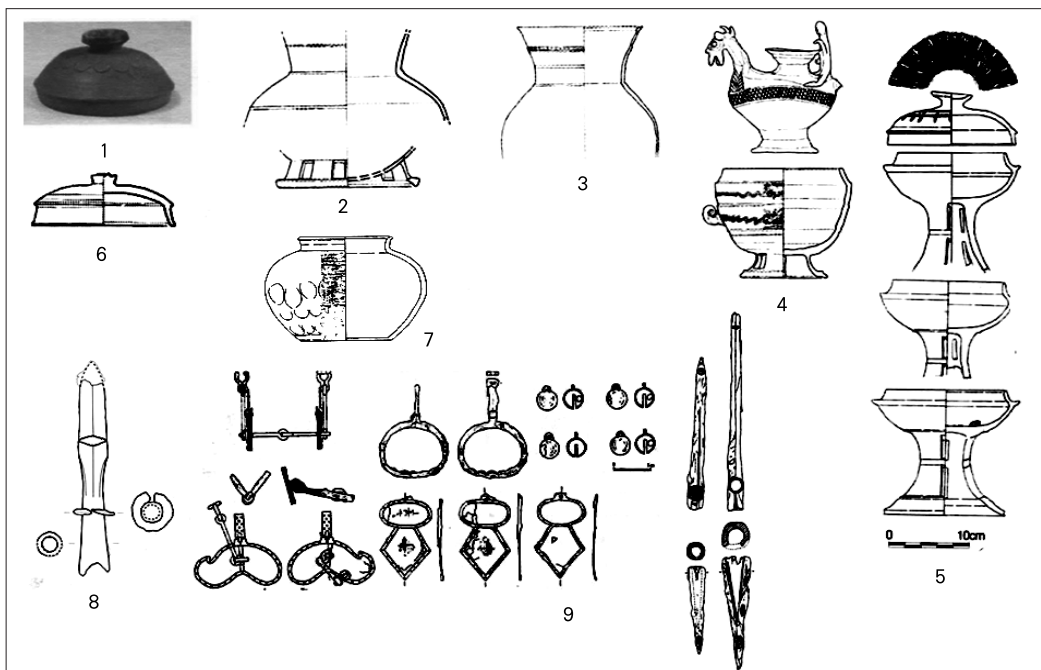
7 충주 탄금대 수조유구에서도 철정과 더불어 광구소호가 출토된 바 있다(성정용·성수일 2012).

8 신라의 경주권에도 평저의 광구소호가 확인되지만, 전남지역의 광구소호는 아라가야와 연결시켜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4세기 후반대-5세기 전반대에 전남지역에는 아라가야계 유물은 빈출되지만 신라계 유물은 거의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구경 7.2-8.3cm, 저경 3.8-5.0cm인데 비해, 5세기 후반대에는 높이 5.6-7.5cm, 구경 5.0-5.9cm, 저경 2.7-4.5cm이다. 그리고, 5세기 후반대에는 도항리 (현)22호분 출토품 같이 동체부와 구경부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는 예가 보이며 동체부의 형태도 정연성을 잃고 형식화된다. 또한 구경부의 외반도가 초기에는 나팔상으로 크게 벌어지다가 후기에는 완만하게 벌어져 수직에 가까운 예도 있다. 즉, 5세기 후반대에는 5세기 전반대에 비해 구경부의 크기가 2cm이상 줄어든다. 그리고, 5세기 전반대에는 동체부와 구연부의 경계선에서 1조의 돌선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고, 5세기 후반대에는 경부 중하위에 1조의 돌선이 확인되는 경향이 있다(도 2).

전남지역에서 보이는 아라가야계 광구소호의 형식이 5세기 후반대의 것은 거의 보이지 않고 5세기 전반대에 해당하는 형식만 보이므로 아라가야 영향의 중심연대는 5세기 전반대로 볼 수 있다. 예컨대, 5세기 전반대의 해남 군곡리 주거지 출토 평저의 광구소호는 아라가야계 고배와 공반되어 아라가야와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료이다(도 1-11).

5세기 중엽 이후에는 전남지역에 소가야와 대가야 문물이 빈번히 확인되고 있어 아라가야의 영향력이 약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 3 해남, 나주 출토 가야, 신라, 백제계 유물(축척 부동)

1: 나주 영동리 3호분, 2, 6: 해남 용두리 고분, 3: 해남 용일리 용운 3호분, 4: 해남 만의총 1호분 석곽묘  
5, 7: 해남 일평리, 8: 해남 신월리 출토, 9: 해남 월송리 조산고분

## 2. II 단계: 소가야 · 대가야 · 신라와의 관계

5세기 후반이 되면, 마한·백제지역에 아라가야계 유물의 수가 줄어들고 소가야계토기가 증가하는데, 이는 백제·영산강유역·왜와 가야의 교류 중심지가 아라가야권역에서 소가야권역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홍보식 2008b, 142쪽).

### 1) 소가야와의 관계

해남지역에서 소가야계 유물은 해남 용두리 고분에서 개(단추형)·수평구연호 등이 출토된 바 있다. 공반된 유물로는 신라계 대부장경호가 있으며, 6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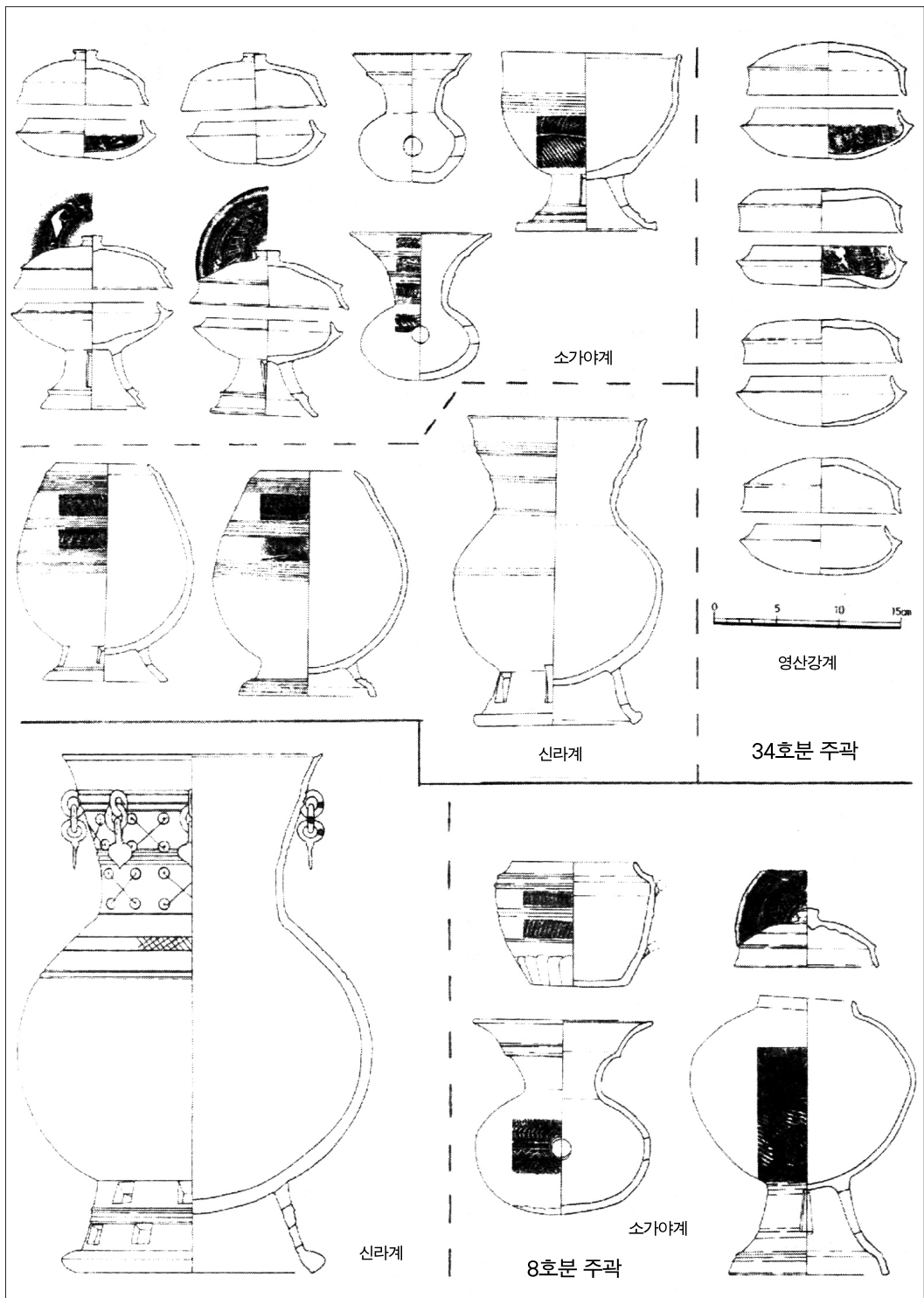
그리고, 해남에서 소가야계·신라계·대가야계 유물이 공반된 고분은 대부분 왜계 유물이 출토되는 왜계 고분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백제와 가야에 정주한 왜인은 각각 영산강수계와 가야를 무대로 하여 백제와 가야, 그리고 신라를 연결하는 국제무역에 종사하면서 각지의 생산물을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6세기 전반 신라-가야-영산강유역-일본열도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교역루트가 마련되었고 이 국제적인 교역루트를 통해 각 지역의 문물과 정보가 활발히 유통되었고 그 중심에는 소가야지배층이 자리하고 있었다. 당시 소가야의 중심지인 고성은 국제 교역항으로서 활발했던 존재였다.(홍보식 2008a, 26-27쪽)

이와 관련하여, 해남 및 영산강유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가야권역의 고분군 출토유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소가야와 영산강수계 집단과의 교류를 나타내는 자료는 고성만 일대의 소가야 지배 엘리트 고분에 집중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고성 송학동 1A-1호 석곽·1B-1호 석실 출토 개와 배, 내산리고분군 34호분과 21호분 출토 개배 등이 알려져 있다. 송학동 1호분과 내산리고분군(도 4) 등에는 소가야계토기·대가야계토기·신라토기·영산강수계의 토기 등이 공반하는 점은 여타 가야지역과 양상을 달리한다. 소가야 지배 엘리트 고분에 계통이 다른 토기들이 부장된 것은 소가야의 지배 엘리트들이 가야-영산강수계-왜를 연계하는 교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나타내는 자료이다(홍보식 2008b, 141쪽).

즉, 고성지역이 가야권역의 외래계 문물 집산지임을 나타내고, 소가야 최고 지배층이 외래계 문물의 이동에 깊이 관여하였던 것이다. 왜계문물과 영산강유역 문물이 가야권으로 반입되는 루트가 고성지역임을 나타내고 신라계 문물과 대가야계 문물이 영산강수계와 일본



도 4 고성 내산리고분군 출토 소가야계, 영산강계, 신라계 문물 (홍보식 2008a)

열도로 반출되는 루트 역시 고성지역이었을 것으로 보인다(홍보식 2008a, 18쪽).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 고성이 가야·신라·왜·영산강유역 유물의 집산지이자 국제교류의 거점이듯이, 전남 남해안에서 영산강유역·백제·왜·가야·신라 유물의 집산지이자 국제교역항은 해남으로 볼 수 있다.

## 2) 대가야계 유물의 출토 배경

해남 조산고분의 f자형경판비와 검릉형행엽(도 3-9)과 같은 유물은 왜계고분 피장자의 대가야권역에서의 활동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박천수 2006, 201쪽).

즉, 해남 월송리 조산고분의 f자형경판비와 검릉형행엽이 세트를 이루는데, 두 종류의 마구가 세트로 출현하는 예는 합천 옥전 M3호분, 고령 지산동 44호분, 산청 생초 M13호분 등 현재 자료로 보는 한 대가야지역에 집중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세트는 일본에서 선행하여 출현하고 가장 보편적으로 보이므로 일본열도에서 재구성된, 왜를 특징짓는 馬裝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조산고분은 일본열도와 한반도 서남부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고리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김낙중 2010b, 110-111쪽).

한편, 해남 조산고분에서는 투갑의 단면이 팔각형을 보이는 철모(도 3-9)가 출토되었다. 한국에서는 백제와 대가야권에서 주로 출토된 바 있다. 대가야권에서는 고령 지산동 35호분, 합천 반계제고분 출토품이 있다(김낙중 2010a). 일본에서도 5세기 후엽의 유력 수장묘인 구마모토현 에타후나야마고분(熊本縣 江田船山古墳), 와카야마현 오타니고분(和歌山縣 大谷古墳), 사이타마현 이나리아마고분(埼玉縣 稻荷山古墳) 등에서 f자형경판비와 검릉형행엽 등과 함께 출토되어 대가야계로 추정된 바 있다(朴天秀 2004).

이에 대한 반론도 있다. 즉, “영산강유역의 공부다각형 철모는 直基型인 점에서 燕尾型이 주류를 이루는 대가야에서 영산강유역으로 직접 유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백제와 왜의 교류 과정에서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대가야-왜의 교류로 일본열도에서 정착된 형식이 6세기 전엽 백제의 가야지역 진출에 따라 왜와의 교섭권을 백제가 장악하며 이루어진 왜와 백제(영산강유역) 간의 활발한 교류과정에서 일본 내에서 직기형으로 개량된 것이 전달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 철모들이 출토되는 고분의 분형, 석실의 특징, 공반되는 스에키, 삼환령 등의 일본열도계 문물은 이를 뒷받침한다.” (김낙중 2010a, 372-374쪽)

요컨대, 해남 조산고분의 마구류와 철모를 대가야와 관련지어 볼 수도 있지만, 고분의 형식, 일본열도계 동반유물을 고려하면 왜와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리고, 대가야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대가야계 문물이 분포할 경우, 가야계 문물과 공반하는 유구는 소형이고, 신라계 또는 왜계·영산강계 유물과 공반하는 유구는 대형인 점이 특이하다. 예컨대, 소가야의 지배층 무덤인 고성 송학동 1호분에서 대가야계 유물이 영산강계·왜계 문물과 공반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대가야계 문물이 영산강수계와 일본열도로 반출되는 루트와 반출 과정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홍보식 2008a, 8쪽).

이와 같이 소가야권 수장묘인 고성 송학동 1호분에서 영산강계·대가야계·왜계 등 외래계 유물이 출토되는 것은 영산강유역세력과 교류를 한 소가야권 세력은 수장급이었음을 뒷받침하며, 이러한 유물 공반양상은 해남 월송리 조산 고분에서 대가야계 유물의 유입배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데, 『日本書紀』에서 확인되듯이倭와 빈번히 교류한 것은 대가야(반파)이고, 고성 송학동 1호분에 보이는 대가야산 금공품과 토기로 보면, 소가야의 배후에 대가야가 위치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박천수 2018).

### 3) 신라계 유물의 출토 배경

해남지역에서 출토된 신라계 유물은 신월리 출토 반부철모(盤附鐵鉢, 도 3-8) 외에는 대부분 토기류이다. 토기류는 일평리·용일리·용두리 출토 대부장경호(도 3-2·3), 만의총 출토 서수형토기와 유개대부발(도 3-4) 등이며, 6세기 전엽으로 편년된다.

해남 신월리 방대형고분에서는 반부철모(盤附鐵鉢)가 출토되었는데, 5세기 중엽으로 추정된다. 반부철모는 모신이 길고 넓으며 공부에 철반(鐵盤)이 갖추어진 것으로 4세기 후반-6세기 전반의 경주를 중심으로 한 낙동강 이동지역의 지배자급 무덤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다. 백제지역에서는 천안 용원리 9호 석곽묘에서 출토된 것이 유일하다(김길식 2004, 김낙중 2010a).

해남지역 외의 전남지역 출토 신라계 유물로는 나주 영동리 3호분 출토 토기뚜껑(도 3-1)을 비롯하여 나주 북암리 96석실 삼엽형행엽·십자문경판부비, 나주 신촌리 반남고분군 삼엽문환두대도, 고흥 한동 15호 주거지 장경호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해남 용일리 용운 3호묘나 고흥 한동 15호 주거지에서 출토된 신라계토기는 김해나 창녕 등 신라지역으로부터 반입된 유물로 파악되고 있다. 용일리 용운 3호묘에서는 백제토기, 왜계 스에키 편병, 신라제의 대부장경호 등이 공반되었다(홍보식 2007a·2008a, 이정호 2010).

해남지역을 포함한 전남지역의 신라계 유물은 대개 5세기 후반-6세기 전엽에 해당하며,



소가야 유물과 공반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는 소가야권의 중심인 고성지역이 해안을 통해 서남해안과 연결되고 남강 수계를 통해 아라가야와 대가야, 나아가서는 신라와도 연결되는 지리적 이점과 관련될 것이다(홍보식 2006). 남해안권역에서 출토된 신라계 문물은 창녕, 김해 등지의 신라 서남부 변경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거나 이 지역을 경유하여 가야권역으로 반출하였거나 또는 정보를 획득하여 해당지역에서 제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소가야 지배층과 신라의 서남부 변경지역 집단과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면 이 관계는 정치적인 목적성보다 경제적 목적성이 높았을 것이다. 6세기 전반 신라-가야-영산강수계-일본열도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교역루트가 마련되었고 이 국제적인 교역루트를 통해 각 지역의 문물과 정보가 활발하게 유통되었고 그 중심에는 소가야 지배층이 자리잡고 있다. 남강은 가야와 신라의 문물을 유통하는 수로로서 중시되었고 소가야의 중심지인 고성은 국제교역항으로서 역할을 담당하였다(홍보식 2008a).

조산고분과 용두리 고분 출토유물의 공통점은 신라계 대부장경호가 출토되었고, 용두리에서는 소가야계 개가 출토된 바 있다. 왜계 고분이면서 신라와 소가야계 유물이 확인됨은 백제-영산강유역-구주를 잇는 매개체인 소가야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라 하겠다(김낙중 2015).

한편, 전남지역의 일부 세력이 신라지역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었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한 견해도 제시된 바 있다. 즉, “전남지역 출토 신라계 유물은 그 자체의 유물도 있었지만 공인이 현지에서 제작 공정에 참여하였을 수도 있다. 나주 영동리 3호분 출토 신라토기(도면 3-1)의 제작공인의 출자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을 들 수 있다. 첫째는 경주로 상징되는 신라 중심지로부터 들어왔을 가능성, 둘째는 신라토기의 제작기술을 습득하고 있던 가야지역의 공인일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대각도치형 꼭지와 함께 컴퍼스 방식을 이용한 반원문과 삼각집선문의 시문수법이 전형적이고 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직접적으로 신라와 관련된 공인이 아닌가 한다. 만약 신라계의 토기 공인이 이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영동리고분의 재지세력이 신라지역과 직접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이정호 2010, 468쪽).

### III. 交易港, 港市國家, 止迷

#### 1. 忱彌多禮·新彌國·止迷와 海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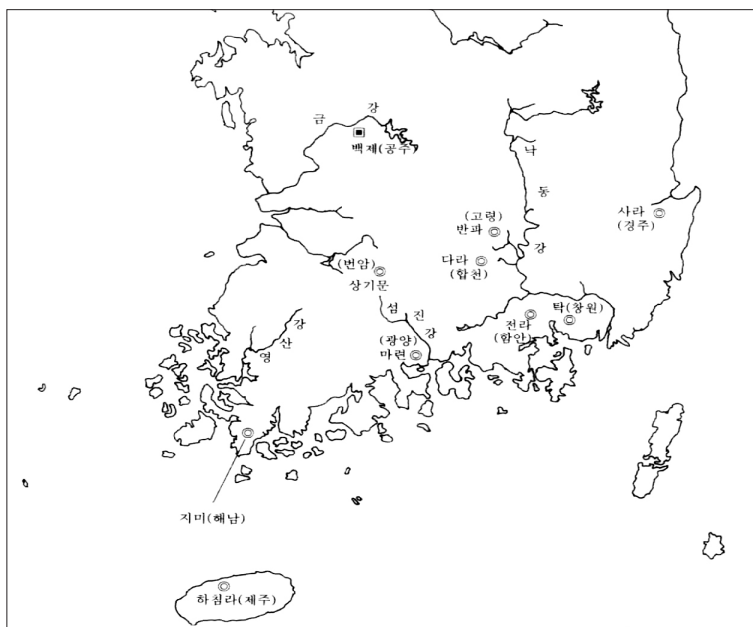
『日本書紀』의 忱彌多禮, 『晉書』의 ‘新彌國’, 『梁職貢圖』의 ‘止迷’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고, 그 위치를 해남 지역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 해남지역에서도 현산면 일대로 비정하는 견해가 많은 편이다(강봉룡 1999·2008, 송태갑 1999, 김태식 2007, 최성락 2013b).

강봉룡(2006, 2008)은 해남 군곡리 패총이 자리잡은 백포만 일대에 신미국이 위치하였다고 보았다. 신미국을 해남반도로 보는 이유는 침미다례는 신미와 상통하고 통일신라시대 해남 군 현산면 일대를 지칭하는 ‘浸溟縣’과도 통한다는 것이다. 또 현산면과 송지면 일대에는 군곡리패총을 비롯하여 10여 군데의 패총과 고다산성·백방산성·음호산성·일평리산성 등의 고대산성이 집중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산면과 송지면 일대에 소국의 존재를 가정한다면 그 명칭이 신미 혹은 침미다례라는 것이다. 요컨대, 군곡리 패총은 통일신라의 침명현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낙랑 대방군이 동북아 연안항로의 교역을 주도하는 시기에 중요한 거점 포구였음을 보여준다. 군곡리 일대의 지명 혹은 소국명이 ‘新彌’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고대사회에서 해남에 대한 小國名으로 비정되는 3개 명칭 가운데 가장 늦게 사용되고 본고에서 주로 다룰 ‘止迷’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梁職貢圖』에 따르면, 梁 普通 2년(521년)에 백제왕이 수도를 固麻(공주)에 두고 지방에는 22담로를 두어 통치하였는데, 인접한 소국으로 叛波·卓·多羅·前羅·斯羅·止迷·麻連·上己文·下枕羅 등이 그에 부속되어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사라(斯羅), 즉 신라가 백제에게 부속되었다거나 혹은 가야의 유력한 소국들인 반파(고령)·탁(창원)·다라(합천)·전라(함안)가 백제에 부속되었다는 것은 과장된 표현이다. 다만 그 이하의 지미(해남)·마련(광양)·상기문(전북 동부 일원)·하침라(제주도) 등이 백제에 부속되었다 해도 아직까지 소국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마련과 상기문이 독립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가야와의 인접성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521년 단계에도 호남 동남부의 몇몇 세력은 백제에게 공납을 바치든가 하더라도 여전히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을 것이다(김태식 2010, 95-96쪽; 김태식 2008, 15쪽).

즉, 6세기 전엽에도 호남 동남부의 일부 세력은 백제의 영향하에 있었지만, 아직 지방관이 파견되어 군현으로 편제된 것은 아니어서 여전히 독립성을 유지한 간접지배 단계라고 볼



도 5 『양직공도』에 나타난 520년대 백제의 주변 소국 (김태식 2007)

수 있겠다.

백제의 정복활동이 이루어진 4세기대 근초고왕 단계 이후 6세기 전반까지의 영산강유역 고대사회는 백제와는 다른 독자적 정치체라기보다는 백제의 세력권 내에 포함되었지만, 그 지배력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었다. 지방관이 직접 파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간접지배이기는 하나, 직접지배로 전환하게 되는 과도기로 파악된다(김영심 2000, 320쪽).

예컨대, 고고학적 양상으로 보면 합천의 다라국이 대가야권에 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日本書紀』에는 다라국이 독자성이 강한 小國으로 표현되고 있어 좋은 참고 자료이다.

‘止迷’가 해남으로 비정된다면, 백제가 이 지역을 6세기 전엽까지 직접통치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해남반도에서 다수 발견되는 외래계 유물과 외래계 묘제 등이 어느 지역보다 다양하게 출토된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5세기 후반~6세기 전엽에 남해안에서 대표적인 국제교역항은 고성과 해남이라고 볼 수 있다. 고성은 가야 소국의 하나인 소가야의 중심으로 학술적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지만 해남의 정치체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다루지 못한 상황이다. 해남지역은 군곡리유적에서 유추되듯이 원삼국시대부터 국제교역항이었고 그 연장선의 마지막 단계인 6세기 전엽에 ‘止迷’라는 정치체로 문헌에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즉 군곡리 단계부터 국제항으로서의 역할이 정치적 부침을 거치면서 6세기 전엽까지 자치권이 유지되고, 다수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거나 자유롭게 교역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볼 수 있다.

본고에서는 ‘枕彌多禮’, ‘新彌國’, ‘止迷’ 3개 국명 가운데 가장 늦게 사용된 ‘止迷’를 대표

명칭으로 사용하고, ‘止迷’의 역사적 성격을 3단계로 구분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2. 港市國家 ‘止迷’의 역사적 변천

후술하겠지만, 港市國家는 해양교역을 통해 성장한 항구도시국가이다(권오영 2007: 230-233). 서구 학계의 交易場(交易港)과 港市國家 이론은 해남지역의 고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본고에서는 해남지역의 고대사회를 3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고고자료가 가장 풍부하고 ‘止迷’라는 국명이 사용된 6세기 전엽경(3단계)의 북일면 일원의 국제교역항과 항시국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 1) 1단계: 원삼국시대 군곡리 단계

고대에 해남지역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중국에서 한반도 서해와 남해를 거쳐 일본에 이르는 연안항로를 통한 해양 교류의 거점이라는 점이며, 연안항로는 고대사회의 교통에 매우 중요한 길이다. 卜骨·貨泉 등이 출토된 해남 군곡리 패총이나 半兩錢·낙랑토기·복골을 비롯하여 일본의 야요이토기가 집중적으로 출토된 사천 늑도 유적 등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원삼국시대 유적 출토유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최성락 1993, 김정철 2009, 김낙중 2015, 78쪽).

해남 군곡리패총은 기원전 1세기부터 기원후 3세기까지 지속된 원삼국시대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해남지역은 한반도 서남해변의 모서리에 자리 잡은 입지적 조건으로 요충지로서 기능을 발휘하게 된다. 즉, 서해안을 따라 倭에 이르기까지 연안항해를 할 때 남해안으로 꺾어지는 모서리에 해당된다. 군곡리세력은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한 관계로 한반도 서남해안의 기항지로서 번성하였을 것이다. 군곡리패총에서 출토된 新나라의 화폐인 貨泉의 존재가 교역의 중개지로서의 역할과 비중을 함축해 준다(이도학 1995, 330-337쪽).

강봉룡은 해남지역이 영산강유역 세력집단을 외부세계와 소통시키는 중심적 관문 지역 사회(gateway community)로 기능했을 것으로 보았다(강봉룡 2010, 15-16쪽).

전술한 바와 같이, 원삼국시대에 남해안 연안항로상에는 여러 거점 항구가 있었는데 그 중 사천 늑도 유적과 해남 군곡리유적이 당시 대표적인 국제교역항으로 볼 수 있다.

해남 군곡리 패총과 사천의 늑도 유적의 존속기간이 낙랑군의 존속 기간과 상당 부분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주목된다. 군곡리 패총에서는 출토유물 중에서 화천·복골·골제뒤꽃이·철기류 등은 중국과의 문물교류를 보여주는데, 군곡리와 늑도 일대에는 낙랑군이 주도하는 동북아 해상교역의 주요 거점포구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강봉룡 2006).

사천 늑도 유적은 삼각형점토대토기 다음 단계 이후로 점차 국제 교역항의 역할은 김해 지역으로 이동하고, 광개토왕 남정 이후 국제교역항은 김해에서 다시 고성으로 이동한다. 이렇듯 경남 남해안에서는 사천 늑도 → 김해 → 고성으로의 국제 교역항의 변동이 있다.

이에 비해, 전남 남해안에서 최대 국제교역항은 해남 군곡리 이래 해남 북일면에 이르기까지 해남지역에 머물러 있다는 특징이 있다. 해남지역은 영산강유역에서 이격되어 있지만, 전방후원형고분 등 왜계고분이 6세기 전엽에 밀집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남해안 거점항의 최대 고객은 선진문물을 수용하려는 왜인으로 볼 수 있다. 사천 늑도, 김해 양동리·대성동, 고성 송학동, 해남 북일면 일원에서 다수의 왜계 문물이 확인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접근해 볼 수 있다.

경남 남해안권에서 대표적인 국제 교역항이 이동한 것은 가야·신라·왜 간의 갈등관계와 무관하지 않다. 이에 비해 전남 남해안권에서는 해남에 최대 국제 교역항이 계속 존속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해남이 한반도의 서남쪽 모서리에 위치하면서 서해안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해상교통의 결절점이었기에 그러했을 것이다. 4세기 후반, 근초고왕의 남정이 있었지만, 백제의 해남반도에 대한 통제가 지속적이지 못하고 斷續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해남이 국제 교역항이었다는 특수성과 무관하지 않다.

경남 남해안에서 국제 교역항의 위치가 이동하는 것은 가야소국 간 혹은 신라·가야 등 정치체 간의 세력 다툼, 왜와의 상호관계 등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에 비해, 전남 남해안의 경우 백제를 제외하곤 유력한 배후 세력이 없었기에 해남지역이 그 역할을 지속한 것으로 보인다. 김해에서 고성으로 국제교역항이 이동한 것은 5세기 이후 신라의 낙동강하류역 장악과 안전한 국제교역항을 바라는 왜의 입장이 상호 맞물려 있다. 한편, 전남 남해안권에서 국제교역항의 중심이 해남에 한정된 것은 백제가 이 지역을 직접지배하는 6세기 중엽 직전까지 지속되었던 것이다. 즉, 백제가 해남지역의 국제항구를 통제하려는 노력은 했지만 백제의 직접지배 이전 단계에는 간접적인 영향력하에 머물렀기에 이곳은 자치적인 성격이 강한 港市國家, ‘止迷’로 존속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백제가 지미를 內地가 아니라 外方의 附庸國으로 파악(문안식 2007,

47쪽)한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겠다.

현재까지의 고고학적 성과로 보면, 군곡리를 중심으로 한 해남 현산·송지면과 옥녀봉토성이 있는 삼산면 일대에서 근초고왕의 남정 이전에 백제가 남쪽의 오랑캐(南蠻)라 일컫을 정도로 다른 지역에 비해 돌출적으로 성장한 정치체가 존재하였는지는 의문이다. 4세기 중엽 이전의 고고자료(군곡리 패총, 신금 취락 등)만으로는 의미있는 정치체 구분과 위상 설정이 어렵다. 다만, 읍락 단위의 규모로 해양 교류의 거점의 역할을 한 지역이 중국에 단위 정치체, 즉 新彌 등으로 인식되었을 가능성은 높다(강봉룡 1999). 4세기 중엽경에는 나주·영암 등 영산강유역 중핵지역과는 다른 형태의 3형식 전용옹관이 일찍 등장하여 지역색을 보이고 철정 등 철제품이 다수 부장되는 것으로 보아 삼산천·현산천 일대에 유력 정치체가 있었을 가능성은 높다. 4세기 중엽 이후 영산강유역에는 전형 전용옹관과 제형분이 더욱 발달하는 것에 비해 해남·강진 일대는 저조한 모습이다. 이는 백제가 가야 및 왜와의 통교에 필요한 거점으로 이 일대를 확보하여 영향력을 확대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 때문에 자체적 고분문화는 영산강유역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대신 가야-서남해-중서부 해안지역을 잇는 교류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그러한 흔적은 철정 등에 남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렇게 본다면 해남반도 서부 지역이 침미다례의 유력한 후보지가 된다(김낙중 2015).

상기한 견해를 참고하더라도, 해남반도의 1단계 중심지는 군곡리패총이 자리한 현산천 일대로 볼 수 있다. 다른 권역과 달리 4세기대부터 6세기 전엽까지 지속적으로 가야·신라·왜계 등 외래계 문물이 확인된다. 예컨대, 현산천 유역의 분토유적은 3~5세기에 걸쳐 장기간 조성된 취락과 함께 토광묘·옹관묘·석곽묘·석실분 등 3~6세기까지 고분이 확인된다(이정호 2013, 39쪽).

6세기 전엽경에 해남반도의 해안에 면한 3개 권역(삼산천 유역/현산천 유역/북일면 일원)(도 6 참조) 가운데 삼산천 유역과 북일면 일대가 외래 거류민(특히, 왜계)의 흔적이 뚜렷하다. 후술하겠지만, 이는 기존 토착세력이 강했던 현산천 일대를 배제하고 새로운 지역에 港市를 설치·발전시키려는 백제의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한다. 그런 연유인지 삼산천 유역과 북일면 일대에서는 전방후원형고분이 확인되고, 현산천 유역에는 전방후원형고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삼산천 유역의 용두리유적과 북일면의 장고봉 유적 등의 전방후원형고분은 기존 토착세력의 유적과는 상당한 거리를 두는데 비해, 현산천 유역의 왜계 고분인 조산고분은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토착인의 생활·고분유적인 분토유적과 비교적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도 차별성이 보인다. 그리고, 현산천 유역의 조산고분 옆에는 용두리고분+옥녀봉토성이나 장고봉



고분+거칠마토성 등의 조합과 같은 동시기의 토성이 보이지 않는 점이 주목된다. 후술하겠지만, 전방후원형고분 옆의 토성은 백제 영향하에 있던 전방후원형고분의 피장자와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에서 현산천 유역에 대한 백제의 영향력은 삼산천 유역권이나 북일면 일원과 는 상이했을 것이다. 이는 원삼국시대 이래 5세기대까지 오랫동안 국제교역항의 중심이었던 현산천 유역 집단에 대한 백제의 차별적인 대우가 반영된 것이 아닐까 한다.

## 2) 2단계: 근초고왕 남정 이후 5세기대

369년 근초고왕 남정 기사에서 ‘남녘 오랑캐 침미다례를 도륙했다’는 표현은 백제가 침미다례 혹은 신미국으로 나타나는 전남 해안의 해남세력과 교섭했다기보다는 일정한 강압을 통해 대외교섭권을 박탈하고 이를 대신할 만한 교두보를 확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김태식 2007, 152쪽).

즉, 침미다례의 점령기사는 영산강유역의 세력집단에 대한 영토적 복속이었다기보다는 왜와 직접 교역을 할 수 있는 서남해안의 교역거점 확보의 의미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김영심 1997, 26-30쪽). 해남 현산면 일대는 백제가 가야나 왜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나야 하는 중요 거점이었기에 백제가 그 지역을 장악하고자 하는 욕구가 컸을 것이다(김영심 2013, 118쪽).

해남지역 정치체는 영산강유역에 분포하는 여러 나라를 대표하여 대외적인 창구 역할을 하였으나, 오히려 그것이 백제의 강습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sup>9</sup>. 해남지역이 4세기 후반 백제의 해상루트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백제의 직접지배를 받기보다는 자유롭게 해양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였을 것이다(최성락 2013b, 24쪽).

즉, 4세기 말~5세기대에는 백제와 고구려의 분쟁 때문에 백제의 해남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4세기 후반~5세기대에도 지속적으로 현산천 유역에서는 아라가야·비화가야계·신라계·왜계 등 외래계유물이 확인되고 있다. 이는 근초고왕의 남정이 있었더라도 일시적인 강습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일시적인 타격은 있었겠지만 4세기 말 이후 백제의 대고구려 전쟁 때문에 전남 남해안 일원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는 어려웠을 것이다.

<sup>9</sup> 이는 가야의 대외교역창구였던 금관가야가 400년에 신라·고구려에게 공략당하는 것과 같은 맥락 일 것이다.

4세기 후엽~5세기 전엽에 가야지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이 철소재인 鐵鋌이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현산천 유역의 분토 토광묘유적, 삼산천 유역의 농암 옹관묘·신금 옹관묘 유적 등에서 가야계, 특히 아라가야계 철정이 주로 출토되었다. 이러한 철정 출토 고분 유적의 성격을 보면, 근초고왕 남정 이후인 4세기 후엽~5세기대에도 두륜산맥 서쪽의 현산천 유역 및 삼산천 유역의 토착세력을 중심으로 대외교류가 번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강봉룡은 “침미다례를 도륙해서 백제에게 주었다.”는 것은 토멸한 침미다례 지역에 백제와 가야-왜를 연결하는 새로운 친백제 대안세력을 세웠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았다. 4세기 전반 군곡리패총이 폐기된 대신 백포만 권역에 위치한 현산면 고현리 일대가 새로운 거점포구로 대두하였다는 것이다. 즉, 영산강유역이 백제 영토로 완전히 편입된 6세기 이후에 고현리 일대가 색금현의 치소로 편제되고 통일신라시대에 침명현으로 개칭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4세기 중엽 이후 고현리 일대가 군곡리 일대를 대신하여 새로운 거점포구로 대두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강봉룡 2006, 15쪽; 강봉룡 2010, 31쪽).

고현리 일대는 군곡리에서 좀 더 내륙으로 들어온 지역으로 가야와 신라계 유물이 다량 출토된 일평리와 지근거리이다. 한편, 군곡리에서도 5세기 전반대 아라가야계 유물이 출토되어 군곡리 일대 세력이 완전히 소멸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근초고왕 남정 기사에서 ‘南蠻’의 의미를 강조한 것은 침미다례가 백제의 공격을 받았다고 해도 독립적인 국가로 계속해서 남아있을 가능성 때문이라는 견해(김수태 1999, 81쪽)는 주목할 만하다. 즉, 백제에게는 지속적으로 불편한 존재였기에 ‘南蠻’과 ‘屠戮’이라는 표현을 했다는 것이다(김영삼 2013, 121쪽).

영산강유역 ‘신미제국’의 Gateway Community(관문 지역사회) 역할을 해온 군곡리 일대 ‘신미’세력의 백제에 대한 저항은 유난했다(강봉룡 2006, 15쪽). 이는 그만큼 침미다례는 특별한 존재를 의미한다. 즉, 항구도시이자 국제 교역항으로서 이권이 많았던 곳이기 때문일 것이다.

근초고왕 남정 이후에 다소 주춤했던 해남세력은 5세기대에는 다시 토착세력 주도의 자치적 국제교역항으로 거듭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4세기 말부터 5세기대에는 대고구려 전쟁 때문에 백제가 영산강유역에 대한 통제가 약화된 것과 맞물린다.

군곡리 세력의 쇠퇴 이후, 삼산천 유역에는 5세기대 외래 문물이 보이지 않고 고현리·일평리 일원의 현산천 유역에서 다수의 외래계 유물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 일대가 중심

지로 계속 존속한 것으로 보인다. 일평리 일원에서는 가야·신라계유물 외에도 백제계 평저 단경호(도 3-7)도 출토되어 주목된다. 즉, 5세기대에 해남의 현산천 유역 교역항을 통해 백제-가야-왜의 교류가 이루어졌고, 백제의 해남 교역항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 3) 3단계: 동성왕대 이후 6세기 전엽 - 港市國家 ‘止迷’ -

‘지미’라는 국명은 전술한 바와 같이 6세기 전엽에 해당한다. 6세기 전엽경 고고 자료가 밀집한 북일면 일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2단계의 종말은 웅진천도 후 백제가 다시 안정기에 접어든 이후일 것이다. 문헌상으로는 동성왕의 무진주 친정과 관련지어 검토할 수 있다.

『三國史記』 동성왕 20년(498년) 耽羅가 공물과 조세를 바치지 않는 것을 구실로 삼아 무진주까지 친정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무력시위로 백제가 영산강유역 세력과 다시 관계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된다. 이를 통해 동성왕은 서남해안과 영산강유역, 그리고 해남·강진 등 남해안의 해상권을 다시 장악하였을 것이다(김영심 1997, 박현숙 1998, 최성락 2013). 이 기사는 백제가 5세기대까지 영산강유역에 대하여 직접적인 지배를 시행하지 못했고 때로는 간접지배도 원활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1) 해남반도의 권역구분과 6세기 전엽 북일면의 고고학적 특수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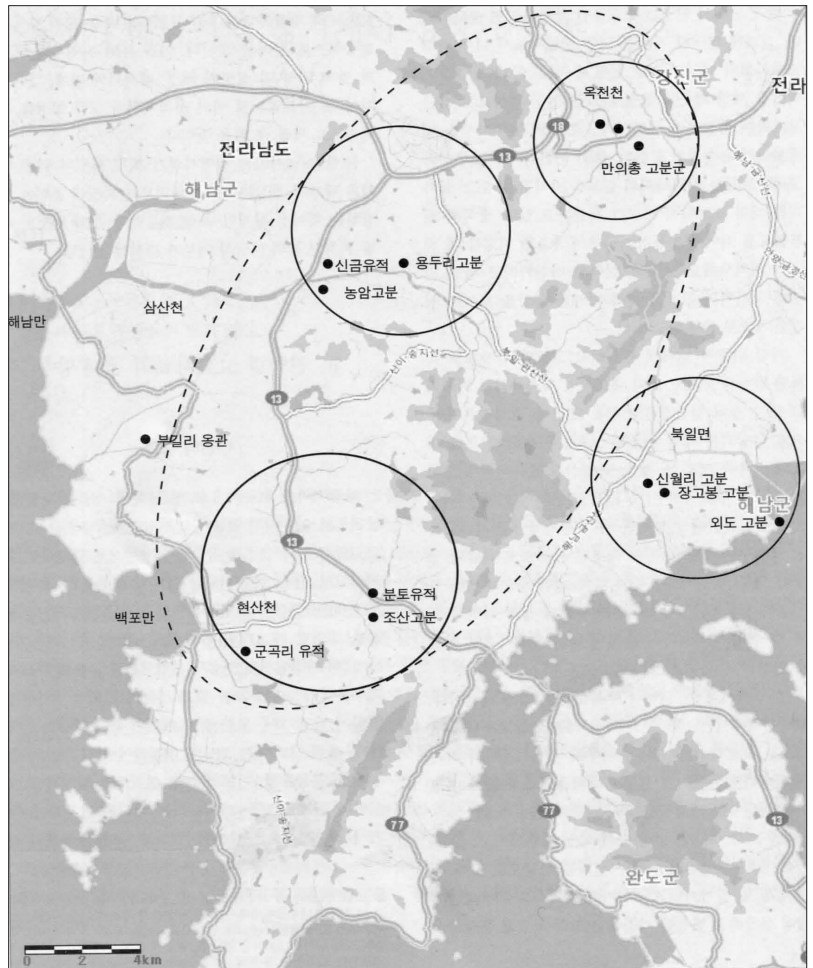
해남반도는 지형과 고분군의 배치로 볼 때 4개 지역군으로 구분된다(도 6). 삼산천, 현산천, 옥천천 권역과 두륜산맥 동쪽의 북일면을 포함하는 도암만 일원을 또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김낙중 2015, 57-58쪽).

동북쪽의 옥천천 권역에는 3기 이상의 원분으로 구성된 수혈식 석곽묘와 횡구식석실묘를 내부주체로 하는 재지수장묘인 옥천면 성산리 만의총고분군이 있으나 그 외 지역에는 왜계 고분이 분포하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박천수 2011, 205쪽).

권역을 살펴보면, 내륙에 위치한 옥천천권의 만의총에서는 가야계 유물이 보이지 않는다. 4세기대부터 6세기 전엽까지 가야·신라계유물이 지속되는 곳은 현산천권과 삼산천권이다. 이 중에서도 현산천 권역이 대외교류가 가장 활발하다고 하겠다. 이에 비해 북일면 권역은 4세기대의 교류양상은 보이지 않고 6세기 전엽에 가장 활발한 대외교류양상이 보인다. 북일면 권역의 특징은 다른 3개권역과 달리 하천을 끼지 않고 있고 4개권역 중 유일하게 두

륜산맥 동쪽에 위치하고 강진의 도암만과 접하고 있어 강진과도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어 6세기 전엽에 가장 중요한 국제교역항으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 무렵의 고분들과 토성들이 다른 권역에 비해 밀집도가 높다.

나머지 3권역은 하천과 바다를 끼고 있어 농업·어업·교역이 가능한데 비해, 북일면 일원은 서북쪽이 두륜산 줄기에 바로 막혀 있는 해안지역으로 농경지 등 토지에 바탕을 둔 생산기반이



도 6 해남지역 주요 유적 및 권역 구분 (김낙중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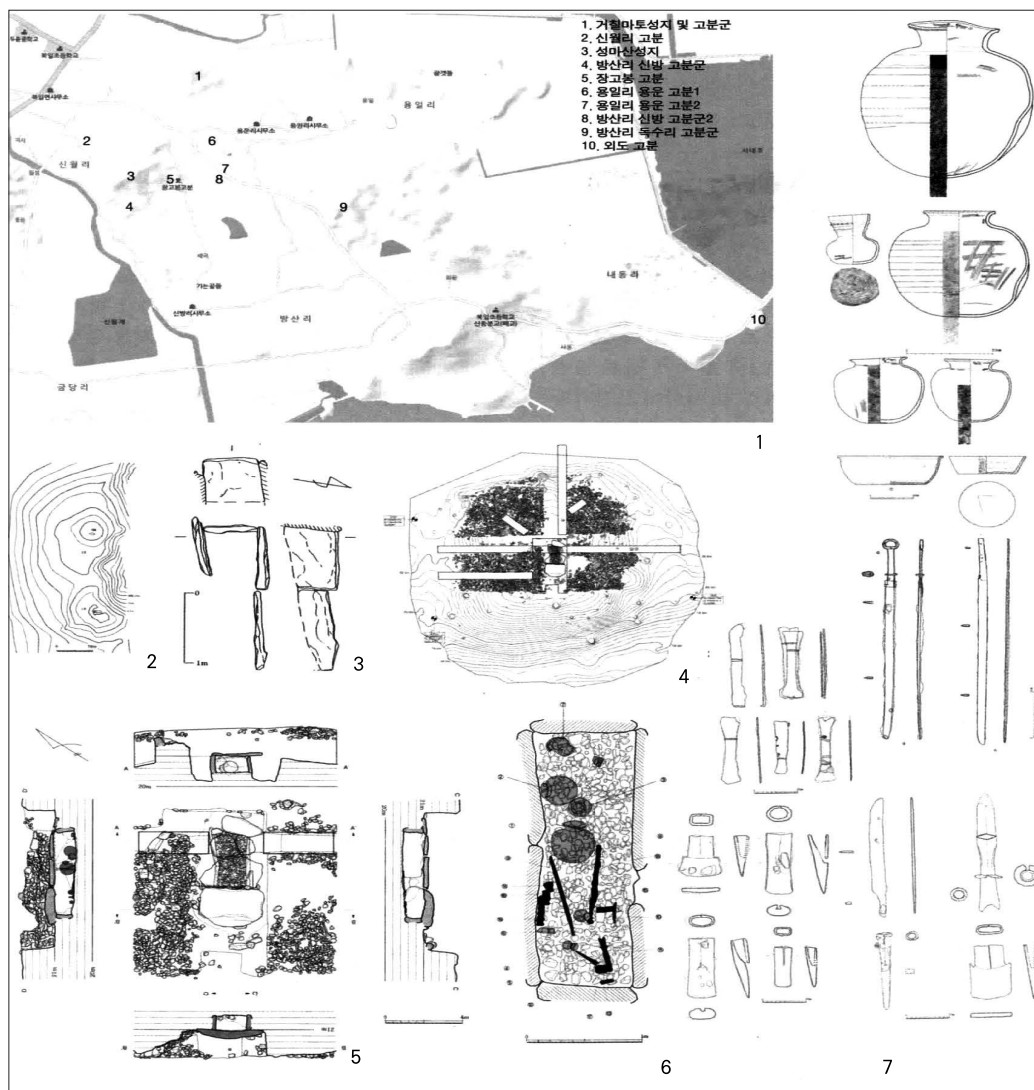
취약한 반면 완도 청해진과도 연결되는 해로가 열려 있어 해상교통에 근거한 세력이 성장할 수 있는 지역이다(김낙중 2015, 60쪽). 실제로 1918년 북일면 일원의 지형도를 보면 거칠마토성 바로 앞까지 해안선이 위치하고 모든 고분이 해안선에 위치한 특별한 공간이다.

이와 같이 북일면은 해양을 떠나 존재할 수 없는 집단이다. 해양 교류의 거점이자 국제교역항이며, 6세기 전엽 ‘지미’의 핵심지역으로 볼 수 있다. 즉, 동성왕의 영산강유역에 대한 지배 강화책의 일환으로 남해안의 국제교역항을 두륜산맥 서쪽에서 두륜산맥 동쪽으로 이동시켜 새로운 거점항구(港市)를 마련했을 가능성이 높다. 삼산천 유역과 현산천 유역에도 외래계 문물이나 왜계 고분이 있어 항시로서 기능을 했겠지만 항시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는 공간을 종래 토착세력이 미약하던 북일면 지역에 설치함은 백제의 남해안 국제교역항 통제

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북일면 일원에 6세기 전엽의 왜계 고분 및 토성들이 밀집되고, 가야·신라 등 외래계 유물이 확인되는 것은 국제교역항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요컨대, ‘지미’의 핵심 항구로 조성된 북일면 일원은 지정학적으로도 강진만에 연하고 있고 전시대부터 농경이 발전하지 않아 토착 세력이 미약했던 새로운 교역항이다.

즉, 북일면 일대에서는 영산강유역에서 유행한 제형분과 옹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반면, 6세기 전엽의 다수의 고분이 존재한다. 즉 방산리 장고봉고분을 위시하여 용일리 파괴석실분 및 신월리, 용일리 용운고분군, 용일리 파괴석실분, 방산리 고분군, 방산리 신방석실분,



도 7 북일면 일대 고분 및 성곽 분포도 (김낙중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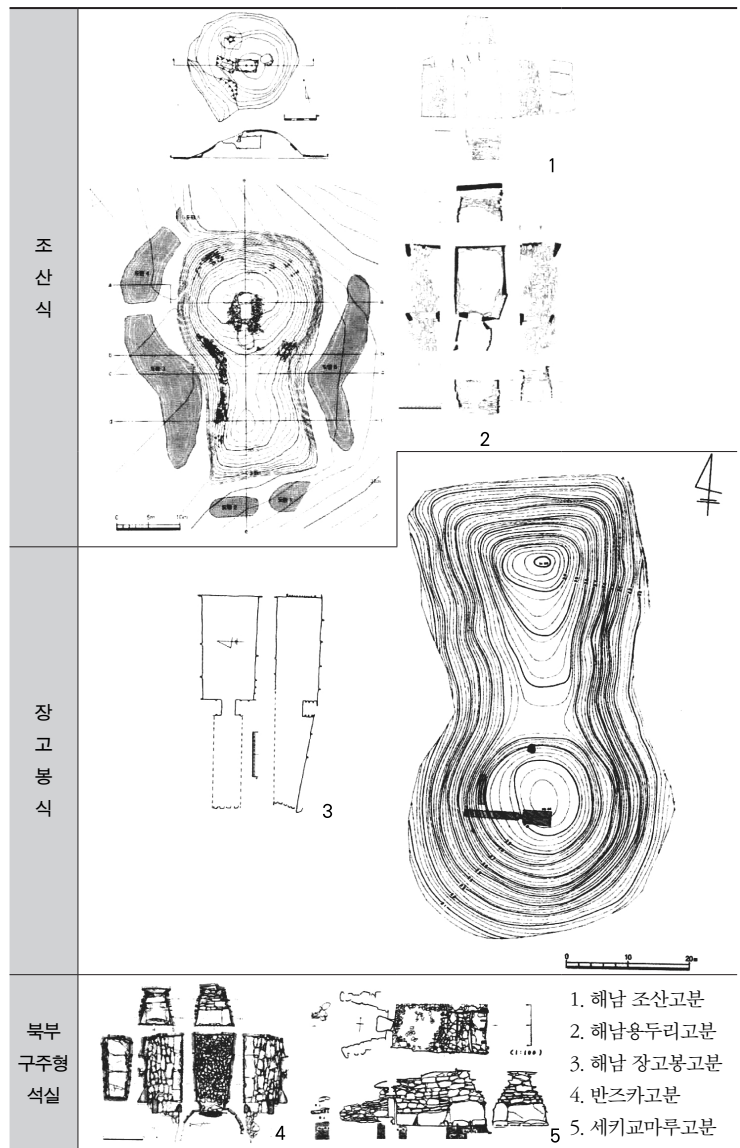


독수리봉고분, 외도 고분 등 7개소의 고분(군)이 바다로 둘러싸인 작은 반도를 한 권역으로 하여 모여 있다(도 9). 고분군과 인접하여 존재하는 거칠마토성은 6세기 전엽에 해당하며 호족거관으로 추정되며, 장고봉고분이 한반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전방후원형고분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김낙중 2015, 60쪽)(도 7).

이러한 고고학적 특징들을 고려하면, 북일면 일원은 6세기 전엽까지 특정 고대국가에 소속되지 않은 독자성이 강한 정치체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즉, 6세기 전엽에 해당하는 다수 외래계 고분과 토성이 북일면 일대에 집중하므로, 이 지역은 港市國家 ‘止迷’의 중심지로 볼 수 있다.

해남반도의 4개 권역 중 3개 권역에서 왜계 고분이 6세기 초엽에 등장함은 웅진 천도 후에 안정기에 접어든 동성왕·무령왕대 백제의 해남 지미세력에 대한 통제책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본다. 특히, 5세기대까지 남해안에서 최대 국제무역항이자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한 기존 현산천 유역의 해상 세력에 대한 견제책으로 북일면 일원에 친백제 왜인을 활용하여 새로운 교역거점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남반도의 장고산·조산·용두리 고분은 북부규슈계, 히고(肥後)계, 발전계로서 각기 계통을 달리한다.



도 8 해남지역의 전방후원형고분과 영산강유형 석실(김낙중 2015)



이와 같이 인접한 전방후원분에서 상호 계통을 달리하는 석실이 분포하는 것은 백제가 파견한 왜인이 상호 연계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출자를 달리하는 집단을 분산시켜 독립적으로 배치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박천수 2011, 238-239쪽)(도 8).

상기한 바와 같이, 6세기 전엽에 해남반도에서 가장 강력한 지역공동체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일면 일대의 고고자료는 영산강유역 중핵지역의 그것과는 차별성이 존재하며 고분의 규모나 부장품에서 대등한 점이 있다(김낙중 2015, 78쪽).

이렇듯 6세기 전엽경에 해남반도가 영산강유역 중심부와 차별성이 보인다는 것은 독립성·자치성을 갖는 국제교역항이자 港市國家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즉, 영산강유역과 달리 국제교역항으로서의 해남지역은 특별한 지역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해남지역이 6세기 전엽 즉 520년대까지 방소국으로 알려진 것은 국제교역항이자 항시국가인 '지미'의 독자성과 자치권이 많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서구 학계의 교역장(교역항)과 항시국가 이론은 해남지역의 고대 사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 (2) 交易場, 港市, 港市國家<sup>10</sup>

“교역장은 전근대 시기에 외국 무역상들이 원거리 상업활동을 하면서 교환과 거래를 위해 만남의 장소로 활용한 마을과 도시라고 정의된다. 교역은 양자 사이의 협약에 기초해서 성립되고 현지의 토착권력이 조직한 특별기구에 의해 관리되었다. 서구 학계의 交易場 이론을 살펴보면, 고대의 교역장이 근대 이후의 시장 원리가 아니라 자체의 논리에 따라 작동하였으며 정치적으로는 중립지대였다고 한다. 중립적인 교역장이 참가자들을 안심시킴으로써 적극적인 교역활동을 보장했다는 것이다. 교역장은 전세계적으로 존속한 제도였다. 교역장은 주로 해안이나 큰 강의 유역에 주로 설치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종교시설이나 약한 정치권력 같은 비군사적 방법으로 이방인들의 재산과 생명이 보호되었고 하역과 선적·저장·운송 등의 용역 공급이 보장되었다.”(김창석 2013)

한편, 港市는 항구도시에 해당되는데, 항로연안에 건설된 교역중심에 대한 명칭이다. 항시국가는 해양교역을 통해 성장한 항구도시국가이다. 동남아시아의 메콩강 하류를 무대로

10 교역장, 항시국가에 대한 내용은 각기 김창석(2013)과 권오영(2017)의 글을 주로 인용하였음을 밝혀둔다.

발전한 扶南이 전형적인 항시국가로서 옥 에오는 핵심적 항시였다. 동북아에서는 김해·사천·쓰시마·이키·카라츠·이토시마·후쿠오카 등이 이에 해당한다(권오영 2017, 230-233).

이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고대 사회에서도 여러 港市들을 거론할 수 있지만, 본고에서는 해남반도의 ‘止迷’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3) 교역항의 대리인 - 해남반도 왜계고분 피장자의 성격

“교역항은 대부분 해안의 소왕국이나 지역수장들의 연합체처럼 정치적으로 미성숙한 곳에서 발달되었다고 한다. 왜냐하면 고대사회의 이방인들은 군사적인 帝國에 복속된 지역을 회피했기 때문이다. 교역항은 배후에 있는 정치권력에게 있어서 주요한 수입의 원천이었으며 이 때문에 강력한 통치자라고 하더라도 외국 상인들의 왕래가 갑자기 중단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이에 대한 간섭을 자제했다. 대신 대리인을 통해 간접통제를 피했다”(김창석 2013, 77-78쪽).

“고대의 교역인들은 원거리를 여행하여야 하는 악조건 속에서 상품의 안전한 거래를 확신할 수 없으면 이국의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 편의의 보급, 자신들의 재산과 생명 보호가 사전에 보장되어야만 한다. 교역장이 속한 정치체의 수장도 교역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외국의 상인들이 이곳을 떠나 교역이 중단되는 것을 막으려고 부심했다”.

“첫 번째 방책 가운데 주목되는 것이 교역장을 중립화하는 방식이다. 교역장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혹은 지역집단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그 정치체는 교역장의 운영에 직접 간섭하지 않고 대리인을 파견하는 등 간접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특정국가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여지를 줄이기 위해 그 정치체 출신이 아닌 외국인이나 중립적 인물을 파견하는 것이다.” (김창석 2013, 90쪽)

상기한 내용을 해남반도에 적용해 보자.

먼저, ‘6세기 전엽 해남반도의 교역항이 속한 정치체’는 백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6세기 전엽 백제의 해남지역에 대한 영향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즉, “해남군 용두리고분에서는 10점 정도의 스에키와 함께 중국 남조산 대형 錢文陶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전문도는 서울 풍납토성과 몽촌토성에서 다수 출토되고 백제 지방의 수장들에게 중국 도자가 분여된 것으로 볼 때 전방후원분 피장자가 독자적으로 할거한 것이 아니라 백제의 위 제품 체계내에 속한 것을 알 수 있다”(박천수 2011, 232쪽).

다음으로, ‘교역항의 대리인’ 문제를 다루어 보기로 한다. 국제교역항인 해남에 대한 직접 지배는 어려우므로, 백제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로 당시 남해안의 최대 교류·교역국이자 친백제 세력인 왜인을 대리인으로 삼아 해남지역을 통제하려고 했다고 판단된다.

즉, 당시 백제는 한반도 남부 국제교역항의 최대 고객인 왜인들을 고려하여 친백제 왜인을 대리인으로 세우고 남해안의 해상교역권을 통제하고자 하였다. 교역을 위해 한반도 남해안에 온 왜인들은 백제를 통한 중국 선진문물의 수용을 위해 한반도 남부에서의 거점 항구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와 함께 선진문물을 왜 본국에 전달하여 이권을 얻고자 하였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해남반도는 4개 권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비교적 내륙에 위치한 옥천천권을 제외한 세 개 권역에는 대형 왜계 고분이 하나씩 분포한다.

즉, 6세기 전엽에는 조산(현산천 유역)/용두리(삼산천 유역)/장고분(북일면) 고분 등의 3개 수장권으로 구분되고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북일면 장고분 부근에 왜계고분이 밀집되어 있다. 따라서 6세기 전엽의 지미의 중심지는 북일면 일원으로, 여러 항시 읍락 중 국읍격에 해당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해남반도의 왜계 고분의 등장은 동성왕의 무진주 친정 이후에 남해안에 대한 통제책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 가운데 한반도 최대의 전방후원형고분과 왜계고분이 가장 밀집된 곳이 해남 두륜산맥 동쪽의 북일면 일원이다. 북일면 일대에 6세기 전엽경 갑자기 왜계고분이 등장함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해야 한다. 친백제 왜인을 파견해서 별도의 교역항을 마련한 것은 다시 강해진 백제가 남해안 교역권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자 한 의지로 보인다. 북일면 일원은 종래 농업생산기반이나 관련 고분이 없던 지역으로, 토착세력의 기반이 강한 현산천 유역(백포만)이나 삼산천 유역권과는 다르다.

6세기 전엽에 갑자기 출현하는 왜계고분은 동성왕대 이후 백제의 영산강유역에 대한 친백제 왜인을 이용한 거점적 지배방식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6세기 전엽에 북일면 지역에 갑자기 왜계 고분과 관련 성들이 축조됨은 동성왕 이후 종래 통제가 쉽지 않았던 간접지배 단계의 두륜산맥 서쪽의 유력 세력, 특히 현산천 유역권의 교역권을 약화시키고 토착 기반이 약한 북일면 지역으로 교역의 중심지를 이동시키고 당시 최대 고객이자 친백제세력인 왜인을 대리인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점에서, 5세기대까지는 국제교역항 ‘止迷’의 중심지가 현산면에 있었고 6세기 전엽에는 북일면 일대로 이동했을 것으로 보고 싶다. 북일면 일대로 이동한 것은 백제 동성왕

대 남진 정책과 관련되며 백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즉, 토착세력의 영향이 약한 두륜산 맥 동쪽의 북일면에 새로운 국제항구를 개설한 것이다.

요컨대, 498년 이후 ‘지미’단계에는 해남반도에 자리한 국제교역항에서의 해남 토착세력의 영향력은 매우 약화되고, 왜인을 통한 백제의 통제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외국 상인들의 자유로운 교역을 위해 일정 기간의 과도기(6세기 전엽)를 두어 직접지배는 늦춘 것으로 파악된다.

즉, 백제가 6세기 전엽까지 영산강유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끼쳤지만 사비기에 전남지역에 대한 완전한 직접지배를 하기까지 국제교역항 ‘지미’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미룬 것은 국제교역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소규모 港市國家로 남겨둔 것으로 본다. 이 무렵에 남해안에서 해남반도만큼 왜계 문물을 포함한 가야·신라계 유물이 많이 확인되는 지역은 거의 없다.

해남(특히, 북일면)에서 여러 외래 상인들이 있었겠지만 가장 많은 비율을 점하는 집단이 왜인들이다. 이는 왜인들이 3~4세기대까지 김해를 통하여 얻던 선진문물을 광개토왕 남정 이후 영산강유역을 포함한 백제와의 교역을 통해 선진문물을 획득했기 때문이다.

백제는 4세기 후반대에 해남 일대에 해양 교역루트를 확보했지만, 5세기 이후 고구려와의 분쟁으로 남쪽에 대한 직접 통제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과도기에 해남반도의 역할을 더 크게 만든 것이 왜의 존재이다.

왜는 4세기대까지 금관가야를 통해 주로 선진문물을 취득했지만 광개토왕 남정 이후 금관가야의 쇠퇴로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된다. 즉, 왜는 5세기 이후에 소가야-영산강유역-백제 루트를 본격 개발하고 중국 남조의 문물을 직접 접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5세기 이후 남해안의 핵심 기항지, 특히 국제 교역항으로서 고성·해남이 중요한 거점으로 등장한다. 원삼국시대부터 중요한 거점 항구였던 해남은 왜의 선진문물욕구 때문에 5세기~6세기 전엽 무렵에 더 중요한 존재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해안에는 해남·고성 등을 포함하여 여러 倭人居留地가 있었을 것이며, 정착하는 왜인들도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앞서 거론한 해남 교역항의 대리인과 관련하여 다음 사료를 참고해보기로 한다.

『新撰姓氏錄』에 따르면, “...田道公이 백제국에 파견되어서 止美邑의 여성과 결혼하여 男持君을 낳았다...” 즉, 백제에는 ‘止美’라는 지명이 있었던 것이다. 止美는 백제의 땅이면서도 왜인이 파견되기도 한 곳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止美는 『梁職貢圖』 방소국의 ‘止迷’와 同地

로 파악된다<sup>11</sup> (이용현 2013, 300-302쪽).

倭系 古墳이 있으면서 ‘止迷’로 비정되는 곳은 해남지역이다. 기존에 해남을 포함한 영산강유역의 전방후원형고분의 피장자를 왜계 백제관료로 보는 견해가 제시된 바 있다(박천수 2011)<sup>12</sup>.

상기한 바와 같이, ‘止迷’는 백제 땅이면서 왜인이 파견된 곳이다.

田道公·男持君의 公·君은 전방후원분을 사용할 수 있는 수장급 세력이다. 당시 백제·왜간의 혼혈이 적지 않았을 것이며 백제에 파견된 왜인도 백제와 무관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본다면 전방후원분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백제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정서나 언어에도 익숙한 知百濟派 왜인을 최대한 이용했을 것이다. 백제 땅이면서 왜인이 파견되는 곳에 백제인과 왜인 간 혼혈인이 한반도에 정착한 경우, 왜계 묘제를 쓸수도 있으므로 영산강유역의 왜계고분에 대한 새로운 해석도 필요하다. 즉, 재지수장, 왜인 등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한다. 왜계고분이 모두 백제관료로 볼 수는 없고, 교역을 위해서 왔다가 현지에서 정주한 왜인이나 혼혈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토착인들이 왜인의 무덤을 모방한 경우도 가능하다.

영산강유역의 왜계고분의 피장자는 누구를 위해 봉사했을까? 순수하게 백제를 위해 봉성한 왜인도 없지 않겠지만, 왜와 백제에 양속하는 경우가 더 많았을 것(박천수 2011)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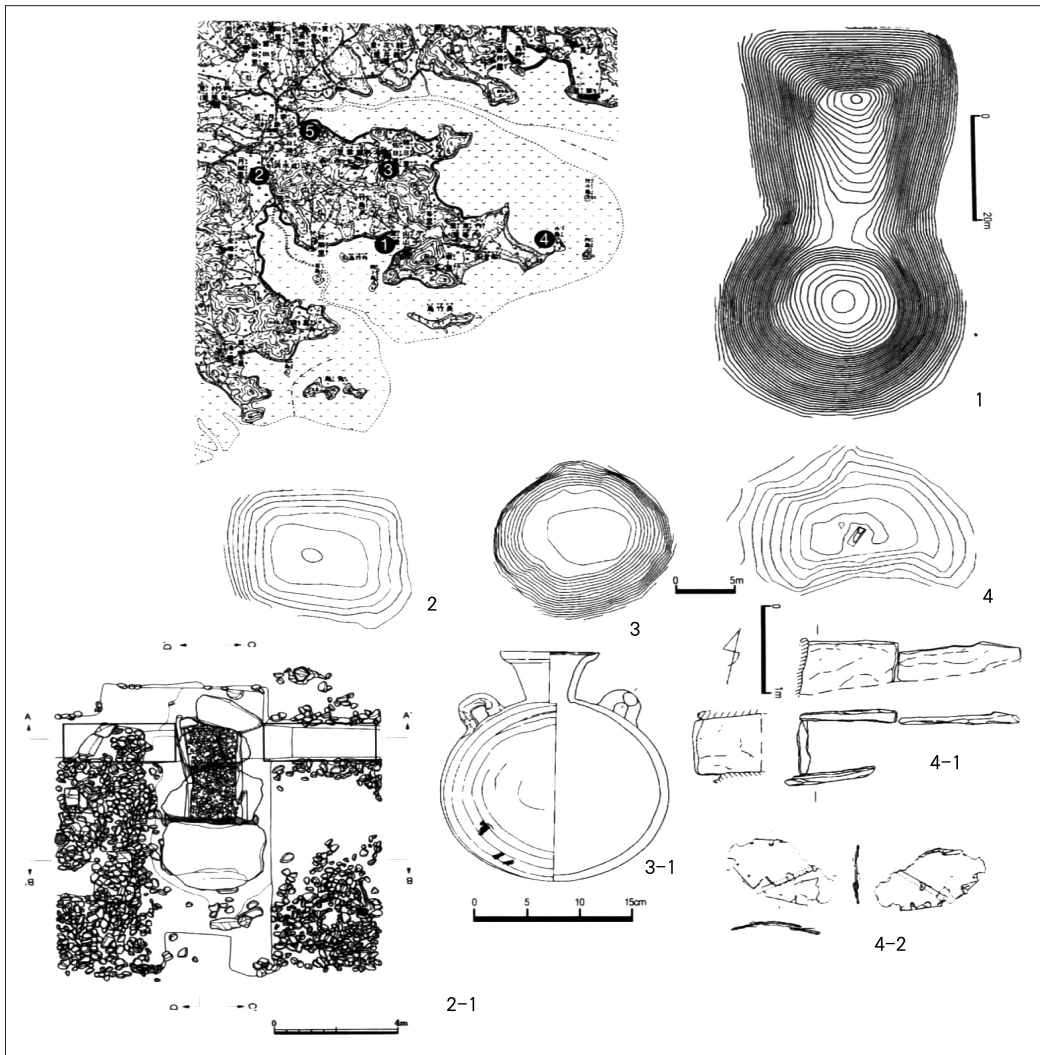
한편, 북일면 일원의 다양한 형식과 규모의 왜계 고분의 성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해남지역 고분은 각 권역간 고분의 양식과 함께 부장품의 계통적 차이가 현저히 나타난다. 또한 한권역 내에서도 묘제 양식이 상이하다. 예컨대, 북일면 장고봉고분 권역에서는 반경 1km이내에 분포하는 장고봉고분, 용운고분 2·3호분, 용일리 파괴분의 묘제와 유물상이 모두 다르다(도 9). 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할 수 있겠다. 6세기 전엽에 한정되어 시기차로 보

11 신찬성씨록이 설화로 전해지는 내용을 수록한 것이어서 정확한 연대는 불명이나 정황상 5세기 말 6세기 초로 보아도 무리가 없다.

12 박천수의 견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영산강유역 전방후원분 피장자는 북부 규슈에서 아리아케해 연안에 걸친 복수의 유력호족이 『日本書紀』 긴메이기에 보이는 왜계백제관료와 같이 왜왕권과 백제왕권에 兩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들은 백제왕권에 신속하면서 백제와 왜의 외교에 활약하며 그 선진문물을 출신집단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족의 군사력을 지원받는 창구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즉, 전방후원분 피장자는 출신 집단 뿐만 아니라 일본열도로 백제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는 창구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박천수 2011, 251쪽).





도 9 해남군 방산리 전방후원분과 주변의 왜계고분과 문물 (박천수 2011)

1: 방산리 전방후원분, 2: 신월리 방분, 3: 용일리 용운 1호분, 4: 외도 1호분

2-1: 신월리 방분, 3-1: 용일리 용운 3호분, 4-1, 2: 외도 1호분

기는 어렵다. 유력자와 하위묘제가 달랐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하위묘제로 분류할 수 있는 용운 2·3호분, 용일리 파괴고분의 3기 묘제 간에도 양식차이가 뚜렷하다(이정호 2013, 42-43쪽).

현재로서는 出自가 다르다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즉, 지미가 국제교역항이었기에 倭의 다양한 출신들의 사람들이 출입하고 활동한 흔적으로 파악되는 것이다. 요컨대, 해남반도는 원삼국시대부터 남해안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교역항이었고, 그러한 역할이 6세기 전엽까지 부침을 겪으며 이어졌는데 다양한 세력, 특히 선진문물을 얻고자하는 왜



인들의 활동이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가야·신라·백제·왜 등 다양한 세력들의 사람들과 문화들이 모인 곳이 해남의 정체성을 대변하며 이는 곧 국제항인 항시국가 ‘지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다만, 해남반도 세력들이 4세기 후반 이후에는 백제의 직간접적인 영향하에 있었다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고 하겠다.

#### (4) 교역항(항시)의 자치권

“아즈텍과 마야제국은 유카탄 반도에 있던 교역항을 이용했는데 이 항구들은 자치권을 갖고 있어서 帝國에 공물을 바칠 필요가 없었다. 한편, 16세기 인도 남서부의 Malabar 해안의 경우, 그 지배자는 외국 상인들에게 거주권과 자치권을 부여했다. 이들은 원주민과 분리되어 정해진 구역에서 살아야 했던 거류외인의 공동체지만 때로 면세 등의 특권을 누렸다. 이러한 집단과 조직이 고대로부터 18세기에 쇠퇴할 때까지 세계사에 보편적이었다”(김창석 2013, 75-92쪽).

이러한 교역항의 자치권에 대한 서구 이론을 참고해 보면, 『梁職貢圖』 ‘止迷’ 기사는 6세기 전엽경 백제에 附庸하지만 자치권이 있어 독자성이 강한 국제교역항 세력 즉, 항구도시국가(港市國家)의 모습이 아닐까 한다. 이와 같이, 고대사회에서 국제교역항이 자치권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남반도도 자치권을 갖고 있었기에 ‘旁小國’으로 기재된 것으로 보인다.

5세기대에 백제가 해남지역의 자치권을 인정해 주는 듯한 고고자료는 고흥 안동고분을 통해서 그 일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5세기 중엽경에 축조된 고흥 안동고분에서는 백제의 강한 영향력을 암시하는 백제계 위세품들이 확인되었다. 그런데 동시기에 해남에서는 백제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고총고분이 확인되지 않는다. 백제계 토기류만 간헐적으로 확인될 뿐이다. 남해안의 최대 거점항구가 해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백제가 국제교역항인 ‘止迷’에 정치적으로 통제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백제가 한성에서 고구려와 대치하고 영산강유역에 대한 직접지배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정치체들이 공유하는 독자성이 강한 국제 항구도시였기에 백제의 독점적 지배가 어려웠음을 암시하는 것이 아닐까? 5세기대 같은 전남 남해안에 위치한 고흥반도에 백제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위세품이 있는 것과는 달리, 해남반도에는 왜·가야·신라 등 다양한 국적의 유물이 출토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요컨대, 백제가 전남지방에 대한 완전한 직접지배 이전단계에는 해남의 국제교역항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할 수 밖에 없어 그 옆에 남해안의 해양거점(고흥반도 일대)을 별도로 마련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가 고흥반도에 교두

보를 마련하여 해남의 교역항 외에도 가야·신라를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 (5) 교역항(港市)의 부대시설

“교역항은 해로상에 위치하고 다른 도시들로부터 격리되었다. 부두·창고·숙소·행정용 건물 등을 갖추고 있어서 선박의 수리와 교체·육로수송·물품의 저장과 보관이 가능했고 상인에게 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諸國은 항구의 중립성을 확보하는데 민감했다”(김창석 2013, 75-8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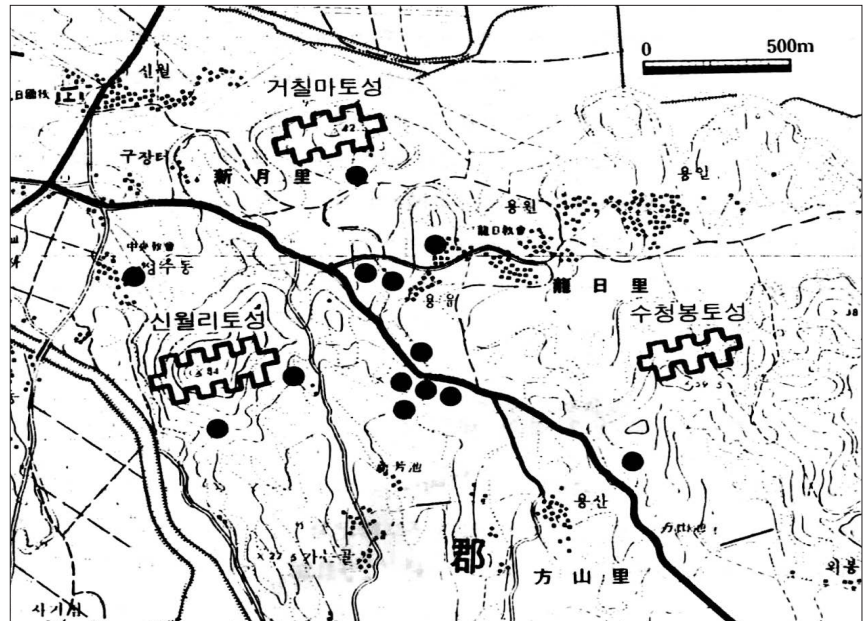
“港市에 거주하던 외부 상인들은 배를 띄우기에 유리한 계절풍을 기다리면서 장기 체류하게 되고 현지 주민의 습격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柵을 둘러 거주하게 된다. 항시에서는 외부인이라도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지만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권오영 2017).

상기한 교역품 보관 창고·숙소·행정용 건물·상인용 숙박 등 다양한 시설 및 방어시설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발굴을 통한 검증이 있어야 하겠지만, 현재까지 해남, 특히 북일면 일원에서 관련시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유적은 성곽(토성)이다.

북일면 일원의 비교적 좁은 공간에 신월리토성·거칠마토성·수청봉토성 등이 있고 주변에 많은 고분들이 분포하는데 영산강유역의 어느 지역보다 토성과 고분이 집중되어 있다(이도학 1995, 348)(도

10).

특히, 해남 거칠마토성은 채집되는 토기가 대부분 6세기 전반에 국한되고, 옛지형도상(간척 이전)에서 거칠마토성이 바다에 바로 인접하고 있어 장고산 전방후원분 피장자의 居館으로 추



도 10 북일면 지역의 성곽, 고분 분포도 (최성락 1987, 이도학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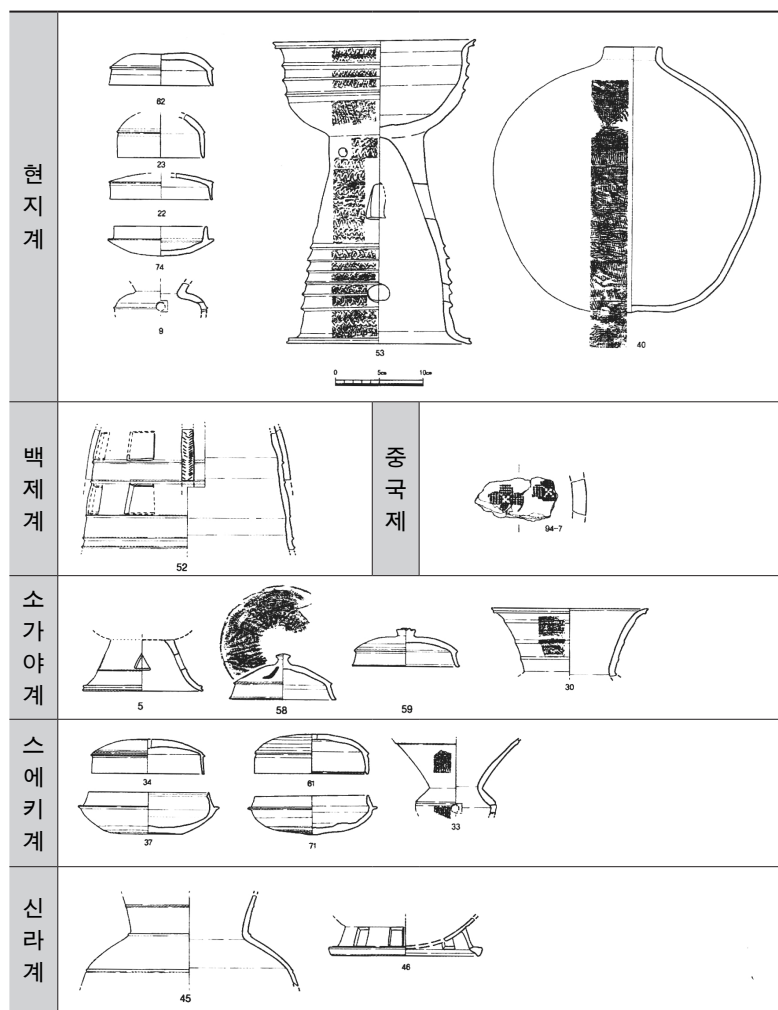
정한 바 있다(박천수 2007, 268쪽). 물론 거칠마 토성을 지역 수장의 居館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항시와 관련한 외부 상인들의 숙소나 창고, 행정용 건물을 보호하는 방어시설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남해안의 여러 교역 상인들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 장기체류하는 사람들이 원거리에서 온 왜인으로 본다면, 북일면 일원의 다양한 왜계 고분과 유물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북일면 이외 지역에서 전방후원형고분과 토성이 세트 관계를 보이는 곳이 삼산천 권의 용두리고분군과 옥녀봉토성이다. 용두리고분 일대가 간척 이전에는 유적 바로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왔다는 傳言을 고려해 보면 북일면보다 소규모이지만 삼산천 유역권에 港市가 존재했을 것이다. 용두리고분에서 가야계·왜계·신라계·백제계·현지계 등 다양한 계통

의 문물이 확인되는 것을 통해 보면, 국제교역항으로서 기능했으리라 판단된다(도 11). 같은 맥락에서 현산천 유역에도 6세기 전엽에는 종전보다 약화되었지만 항시가 잔존하고 있었을 것이다.

요컨대, 6세기 전엽에 두륜산맥을 경계로 동·서에 걸쳐 3개소의 港市가 존재했다고 판단되는데, 이러한 港市들을 포괄하여 港市國家 ‘止迷’로 칭해졌을 것이다. 물론, 그 중 백제의 후원하에서 가장 중심적인 항시는 북일면 일대로 볼 수 있다.



도 11 해남 용두리고분 출토 토기 계통의 다원성 (김낙중 2015)

이러한 항시들의 배후에 백제의 존재가 있지만 거점 국제무역항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자유 무역특구와 같은 지위를 인정받아 ‘旁小國’으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문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남반도의 고대 성곽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6) 港市國家 ‘止迷’의 쇠퇴

항시와 항시국가가 흥망성쇠를 밟게 되는 원인은 여러 가지인데, 내부의 정치적 변동·대외 관계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예컨대, 남월국이 漢에 의해 멸망하고 육로와 바다를 통한 교역 기능이 9군으로 이행하는 것이 대외관계라는 변수의 전형일 것이다(권오영 2017, 232쪽).

남월국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항시국가의 쇠퇴의 가장 큰 원인은 정치적 변동으로 볼 수 있다. 백제의 경우, 백제의 전남지방에 대한 완전한 직접지배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지미’는 자치권과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국제교역항으로서 6세기 전엽까지 유지되었지만, 530년경 이후 백제가 전남지역까지 완전한 직접지배를 실시한 이후에는 ‘지미’의 소국명은 소멸된 것으로 보인다.

해남지역에는 사비기 이후에 전형적인 사비유형 석실이 축조되지 않고 있어 이 지역 집단의 위상이 그리 높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백제가 6세기 전엽(529년) 섬진강을 통한 對倭 교역루트를 확보한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신안의 여러 섬에 사비기 백제 석실(안좌도 읍동, 장산도 도창리, 신의도 상태서리 상서 고분군 등)이 다수 축조된 점은 항해술의 발달로 연안항로만이 아니라 좀 더 먼 바다의 항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사정을 보여 준다(김낙중 2015, 73쪽).

이와 같이 방소국 ‘지미’의 종말은 국제관계 및 對倭 교역루트의 변화와 관련될 것이다. ‘지미’의 하한과 백제·가야·신라·왜 사이의 국제관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다음의 견해가 참고할 만하다.

즉, “대가야권(섬진강유역)으로의 진출이 마무리되고 530년경에는 안라지역을 놓고 본격적으로 신라와의 대결구도가 형성됨에 이르러 백제는 왜왕권과의 직접적인 교섭을 통해 이에 필요한 傭兵과 같은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한편 그 반대급부로서 중국남조문화를 독점적으로 공급하였다. 이는 영산강유역을 포함한 한반도 남부 군소세력과의 대외교섭을 통해 존립기반이 확보되었던 일본열도의 지역세력, 특히 구주세력의 불만을 고조시키게 되었고 그

결과가 527-528년 筑紫君 磐井(이와이)의 亂이었다. 磐井의 亂이 평정된 후 欽明朝는 직접 왕권이 미치는 屯倉을 각지에 설치함으로써 직접지배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고, 백제 역시 영산강유역을 포함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완전한 직접지배가 실현되었다. 이는 백제 ↔ 영산강유역 ↔ 구주세력 ↔ 왜왕권이라는 多核的 대외관계가 백제 ↔ 大和政權의 쌍방구도로 재편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박순발 2000, 149쪽)

6세기 전엽까지 해남을 포함한 영산강유역의 왜계 고분이 대부분 구주계인 점, 그리고 사비기에 해남 북일지역에서의 왜계(구주계)고분의 축조 중단 등 일련의 고고학적인 현상은 상기한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528년 이와이의 난 평정, 529년 백제의 섬진강하류역 진출 및 대가야의 국제항 帶沙(하동)의 확보 등의 여러 사건을 보면 530년경에는 백제중앙정부에 의한 해남반도 및 영산강유역에 대한 직접지배가 실현된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영산강유역에서 전방후원분의 종말시기와도 거의 일치한다.

백제 사비기에는 지방에 대한 지배를 강화하여 方·郡·城 體制라는 정연한 통치구조를 확립한다. 해남지역에도 城格에 해당하는 3개 현을 설치한 후 모두 과거 침미다례 공격의 전초기지였던 강진(道武郡)에 예속시킨다. 해남지역에는 縣만을 설치하여 강진에 예속시키고 있는 것은 독자적인 운동력을 박탈하기 위한 통치 형태로 해석된다(이도환 1995, 356-361쪽).

이와 같이, 사비기 이후 해남지역의 고고학적 양상이 뚜렷하지 않은 것은 항시국가의 독자성을 해체시키려는 백제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가장 오랜 국제교역항이었던 현산천 유역의 토착세력을 배제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IV. 맺음말

해남반도는 원삼국시대부터 남해안의 가장 대표적인 국제항이었고, 그러한 역할이 백제의 직접지배 직전인 6세기 전엽까지 부침을 겪으며 이어졌는데 다양한 세력의 활동상과 그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즉, 가야·신라·백제·왜 등 다양한 세력들과 관련 문물들이 모인 곳이 고대 해남의 정체성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해남반도는 서남해안을 연결하는 돌출한 반도로서 원삼국시대부터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국제교역항으로 볼 수 있다. 원삼국시대에 해남반도의 중심지는 군곡리패총이 자리한 현산천 일대로 볼 수 있다. 4세기 후반 근초고왕 남정 이후, 해남지역이 백제의 해상루트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백제의 직접지배를 받기보다는 자유롭게 해양 교류를 통해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였을 것이다. 군곡리 세력의 쇠퇴 이후, 고현리·일평리 일원의 현산천 유역에서 다수의 외래계 유물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이 일대가 새로운 거점포구로 대두하였을 것이다.

4세기 후반~5세기 전반에는 아라가야 유물들이 해남을 포함한 전남 남해안 일대에 분포하고, 5세기 후반에는 전남 남해안권에 아라가야계 유물이 줄어들고 소가야계유물이 증가하는데, 이는 백제·영산강유역·가야·일본과의 교류 중심지가 아라가야 권역에서 소가야 권역으로 이동하였음을 보여준다. 해남지역을 포함한 전남지역 신라계 유물은 대개 5세기 후반~6세기 전엽에 해당하며, 소가야 유물과 공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신라의 문물은 소가야를 통해서 해남지역으로 전해진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소가야의 배후에 대가야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5세기 후반~6세기 전반에 경남 고성에서 가야·왜·신라 문물의 집산지이자 국제 교류의 거점이듯이 그 무렵 전남 남해안에서 동일한 지위를 점한 거점 항구를 해남 일대로 보았다. 『晉書』의 ‘新彌國’, 『日本書紀』의 ‘枕彌多禮’, 『梁職貢圖』의 ‘止迷’를 동일한 정치체로 보고, 그 위치를 해남지역으로 파악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해남반도에서 6세기 전엽에 갑자기 등장하는 왜계 고분은 동성왕의 무진주 친정 이후 전남 남해안에 대한 친백제 왜인을 이용한 거점적 지배방식과 관련될 것이다.

6세기 전엽에는 해남반도가 현산천 유역, 삼산천 유역, 북일면 일원 등 3개 수장권으로 구분된다.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북일면 장고분 부근에 왜계 고분이 밀집되어 있으므로 6세기 전엽의 ‘지미’의 중심지는 북일면 일원으로, 여러 港市 邑落 가운데 國邑格에 해당한다. 백제의 대리인격으로 친백제 왜인을 파견해서 해남 북일면 지역에 별도의 교역항을 마련한 것은 백제가 남해안 교역권을 적극적으로 통제하고자 한 것이다.

백제가 6세기 전엽까지 영산강유역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끼쳤지만 6세기 중엽경 전남지역에 대한 완전한 직접지배를 하기까지 국제교역항 ‘止迷’에 대한 직접적 통제를 미룬 것은 국제교역장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소규모 港市國家로 남겨둔 것으로 보았다. 『梁職貢圖』 ‘止迷’ 기사는 6세기 전엽 백제에 附庸하지만 자치권을 가진 독자성이 강한 국제교역항 세력, 즉 항시국가의 모습이며, 고대사회에서 국제교역항이 自治權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해남반도도 자치권을 갖고 있었기에 『梁職貢圖』에 ‘旁小國’으로 기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 ::참고문헌

- 가와구치 요헤이·무라오 스즈무(최연식譯), 2012, 「항시 사회론-나가사키와 광주-」, 『해역 아시아사 연구 입문』, 도서해양학술총서25, 민속원.
- 강봉룡, 1999, 「3~5세기 영산강유역 ‘웅관고분사회’와 그 성격」, 『역사교육』69, 역사교육연구회.
- 강봉룡, 2006, 「고대 동북아 연안항로와 영산강·낙동강유역」, 『가야, 낙동강에서 영산강으로』(제12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김해시.
- 강봉룡, 2008, 「고대 동아시아 해상교류와 영산강유역」, 『고대 영산강유역과 일본의 문물교류』, (사)왕인박사현창협의회.
- 강봉룡, 2010, 「고대 동아시아 연안항로와 영산강·낙동강유역의 동향-4세기 이전을 중심으로-」, 『도서문화』36.
- 국립광주박물관, 1989, 「해남 원진리 웅관묘」, 『영암 와우리 웅관묘』.
- 국립광주박물관, 1990, 『영암 만수리 4호분』.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0, 『함안 도항리 고분군Ⅲ』.
- 권오영, 2017, 「狼牙修國과 海南諸國의 世界」, 『백제학보』제20호, 백제학회.
- 김길식, 2004, 「백제의 무기」, 『백제 문화의 특성 연구』, 서경..
- 김낙중, 2010a, 「영산강유역 웅관분에 부장된 금속제품의 성격」, 『영산강유역고분 I (웅관)』, 국립나주 문화재연구소.
- 김낙중, 2010b, 「영산강유역 고분 출토 마구 연구」, 『한국상고사학보』69호, 한국상고사학회.
- 김낙중, 2015, 「3~6세기 해남지역 정치체의 성장과 변동」, 『호남고고학보』51.
- 김미연, 2007, 「3-6세기 해남반도 고고학적 연구」,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민, 2007, 「영산강유역 삼국시대 철기의 변화상」, 『호남고고학보』27..
- 김수태, 1999, 「‘백제의 영산강유역 지배방식과 전방후원분 피장자의 성격’에 대한 토론편」, 『한국의 전방후원분』, 충남대학교백제연구소.
- 김영심, 1997, 『백제 지방통치체제의 연구-5~7세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영심, 2000, 「영산강유역 고대사회와 백제」, 『지방사와 지방문화』3-1.
- 김영심, 2013, 「문헌자료로 본 침미다례의 위치」, 『전남지역 마한 소국과 백제』, 학연문화사.
- 김정완, 2000, 「충청 전라지역 출토 철정에 대하여」, 『고고학지』제11집, 한국고고미술연구소.
- 김창석, 2013, 『한국 고대 대외교역의 형성과 전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김태식, 2007, 「가야와의 관계」, 『백제의 대외교섭』(백제문화사대계연구총서9), 충남역사문화연구원.
- 김태식, 2008, 「호남동부지역의 가야사」, 『전남동부지역의 가야문화』, 제36회 한국상고사학회 학술발표대회.

- 김태식, 2010, 「고대 왕권의 성장과 한일관계」, 『고대 왕권과 한일관계』(한일관계사연구논집 12), 경인문화사.
- 김형곤, 2002, 「화염형투창토기의 재인식」, 『가야문화』제15호.
- 남재우, 1997, 「포상팔국전쟁과 그 성격」, 『가야문화』10..
- 남재우, 2011, 「안야국에서 안라로의 변천」, 『고대 함안의 사회와 문화』, 2011년 아라가야 역사학술대론회, 함안박물관·함안문화원.
- 목포대박물관, 2010, 『해남 신월리 고분』.
- 문안식, 2007, 「고흥 길두리고분 출토 금동관과 백제의 왕·후제」, 『한국상고사학보』55호.
- 박순발, 2000, 「백제의 남천과 영산강유역 정치체의 재편」, 『한국의 전방후원분』, 충남대학교출판부.
- 朴天秀, 2004, 「大加耶と倭」, 『國立歷史民族博物館研究報告』第110集, 國立歷史民族博物館.
- 박천수, 2006a, 「임나사현과 기문, 대사를 둘러싼 백제와 대가야」, 『가야, 낙동강에서 영산강으로』, 제12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김해시.
- 박천수, 2006b, 「3-6세기 한반도와 일본열도의 교섭」, 『한국고고학보』61.
- 박천수, 2007, 『새로 쓰는 고대 한일교섭사』, 사회평론.
- 박천수, 2010, 『가야토기-가야의 역사와 문화-』, 진인진.
- 박천수, 2011, 「영산강유역 전방후원분에 대한 연구사 검토와 새로운 조명」, 『한반도의 전방후원분』, 학연문화사.
- 박천수, 2018, 「‘해남반도와 가야·신라의 교류, 그리고 항시국가 지미’에 대한 토론」, 『해남반도 마한 고대사회 재조명』, 2018 백제학회 국제학술대회.
- 박현숙, 1998, 「백제 사비시대의 지방통치와 영역」, 『백제의 지방통치』, 학연문화사.
- 서현주, 2012, 「영산강유역권의 가야계 토기와 교류 문제」, 『호남고고학보』42..
- 성정용·성수일, 2012, 「철정을 통해 본 고대 철의 생산과 유통」, 『한반도의 제철유적(주요유적 종합보고서Ⅳ)』,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 송태갑, 1999, 「해남반도의 고대사회와 대외관계」, 목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도학, 1995, 『백제 고대국가 연구』, 일지사.
- 이동희, 2013, 「아라가야와 마한·백제」, 『고고학을 통해 본 아라가야와 주변제국』, 학연문화사.
- 이성주, 2000a, 「고고학을 통해 본 아라가야」, 『고고학을 통해 본 가야』, 한국고고학회.
- 이성주, 2000b, 「가야사회의 변동과 국가형성」, 『동아세아의 국가형성』, 제10회 백제연구 국제학술대회.
- 이용현, 2013, 「梁職貢圖 止迷의 위치」, 『전남지역 마한 소국과 백제』, 학연문화사.
- 이유진, 2007, 『한반도 남부 출토 유공광구호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호, 2010, 「출토유물로 본 영동리고분세력의 대외관계」, 『6~7세기 영산강유역과 백제』, 국립문화

재연구소·동신대학교문화박물관.

이정호, 2013, 「만의총고분과 고대사회의 동향」, 『해남 옥천 만의총고분 국제학술대회』, 전라남도·해남군.

이주현, 2000, 「아라가야에 관한 고고학적 검토」, 『가야각국사의 재검토』.

이현해, 1988, 「4세기 가야사회의 교역체계의 변천」, 『한국고대사연구』1.

정주희, 2009, 「함안양식 고식도질토기의 분포정형과 의미」, 『한국고고학보』73..

정주희, 2011, 「4세기대 전남동부지역 출토 가야토기의 분포와 의미」, 『경북대학교 고고인류학과 30주년 기념 고고학논총』, 경북대학교출판부..

최성락, 1987, 「백포만 일대의 선사유적」, 『최영희선생회갑기념한국사학논총』..

최성락, 2013a, 「고고학에서 본 침미다례의 위치」, 『전남지역 마한 소국과 백제』, 학연문화사.

최성락, 2013b, 「해남지역 고대문화의 연구 성과」, 『해남 옥천 만의총고분 국제학술대회』, 전라남도·해남군.

하승철, 2014, 「전남서남부지역과 가야지역의 교류 양상」, 『전남 서남해지역의 해상교류와 고대문화』, 해안.

호남문화재연구원, 2003, 『나주 용호고분군』.

홍보식, 1998, 「백제와 가야의 교섭」, 『백제문화』27.

홍보식, 2006, 「한반도 남부지역의 왜계 요소: 3-6세기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44.

홍보식, 2007a, 「백제와 신라의 문물교류」, 『백제의 문물교류』, 백제문화사대계 10,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홍보식, 2007b, 「신라·가야권역의 마한·백제계 문물」, 『4-6세기 가야·신라고분 출토의 외래계 문물』, 제16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홍보식, 2008a, 「6세기 전반 가야의 교역 네트워크」, 『6세기대 가야와 주변제국』, 제14회 가야사국제학술회의.

홍보식, 2008b, 「문물로 본 가야와 백제의 교섭과 교역」, 『호서고고학』18.



